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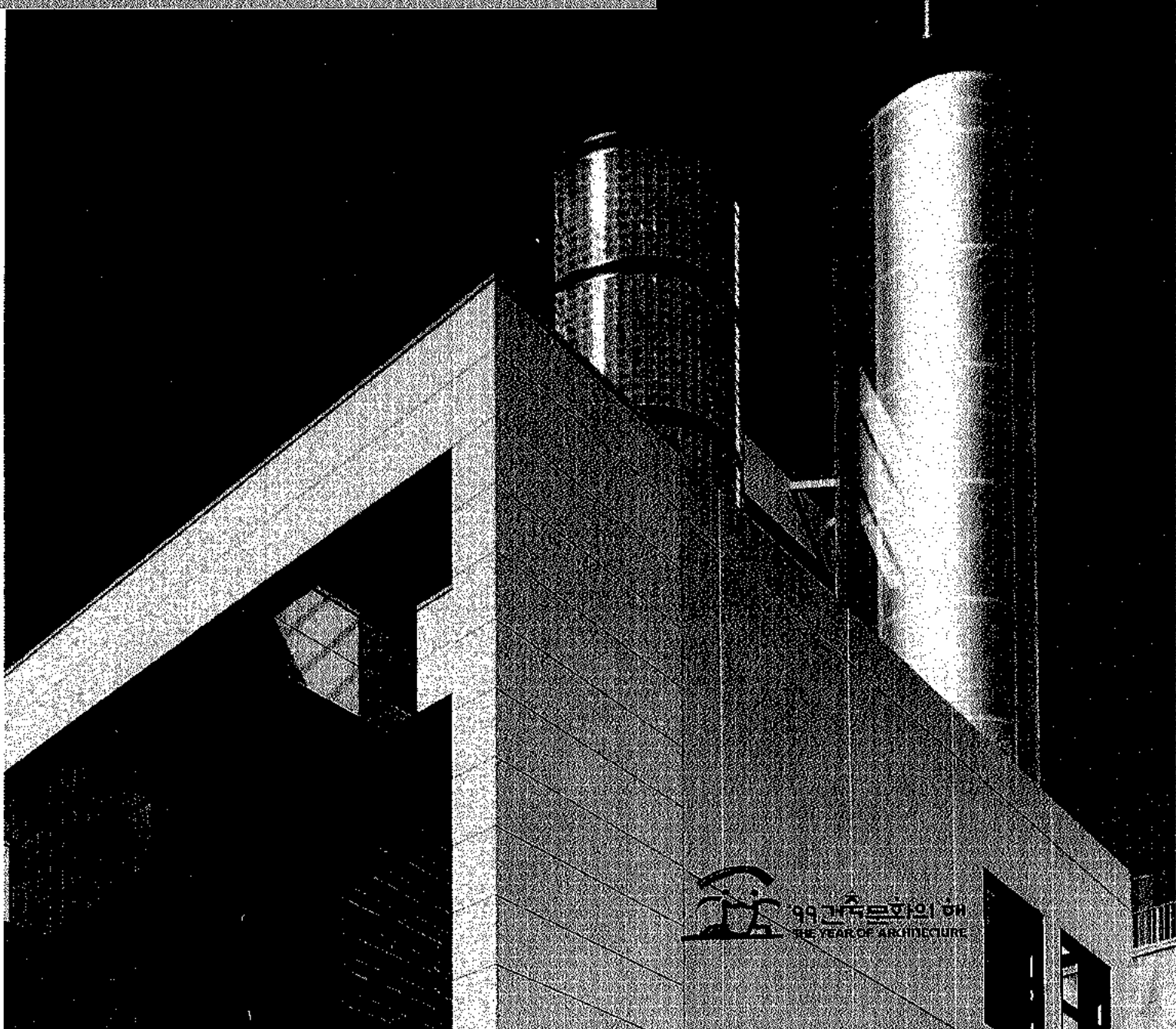
1999 1 vol. 357

신년사...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자

특집... 20세기 한국건축 재조망 (1)

작품리뷰... 주나코야 대한민국 통일사관

테마기획... 지역건축발달 - 춘천 강릉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건축전용 PAINTING 프로그램

ARCHI PAINT

ARCHI PAINT는 도면(평면도와 입면도)에 채색 및 다양한 효과를 입혀
건축물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조감해 볼 수 있도록 만든
2차원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ARCHI PAINT의 구성 및 특징

객체 편집기

- 다양한 Drawing Tool을 이용한 객체 생성 기능
- 생성된 객체의 수정 및 이동 기능
- 2000여가지의 다양한 건축DB(소재와 객체)와 브라우징 기능
- 내장된 DB의 다양한 소재(Texture)를 이용한 Mapping 기능
- 입체 효과를 위한 칼라그래데이션 및 그림자 기능
- 밑그림으로 BMP, DXF, DWG, JPG, TIFF 화일을 사용할 수 있음
- Drag & Drop을 통한 손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 Multi Copy 기능

페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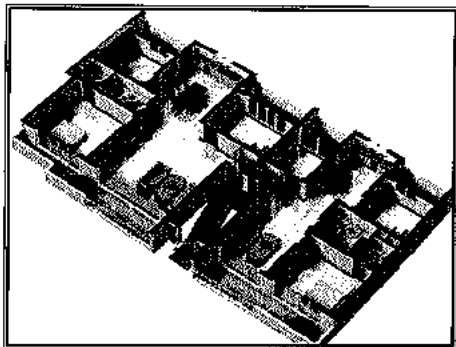
- True Color용 2D 페인팅 프로그램
-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벽돌이나 타일을 제작할 수 있는 Auto Tiler 제공
- Scanner 입력 기능 제공

데코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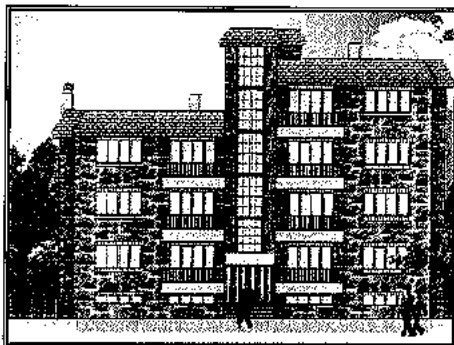
- 비트맵 화일들을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배치
- 화살표선과 설명을 붙일 수 있도록 Text 입력 기능 제공
- 다양한 출력용지에 따른 (A4-A0) 인쇄 크기 조정
- DB:비트맵의 형태로 입면과 평면을 위한 객체와 소재를 제공

입면, 평면도 칼라링, 30분에 O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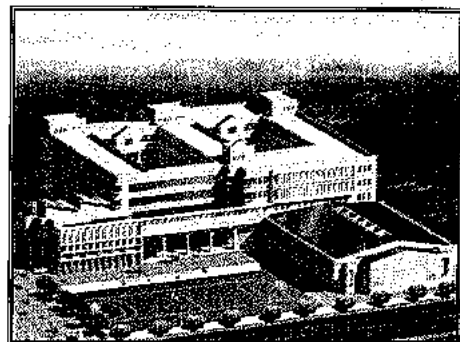
ARCHI PAINT 하나로 쉽고, 빠르게 !



■ 아파트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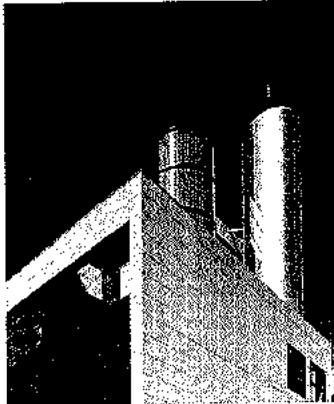


■ 건축물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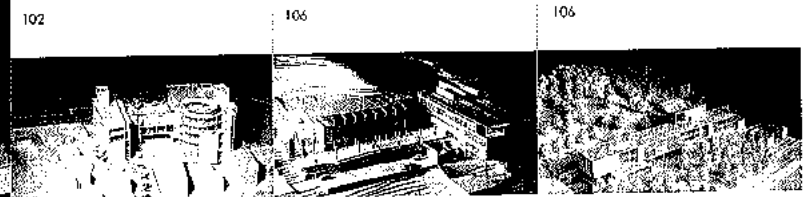


■ 투시도

차례 1999 01 357호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김춘웅+이원호 작)



발행인: 이의구
편집위원: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장양순(위원장), 김정희,
조인숙, 조현근, 최동규
편집·취재: 조한국, 윤대일,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천리안 ID: kirahead)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ung-Hwoi, Jo In-Soo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신년사	다시 알아서는 한 해가 되자	이의구	6
작품리뷰 / 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담: 장소성에 따른 공간구성과 표현 비평: 벽속에 감춰진 유리집	김춘웅+이원호 정무웅 이정수	8 17 25
특집 / 20세기 한국건축 재조명(Ⅰ)	20세기 건축의 건축사적 의미 20세기 건축의 변화와 흐름 20세기 한국건축의 유산과 교훈	김광현 성인수 김봉렬	32 37 45
회원작품	전문건설화관 경향학원 군포시민회관 에이스 테크노타워 아파트형 공장 광주D - 빌딩 슬럼버제 한국기술센터 흑석동 우소아과	(주)희림건축 (주)정림건축 김 호 오근석 한진수 이영수 주수일	50 52 54 56 58 60 62
작품노트	집을 잘 지어보고 싶었던 욕심	주대관	64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⑩: 춘천·강릉(상)	호반의 도청 소재지-춘천의 건축과 삶 건축을 담는 그릇, 조경 그리고 춘천 춘천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단상	편집디렉터/박경립 박경립 박봉우 한경구	68 73 79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1)	김미상	82
기고	공공건물에서의 장애인시설에 관한 설계	전병직	86
리포트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관기(Ⅱ)		92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게시판 현상설계 해외잡지동향 회원현황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95 97 100 102 111 117 118

Newyear Address

A Year of a New Start

Lee Eui-Koo 6

Review / Korean Consulate General of Nagoya

Kim Chun-Woong + Lee Won-Ho 8

Interview The Composition of Space and Its Expression According to Place

Jeong Moo-Woong 17

Critique Glass Office Surrounded by Defensible Walls

Lee Jeong-Soo 25

Special Feature / Looking Back on Korean Architecture in 20th Century(I)

The Meaning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Kim Kwang-Hyun 32

The Scope of the Architecture in 20th Century

Seng In-Soo 37

The Korea Architecture in 20th Century

Kim Bong-Ryol 45

Works

Korea Special Construction Center

Heerim Architecture & eng. 50

Kyeonghyang Educational Institute

Junglim Architecture 52

Citizens Hall of Kunpo

Kim Ho 54

Ace Techno Tower Apartment-type Factory

O Kun-Sok 56

Kwangju D-Building

Han Jin-Su 58

Schlumberger Korea Technology Center

Lee Young-Soo 60

Woo Children's Hospital of Heukseok-dong

Jugh Soo-Ille 62

Design Note

The Will to Build a Good House

Joo De-Kahn 64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10) - Chuncheon - Kangnung

The Architecture and The Life In Chuncheon

Park Kyung-Rip 68

Characteristics & Landscape of Chuncheon

Park Bong-Woo 73

An Anthropological Glimpse on Chuncheon

Han Kyung-Koo 79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1)

82

Feature

Design of the Equipment for the Handicapped in the Public Buildings

Jeon Byung-Jik 86

Report

Report on the ACA-8(II)

O Kun-Sok 92

Architects Plaza

KIRA News

95

Archi-net

97

Bulletin Board

100

Competition

102

Overseas Journal

111

Members

117

Statistics

118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6) · 광복구건축사회(03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6) · 노원구건축사회(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5026) · 다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9)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38-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9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8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미지역건축사회(0343)563-2337 · 구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6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241-793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9-2909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1)66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8)835-0545 · 포항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9)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3-73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531-8706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508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1)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 573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859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5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시지역건축사회(065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6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1)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0)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시지역건축사회(0572)634-36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3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3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기창지역건축사회(0598)943-608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8644 · 다함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83)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9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6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1)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2-2233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자

A Year of a New Start

이의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戊寅年) 한 해를 보내고 기묘년(己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벅찬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지척이건만 우리들 마음 한편에는 흑독하고 긴 겨울추위와 시련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그 누구도 작금의 IMF한파가 몇 년이나 갈지, 언제 끝날지 예단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연쇄도산과 실업률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

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충분한 저력이 있습니다. 6·25전란의 폐허를 딛고 세계 유수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서기까지 눈부신 성장의 시대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세운다는 각오와 결의로 굳게 뭉친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점차 회복될 기미는 보이나, 실업률의 상승과 민간부문의 투자감소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져 건축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WTO출범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으로 설계서비스분야는 2천년부터 완전개방됨으로써 그야말로 건축사업계의 어려움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건축사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키고 건축사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도 없이 규제완화를 내세워 건축사의 협회 가입의무 폐지 및 복수단체의 설립허용 등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막대한 고통은 피해 갈 수도 없고 또 피해가서도 안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맞서 이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끌며 머뭇거리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안이한 자세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만큼 스스로의 능력과 체질을 강화해 똑같은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협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시스템을 동원하여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봉사하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건축경기의 침체로 회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원의 회비수입에 의존하던 관행

에서 벗어나 협회가 재정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조조정을 통하여 운영기반을 내실있고 견실한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회원 서비스에 역점을 두어 "봉사하는 협회"가 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로,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로써의 건축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축이 모든 문화생활의 바탕이며 인류 문화유산이 된다는 기본이념 아래 다양한 건축문화 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치루어 건축의 인식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셋째로, 한국건축을 세계에 알리고자 올 9월중 서울에서 '아카시아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시아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국제행사를 통해 외국의 저명한 건축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기술, 전통, 건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가간 건축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우리 건축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이 밖에도 당면현안인 협회 임의화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건축 및 건축사관련 각종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대비한 실질적인 회원권익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회원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복수단체 설립 허용과 임의가입 추진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 우리 건축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협회에 불만을 가졌던 일부 회원들이 유사단체의 설립을 거론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로 이는 그동안 우리 협회가 이들 소수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지 못해 야기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협회는 다양화, 다기능화 되어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로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호시탐탐 우리의 업역을 넘겨다보는 외부세력이 상존해있는 현실에서 내부개혁을 해 보지도 않고 각자의 이해대로 분열한다면 이는 곧 건축계의 "공멸(共滅)"을 자초하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그동안 정부가 전문성있는 민간단체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시금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응되어 소아적 이해에 휩쓸려 분열을 일삼으며 전체를 와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건축인 모두는 소모적인 내부의 갈등을 억제하고 힘을 한 곳으로 모아 과거의 가식과 허위를 걷어내고 다양성을 모색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목표로 우리 건축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야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대한 민족은 생사가 걸린 시련을 국민적 단합으로 대처함으로써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너무도 복잡하고 힘겹지만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 개방을 제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합시다.

아무쪼록 己卯年 한 해는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을 모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난관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화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己卯年 새해 아침에

김춘웅+이원호 / (주)상지건축+(주)TECH&A·상지
Designed by Kim Chun-Woong, Lee Won-Ho

건축개요

위치	日本國 愛知縣 名古屋市 中村區 名驛南 1丁目 1908番地
용도	사무실
대지면적	784.98㎡
건축면적	658.54㎡
연면적	2,079.03㎡
건폐율	83.89%
용적률	215.28%
지역지구	상업지역, 방화지구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S. R. C
실내마감	바닥-회강석, 카펫타일 벽-대리석, 비닐벽지 천장-알미늄스판드렐, 암면흡음판
외부마감	화강석+커튼월
설계담당	김상규, 이한남, 박성남, 浦野義一, 萩村徹
구조설계	(주)佐藤工業
기계설비	(주)佐藤工業
전기설계	(주)Triangle Space
감리	(주)TECH&A·상지, 김상규, 浦野義一
시공	(주)佐藤工業
설계기간	1995. 6~1995. 10
공사기간	1995. 12.30~1997. 2.28



모형도

이 나고야 영사관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이미지와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요소(정원, 조형물 및 공간방식 등)를 도입하여 나고야 교민사회를 포함한 일본 중부지역의 영사업무 및 대한민국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담당하여 우리의 문화를 접하는 기회의 장소성을 부여하고, 대지주변 환경변화에측 및 기능증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건축물을 기본형태로 하고 있다. 또한 기능상으로는 영사업무의 활성화 및 공공부문이용 방문객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국가 중요 시설물로서 기술적 측면의 설계확립을 목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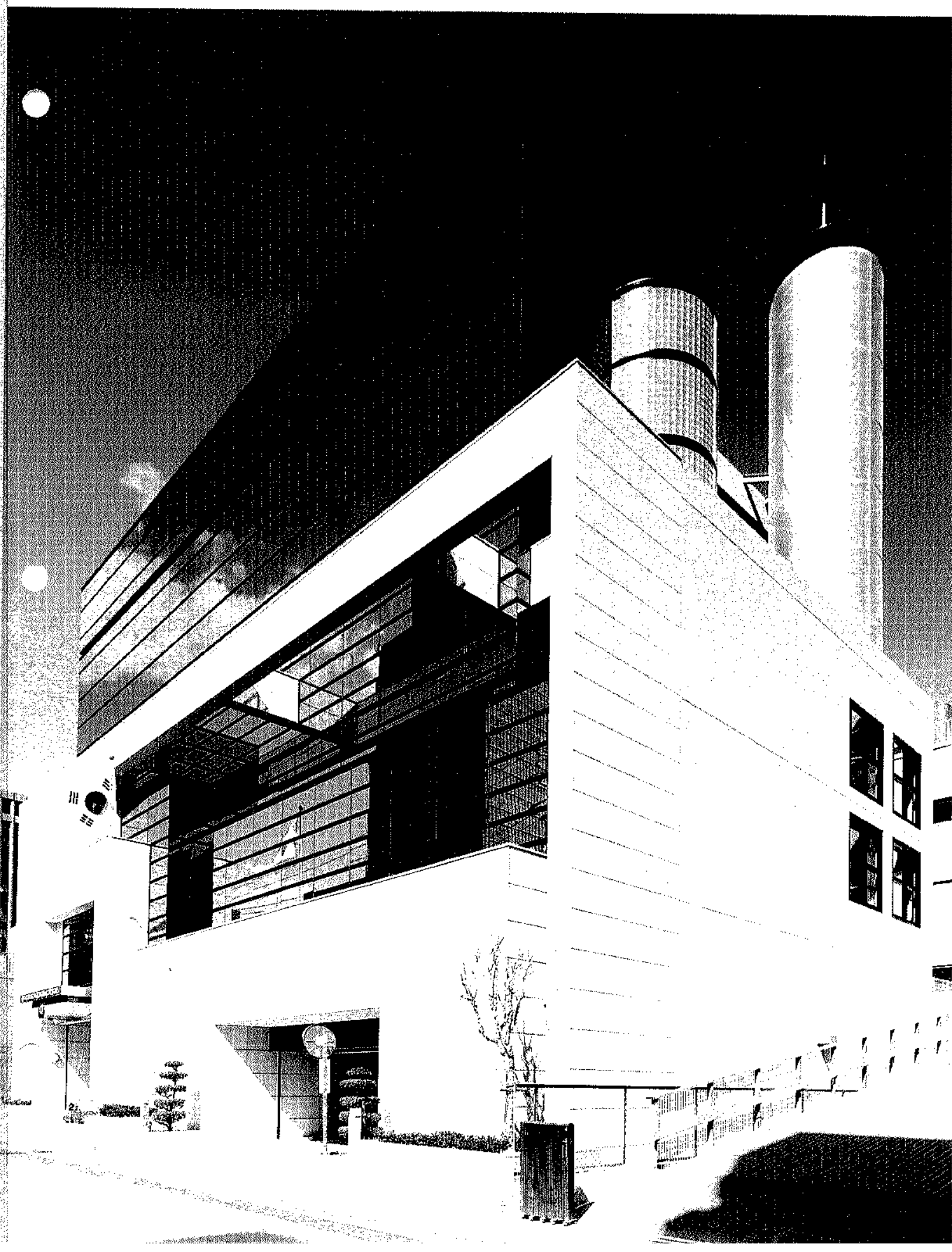
우선 남쪽도로와 건축물을 동일축으로 하는 배치개념으로 건물의 정면성을 강조하고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구분하여 시간대별 출입에 융통성을 부여했으며 건물 용도상 특수성으로 인해 북측 인접대지 부분은 벽면처리하고 남측과 동측을 창호처리 함으로써 철저한 보안유지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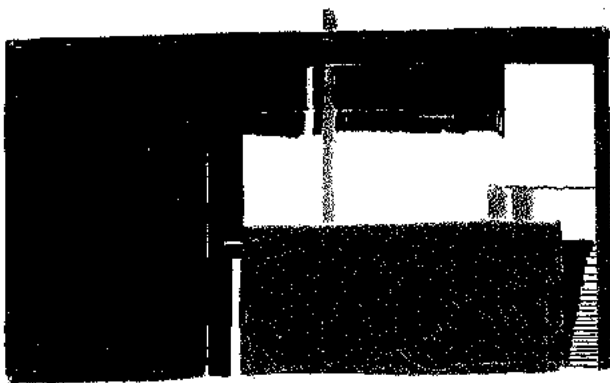
평면적으로는 저층부에 민원업무, 문화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및 주차장 등을 확보하여 공공업무 부분으로 할애하고 상층부에는 사무영역으로 구성, 영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처리하였다. 1층 로비부분은 2층과의 Open으로 개방감을 확보하고 한국 조형물 및 부조설치 등에 의해 영사관 진입의 중심공간으로 설정하였으며 2층에는 한국 전통정원, 사랑방(온돌), 옥외정원 등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의 한국문화원으로 유도하였다.

동선처리에 있어서 공공업무 부분과 고유업무 부분의 보안을 위해 카드키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사관 고유업무의 활성화 및 개별적 업무를 고려한 단순한 동선체계를 구축하였고, 다목적 공간의 접근을 로비에서 연결시켜 별도의 공간 및 로비와의 연계공간으로 구성하여 행사 및 전시장으로 가변성 있게 활용하였다.

입면 및 매스계획에서는 상층부에 유리를 사용하여 개방적이며 저층부와의 대비효과를 유도해 미래지향적인 건물형태를 추구하였다. 또한 저층부에 화강석을 사용함으로써 상층부의 유리매스와의 균형있는 조형감을 갖추고자 노력하였고, 6층 규모의 건물로 확보하여 주변건물의 고층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입면으로 구성하였다.

이 나고야 영사관이 신장된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부응하는 충분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뿐만 아니라 교민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문화를 수용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of Nagoya project, with elements (such as the court, sculpture and space organization) which symbolize Korean tradition and its culture, takes the role of serving consular affairs of Nagoya and the middle region of Japan, along with providing a launching ground, as a culture center, for the introduction of Korean culture to Japan. It also anticipates the site's condition in the near future, and aims to present an envelope of modern form. In functional terms, the building activates a variety of consular services, and, in its course, provides the visitor with senses of comfort and security.

The building, whose axis is parallel to that of the road in the south, displays a strong concept of frontality, and, to accommodate various ty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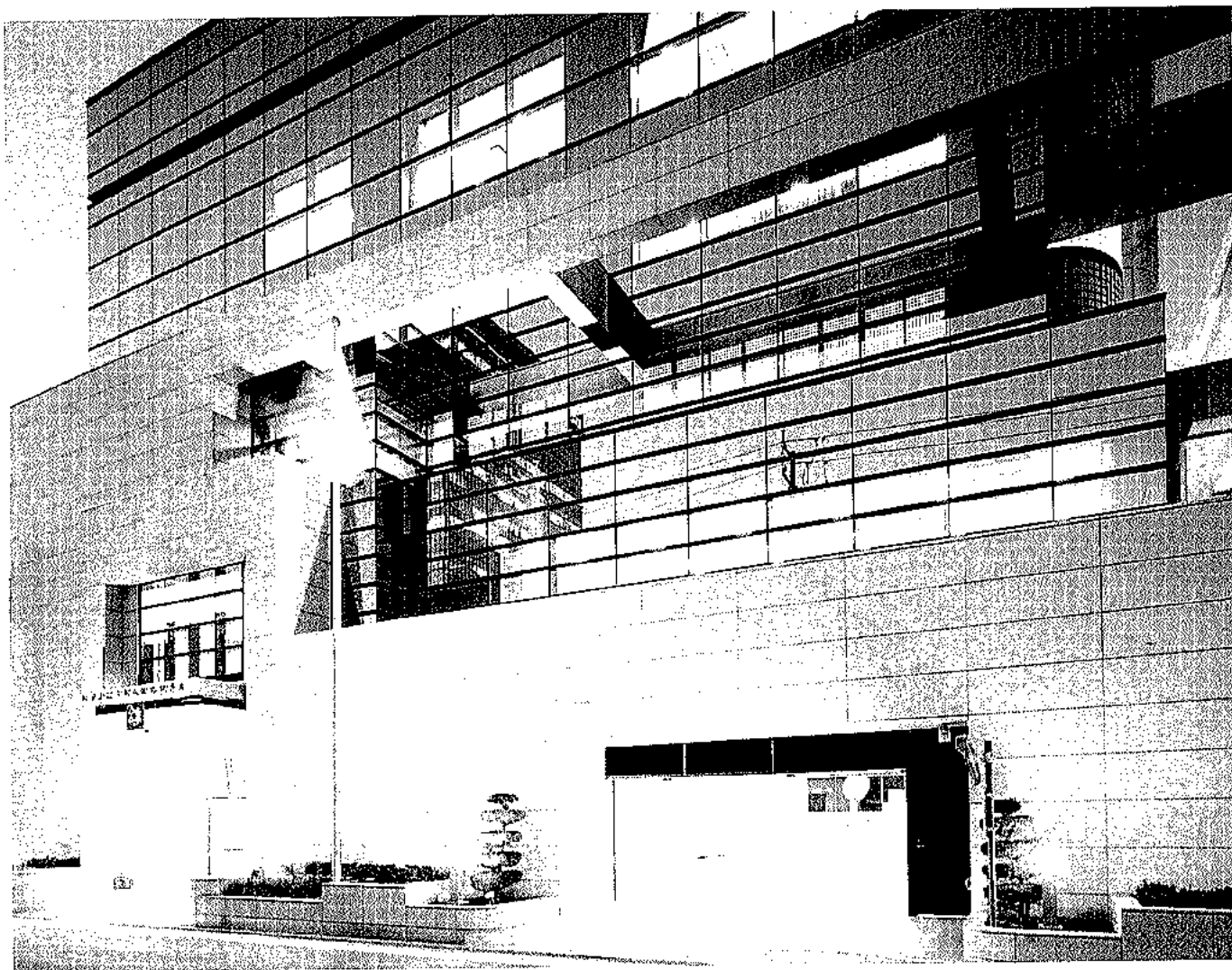
of uses, is accessible through main and sub entrances. For security reasons, the Consulate had a solid northern facade, whereas its south and east is finished with transparent glasses.

The program is divided into 2 sections: The lower levels have spaces for civil affairs, culture information and parking. The higher floors store the office spaces. The lobby of the first floor, its height opening up to the second floor, is dominated by the presence of Korean traditional sculptures, and form the center of the whole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Korean courtyard, Sarangbang and outdoor garden verify the architectural features of our culture.

The circulation of the building is also broken into two main sectors: The public service spaces and the secured office spaces. The paths are crisply defined and uses the card security system. The multipurpose hall is linked to the lobby, hence enabling them to function either collectively or separately, as event or exhibition spaces.

In respect of facade and volume composition, the upper levels are covered with glass plates, in contrast to granite of the heavy-textured lower volumes, thus emitting a futuristic feel. Its total height of 6 stories will become the highrises from gradual development of neighboring regions.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of Nagoya will not only be a symbol of the international status of our nation, but also be a meaningful place where Korean residents abroad can experience and cherish our proud cultural heritage.



Location Nakamura-ku, Nagoya-shi,
Nihonkoku, Japan

Function Office Facility

Site Area 784.98m²

Building Area 658.54m²

Total Floor Area 2,079.03m²

Building Coverage Ratio 83.89%

Gross Floor Ratio 215.28%

Area Classification Commercial District,
Fire Prevention District

Stories 5 Stories, 1 Basement Floors

Structure S.R.C.

Interior Finishings Floor - Granite, Carpet Tile

Wall - Marble, Vinyl Wallpaper

Ceiling - Aluminium Spandrel,

Sound Absorption Panel

Exterior Finishings Granite + Curtain Wall

Designers Kim Sang-kyu, Lee Han-nam,

Park Sung-nam, Urano Yoshikazu,

Hagimura Toru

Electrical Installations Triangl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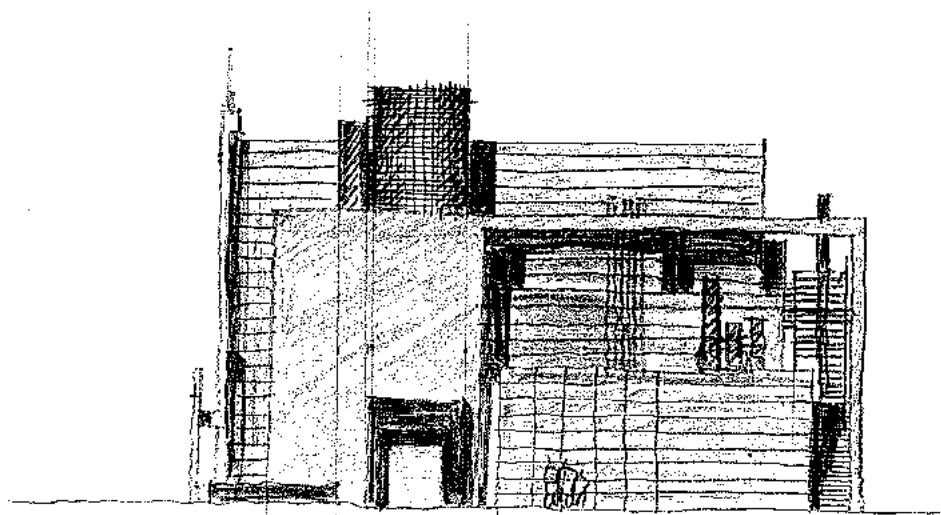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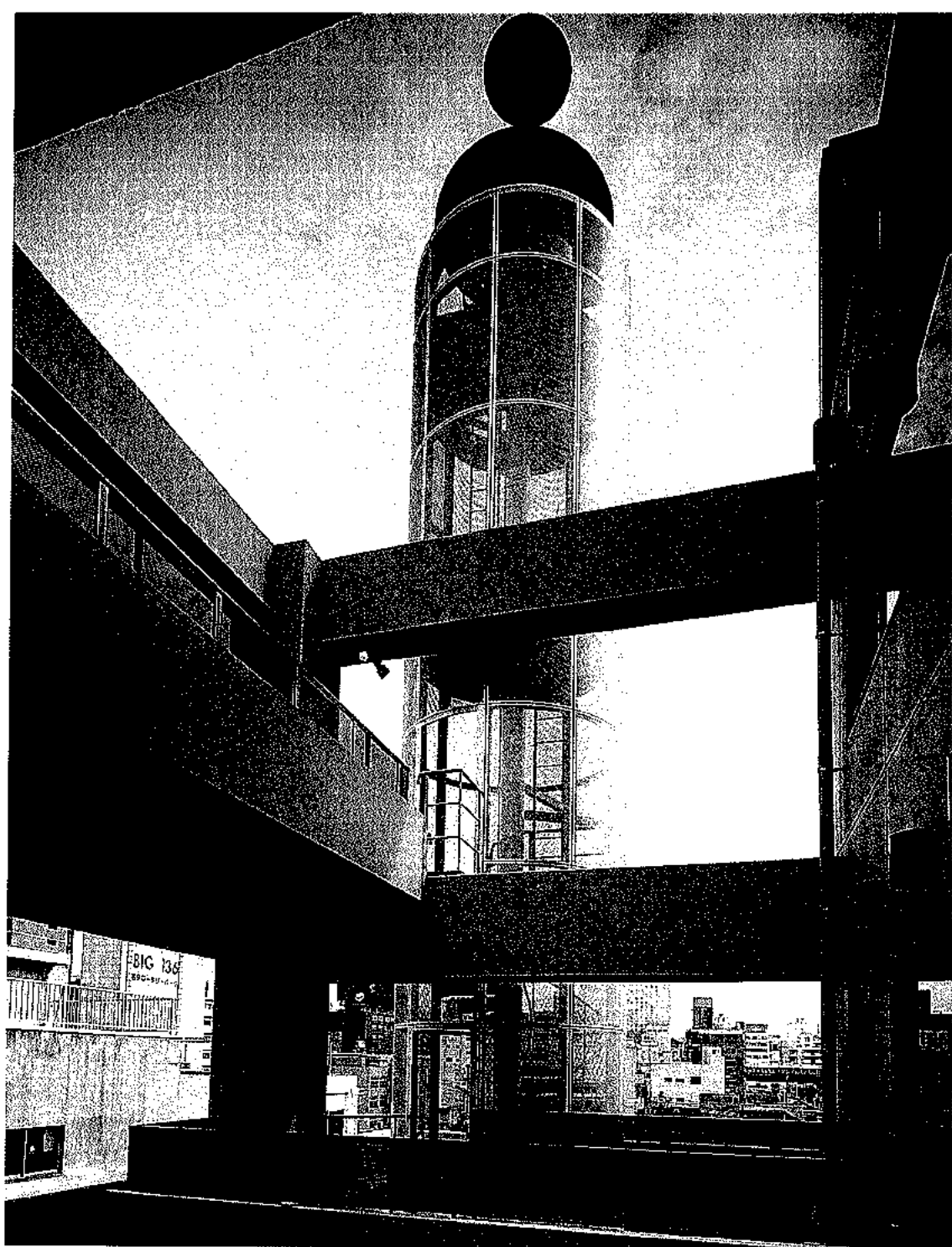
Construction Management: Te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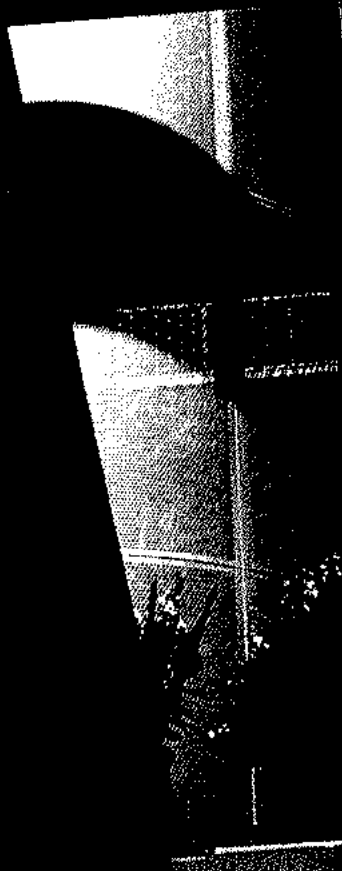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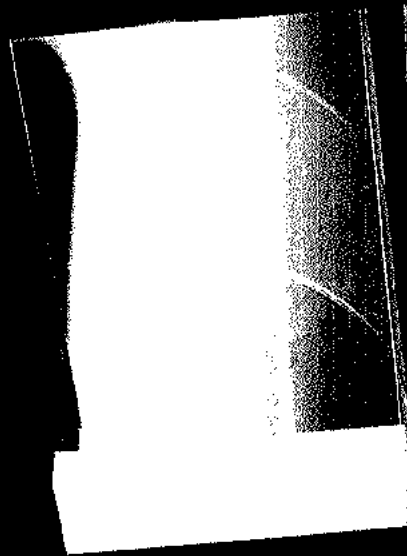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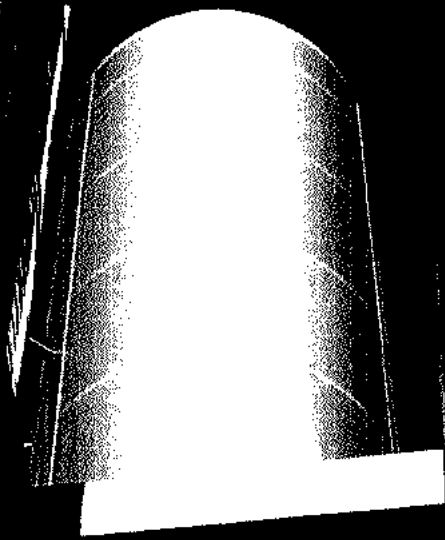
Sangji, Kim Sang-Kyu, Urano Yoshikaz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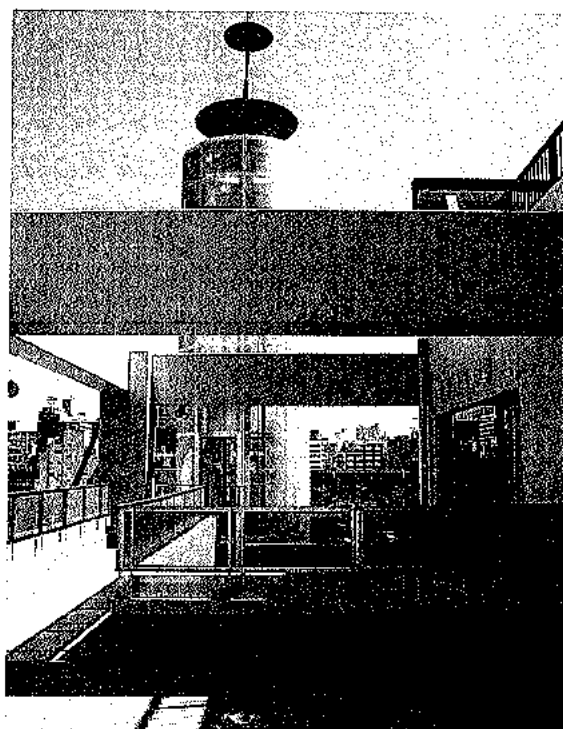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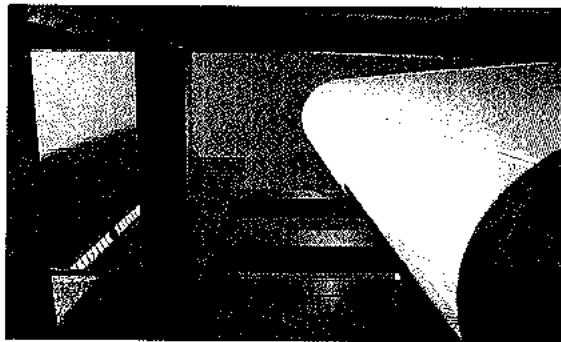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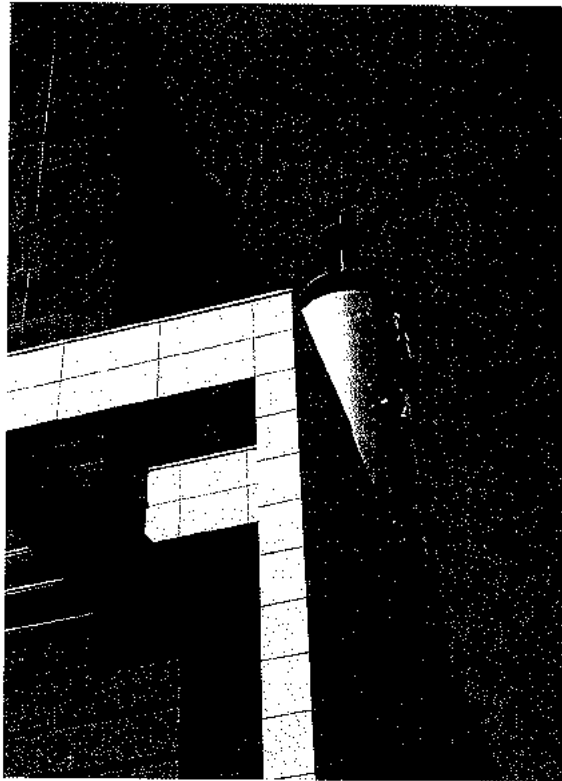
Design Period June 1995 - Oct 1995

Construction Period Dec 30 1995 - Feb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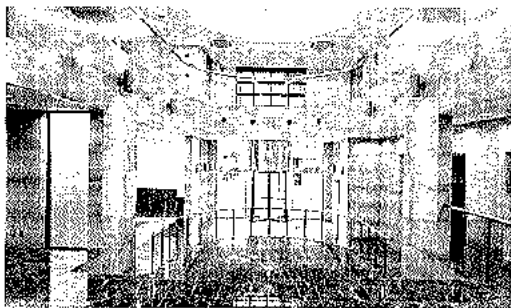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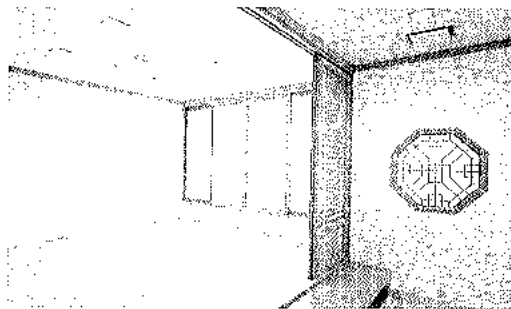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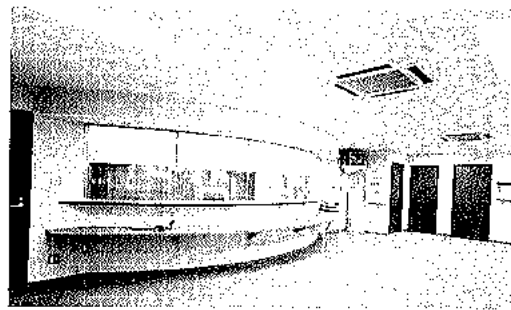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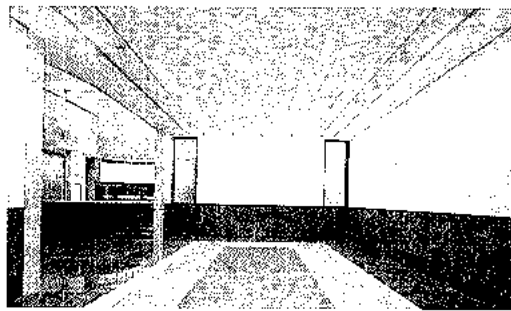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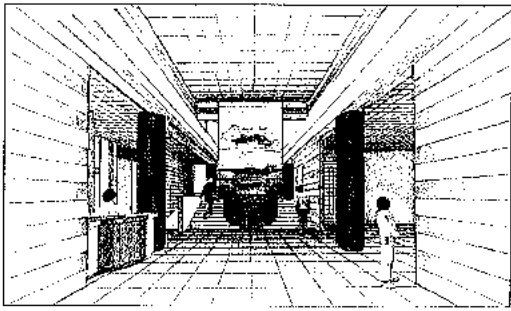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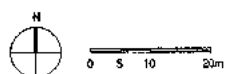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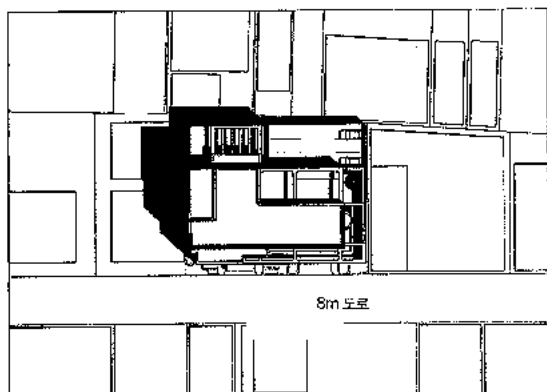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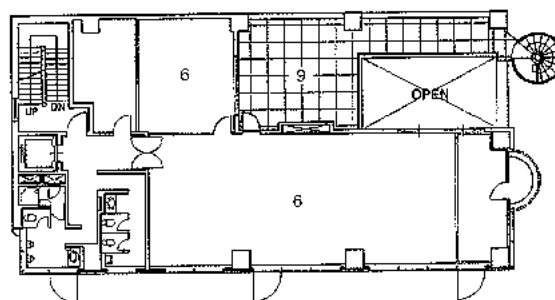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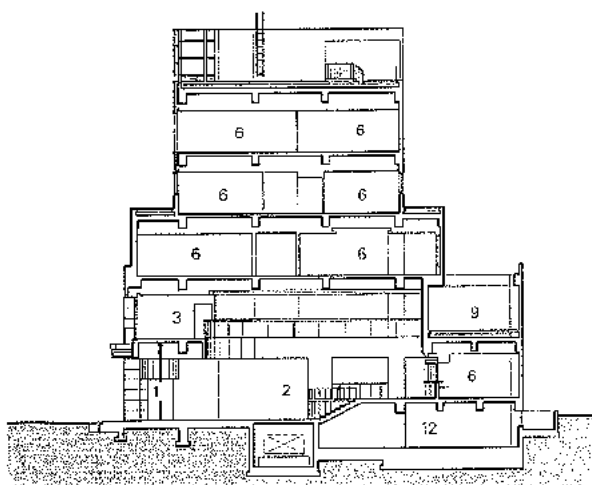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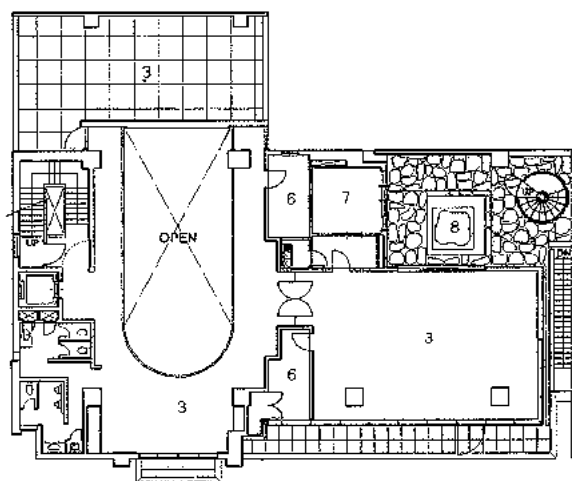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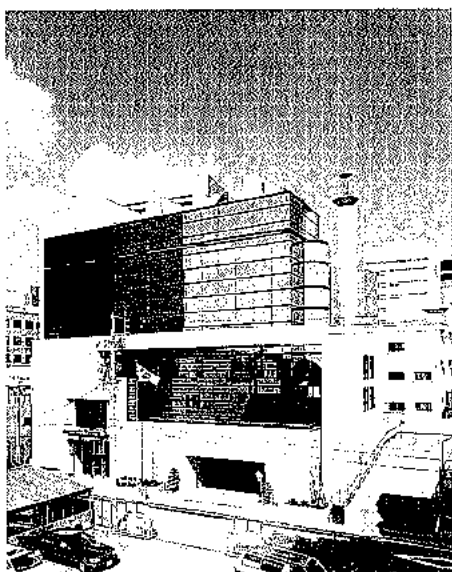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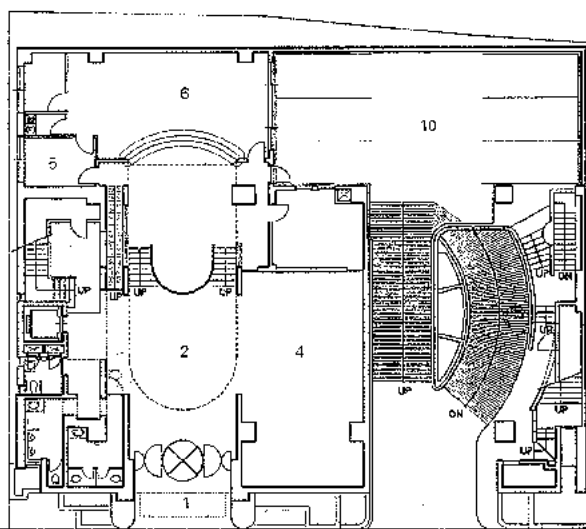
단면도



2층 평면도



1. 주출입구
2. 로비
3. 오피스
4. 다목적홀
5. 상담실
6. 사무실
7. 다실
8. 한국식 정원
9. 테라스
10. 주차장



1층 평면도



장소성에 따른 공간구성과 표현

The Composition of Space and Its Expression According to Place

건축사 / 김춘웅 · 이원호(상지건축)

대담자 / 정무웅(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Jeong Moo-Woong vs. Kim Chun-Woong, Lee Won-Ho

일시 / 98. 12. 24(목) 10:00~

장소 / 상지건축 회의실



대담장면(이정수, 김춘웅, 정무웅, 이원호)

정무웅 일본속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작품을 맡아 직접 하셨던 상지건축의 김춘웅 회장님, 우선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있는 한국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영사관 건물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가깝지만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가깝고도 먼 이국 땅 일본의 나고야 지방에 총영사관이 지어져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역적 의미로 봤을 때 감회가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원호 소장께서는 그 당시 직접 작품을 주관하여 감리, 시공, 현장 감리까지 일본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작품이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지를 방문해 작품을 보았고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총영사관님과 이하 영사관 직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우선 이 작품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및 상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춘웅 사실 조달청으로부터 나고야 총영사관 현상공모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국인이 설계한 작품이 일본땅에 세워진다면 의미가 크겠구나 싶었고 또 저희 사무실이 동경에 별도 법인의 연락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수입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졌습니다. 다행히 접수된 13개 작품 가운데 저희 작품이 당선됐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건축의 조형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건축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영사관들이 너무 오픈되어 데몬스트레이션 등이 있을 때 파손의 우려가 많았는데 그런 안목을 갖고 저층부에 월(Wall)을 도입하는 등 건축적인 요소를 부여한 것이 나고야 측에서도 호감을 가졌고 건축심사위원들도 그런 점을 봤기 때문에 저희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무웅 그 당시 상지건축의 지사가 일본땅에서 체인을 맺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건축의 위상면에서 상당히 주목할만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이 시공과정이나 감리과정에서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속에 더욱이 나고야라는 역사적인 어떤 문명을 갖고 있는 도시속에 한국 작품이 서 있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상당히 감격적이었습니다.

건축적인 얘기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사이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고야는 역사성이 깊은 지역인데 나고야 지역의 지역적인 특성과 그 사이트의 도시적 특성을 위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호 저희가 처음 현상설계를 접했을 때 그 땅에 대한 해석에 있어 한국이라는 것과 일본에 있는 한국사람, 일본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 나고야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도시맥락에서 한국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건축물이 서게 되는 현장을 해석했을 때 나고야라는 지역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곳으로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나고야 사람은 독특하게 느끼는 곳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도 나고야는 일본의 삼대 영웅이 태어난 곳으로 1,300년대에는 이 지역을 발판으로 세력을 키워나갔고, 2차 대전 때에는 거의 폐허가 되었다가 현재는 새로운 도시설계에 의해서 많은 녹지가 있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원래 있었던 총영사관은 주거지역의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고 새로이 형성된 대지는 나고야역에서 걸어서 5분거리의 노숙자들이 있는 슬럼화된 작은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정된 대지에 한국이라는 땅이 하나 들어가면서 어떤 도시맥락에서 일본속에 한국을 형성시킬까하는 문제가 첫 번째로 대두되었고 두 번째 문제는 정서에 대한 것으

로 '일본속에 서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과연 한국의 것이 나 일본의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일본의 도시맥락과 나고야를 연관시켜서 생각했습니다.

정무웅 _____저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꼈지만 이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디자인에 의해서 도시설계가 이루어진 도시로 오랜 역사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드러나는 물리적인 구조물이나 도시 패턴 등은 현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옛날부터 있던 역사성을 지키기 위해 어반컨텍스트라는 도시적인 문맥을 역사성과 결부시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예인데 나고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일반 방문자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새로운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소장께서는 대지에 대한 해석을 역사, 문맥, 나고야 등의 관점에서 보다는 새로 리디자인된 도시를 바탕으로 역과의 관계, 역 앞에 형성되는 가로망이나 역 주변의 슬럼화와 결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대지는 한국 정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한국 땅입니다만 법규의 적용 등의 문제가 국내에서 건축할 때에는 다른 것 같은데 치외법권 지역으로써의 일본속의 한국 땅, 그 속에 도시적인 문맥이나 도시적인 상황, 대지 주변의 상황 등은 일본의 것으로 섬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 땅은 일본 법규를 어떻게 적용받게 되는지? 나고야 속에 있는 한국 땅이 법규와 결부해 대지의 특성, 건축적인 해석 등에 있어서 한국내에 있는 대지와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원호 _____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동경에 상지건축 지사적인 상지건축 동경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법규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생소하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에 국한해서 말씀 드린다면 법체계가 물론 한국법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건축법이라는 것도 체계자체가 도시맥락적인 차원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지켜주어야 할

법 체계와 자체적으로 필요한 안전 등에 대한 부분에서 지켜주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대지 외곽을 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대한 것은 일본법을 지켜야 했고 그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는 대지 안에 대한 것은 일본법을 일단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법체계로 얘기한다면 허가 등의 절차를 필요로 느끼지 않은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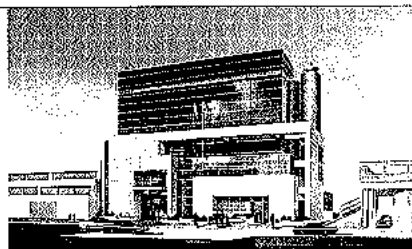
김춘웅 _____이소장의 얘기를 보충 설명한다면 우리의 경우 관건물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일본은 신고만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다는 것은 나고야 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면도로에서 높이 제한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과는 달라서 일본 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는데 사실 그런 사항은 우리는 잘 몰랐으나 동경사무실에서 해석함으로써 일종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원호 _____법의 두가지 체계 도시적인 것, 큰 맥락에 대한 것만 지킨다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파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 땅 해석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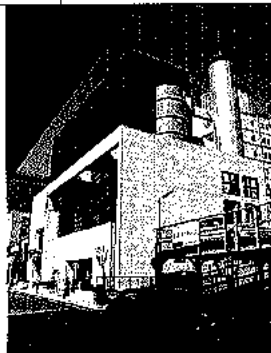
정무웅 _____일본 속에 있는 한국 땅이라는 하지만 그 도시를 구성하는 의미에서와 도시적인 측면에서의 법은 일본의 법을 기초로 해서 하고 건축선이나 높이, 볼륨 관계리든지 건폐율, 용적률 등은 어떤 적용을 받은 것이냐?

김춘웅 _____그것은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무웅 _____꼭 지켜야 될 부분과 지키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가 발달돼 있는 일본의 경우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경관, 도시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일본법규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트



나고야 영사관 무시도



나고야 영사관



내에서 1차적인 불륨이나 매스가 결정된 내부에서의 건축적인 해석은 건축가의 자의에 의하되 다만 그 내용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군요.

이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일본에 있는 한국 정부의 표현이고 한국 교민이나 한국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더불어 총영사관 건물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관련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설계할 때 내부 기능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조형적인 문제나 공간프리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을 외국에 있는 대지에 할 때 한국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굳이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한국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한국적이라는 것하고 전통적인 것은 항상 같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이 작품을 풀어나가면서 그런 의무감이나 정부에서도 한국적인 것을 요구했을 것 같은데 은연중 부담이 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분께서 이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고민했으며 표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춘웅 _____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기본 컨셉을 정리할 때 이소장과 여러번 얘길 했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한국적인 분위기를 내부에서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무웅 _____ 제가 그곳에 가 봤을 때의 느낌도 한국적인 것에 대한 해석을 전통적인 요소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상당히 절제내지 자제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우리 전통적인 공간구성의 요소들이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 소장께서 얘기해 주시죠?

이원호 _____ 한국의 전통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 두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전통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기법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

습니다만 한국 내에서의 한국사람들만이 보고 느끼는 국내에서의 전통에 대한 문제와 국외에서 많은 외국인과 재일교포가 보고 느끼는 그러니까 국내의 백프로 정서만을 갖고 있지 않고 일본의 정서도 일부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대한 해석 문제로 전통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유추나 기법, 표현 등의 느낌에 있어 그것을 보는 사람과 사용하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나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재일교포나 일본인들이 봤을 때 한국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건축물에서의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간감으로 표현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에서 느끼는, 느낌에 의한 공간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외부에 하나의 물리적인 율을 씌우고 안에서는 필요한 후정 등의 요소를 주입해 진입하면서 느끼고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재료나 기법보다는 체험이나 느낌에 대한 것을 부여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도시에 거부감을 주지 않고 도시맥락적인 수용도 하면서 한국 전통을 도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무웅 _____ 한국적 요소의 표현에 대한 문제를 외부 조형적인 요소나 디자인 요소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절제·자제하고 내부에서 공간의 체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설계를 할 때 기능, 동선, 조닝 등 주어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석해서 정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영사관 건축은 일반 오피스나 주택, 쇼핑센터와도 다른 영사관 건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건축적인 요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사관건축은 기능이나 용도 면에서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다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원호 _____ 대사관과 영사관과의 차이점에 대한 해석이 첫 번째 제일 중요했습니다. 대사관과 영사관



나고야 영사관

는 비슷하면서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셉자체를 성립시키면서 두가지 양면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면성은 한국사람이나 일본사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항상 열려져 있어 편안하게 일을 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또 일본내에 있으므로 해서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두 요소 열린공간과 닫힌공간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단계로 공간을 구분, 설정하였습니다. 앞서 정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위공간과도 같은 맥락으로 첫 번째는 외부공간으로 도로에서 건물과 마주대하는 부분, 두 번째는 업무를 보거나 방문을 하기 위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접촉할 수 있는 공간, 세 번째는 한국적인 문화활동 등 조금 더 필요한 사람들 다시 말해 선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나 행위를 취할 수 있는 공간, 네 번째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세 번째 스텝까지 접근하지 않는 보안이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수직으로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지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수평내에서 필요한 공간의 위계성을 만들어서 성립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동선을 끌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입시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외부공간은 일본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도로상의 도시계획적인 맥락의 부분이고, 두 번째 공간은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로비나 문화공간, 다목적실, 대민창고 등으로 볼 수 있고, 세 번째 공간은 한국적인 사랑방 개념으로 문화공간이나 다목적실 등의 제재를 받지않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네 번째 공간은 영사고유의 업무나 보안문제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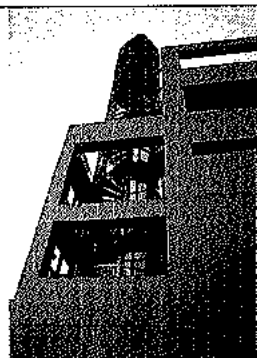
정무웅_____일반적으로 가로 공간에 면해 있는 건물의 외벽은 가로 공간의 입장에서 내벽에 해당되고 건물의 입장에서는 외벽입니다. 총영사관 건축의 고유한 시큐리티문제를 포함한 대민봉사 등등의 위계적인 공간구성을 봤을 때 독특하게 두가지 벽의 의미, 외피구성 또는 가로공간으

로 보면 내피구성의 그런 커의 형성을 의도한 듯한데 그 형태구성, 벽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죠?

이원호_____이 대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시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을 때 갖는 위상, 그 다음 가로에 접근해 들어올 때 조감적이 아닌 총감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영사관으로써 슬럼화된 일본의 한 지역을 개발시켜 가면서 가로적인 측면에서의 외피구성이나 형태구성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고, 또 한가지 거기에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앞의 도로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도로 자체에서 갖는 어떤 휴먼 스케일에 대한 것으로 스케일감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이냐하는 문제가 고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슬럼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적인 측면인 문턱을 낮추고 일본내 시큐리티나 보안문제를 해석하면서 작은 도로의 스케일감을 포함해서 봤을 때 하나의 자그마한 성이라는 개념이 하나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방이 내부에서 외부로 발산해서 볼 수 있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 자체에 큰 원을 쳤고 그 월 내에 한국적인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외부의 원을 저층부에 형성시켰습니다.

그 월은 한국의 화강석을 가져다 사용했지만 월 자체에서 분할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월을 쳤을 때 작은 도로에서 생기는 스케일감에 대한 극복의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분절이나 월 내에서의 오픈 등을 가지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완충역할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무웅_____일단 길에 커를 하나 형성하되 그 커가 결코 내부에 있는 주요 매스 덩어리하고 분리되지 않으면서 연결감을 갖고 구조적으로도 연결되도록 하나의 율타리를 쳐 놓고 그 내부의 독립된 공간을 글래스 박스로 해서 솟아오르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에 대한 개념으로 저층부의 율



한국가스안전공사

나고야 영사관

타리는 한국산 화강석으로 했고 내부에 솟아오르는 글래스는 반사유리로 구성해 주변 건물하고는 다른 두 개의 커로 구성되게 함으로써 평면이나 수직의 이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원호 _____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내피와 외피에 대한 개념으로 영사관이라는 것이 결국 사파를 깎을 때 사파의 빨간 껍데기와 안에 있는 노란 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파사드를 봤을 때 이 건물은 2면 정도가 오픈이 되는 어떤 표정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2면은 고층건물에 의해 가려지는 상황입니다. 아래 저층부에 생기는 기단부라는 것이 결국은 도로축상에서 봤을 때는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내피에 대한 것은 기단부라는 것이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위에 생기는 월, 글라스 커튼월이 내피에 대한 살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가까이서 충감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멀리서 조감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으로 도시계획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나고이라는 도시에서 보이는 부분이 되고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스케일감에 의해서 가까이 접근했을 충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텍스처 자체를 일단 분리했습니다.

정무웅 _____ 지금 텍스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텍스처라고 하면 외부의 마감재료에 관련되는 시각적인 느낌을 얘기합니다. 이 건물의 저층부는 터프한 질감의 화강석, 내피를 구성하고 있는 외벽은 반사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층부에 있는 기단부의 돌의 모퉁이하고 내부에 있는 글래스 모듈이 같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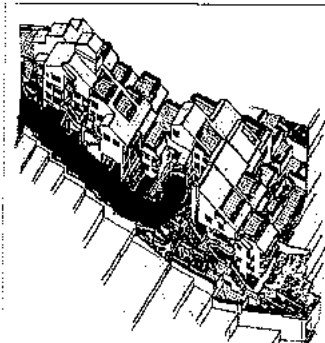
왜 미러글래스를 사용했을까? 일반적으로 미러글래스가 갖고 있는 특성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조형적인 요소로 외벽을 매끄러운 면으로 하는 소재로 통일감있는 한 면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 부분적인 투명성을 통하여 내부와 외부 공간의 시각적이거나 정서적인 관류가 유도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미러글래스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내부에서의 움직임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할

때 투명한 외벽의 투명성에 대한 제어장치로써 반사유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마감으로써의 어떤 색상이나 형태적으로 조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러글래스를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형성과 관계되는 것도 있고 시큐리티하고도 부분적인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안에서는 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시각적 문제가 고려된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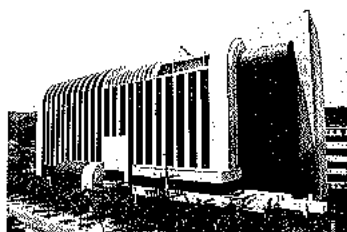
이원호 _____ 외부마감 재료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크게 기능적인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으로 나뉘를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저층부의 돌과 위의 유리는 크게 대별될 수 있지만 두가지 재료 모두 다 내부를 감춰줘야되는 보안이라든지 외부에서 내부를 투시되지 않고 감싸주는 기능을 만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조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칠게 느껴진다는 돌과 매끄럽게 느껴진다는 유리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의 오감 중에서 촉감이나 시각은 거리하고 관련됩니다. 어떤 재료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따스한 재료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차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재료지만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차가운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저희는 저층부 화강석 버너구이라는 텍스처가 거칠다는 것보다 친근감을 느끼고 따스하게 느낄 수 있는 재료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고층부 유리는 차갑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작은 거리에서 가로상 보다는 도시맥락적으로 봤을 때 질서정연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가지 재료를 대비시켜 놓는 경우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가까이에서 볼 때도 그 두 가지가 매치가 될 때 어떻게 볼 것이냐하는 문제는 통합요소를 써야된다는 것에서 두 가지 요소를 일단 스케일이란 요소와 모듈이라는 요소,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이태원 테라스하우스



일동제약사옥



삼지빌딩

단위로 썼고 그 다음에 분절에 대한 방법을 도입해 들어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입을 시켰습니다. 두 재료를 감각적인 통합을 통해 한 재료로 통합시켜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무웅 _____ 한국적인 표현에 대한 문제는 내부에 공간감으로 한정하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절제하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곳에 가 느꼈을 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직설적인 한국적인 형태나 패턴 등의 표현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캐노피 부분이라든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국적인 것이 모티파이된 어떤 선이나 형태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디자인하는 분들이 간과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이원호 _____ 앞서도 얘기했던 전통에 대한 표현 문제가 다시 대두 되었는데요 일본속에서 있는 한국 건축물이 무엇을 나타내고 또 무엇을 얘기해 줘야 하는 문제로 가로 상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와가 하나있고 또 외부에 한국적인 탑이 세워져 있을 때 한국이라는 것을 느끼고 박물관에 가서 관찰하듯이 과연 보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국한해서 얘기한다면 돌아든지 필요한 부품을 공간으로써 외부에서 끌어준 마치 어떤 이벤트처럼 된 하나의 작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김춘웅 _____ 정교수께서 얘기했듯이 현관에 들어가는 캐노피에 한국적인 요소를 넣었을 때 이 작품에 과연 어울리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외부보다는 내부 것에서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혹 사용자들이 한국적인 요소를 요구해 건축가가 따라가다보면 결국 작품을 실패하는 경우를 여럿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강하게 배제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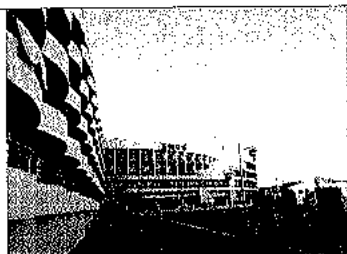
정무웅 _____ 이제까지는 외부의 월에 대한

개념, 재료에 대한 개념, 조형성에 대한 얘기, 내부에 기능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건축적인 얘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건물 내부 공간을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한국성과 결부해서 특히 강조했던 디자인 컨셉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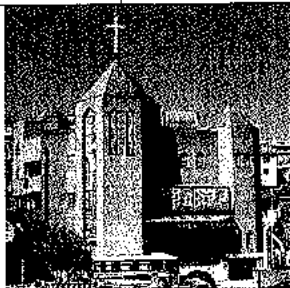
이원호 _____ 앞서 얘기한 네가지 기능과 결부되는 것으로 외부공간, 전위공간 등의 부분을 절단시켜 놓았을 때 스텝과 스텝 사이의 연결에 대한 부분이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너무 절단시켜 놓았을 때 폐쇄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별개의 네 개의 공간이 따로따로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상하의 오픈이라든지 기능적으로 커버링이 되면서 필요한 부분만 오픈시켜서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문제였고 또 하나 한국적인 공간에 대한 것으로 대지가 크다면 체험공간 등으로 많이 배려했겠지만 이 대지 자체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체험공간에 대한 것을 후정이라는 개념을 써서 자그마하게 성립시켰습니다. 그 체험공간은 다시 후정이라는 개념으로 차경적인 요소와 체험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뒷부분이라든지 후정을 통해 2, 3, 4, 5층에서 볼 수 있는 사랑방과 문화공간 등으로 연결되어 외부같은 내부공간으로 표현했고,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브릿지라든지 담이 있는 부분은 차경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춘웅 _____ 이소장이 얘기를 했듯이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한국적인 이미지를 외부보다는 내부의 요소요소에 표출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무웅 _____ 2층에 있는 중정과 후정에 부분적으로 처져있는 사괴석 위에 얹어있는 흑기와와 주변에 있는 온돌방, 장판지, 뿔마루, 그리고 후정을 감싸고 있는 두 개의 벽체의 완자무늬 창호 등이 마당에서 건물벽을 볼 때 또는 건물속에서 마당을 볼 때 충분히 한국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거평 프레이아



보문제일감리교회



시그네트 파주공장

꿈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도했던 것과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하고의 괴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공 과정, 또는 시공후 사용과정에서의 설계의도와 어떤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원호 _____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해석을 합니다. 현재 영사관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화적인 모임이나 행사 등의 많은 방문이 위층까지의 공간접근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준비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적인 행사가 활성화되어 나갈 때에는 그 공간이 좋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차경적인 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지만 체험적인 공간으로 앞으로 더욱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여유공간으로써 의미있는 어떤 '준비된 공간'으로 봤습니다.

정무웅 _____ 나고야총사관이 준공된 지 1년이 넘었나요? 현지에 갔을 때 물어보았더니 영사관 직원들이 하루에 많이는 50여명, 적을 때는 20~30여명이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나고야는 우리 교포들이 상당수 상주하고 있고 또 교포이외에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업상 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고야총영사관 건물이 더 활성화되어서 교민들이 모여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 받는 곳, 이국땅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등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영사관님이나 직원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설계변경은 어려울지 모르나 최소한 의도했던 공간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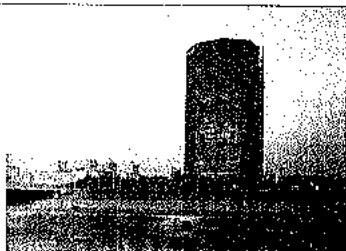
이원호 _____ 건축가가 제시해 필요한 공간이 생기고나면 그 다음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꾸미고 가꿔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공간 자체가 용량이 좀 큰 상태이지만 다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무웅 _____ 건물은 설계하는 사람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함께 꾸며가야 된다는, 물론 설계하는 사람이 예상되는 사용자의 의도나 바람을 충분히 검토해서 디자인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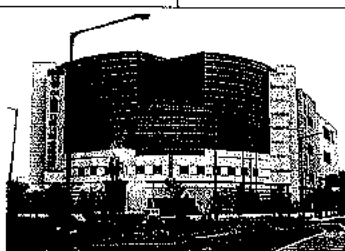
다음은 시공에 관한 것으로 보통 건축가의 설계의도대로 안되는 요인으로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현장에서의 시공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건물의 설계는 한국사람이 하고 시공은 한국사람과 일본사람이 조인트로 했습니다. 감리, 감독과 관련하여 일본의 법규를 말씀해 주시고 또 시공할 때 독특한 재료를 써야 된다, 법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등의 요구사항이 있기 마련인데 전체적인 시공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죠?

김훈웅 _____ 현재까지 시행되었던 대사관이나, 영사관 건물을 봤을 때 이 작품은 의도했던 설계와 시공, 사용자와의 관계가 제일 성공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작품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부분부분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기본으로 나와있던 것을 거의 100% 수용해 시공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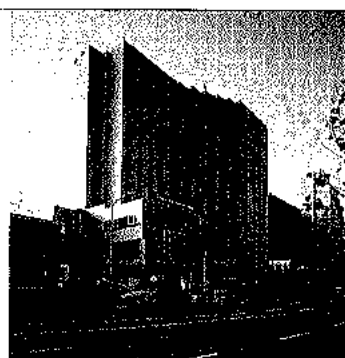
이원호 _____ 건축물이 서기 위한 시작부터 준공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상설계 단계에서는 일본 동경에 테크노 삼지(대표: 김상규)라는 삼지건축 동경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술적인 문제나 일본과 한국의 시공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서울 사무실에서 주로 끌고 나가면서 동경 사무실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 지원을 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맥락을 짚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의 일본 현지의 법이나 기술적인 문제, 재료도 한국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을 구분해 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울 사무실 팀이 동경 사무실로 갔습니다. 하나의 캠프를 차리고 동경 사무실에서 일을 끌고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갖고 있는 구조해석이나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에 대



조선내화 분당 사옥



안양 E-Mart



노보텔 엠버서더 강남

한 것이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 국내에서는 처리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때 서울 사무실과 계속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원은 서울 사무실과 동경 사무실 반반 참여했지만 동경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많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인 갭을 많이 커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입찰부분에서는 한국의 건설업체와 일본의 사토라는 건설업체가 참여해 처리했는데 대부분의 시공은 일본 업체가 했고 감리는 한국인 1인과 일본인 1인이 했는데 동경 사무실에서 60~70% 이상을 처리했습니다. 전기는 일본쪽에서 하고 디자인에 관련된 컨셉이나 결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 사무실에서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국 정원, 완자문, 키타루 등의 많은 한국적인 요소를 일본 시공업자가 했을 때 과연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창호지 자체도 우리 것과 일본 것이 거의 유사한 듯 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업체들이 국내에 참가할 때에는 한국적인 모양을 비슷하게 내지만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일본냄새가 흐릅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수정시켜 나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정무웅 _____ 시공과정에서 동경에 캠프를 차려 공동작업을 한 것이며 한국인이 현장에 감리할 수 있었다는 것, 한국업체와 일본업체가 조인해 시공했다는 것이 작가의 건축안을 현실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당선안과 실시안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로 '특별히 이것이 좀 아쉽다.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때 좀 잘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원호 _____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설계자로서 사용자의 몫에 대해서 조금 더 제시해 주고 끌고나갈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점으로 사용 가이드라인을 주었지만 해석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변경해 사용하는 등 제시한 공간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한 것

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무웅 _____ 보통 설계를 하고나면 디자이너들이 바라는 부분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갭이 있게 마련입니다. 갭에 대한 과정은 보통 일차적으로 프로그램밍 단계에서 조절해 많은 여유있는 플렉시빌리티를 남겨 '사용자들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겠다'라는 예견을 갖고 많은 유연성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변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화장님께서 서두에도 축하인사와 함께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있는 한국 작품이 작가와의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특집화되어서 나오게 됐는데 이것을 계기로 디자이너로서 또 건축가로서의 느낌이나 포부,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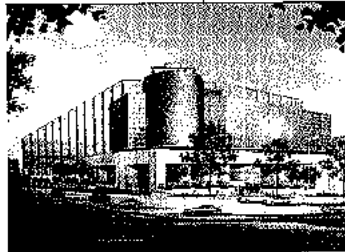
김춘웅 _____ 작품을 항상 대할 때마다 특히 외국에 영사관을 저희가 수임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감리까지 하면서 그에 대한 포부는 국내에서 어느 작품을 한 것보다 컸습니다. 특히 일본에 우리의 업을 하나 심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일을 수임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다면 국내건축가가 외국에 작품을 설계하고 현장까지 다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시스템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집행과정의 어려운 점들을 집행하는 관에서 건축가들에게 힘을 준다면 더 좋은 작품이 탄생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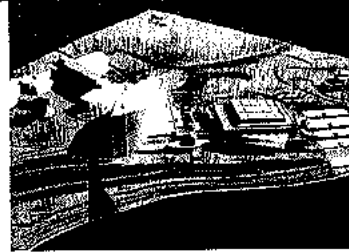
정무웅 _____ 장시간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보텔 앰버서더 대전



일진스포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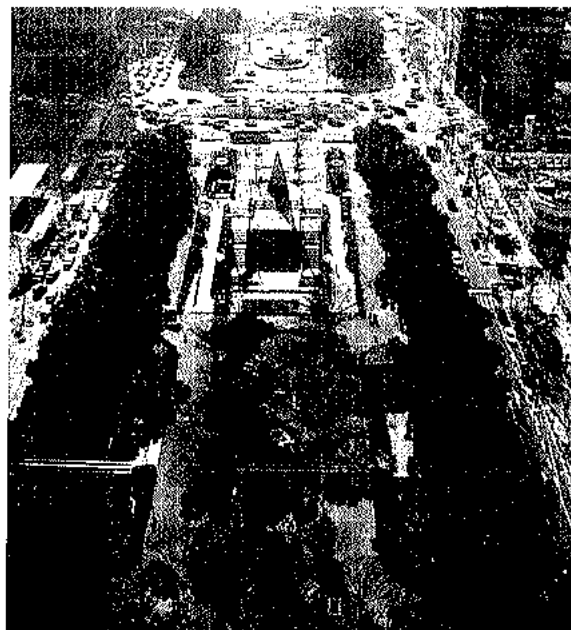
IB 대구 파크 호텔

벽속에 갇혀진 유리집

Glass Office Surrounded by Defensible Walls

이정수/ 호서대 건축학부 교수

by Lee Jeong-Soo



히사와오도리 공원

배경읽기

'나고야총영사관'. 이 단어로부터 머리를 스쳐 가는 생각은 '또 한국적인 형태표현에 대한 논의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먼저 건축물을 보기 전에 나고야총영사관의 건축과정에 대한 배경읽기를 시도하였다. 현상설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것에 대한 고민, 일본이라는 맥락에 대한 이해, 디자인을 발전시켜나가는 동안 현지 사정을 반영하여 풀어야 할 난제 등이 웬지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았다.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는 '공관'이 설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나고야총영사관은 외무부 해외 공관 국유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일련의 프로젝트중 하나로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후쿠오카에 이어 세 번째이다. 건축주에 해당하는 외무부로부터의 요구사항이 있을 법하다. 조달청에서 배부된 현상설계 지침을 살펴보았다. '현지 주위환경을 고려한 현대적인 Office 건물', '창의력이 발휘된 현대적이고 기능적이며 능률적인 건축물', 특히 외부디자인에 있어서는, '현대적,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든다. 기와 지붕이나 열주와 같은 한국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속박되어진 그 동안의 흐름에 비해서는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떠한 건축이어야 하는가? 자유로움은 더 많은 고민을 던져주게 마련이다. 일본 땅에 짓는 한국 건축가의 작업,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관공서 건축, 적지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나고야라는 도시 읽기

나고야, 일본 중세역사의 3대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출생지가 가까이 있고, 나고야조(名古屋城)의 덴슈가쿠(天守閣)는 나고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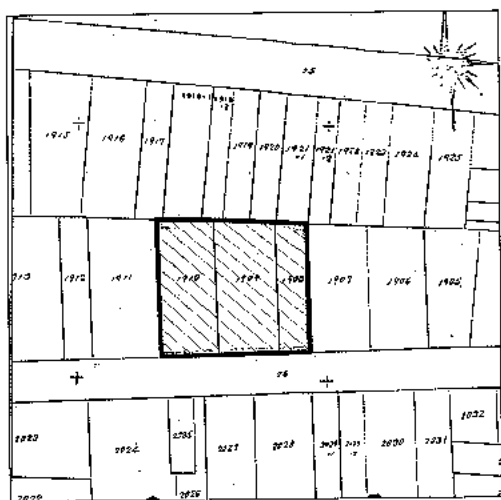
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이다. 특히 나고야는 미쓰비시 중공업, 도요타 자동차와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우수한 공장이 위치한 일본 최대의 공업도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러한 군수공업으로 인하여 초토화되었으나, 그 땅위에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전후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계획이 시작되었고, 도심 한 가운데 50m 폭 이상의 보행자를 위한 히사와오도리 공원(久屋大通公園)이 자리잡고 있다.

예전부터 만드는 것을 중시하여 장인정신에 빛나는 도시, 수전노 정신으로 관혼상제의 예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들만의 독특한 검은 된장(히츠미소)을 지니고 있는 나고야는 보수적이고, 고집 세고, 자기주장이 강한 도시이다. 또한 공작기계와 자동차가 공업출하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도시이면서도, 1989년 세계디자인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도시, 칸사이 공항에 대응하는 중부권 신공항에의 꿈, 그리고 2005년 나고야 만국만람회 개최를 기다리는 도시가 나고야다.

요즈음은 한국에 대한 이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특히 '나고야의 태양', '비람의 아들' 등 한국을 대표하는 체육인들이 활약하는 유니치 드래곤즈의 구단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나고야에 한국의 건축가에 의해 건축된 '일본 속에 있는 한국 땅', 나고야총영사관이 있다.

도카이도 신칸센이 정차하는 나고야역으로 부터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나고야총영사관은 큰길가에서 약간 비껴난 이면도로에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의 풍경은 아직 개발이 낙후되고, 주변이 그리 정리되어 있지 못한 음울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주변의 대지형상은 전형적인 일본의 '나가야(長屋)'라는 주거형식을 담을 수 있는 좁고 긴 필지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이면도로에 접해있는 이 대지는 나가야를 건축할 수 있어 보이는 규모의 필지가 합필되어 정방형에 가까운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곳에 하나의 그림이 될지 모르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주변환경과 대지의 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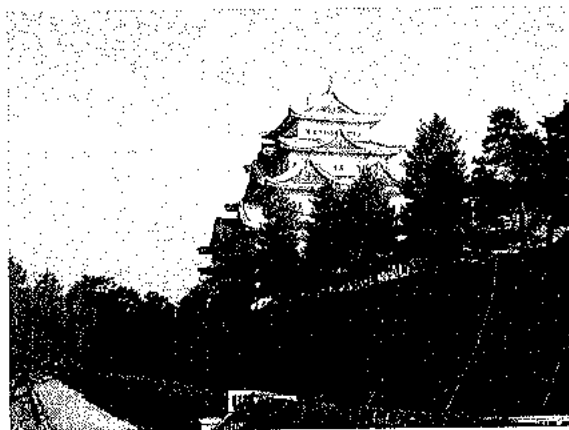
배경이기보다는 그림이기를 주장하는 건축

일본의 거리를 보면 건축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매우 독특하고 특색있는 거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가로풍경의 근원은 가로를 구성하는 건축물들이 보이지 않는 디자인 통합체계내에서 서로가 타인의 작품을 위한 배경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 거리의 모습에서 나고야총영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주변이 아직은 그리 개발되지 못한 상태여서 변변한 건축물 하나 없다. 허름한 구옥들과 나대지, 그리고 노의주차장 등. 이 대지 역시 이전에는 여관이 있던 곳이라 했다. 대지 주변으로 정리되지 못한 잡연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작은 건축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 같다.

밤이 되면 주변은 어떻게 변할까. 밤거리의 모습이 궁금하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일찍 어두워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밤의 길이가 길어 보인다. 따라서 많은 건축물들이 밤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경관조명이라는 어휘로 표현해내고 있다. 쇼원도우 외부로 퍼져나오는 조명은 도시를 아름답게 하며,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어준다. 한국의 작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밤이 되면 이 거리는 인적이 뜸한 거리로 변한다. 방범서터가 내려진 나고야총영사관은 마치 굳게 닫힌 나고야성의 이미지만큼이나 철옹성이 된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업무공간으로서의 사무소 건축이라기보다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건축물로 변해버린다. 풍경화에서 그림처럼 오브제로서의 건축에 충실한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형태와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밤이적 형상의 덴슈가쿠

벽속에 감혀진 유리집

우리는 가끔씩 TV를 통하여 일본 극우익단체의 테러위협에 시달리는 대사관을 바라볼 때가 있다. 그리고 그 한편에선 고유한 업무인 자국민의 보호와 비자신청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행렬을 보게 된다. 즉 영사관은 보안상의 '안전'과 대민 업무에서의 '서비스'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속성을 담아내어야 하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특성은 형태적으로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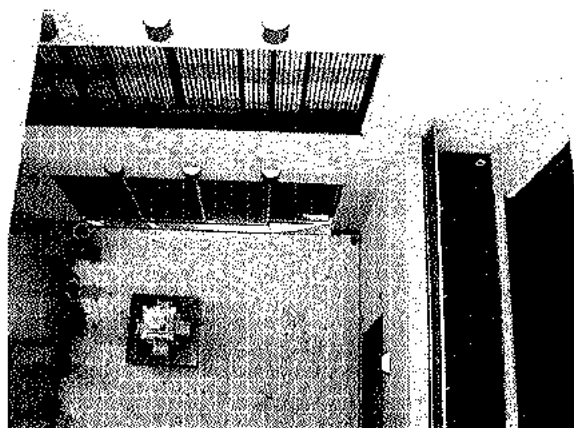
첫째, 재료에 의한 매스분절이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인이 느낄 수 있는 시각범위내에서는 확강암을 이용하여 방어적인 재료처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중경으로서의 모습은 상부로 돌출된 유리 매스에 의해 현대적인 사무소 건축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나고야총영사관의 모습을 필자는 한마디로 '벽속에 감혀진 유리집'으로 부르고 싶다.

중세 르네상스의 팔라쵸처럼, 아니 가까운 나고야조(名古屋城)의 덴슈가쿠(天守閣)의 계획 기법인지도 모른다. 외부인의 침입에 대해 방어적이어야 하는 건축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저층부에 육중한 석재를 사용하며, 외부로 창을 잘 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거주자의 쾌적성은 내부로 향해 열려져 있는 중정이나 높이를 이용한 시각적 조망을 통하여 추구되어진다. 나고야총영사관은 이러한 기능적인 필요성에 대응하는 형태구성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의 수직적 분리이다. 저층부는 민원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지만 상층부는 제한된 영사나 공관원의 출입만이 허용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은 수직적인 기능분리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공간을 들여다 볼 수 없는 반사유리(Mirror Glass)라는 재료적 측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저층부 개방공간은 스킵 플로어에 의해



요코하미 총영사관 전경



브릿지에서 내려다보는 후정

시각적으로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2개 층이 오픈된 로비 공간은 다목적 홀과 문화홍보실 등의 대민 공간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요구에의 대응이다. 최근 외교부와 통상부가 통합되어 외교통상부라는 새로운 부처가 생겨났다. 이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이제까지의 단순한 외교업무로부터 한 단계 뛰어넘어 교민단체의 중심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국 상사에게 무역이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사관이 하나의 비즈니스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형태적 이미지도 전시 및 행사를 위한 다목적 홀과 문화홍보,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장소로서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사관 건축이 자국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이미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도 사무소 공간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고야총영사관의 형태적 특성은 형태적 표현에서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적인 것에 대한 집착

아마도 작가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나 보다. 일본 땅에 건축된 한국 건축물, 건축법규 상으로도 일본 건축법의 적용에서 예외적인 '치외법권'의 땅이다. 그 땅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업무공간을 담는 과정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미련은 작은 후정을 남기고 있다. 전통적 기와지붕이나 열주에 의한 형태적 표현에 비해서는 공간적 해석에 의한 시도이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에 의해 즐길 수

있는 공중정원이 되기를 바란 것 같다. 2층 문화홍보실의 배경이 되는 후정, 사랑방의 낮은 턱 너머로 내려다보는 후정, 마치 반가의 사랑채를 담으려 한 것 같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갇혀진 공간이 되어버렸다. 보안 시스템 때문에 접근이 차단된 2층의 깊은 공간, 허공을 날아다니는 브릿지와 보 아래 작은 탑이 하나 놓여있는 공간. 유색 하드너와 검은 공자갈에 의한 재료적 이질감, 사괴석 담 너머로 보이는 것은 배경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보와 벽체에 의한 솔리드한 이미지뿐이다.

또한 건축가가 고민하였던 한국적 공간에 대해서 현지에서 만난 사용자는 거의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업무공간으로 직접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바로 퇴근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국적 정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사관을 방문하는 외부인(한국인이거나 비자신청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대민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1층 또는 반2층의 공간에서 대기하는 동안 시각적으로 또는 직접 접근하기 쉬운 레벨에 위치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특히 공간적인 전개수법은 일본의 전통주거인 「나카야」의 깊은 곳에 그들만이 즐기 위해 만들어 둔 작은 후정처럼 매우 사적인 작은 정원으로 보여진다. 형태적 표현은 한국의 전통적인 디자인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간적인 전개수법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문화적 충돌과 흡수

최근 한국문화시장에서는 상당한 긴장 속에 일본문화의 개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보편화된 일본문화에 대해, 기성세대는 감정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상당히 역지개방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일본

문화가 우리의 안방까지 침투해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지 만 일본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건축분야에서도 건축을 배우는 많은 학생들이 안도 타다오의 작품 읽기를 즐겨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다. 또한 기성 건축가들도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우리 건축시장에 가장 가깝고 이해하기 쉬운 상대로 일본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나고야총영사관은 이러한 경향과는 반대로 일본 땅에 건축되어진 한국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IMF 이전 국내경기가 호황이었던 때 국내시장에 진출한 무수한 외국의 건축가들처럼 이제는 우리 건축가가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주가 한국 정부라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 건축가의 작품이 일본 땅에서 실사실계로 풀어지고, 시공되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충돌과 흡수의 메카니즘이 궁금해진다.

일본의 건축생산 시스템은 우리와 다른 것이 많다. 나고야총영사관은 한국에서 현상설계에 의해 계획안이 결정되긴 했지만 결국 일본에서 사용가능한 현지 기술과 노하우의 지원을 받아야만 실현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고야총영사관 건축설계 및 시공과정은 현지 법인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총격흡수가 가능하였던 것 같다. 이는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기제로 보여진다.

그 결과 국내에서의 기능적 요구와 현지에서의 기술적 대응이 적절히 잘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나고야총영사관은 대부분의 일본 건축물 답지않게 상당히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스킵 플로어에 의한 주차공간 확보는 지하 구조물을 구축하는데 열악한 일본 특유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충돌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한국적인 정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디

테일로 느낌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일본의 기술자와 건축가의 사고 사이에는 분명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주인없는 건축물

이 건축물은 주인이 없는 것 같다. 아니 주인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내고, 작가의 사고를 표출해내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리라. 하지만 가끔씩 우리나라의 관공사는 현상설계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시공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져있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다. 나고야총영사관 역시 조달청으로부터 발주되고, 현지 공관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건축물이 시공될 즈음에는 또 다른 요구사항을 접하게 되는 등 주인없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반복된 것처럼 보인다.

특히 주 출입구의 로비부분에 보이는 반원형의 전실을 위한 공간, 행하네 남겨진 주진입구 상부의 벽체, 왠지 디자인적으로 통합되어 정리되지 못한 로비공간의 디테일 및 재료선정, 박제화된 박물관적 한국성으로 남겨져 있는 후정 등 건축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작가에게는 미련이 많이 남을 부분인 것 같다. 나고야총영사관의 건축적 전개과정을 바라보면서 주인없는 건축을 작가의 일관된 사고아래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나가기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도 건축가의 머리속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미련이 남게 마련이다. 이 프로젝트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경기인 국내 건축시장을 탈피하여 한국의 건축가가 세계로 나아가는 작은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of Nagoya
- What this title primarily implied to me was the age-old problem of defining the form of what is truly ours. Before the investigation on the actual work, let us begin with a look on the background of its realization.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value of this project, it seemed that the process of design competition, the debate on tradition and comprehending the context of Japan, and the modification of plans du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site had to be considered.

Of course,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a diplomatic office, representing our nation, is built on foreign land. It is in fact the third built in Japan, following

Yokohama and Fukuoka, which is guided by our Government's project to nationalize our foreign offices. The clien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quested a "Modern-styled building adjusting to the site's condition," one that is "Creative, functional and efficient," and with the exterior that is built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that is at once contemporary and visionary."

The fact that they did not ask for a building with traditional form is worth mentioning: It is a breakoff from our past's oppressive obsession with historical style. But if not that, what? Freedom opens the door to a too broad possibilities, which means that so much is left for the architects to decide. The burden was

not a light one, since the work is to represent Korea and the architecture of our nation.

Reading the City of Nagoya

Nagoya is the birth place of two of the three most important people of Japan's middle ages, and is now the largest industrial city of Japan. The architecture of this city, whose past is represented by Tenshugaku of Nagoyajo, was virtually destroy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later rebuilt, with the emphasis on good environment, exemplified by the presence of Hisawadodori Park, with 50m wide pedestrian ways in the CBD.

With long tradition of craftsmanship and rituals, it is a city of conservative, sometimes obstinate, atmosphere. A city of heavy industry, the site of the successful International Design Exhibition of 1989 and awaiting the next one in 2005, the home of Junichi Dragons, the baseball team where three of Korea's most valuable players are currently active - This is Nagoya, and in it, is "Korea within Japan,"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The building, 5 minute's walk from the Nagoya Station, is located on the rear side of the main road. The neighboring condition is rather undeveloped, where each building area is fit for traditional Nagaya, houses with long and narrow plan. The site of the Consulate General, however, adds three of these lands and thus provides an area of regular square. Here, a building is present: one that could be an object of a painting.

Architecture More of an Object than Background

The streets of Japan is usually a combination of individual buildings that results in idiosyncratic characteristics. There is an unmentioned integrating system among them, where one acts as a background for the next one.

In this respect, what could be the role of the Consulate General in this context? As most of the area remains untouched, old houses scattered here and there with some outdoor parking spaces in-between, there is not much you can call a context. These undesirable conditions, however, may provide this new addition to act as a catalyst for renewal.

As the night in Japan is longer than that of Korea, it is one of the primary concerns of Japanese architecture to design their appearances after dark. Artificial lights coming out of show windows decorate the night streets, which welcomes the nighttime walkers. How should a Korean architect deal with such aspects?

The street of this area, however, becomes abandoned after dusk. The steel shutter of Consulate

General's main gate seems to be as exclusive as the Castle of Nagoya. More of an object than a place of easy access, the architecture becomes an element from a landscape painting. This image also revealed in the process of its formal design.

Glass Office Surrounded by Defensible Walls

We have seen on TV the image of an endangered Embassy building, under the attack of extreme-rightist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we have seen people waiting in long lines to receive visas. The mission of a diplomatic office is double-faced: One seeks protection for security reasons, while the other aims for service. These contrasting features are directly displayed in the formal organization of this building.

First, the volumes are divided by the use of materials. From the narrow approaching road, the areas of visual contact from the passing pedestrians is finished with granite that provides a sense of security. In contrast, the view from a distance is that of a modern office building, dominated by the projecting glass volumes. I wish to describe this image of the Consulate as a "glass office surrounded by defensive walls." This method could have been derived from the Renaissance Palazzos, or, to take a more close example, Tenshugaku of Nagoyajo. A building with defensive needs is usually of heavy texture on the lower parts, deprived of windows. The exclusiveness is compensated by the openness towards the inner court, or, making use of its height, areas of good vistas, methods that are formally borrowed in the Consulate.

Second, the organization of programs follows a vertical order. While the lower area is open for general services, the upper levels are highly restricted, accessible only to staffs, whose closure is all the more strengthened by the use of one-way mirror glasses. The lower floors, with its skipped-floor composition, has visual connection among space units, and the double-height lobby unites the multipurpose hall and the culture information sector.

Third, I must point out its answers to new requests. As the government incorporat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into the Ministry of Foreign Commerce, the Embassies and Consulates also had to expand their functions: Now they had to deal with, apart from the normal diplomatic affairs, commercial activities, providing Korean companies with recent informations on foreign trades. They were endowed with the new mission to find larger foreign markets, and to fulfill these assignments, they should embody the function of a business center. Its overall image should also become that of a multipurpose hall, open for exhibition and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business events. This is where it should depart from its

old insistence on traditional forms, and seek a image with broader capacities. Its programmatic purpose as an office already inherits this possibility. The Consulate General of Nagoya successfully emits this new odor of farseeing functions.

Obsession with Tradition

Nevertheless, touches to create "What is Korean" remains visible in many instances. Korean Consulate in Japan is virtually a work of Korean architecture, even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of Japanese building codes. In creating a working space for the Koreans, the architect has made room for a little court in the rear side. This sort of spatial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traditional buildings is without doubt a meaningful departure from the past's formal imitations. It is directly accessible from the outdoors, and acts as an open roof garden, becoming the background of the culture information sector of the second floor. It is a reminder of the view of a rear garden from the Sarang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seen over the lifted threshold of its entrance.

In actual use, however, it became even more difficult for its users' access and became a closed space. For security reasons, the space became restricted, with only objects of bridges, small towers, and floors of hardener and black gravel filling its vacant spaces. What becomes its framed view is not the sky but a hard image of girders and walls.

The concern for Korean images was also almost detached from its actual users. The staffs of the Consulate, in the morning, comes directly into the office and later leaves the same way. Who does the Korean garden serve? It certainly isn't for the visitors, since, in that case, it should have been located visible to the diplomatic service areas of the first and second floors.

The design of spatial advancement is rather similar to that of the Japanese Nagaya, where the court is reserved only for private purposes. The expressed image of the building seeks something Korean, but its spatial plot is more Japanese than ours.

Clash and Absorption Between Cultures

Facing the gradual import of Japanese Cultures, the culture market of Korea is currently in a very cautious mode. It is already popular among the young generations, but the old folks are, for emotional reasons, against this cultural invasion. Although it is now a significant part of our everyday lives, the influence of Japanese is something we would rather not talk abou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students has long respected the works of Japanese architects such as Tadao Ando, and travel to Japan to visit and inspect their

works. Practicing architects also cannot deny the intimate presence of Japanese architecture.

In contrast, the Consulate General of Nagoya is an architecture built by us in their land. As many foreign based architects got the chance to work in Korea before the IMF-aid, it is now our turn to march into overseas markets. Although it is a special case where the client is the Korean government, one still wonders, in the course of its design and construction, about the clash and following absorption between the cultures of two countries.

There is a lot of difference between the architectural construction system of Korea and Japan. The design competition for the Consulate was held in Korea but the actual construction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and know-how of the Japanese. This architecture, not only in terms of technology, but in respect of culture also, was an amalgam of Korea and Japan, fulfilling the former's functional requests by the latter's technologies. For instance, this building, unlike those of Japan, houses parking space of large capacity. But its structural support is done by skipped-floor reflecting Japan's special concern for underground structures due to frequent earthquakes. A more subtle example of conflict could be found in the technical details in realizing the Korean courtyard. Inconsistency between the Korean architect and the Japanese engineer is sure to have occurred.

Work of Architecture Without a Client

Looking at this building, one gets the strange thought that it is an architecture without a client. Maybe it's the opposite: It may have too many. The role of the architect is to accept the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client and integrate them with his own ideas of architecture. But the public offices of Korea, even in cases where it was built through the proper procedures, tend to end up with a rather unfriendly gesture. The construction of this Consulate also followed a similar path: Initiated by the Office of Supply, receiving requests from the staffs in Japan, and later having to adjust to more requests, it was a process concerning too many clients, or none at all.

The semicircular space for exhibitions in the main lobby, the vacant wall above the main entrance, the segregated choice of materials in these spaces, and the "Korean court" in the rear side should be parts of the project that the architect would wish he'd done better. It must have been difficult to preserve his own vision in this "no man's" project.

Every completion of an architectural work leaves the architect with dreams and ideals unfulfilled. Through the valuable experience of this project, the architect should aspire to advance into the world of architecture of the world.

20세기 건축의 건축사적 의미

The Meaning of 20th Century Architecture

김광현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by Kim Kwang-Hyun

20세기 건축의 의미

작렬하던 20세기가 서서히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이 20세기는 건축에 본격적인 기술을 가져다주었다. 물론 20세기 기술이 다른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건축과 도시에 대한 기술의 영향은 다른 분야보다도 더욱 직접적이며 강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이후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할 나위도 없이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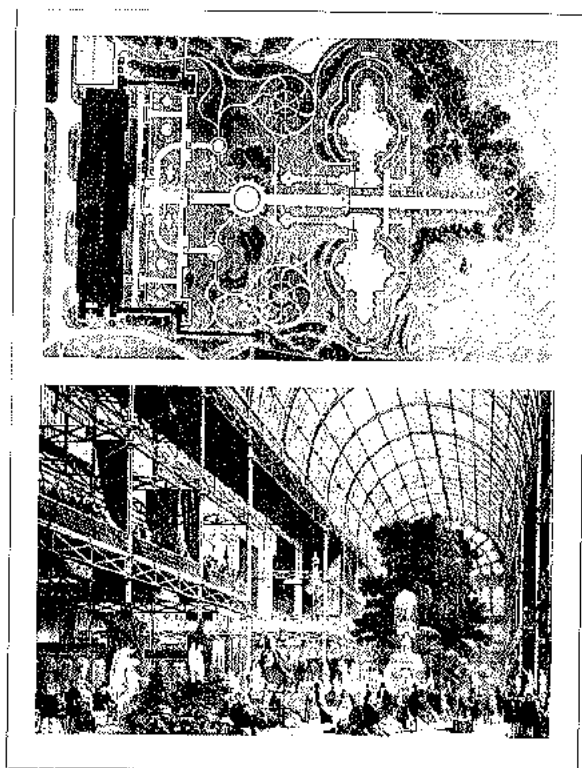
우리는 흔히 근대이후의 건축의 특성을 조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데 스테일의 조형적 성과를 들어 그것을 근대의 최종적인 성과처럼 생각하거나,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와 건축의 관계를 들어 마치 근대건축이 영화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조형을 실험한 듯이 생각하는 것은 근대를 너무나도 심하게 축약해 버리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 구성주의를 생각해도 부유하는 듯한 형태의 조합을 먼저 생각해도, 그들이 현실적인 배경이 없음에도 부단히 기술에 부응하고 그것을 건축의 중심과제로 생각해 온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근대건축을 배우며 르 꼬르뷔제의 '기계미학', '살기 위한 기계'로 근대의 기술을 해석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대의 핵심적 패러다임은 아닌 것이다. 한때 불명의 명저였으나 지금은 별로 읽히지 않는 기다온의 「공간·시간·건축」도 조셉 팩스톤의 수정공에 기원을 둔 기술 중시의 역사관이었다. 이에 대해 레이너 뱌헨이 「제1 기계시대의 이론과 디자인」에서 주장하려 한 바는 제1 기계시대는 기술에 관심을 표명하였지만, 이것은 기술을 문화로 치환한 것일 뿐 문명이라는 의미의 기술의 시대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뱌헨에 따르면 제1의 기계시대가 있고, 이를 반성한 제2의 시대가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근대건축의 힘은 '기계'를 추상화하고 이를 건축형태의 요소로 대입한 데 스톨 건축가들의 에너지를 그 속에서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연한 곡선을 따라 외곽을 차단하는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요소도 마찬가지로, '주거 기계' 속에도 추상적인 격자와 대입하는 인간의 생리적 의미를 부여한 르 꼬르뷔제의 구도가 그 안에서 되살아난다. 이와 같

은 건축형태의 힘들은 단절된 시간을 넘어 지금은 비록 약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적은 에너지나마 우리가 그 형태와 공간 속에서 감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기계'라는 '원점'에 근거하여 새로운 건축의 요소를 발명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흔히 근대건축을 한 시대를 풍미하던 신화의 산물이었다고 여기기 쉽다. 이때 신화란 허구라는 말과 같은 뜻을 지닌다. 이에 있는 수 없는 목적지를 찾아 지나간 여로를 나선 그들은 결국 실패했고,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근대건축의 이상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비판이 담겨 있다. 그러나 건축역사상 그 어느 건축도 성공한 예는 없다. 어떠한 시대의 어떠한 건축도 이상이라는 원점을 지녀왔으며, 그 원점을 향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고, 또 달리 변형된 이상이 생기면 그것을 뒤쫓아갔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역사상의 모든 흐름은 신화적 산물이다. 왜냐하면 건축이란 신화적 산물이 아니면 그것은 실제로 실패를 노출할 수 없는 숙명을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을 신화적 허구로 비판하는 것은 건축역사의 흐름을 외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오히려 각 시대의 건축이 신화처럼 보이는 것은 그 건축이 자체적으로 완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곽에서 그 건축을 읽는 방법이 이미 신화적이기 때문이다. 각 시대의 건축은 외적으로는 신화의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할지라도 건축을 안에서 읽어 가면 실제로는 그 내부가 균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대건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근대건축을 읽어 가는 방법만이 신화적일 뿐 근대건축 자체는 완결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근대건축이 신화적이라면 근대건축의 앞을 가리고 있는 스크린은 신화적인 것이다. 절대적이던 모더니즘의 가치관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래 상대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기능주의와 같은 것으로 단순화한 다음 이를 하나의 신화로 여기고 비판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근대 디자인에 대한 비판조차도 역사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근대적인 시각을 면치 못한다. 투시도의 고정된 세계 대신에 운동하는 공간 개념을 도입한 기다온의 「공간, 시간, 건축」은 모더니즘을 신화로 만든 대표적 예이지만, 기술과 예술기법을 동일하게 전개되는 것이라고 본 것은 그가 20세기를 바로



수정궁의 배치도와 내부

크 아래의 완전히 통합된 문화로 여겨기 때문이었다. 근대건축 자체는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모순을 담고 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점은 모순이란 어디까지나 건축가의 건축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만 산출되었다는 사실이다. 근대건축은 유토피아를 전제로 한 건축이며, 그 유토피아란 단적으로 추상과 기계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이 두 가지 축은 근대건축의 두 개의 극인 형식주의(Formalism)와 생산주의(Productivism)에 해당된다. 앞의 것은 데 스틸처럼 직접적인 생(生)을 철저히 배제하고 그것을 통해 현실을 새로운 생으로 개혁하려 한 것이며, 뒤의 것은 이와는 반대로 하네스 마이어의 초기능주의처럼 직접적인 생을 철저히 형식화하려 한 움직임이었다. 결국 이 추상과 기계는 앞에서 말한 허구라는 사각형의 좌우를 당기고 있는 두 개의 축이며, 다양한 모순을 만들어낸 원인이었다. 이처럼 한 권의 근대건축사 책에 실려 있는 모든 운동들은 결코 일사불란하게 한 점을 향해 완성된 신화가 아니다. 근대건축이란 그 중에 어

떤 것들은 근대의 이상을 건축적으로 완성하려다가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실패한 것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대리인이 되어 근대의 이상을 침식해 버린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건축이론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순 때문에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등, 각종의 단편들이 혼재해 있는 불연속적인 과정이다.

한때 기계는 문화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60년대 이후 근대건축은 다음 아닌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의 바탕에는 전통적으로 과학과 인간성이란 서로 상반되며, 따라서 기술과 예술은 서로 일치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70년대에는 기계화에 의해 잃어버린 인간의 관습과 역사를 의미하는 측면에서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건축 형태에 대한 의미도 크게 바뀌었다. 예를 들어 알란 코훈이 말하는 형태에 대한 두 가지 구별, 즉 테크놀로지의 의해 의미가 삭제된 'Form'과 역사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Figure'는 결국 기술이 개입된 형태와 인간성과 역사가 개입된 형태의 분류를 뜻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기술은 과거의 그것보다 더욱 급진적이어서 오히려 문화 전반을 반전시키는 주역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문화와 기술의 역동적인 관계는 비단 오늘날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근대 이후에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다. 이렇듯 근대건축이 추상과 기계를 자신의 양극으로 설정한 것은 급진적으로 전개하고 있던 테크놀로지의 문제를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제였다. 바꾸어 말한다면, 그들이 설정한 추상과 기계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기 위함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기계 속에 인간을 '밀어 넣기' 위함이었다.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사고와 감성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은 현대건축과 디자인의 세계에서만 새로이 인식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인식은 이미 모더니즘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이를 포함하여 '근대의 프로젝트'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이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기계는 인간생활에 깊은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의 발전은 생활의 환경을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인간의 생활양식과 감성과 관념을 변혁시켰다. 그 이후의 근대 디자인은 인간의 생활과 환경을 어떻게 변혁시키고 어떠한 사회를 실

“

한때 기계는 문화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60년대 이후 근대건축은 다음 아닌 이러한 관점에서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비판의 바탕에는 전통적으로 과학과 인간성이란 서로 상반되며, 따라서 기술과 예술은 서로 일치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

테크놀로지가 개입되면 종래의 표현은 상대화되고 특정한 방식으로 다시 이와 결합한다. 그 결과 예술과 비예술은 서로 반전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20세기 예술의 특징인 것이다. 이렇게 근대건축에 있어서는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표현기법을 직접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이 현실을 뒤쫓아가며 기법의 혁명을 이룬 것이다.

현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장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기한 추상과 기계란 본질적으로 유토피아의 이미지를 담은 것이었으며, 또 그것을 실천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사회개혁과 이데올로기로서의 디자인이 시장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은 이미지로 가득 차고, 소비사회 그 자체를 낳는 상품으로써만 인식되게 되었다. 근대의 프로젝트와 소비사회의 상품으로써의 디자인, 그럼에도 건축에서 기계가 차지하는 위치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다. 즉 테크놀로지가 문화로 역류하는 현상은 80년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라 다다이스트처럼 부정적이던지 구성주의처럼 긍정적이던지 간에 이미 20세기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난 것이었다. 단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댐이나 고층빌딩과 같은 방대한 규모의 것이 80년대에 들어와서는 PC나 워크맨처럼 피부에 밀착한 기계로 바뀌고 있다는 것과, 생활공간을 개혁하는데 이론과 실천상 주요 동인이었던 기계가 이미지의 미디어로써의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배경과 수단이 되었다는 점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 근대건축이 사고의 모델로 삼아 왔던 테크놀로지를 단순히 객관적인 도구에 얽매인 것으로만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근대건축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테크놀로지에는 객관적인 도구성에 머물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는 단지 즉물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인 컨텍스트와 연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인간의 지각이란 기계가 발명되면 이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그러했듯이 공간과 시간을 꿰어내려는 사회적인 요구가 이에 따른 테크놀로지의 발견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겨난 것이다. 또한 기록사진이란 사진의 기계적인 기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자신을 기록하고 역사화하려 할 때 생겨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종래에 없었던 순간에 대한 감수성이란 반대로 사진이라는 새로운 매커니즘의 등장과 함께 발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건축과 기계에 대한 관계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디온과 같은 근대의 건축사가의 기술결정론은 조셉 팩스톤의 수정궁(1851)을 들여 20세기 건축이 기술적

으로 결정되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을 주의 깊게 읽어 가면 기술이 예술표현의 개혁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기디온은 「공간, 시간, 건축」에서 수정궁을 “이 수랑(袖廊) 부분은 모든 유형물이 그 주위에 융합하고 있는 듯한 원경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 장관을 비길 데 없는 요정의 세계와 같은 광경이라고 부른다 해도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 그것은 대낮에 눈부신 빛 속에 보이는 ‘한여름 밤의 꿈’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한여름 밤의 꿈’을 터너(Turner)의 환상적인 풍경과 같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술결정론을 주장하는 기디온조차도 그 내면에서는 기술적 산물에 나타난 꿈과 상상력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역학의 산물인 애플탑과는 분명히 다른 테크놀로지의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다.

빛을 투과시키는 새로운 근대건축의 유리 공간은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표상해 주는 것이었다. 유리로 덮인 샤를 푸리에의 유토피아 공동체 ‘파랑스 테르’나 자본주의적 상품을 전시한 1867년의 파리 박람회 패빌론, 작동하는 기계공동체의 이미지인 김츠부르크의 ‘사회적 웅축기’, 사회주의적 이상을 대신한 브루노 타우트의 유리 건축 등 이러한 것들은 테크놀로지가 사회적 문맥과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반증해 준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와 예술표현의 기법은 결코 연속적으로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레이너 뱌헨은 「제1기계 시대의 이론과 디자인」에서 고전주의가 합리주의를 표방한 근대건축의 배후에 깔려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은 테크놀로지와 예술기법의 발전이 직접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테크놀로지가 개입되면 종래의 표현은 상대화되고 특정한 방식으로 다시 이와 결합한다. 그 결과 예술과 비예술은 서로 반전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20세기 예술의 특징인 것이다. 이렇게 근대건축에 있어서는 기술의 발전이 예술의 표현기법을 직접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술이 현실을 뒤쫓아가며 기법의 혁명을 이룬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리얼리티 하나로 수렴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 디자인은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이후에는 기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사진을 통해 순간을 고정시키거나 달리는 차의 창을 통해 보면 전혀 다른 세계를 느껴듯이, 사물을 분광기나 현미경을

“

근대에 이르기까지 테크놀로지는 각각의 시대가 획득한 구조형식과 공법과 재료를 통해 건축 속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왔다. 건축은 문자 그대로 테크네의 총체였으며 테크놀로지의 직접적인 산물로써의 공간을 만들어 왔다.

”

통해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술과 무관한 사람도 포장지나 전기 기구, 자동차나 텔레비전의 효과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거쳐 감성이 변화해 간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적 감성과 무관하기가 어렵다.

테크놀로지가 근대 이후의 건축에 중요한 것은 바로 기계가 개입하여 인간의 눈을 비롯한 여러 감각기관을 다시 편성한다는 데 있다. 테크놀로지는 본래 중성적인 것이지만, 이질적인 테크놀로지는 건축 속에 개입하여 다양한 반사를 일으킨다. 이는 테크놀로지 속에 건축과 도시의 사물을 달리 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건축은 도시 속에서 새로운 리얼리티인 테크놀로지에 반응하고, 그 리얼리티를 통해 새로운 감성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된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테크놀로지는 각각의 시대가 획득한 구조형식과 공법과 재료를 통해 건축 속에서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왔다. 건축은 문자 그대로 테크네의 총체였으며 테크놀로지의 직접적인 산물로써의 공간을 만들어 왔다. 테크네로써의 건축은 비트루비우스의 건축십서 이래 거대한 기술의 총체였으며, 건축서는 건축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늘 강조해 왔다. 신비로운 빛이 충만한 수직공간의 고딕성당이 그러하며, 벽돌조의 쿠폴라의 이중벽으로 공간적 스케일을 제한한 브루넬레스키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처럼 기술의 총체였던 건축은 근대에 들어와 양상이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근대라는 시기에는 각종 기계와 자동차, 전기기구와 무선 통신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비대화함으로써 건축에 직접 대입할 수 없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공간과 시간에 대한 지각 방식은 크게 변모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미래파란 바로 이와 같은 급변하는 테크놀로지에 의한 지각 방식의 변화를 의식한 운동이었다. 이처럼 근대 이후의 건축은 단지 오브제의 기계화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논해 온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대건축과 기계의 관계를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안이하게 비판할 일이 결코 아니다. 일반적으로 근대 이후의 건축은 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양상을 드러내 온 것으로 설명된다. 먼저 근대건축에서 건축을 기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직접 연결한 인물은 다음 아인 로 코르뷔제였다. 그가 말하는 “살기 위한 기계”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그것

은 기술적인 성과에 의해 새로운 건축공간을 만든다는 뜻이 강하다. 이때 그의 모델은 대양을 향해하는 대형 선박과 자동차였다. 선박은 자유로운 이상적 공동체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자동차는 양산과 표준화를 위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건전한 신체와 기계를 통해 새로운 정신을 가진 고귀한 야만인의 이미지를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연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그는 기계가 신체 그 자체를 변용시키는 원인으로 본 것이다. 다시 말해 건축적 공간이 신체와 기계 사이에 위치한다고 봄으로써, 신체 - 공간 - 기계라는 등식 속에서 기계와 신체가 서로 평행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모터나 발전기의 형태를 그대로 건축화하여 보인 러시아 구성주의 자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공간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체를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즉 아키그램의 ‘프러그 인 시티’나 ‘워킹 시티’에서처럼 신체 - 공간 - 기계라는 패러다임 중에서 건축적 공간을 삭제해 버리고, 신체와 기계를 직접 연결하려 하였다. 환경 제어 유닛은 개인의 의복과 같은 수준으로 환원해 버림으로써, 인간의 신체를 지켜주는 헬터로서의 건축공간의 영역을 제외하고 테크놀로지가 신체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하여 잃어버린 ‘공간’을 재생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공간은 근대건축이 추구하던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신체와 기계가 직접 작용하여 만들어진 비물질적인 공간이다. 즉 물리적인 공간이 테크놀로지와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와 테크놀로지가 직접 작용함으로써 사물에 이트되어 중력이나 거리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의 조건이 제외된 비물리적인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실체적인 공간이 비실체적인 공간으로 재생되는 방법을 취한다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건축이 공간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마치 근대 초기에 있어서 건축이 아방가르드가 되기 위하여 예술을 부정하고 테크놀로지에 의존한 사실과도 같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즉 근대건축의 공간 - 기계는 이렇게 비물질화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미분화된 시점에서만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적이며 형태를 가진 건축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렉트로닉

20세기의 건축에서는 이와 같이 테크놀로지가 파생시키는 감성적 세계와
그 사회적 의미가 근대 초기부터 함께 존재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건축의 기계와 테크놀로지란 결국은 '구축'으로의
건축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경로일 뿐이다.

테크놀로지 속에서는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앞설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세계는 점차 영상과 같은 비물질적이며 비물질적인 사물로 접근하고, 도시는 허구의 산물로 뒤바뀐다. 반대로 영상이 실물처럼 사실성을 표현하고, 물질과 비물질의 한계는 점차 불분명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건축은 테크놀로지를 가장한 하나의 미디어가 되어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은유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오늘날의 건축은 각종의 편차를 가진 테크놀로지를 찬미하는 데 유일한 돌파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은 건축과 도시를 자의적인 '문화'의 영역에서 논의하려 한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주의와 급진전하는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에 입각하여 '차이'만을 주목하며, 규칙성 또는 법칙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규칙과 법칙이란 자유롭고 다양한 표현을 저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규칙과 법칙은 경직화하면 자유로움을 방해하지만, 규칙과 차이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규칙과 법칙을 경직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 쪽에 있다. 종력의 법칙에 따라 세워진 건축은 그것에 종속되면서도 다양함을 갖듯이, 어떤 규칙이나 법칙도 원칙적으로는 자유로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건축을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일부로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의 본래 목적이란 질서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점을 잊고 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 패널이라는 금속은 원리적으로 섬세하고 평탄한 표면, 이러한 단면이 주는 긴장감을 나타낸다. 이처럼 테크놀로지는 질서를 통해 보다 많은 가능성을 가지려고 노력한 결과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근대건축의 테크놀로지적 미학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무질서는 근대의 테크놀로지와는 궤를 달리하는 반(反)테크놀로지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양상은 서로 상반된 것일까? 그러나 테크놀로지는 외부로 포함하기 위하여 오로지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갈 뿐이다. 테크놀로지의 근거는 테크놀로지 내부에만 존재하며, 테크놀로지는 풍화와 변형을 끊임없이 외부로 배제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금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고 침식되며 녹이 쏜다. 다시 말해 이전의 구축된 질서가 해체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테크놀로지는 처음부터 침식되고 녹이

쏠게 만들지는 않는다. 침식되고 풍화되며 녹이 쏘는 작용은 질서에 대한 무질서이지만 테크놀로지는 본성적으로 부단히 이러한 무질서를 질서 안에 포용하려고 한다. 이것이 테크놀로지의 속성이다. 다시 말해 테크놀로지란 기본적으로 규칙성과 법칙성에 근거한 '구축'의 작용을 의미한다. 이른바 해체란 기존의 체계와 규칙성을 단순히 비판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구축'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에서만 비로소 나타날 뿐이다. 테크놀로지란 본성적으로 자기완결을 지향할수록 그것이 담지 못하는 외부가 더욱 명확히 떠오르는 패러독스가 있음을 말해 주는 가장 좋은 예이다. 즉 포지티브한 방향이 커질수록 네거티브한 방향을 가진 반동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근대이후의 테크놀로지와 건축과의 관계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20세기 근대건축가들이 자신의 유토피아를 추상과 기계라는 두 개의 축에 바탕을 둔 것이나, 근대건축이 외적으로는 신화의 구도를 나타내고는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는 실제로 균열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테크놀로지란 그 자체의 내부에는 아무런 저항이 없으며, 아이러니도, 패러디도 없다. 단지 테크놀로지에는 자기완결을 지향할수록 외부가 명확히 떠오르는 패러독스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가 근대건축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특히 건축설계에 있어서 근대건축과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다양한 스토리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는 단지 지금이 테크놀로지의 시대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적인 소재를 잘 활용하자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얻는 바가 하나도 없다. 근대건축은 테크놀로지를 완벽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모델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 왔듯이 근대건축과 기계의 관계를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단순 비판의 대상으로 보거나, 또는 영상과 같은 비물질적이며 비물질적인 사물의 세계를 응시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현대건축이 생겨날리 만무하다. 만일 우리가 근대건축에 대해 수정을 가한다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상태'와 함께 이것이 배출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응시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20세기의 건축에서는 이와 같이 테크놀로지가 파생시키는 감성적 세계와 그 사회적 의미가 근대 초기부터 함께 존재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건축의 기계와 테크놀로지란 결국은 '구축'으로의 건축을 확인하기 위한 또 다른 경로일 뿐이다.

20세기 건축의 변화와 흐름

The Scope of the Architecture in 20th Century

성인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eong In-Soo

누가 20세기를 바라볼 수 있는가?



1937년 파리 엑스포 독일관 모델을 살펴보는 히틀러와 슈페어
(사진출처: <http://www.dataphone.se/~ms/speer/1-03.htm>)

인간 사회의 상황인 현실로서 한 세기는 해당 거주자들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끝자락에서 20세기를 되돌아 본다면 우리들이 느끼는 그 절망감은 옛날 동굴에서 밖을 내다보던 원시인들의 절망이나 불안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에펠탑을 세웠을 때나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인간들은 자만심을 지녔었다. 그러나 히틀러가 유대인을 태워 죽이고, 킬링필드에서 허망한 인간의 잔해를 보고 나서, 인간의 실체에 큰 의문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인류의 이상과 꿈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진 이데올로기가 정치로 인하여 인간들이 처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헤지펀드의 혜택을 즐기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리고 그 헤지펀드의 위력에 망한 사람들은 시간이 남아서, 동시에 전 세계에 방영되는 CNN을 시청하고 있다. 어떤 이는 사업에 도움을 받고 어떤 이는 시간을 죽이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방송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구가 하나가 되었다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 20세기에 파묻힌 이들에게 20세기는 잘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단기 43세기를 이해하고 있다. 21세기의 첫날인 2001년 1월 1일이 19세기의 마지막 날인 2000년 12월 31일

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일이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도, 사람들은 숫자에 매료되어 그 날이 주는 흥분을 즐길 것이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Der Spiegel)이 평가¹⁾한 바로는 18세기의 테마는 '계몽주의', 19세기의 테마는 '진보에 대한 맹신', 그리고 20세기의 테마는 '히틀러와 원자폭탄'²⁾ 이라고 했다. 데어 슈피겔의 루돌프 아우그슈타인 발행인³⁾은 이번주 발행호부터 50회로 예정된 '20세기 결산' 특집의 서문에서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는 1901년 1월 1일 '20세기는 휴머니티와 인류애의 세기가 될 것으로 낙관했으나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히틀러와 원자폭탄'이 금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주제가 됐다"고 밝혔다. 아우그슈타인은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 19세기는 진보에 대한 맹신이 지배한 시대"였다고 평가하고 "강력한 독일 해군이 필요하다"고 한 1899년 독일제국 빌헬름 2세 황제의 발언이 20세기의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처방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인스 같은 대 경제학자도 없고 무한히 증가하는 세계인구 문제를 해결한 묘안도 없다"고 진단하면서 "세계적인 빈부격차로 21세기의 인류 미래도 낙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는 발칵대를 떠난 대포의 몸통과 같은 상황이며 발칸지역은 여전히 폭발 가능성이 있고 중동지역은 과격한 시오니즘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20세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문화부문에서는 적중했다고 평가했다. 금세기에는 헨리 무어를 비롯한 새로운 스타일의 조각가, 건축가, 화가, 음악가가 배출됐고 제임스 조이스, 프란츠 카프카 같은 천재 작가들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20세기 연표⁴⁾ 상으로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 있는 주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914년 1차대전 발발, 1939년 2차대전 발발,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1945년 2차대전 종전, 1949

1) <http://www.spiegel.de/spiegel/index.html>

동아일보 981104 09면(외신) 뉴스, <http://www.kpi.or.kr/konds/doc/general.html>

2) Hitler und die Atombombe.

3) Rudolf Augstein ber die Jahrtausendwende.

역사는 그 자체 내에 상호모순성을 지니는 양면성의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건축의 역사 또한 그러하리라.

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발족, 1950년 한국전쟁 발발, 1957년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1호 발사, 1959년 쿠바혁명, 1966년 중국 문화혁명 시작, 1968년 파리 5월 학생혁명, 1969년 아폴로11호 달착륙, 1975년 사이공 함락, 1976년 주은래·모택동 사망, 1978년 시험관야기 탄생, 1982년 뉴욕 100만인 반핵시위, 1986년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선언, 1989년 천안문사건·베를린장벽 붕괴, 1990년 독일 통일·동유럽 민주화, 1991년 소련 붕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출범, 1997년 북대서양 동맹 탄생 등을 꼽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그 후유증을 거치면서 철학으로 표출된 근본적인 과제는 20세기 후반을 관통하고 있다. 그 과제란 인간 존재에 대한 스스로의 실망과 절망에서부터 철학자들의 깊은 반성으로 이어진 점이다. 서구에서 그리스 이래로 구축된(Construction) 모든 철학의 형이상학을 해체(De-Construction)하기에 이르는 과정이, 현실적으로는 프랑스의 '파리사태'나 '반전, 반핵 학생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새로움을 위한 노력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 새로움을 낳게 하는 혼돈과 그 혼돈 속에서 태어난 새로움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그 자체 내에 상호모순성을 지니는 양면성의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건축의 역사 또한 그러하리라. 21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남은 국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하다.

과거, 그 영원한 거울

우리는 영원한 과제인 역사에 비취진 자산들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며, 그 사회가 지닌 복잡한 사회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특정시기의 사회가 떠오른다는 사실은 19세기가 지닌 사회적 인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19세기에 하



뉴욕 맨해튼의 도시계획도
(출처: L. Benevolo,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p.210)

나의 모델로 중세 고딕사회는 근대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법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일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만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서구건축은 다양한 내용과 결과를 도출한다. 산업혁명 이후의 서구 근대사회가 맞이한 모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⁵⁾

- 도시 비대화에 따른 열악한 슬럼가의 발생
- 육체만을 도구로 살아가는 노동자 계급의 존재
-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져다 준 조악하고 추한 물건들
- 크기만 거대해지고 건축적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들

근대사회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 19세기에 마주하여 증세시대가 건축가나 건축이론가에게 하나의 유토피아처럼 등장했다는 것이 어색한 것은 아니다. 1750년 그리스 파에스툼에 있는 도리아 신전을 방문한 스폴로는 생쥬즈비에르 교회⁶⁾를 설계했는데, 고전적 어휘로 고딕건축의 어휘를 재창조하였다. 퓨진과 러스킨⁷⁾도 출발점에서 고딕양식을 모델로 철구조와 조화를 취하는 방법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20세기초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비우하우스도 중세의 시스템을 동경했다. 바이마르, 뉘른베르크, 베를린에서 시카고의 뉴바우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비우하우스의 교육이념은 창시자인 발터 그로피우스의 이상을 토대로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로피우스의

4) 20세기의 키워드 44개, 한국일보, 980609 33면 기획 3406사

5) 鈴木博之, "근대건축의 관용", 건축20세기 Part 1, 신건축 1991년 1월 임시증가호, 소건축사, 10쪽.

6) Soufflot, Ste-Genevieve.

7) Augustus Welby Northmore Pugin(1812-1852), John Ruskin(1819-1900).

세기말인 19세기 말엽부터 1910년까지 20여년간 다양한 현상 등이 존재했고
역사주의적인 것과 비역사주의적 건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축의 모델로써 새롭게 기계가 등장한 것은 20세기초의 일이다.

이상은 그가 작성한 1919년 선언문에 요약되어 있는데 이 선언문은 다음의 두 가지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건축(빌딩, 즉, '바우(Bau)')를 중심으로 모든 창조예술의 통합, 즉 바로크 미술 이후 상실되었던 일종의 '총체예술'⁸⁾ 이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둘째로는 19세기 중반부터 확대, 과장되어왔던 '천재의 감각'과 스케치의 신화에 밀려 폄하되었던 예술가들의 기술과 장인성의 재고에 대한 요구가 그것이다. 장인의 기준은 중세성당에 나타났던 장인정신이 기준이 되어 고딕성당의 모습은 선언서 표지에 등장했다.

이에 추가하여, 세번째의 목표인 실용성을 기초로 한 예술과 테크놀러지의 새로운 통합이 1923년 부가되었다. 그로퍼우스의 조형디자인과 장인정신의 철저한 훈련에 기초한 모든 예술의 통합 이념은 이제까지의 각 장르에서 진작 시켜왔던 미술이론과 실제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활용하는 데 있었다. 바우하우스에서는 장인정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고딕정신을 빌려왔다. 중세사회 디자인 시스템은 근대의 거대한 생산시스템에 비하여 비판적인 모델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다. 도시의 중세주의는 전원도시를 탄생시켰지만, 중세도시의 자체 형태의 완결성으로 근대도시의 팽창을 수용할 수 없었다. 전통적 유럽 성채도시의 군사, 정치, 경제적 쇠퇴와 함께 1811년 뉴욕에서 격자도시가 탄생한 이후 새로운 도시들은 급성장해 갔다. 그들이 고딕에 탐닉했던 이유는 건축적 대상에 예술성을 부여하는 예술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말 아르누보가 유행했을 때 그들은 다른 모델로 자연을 채택했다. 자연에서 유래한 다양한 자유로운 곡선이나 동·식물의 형태로부터 또는 이국적인 형태로부터 그 근원을 삼아 새로운 형태를 찾기 시작했다. 세기말인 19세기 말엽부터 1910년까지 20여년간 다양한 현상 등이 존재했고 역사주의적인 것과 비역사주의적 건축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건축의 모델로써 새롭게 기계가 등장한 것은 20세기초의 일이다.

Modern: 미국의 포디즘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보면, 채플린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
(사진출처: <http://www.mdle.com/ClassicFilms/FeaturedStar/star6.htm>)

은 영화 '모던 타임즈' (1936)에서 다섯 번이나 실직한다. 채플린은 이 영화에서 컨베이어 벨트 공장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 백화점 야간 경비원, 철공소 정비사 조수, 웨이터 등을 전전한다. 그가 일자리를 잃는 장면들은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서글프다. 자본주의 대량생산 체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 돼버린 그는 결국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고 첫 번째 실직의 아픔을 겪는다. 찰리 채플린이 주연, 감독, 각본까지 도맡아 한 '모던 타임즈'는 이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기, 노동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했던 때를 배경 삼아 당시 체제가 만들어 놓은 인간을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과 부실은행의 퇴출 그리고 실직자가 늘고 있는 지금, 영화에 나타난 그 당시의 아픔과 고민들이 예사롭지 않다.⁹⁾ 당시 미국은 대공황기였다. 대공황은 미국에서만 1천5백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했다. 포드의 경영방식, 이른바 '포디즘' (Fordism)의 독창성과 선구성은 '나는 자동차의 제조업자라기보다는 처리리 인간의 제조업자'라는 그의 말과 같이 기계기술의 혁신이나 합리화에 못지 않은 노동자의 관리방식에 있었다. 포드회사는 노동자들을 단순히 공장에서만 아니라 가정, 이웃관계에서도 이상적인 미국인이 되는 시민교육을 시키는데 주력했다. '포디즘'은 단순한 생산시스템이 아니라 '아메리카 시민'을 배출하는 시스템이 됐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¹⁰⁾

8) Gesamtkunstwerk

9) '모던 타임즈' '한겨레' 기자의 시네마리뷰, 국민일보 990703 26면(문화).

10) '아메리카-아메리카즘-아메리카니제이션' 우리가 살아온 20세기: 13), 문화일보 980502, 05면.

18세기 이래로 모던사회는 공적인 문화와 사회성, 그리고 공적인 생활과 공적인 공간이 사라지고 사적인 감정들만 노출된 사회였다. 근대 이래로 건축에서 개인적 취향을 표현한 개인 건축주가 나타난 것처럼 이미 개인이나 프라이버시의 속성은 근대의 인간들이 스스로의 과거와 이웃 그리고 자기자신들로부터 즉, 모든 공적인 관계로부터 떠난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 네덜란드의 교회노동소나, 벤담의 원형감옥에 근원을 두고 있는, 파놉티콘¹¹⁾은 원형감옥이다. 이 구조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생긴 것도 1821-1837년의 일이다. 파놉티콘은 새로운 형무소 시설로 근대의 새로운 건축의 주제였다. 방사선으로 이루어져 한 곳에서 입구 1방향을 제외하고, 7개 방향으로 뻗어간 감옥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게 만든 구조이다. 파놉티콘은 죄수들이 항상 감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초기 교도소의 모습이다. 푸코(Foucault)는 죄수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묘사하기 위한 상징으로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죄수들이 항상 감시당하고 있으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었다. 푸코는 “그러나 누구에게 감시당하는가? 당국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감시 및 억압기능에 충실한 감옥구조와 그 기능에 억압당하는 인간들의 모습에서 추출된 건축의 당면문제는 기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구조와 그 거주자인 인간사이에 내재된 구조와 틀에 대한 것일 것이다.

모던건축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타난 근대적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1920년대의 아방가르드(Avant Garde)는 빈센트 스컬리, 로버트 벤츄리, 로버트 스텐 등¹²⁾ 예일, 필라델피아 건축가나 정통파 학자의 경향이다. 한편으로 볼프강 펜트, 데니스 샤프, 콜린 로우 등¹³⁾의 그룹은 20세기에 들어서 등장한 모더니즘을 19세기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고 혁신적인 조형언어로 현재 진행중인 사조로 파악하는 그룹이다. 이 그룹은 모더니즘을 20세기에서 천년왕국의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시도를 지닌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모더니즘은 문화의, 생활영역의, 기술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화하였다. 19세기에 중세의 역할은 20세기에서 기계가 대신한다. 새로운 사회적 모델로 중세 개념에서 기계로 쉽게 대체되지 못했다. 타푸리의 달코는 ‘근대건축사’에서 근대건축의 역사는 두 가지 얼굴을 지닌다고 말했다. 건축원리의 정체성을 잃어 가는 과정과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역사이다. 잃어버린 정체성 속에 건축원리 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실종 또는 상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용어 “공적(Public)”과 “사적(Private)”인 것의 의미는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리처드 세넬트¹⁴⁾가

말한대로 18세기 이래로 모던사회는 공적인 문화와 사회성, 그리고 공적인 생활과 공적인 공간이 사라지고 사적인 감정들만 노출된 사회였다. 근대 이래로 건축에서 개인적 취향을 표현한 개인 건축주가 나타난 것처럼 이미 개인이나 프라이버시의 속성은 근대의 인간들이 스스로의 과거와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들로부터 즉 모든 공적인 관계로부터 떠난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인간들은 스스로의 집 속에 갇혀서 누군지 모를 존재로부터 감시 받는 파놉티콘의 존재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20세기 건축의 흐름

모순과 함께 매력에 가득 찬 세기말을 거치며 태어난 아르누보는 전형적 세기말의 형식이다. 아르누보가 디자인의 원천으로 자연을 바라본 것은 20세기초의 기계미학으로 보면 상반된 일이다. 세기말의 예술적 움직임은 다양한 명칭이 있을 만큼 다양한 조류와 움직임이 있었다.

1900~1910년간 아르누보에 이어 독일 표현파와 체코 큐비즘이 1910년대를 잇는다.

독일 표현파에 이어 네덜란드의 암스텔담파가 등장한다. 기계시대의 건축적 논리가 등장한 것은 미래파나, 독일공작연맹, 러시아 아방가르드 등을 거치면서 1920년대 대표적인 슈뢰더 주택(1924)과, 바우하우스 교장실(1923), 바이젠호프 집합주택단지(1927), 바르셀로나 전시관(1929) 등이 나타나면서 근대건축의 원리를 형성한 시기이다. 아방가르드 건축의 시발점이 되는 다양한 형태가 꽃피우고 본격화한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공간과 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런가 하면 아이슈타인 탑(1924)으로 표현주의가 나타났고, 대중적 화제를 뿌린 ‘시카고 트리뷴사 설계경기(1922)’에서 모더니스트 건축가들이 패배했으며, 기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1926)이 있었다. 그래도 근대건축의 여러 조류는 이때까지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업사회의 추세, 도시화의 변

11) 알랑캉서, Panopticon

12) Vincent Scully, Robert Venturi, Robert Stern

13) Wolfgang Penkt, Denis Sharp, Colin Rowe

14)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Norton & Company, 1974)

“

1970년대는 현재의 상황을 암중모색케 한 중요한 변환기였다. 새로운 기술과 엑스포 등을 통한 하이테크 등 기술적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라스베가스의 교훈 (1972)”을 통하여, 벤츄리의 모던건축에 대한 반론이 계속 이어졌다.

”

화를 본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은 모든 면에서 미국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1백16억 달러의 전쟁채권을 포함해 1920년 말에는 2백70억 달러의 해외 자본을 갖게 된 미국은 세계최대의 채권국이 되어 있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 여행자와 체류자 그리고 미국 재즈음악과 영화가 전 유럽에 범람하였다. 미국의 병사나 기업인들은 미국적 생활방식(Way of Life)과 생산품의 전도사가 되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모더니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선수를 달리는 국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¹⁵⁾

1930년대는 바우하우스의 폐교와 히틀러 옆에 자리한 알버트 슈피어가 등장하듯 건축적으로도 보수화 경향을 띤다. 이 때의 미스(Mies)가 지닌 고전적 기념성도 1937년까지 독일에서 행사된다. 독일처럼 모더니즘이 파시즘과 결합되거나 이탈리아처럼 파시즘이 모더니즘을 따라 진행된 시기이기도 하며, “고전주의”나 “자연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20년대의 아르데코 건축과 함께, 의미 있는 전시회 “인터내셔널 스타일(1932)”에 관한 전시회가 열리지만, 미국의 건축적 상황으로는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1940년대는 건축에서는 불모의 10년이라 한다. 10년간 준비된 것이 후에 나타났고, 한편으로 건축 중심지의 이동이 나타났다. 게다가 유럽에서 건너간 스승들은 미국에서 폴 루돌프, 이오 밍 빼이, 필립 존슨 같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미국으로 도피한 미이스에 의한 I. I. T 교사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증거물이 되었다. 1940년대 유럽은 1920~1930년대를 이끈 독일에 이어, 프랑스의 꼬르뷔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1950년대는 미스 반 델 로에의 활약이 돋보인다. 판스위스 주택(1950), 시카고 호반로 아파트(1951), I. I. T 크라운홀(1956), 시그렘 빌딩(1958) 등을 계획하여 그의 건축적 특징을 나타내는 고유한 형태의 건축을 만들었다. 그러나 10여년만에 무미 건조하다는 반론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국제주의건축”이 절정을 이루는가하면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모더니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꼬르뷔제의 롱상교회(1951)와 위니데 디비디시옹(1953~1959)과,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1959)등이 그러하다.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전통을 발현하는 작업이 건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60년대는 미국의 황금기와 일본의 ‘메타볼리즘’의 등장이 건축계에 영향을 주던 때로, 1, 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유보되었던 기계를 통한 미래사회의 꿈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경제규모로 활발히 복구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되던 시기이다. 거장들이 차례로 죽고, 그 뒤를 이은 형태주의자들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에서 하위적대며 경기가 하강하고, 로마 클럽에서 지구의 환경·오염·공해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을 때, 1968년 5월 23일 프랑스에서는 파리의 5월 혁명 이 기존의 질서와 가치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기계와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60년대 말의 “근본적인 회의”는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 벤츄리의 “건축의 다양성과 대립성 (1966)” 그리고 타푸리에 의해 바우하우스 아래 경시되어 온 역사적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현재의 상황을 암중모색케 한 중요한 변환기였다. 새로운 기술과 엑스포 등을 통한 하이테크 등 기술적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라스베가스의 교훈 (1972)”을 통하여, 벤츄리의 모던건축에 대한 반론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건축은 너무 그 대상을 역사주의나 형태적인 것에서 해결책을 구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존슨의 ‘AT&T빌딩(1978)’은 벽장식 계층시계의 장식으로부터 형태가 추출되었다. 찰스 젠크스의 “건축의 포스트모던 언어”는 마치 건축적 진보와 역사적 퇴행을 맞물려 바리본 건축적 포스트모더니즘이 기본적으로 그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는 레이거노믹스의 보수적 경제정책으로 미국이 부상한 가운데, 베니스 비엔날레(1980)가 있었고, 스텔링과 윌포드의 스튜트가르트 신 국립미술관이 포스트모던 건축의 사례로 기억된다. 홍콩피크를 통하여 디컨스트럭

15) 미메리카 - 아메리카중 - 아메리카나레이션(우리가 살아온 20세기: 13). 문학일보 980502, 05면.

우리는 시계추처럼 오고 가는 고전주의 건축과 새로운 건축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가까울 수 없는 서구 건축의 고전주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지.
1990년대에 진행되는 새로운 건축들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20세기 건축유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선이 등장했지만 우리가 잊고 지내던 러시아 구성주의자들과
항상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런던의 AA스쿨을 확인시켜 주
었다. 홍콩 상해은행, 로이즈 보험회사, 풍피두 미술관을 통하
여 하이테크 사례를 보게 되었고 필립 존슨에 의한 '디컨스트
럭션 전시회(1988년)'가 건축적 주제를 다시 환기시켰다. 또
한 1989년에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에 맞춘 프랑스의 "대통
령의 프로젝트"가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새로운 건축가들이 다양
한 형태를 모색하고 있다. 20세기 건축의 흐름은 젊은 건축가
들의 아방가르드로서의 노력과 이에 대한 사회의 반발과 건축
가들의 좌절로 이어져 왔다. 그 어느 때보다 건축과 철학이 만
난 시기인 90년대는 해체와 해체론 이후 다양한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 건축 형태를 만드는 철학적, 학문적 배경이 폭
넓어졌다. 60년대에는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던 건축이 이제는
전 분야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

20세기의 건축과 언어

20세기 건축을 개괄하면, 모던건축의 개화에
이어 포스트모던 건축의 탄생이 있다. 존 섬머슨은 「건축의 고
전적언어(1963)」에서의 '고전주의의 본질'을 통해 "나는 건
축을 언어로서 이야기 할 것이며, ... 여러분이 고전적 건물을
볼 때 건축의 라틴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고전적
건축은 그 근원을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 두고 있다 ... 그
사용이란 로마로부터 계승되어 와서, 르네상스와 우리 자신의
시대 사이 500년간의 모든 문명세계의 공통된 건축언어로서
의 사용이다."라고 했다. 섬머슨은 라틴어를 세계공용어로 보
았듯이 라틴건축의 세계적 사용과 그 본질에서 고전적인 것을
추출하고자 했다. 고전적이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적 정신,
형식, 주제 또는 소재가 잘 다루어진 작품을 가리킨다. 브로노
제비치는 '건축의 근대적 언어(1973)'에서 "수세기를 거치는 동
안에 오직 하나의 건축언어만이 성문화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전주의의 건축언어"라고 했다. 그는 "오늘날 그 누구도 고전
적 규범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 어휘와 문법 또는 우리시대의
언어의 문장구조도 모르는 채,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와 건축학

도들이 수없이 많다... 건축에, 근대언어에 일련의 '불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그 책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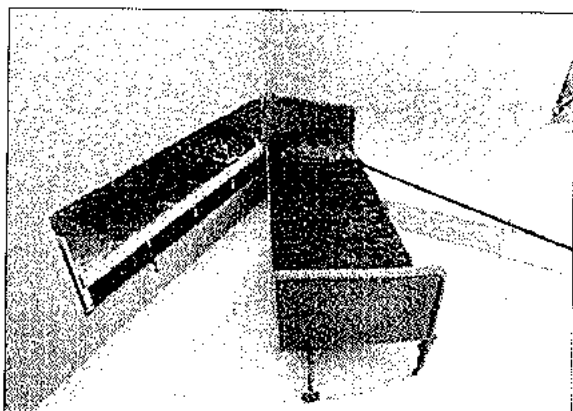
콜린 로우는 고전적 건축과 근대건축이 다르
지 않음을 밝혔다. 고전적 건축과 20세기 거장들의 작품에 직
접적인 관련성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음을 환기시켰고, 고전과
근대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찰스 젠크스는 '포스트 모
던 건축의 언어(1977)'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는 "역
사적 유산, 지역적 맥락, 은유, 공간의 모호성 그리고 건축언어
학의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설계된 혼합적이며 '복합
적'인 건축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이
나 유럽에서 과거의 전통이나 형식이 그대로 혼합되어 드러나
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 이전 어느 시대의 건물과 구별될 수 있는
1890년대 이래의 건축물을 근대건축물이라 한다. 20세기 건축
의 배경인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계에는 전쟁과 혁명
을 경험한 인간들의 고민이 도사리고 있다. 20세기 건축의 성격
도 역사적인 것에 대한 웨도이탈(혁명)과 웨도복귀(건축) 속에
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포르뮈제가 말한 '건축이나? 혁명
이나?'고 말한 것¹⁰⁾도 그러한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포르뮈제
는 건축적 혁명은 피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혁명적 건축은 언제나
고전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건축의 라틴어인 고전
주의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가와 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가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계추처럼 오고 가는 고전주의 건
축과 새로운 건축 사이에서, 근본적으로 가까울 수 없는 서구 건
축의 고전주의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닌
지. 1990년대에 진행되는 새로운 건축들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20세기 건축유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포스트모던과 페미니즘

1967년의 심장이식 성공에 이어 1978년에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으며 1997년에는 복제양 돌리까지 탄생
시켰다. 1928년 플레밍이 기적의 항생물질 페니실린으로 인류
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1960, 70년대에는 마약이 히피족 사이
에 대항문화로 알려져 사회문제화 됐다. 1981년에 처음 보고

사상적 측면에서는 60년대부터 부각된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남성위주사회와 20세기를 성찰하게 했으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무의식에 눈 돌리게 했다.



딜러와 스코피디오의 벌어지는 침대 (사진출처: AA Files 17)

된 현대의 흑사병 에이즈는 성타락을 경고하고 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다가서는 동안 신은 섬 없이 인간을 시험하고 있는 셈이다. 1947년에는 반도체가 최초로 트랜지스터 라디오에 사용돼 전자혁명을 주도하거나 1954년 레이저가 발명돼 산업, 의학, 우주항공 등 다방면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상대성이론은 현대물리학의 기초가 됐고 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조된 핵폭탄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다. 1969년 최초의 유인우주선 아폴로11호가 달에 착륙했으나 미확인비행물체 UFO의 미스테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1901년 상업화한 진공청소기는 세탁기(1900)와 함께 가사 노동을 질적으로 변화시켰고 1939년 출현한 나일론은 섬유혁명을 이루었다. 1925년 방송실험에 성공한 TV가 문화구조를 바꾸더니 지금은 할리우드와 엔터테인먼트산업이 문화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95년부터 본격 사용된 인터넷은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잇고 있다. 네트 세계 안에서 사람들은 점차 사이버 스페이스 인간이 되어간다.¹⁶⁾

이제 인류는 시티즌과 네티즌으로 나뉘고, 이들 사이에도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다. 세계의 4대 모순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갈등인 동서간의 모순, 개발국가와 미개발국가 간의 갈등인 남북간의 모순, G7간의 갈등인 선개발 국가간의 모순, 그리고 인종적, 종교적 차이 등의 갈등인 종족간의 모순이 남아 있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모순은 포스트모던의 배경이 되는 영원한 동반자인 여성과 페미니즘의 문제이다. 남성과 여성에 관한 뿌리 깊고 오래된 편견과 오해가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는 60년대부터 부각된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남성위주사회와 20세기를 성찰하게 했으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무의식에 눈 돌리게 했다. 각종 과학적 발명과 발견으로 인류의 삶은 크게 변화했다. 1955년 처음 보고된 경구용 피임약은 여성을 임신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켰다. 1948년엔 미국인의 성생활에 관한 킨제이보고서가 발표돼 충격을 주었으며 성개방 물결을 타고 1953년 성인잡지 플레이보이가 창간됐다.¹⁸⁾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남, 여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인 것으로 대별되는 우월적 존재와 그것에 상대되는 여성적인 것으로 대별되는 열성적인 존재 사이에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불균형에 관한 철학적 모색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이 푸코의 말대로 훈련과 처벌, 감금과 권력, 지식과 권력의 상승작용에 의하여 서구 역사 깊숙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성과 비이성(광기), 서양과 동양, 인간과 자연, 존재와 무, 선과 악 등의 이원론에 적용된다. 이 이원론은 모든 이중성 또는 이중적 존재를 좌우하는 확고한 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존재와 무'에서 존재란 완벽한, 이성적인, 규범적인 존재였다. 고귀한 세계인 위로부터의 아래로 내려 온 '존재' 개념이 '실존'일 것이다. '실존'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 결합을 지닌 인간 존재나 이와 같이 적용되는 모든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건축적 예를 들어, 파리시내의 모습을 이성적인 것을 상징하는 도시로 바라본다면, 라 빌레뜨 공원은 건축가 쥘리에 의하여, 비이성적인 존재의 상징으로 만들어 기존도시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교되는 비이성적인 측면이나 대립되는 상황으로 연출되었다. 파리시내의 바로크 도로체계에 대응하여 폴리들은 직교좌표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시가지의 일반 건축물에 걸려된 색채인 붉은 색 상징으로 도시를 보완하고 있다. 또 정상적인 건축물들에 걸려된 폴리들의 옹도 역시 그러하다. 두 종류의 상대자들의 결합이 요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결여되었던 중화된 도시와 건축의 상태이다.

16) Architecture or Revolution

17) 20세기의 키워드 44개, 한국일보, 980609 33면

18) 20세기의 키워드 44개, 한국일보, 980609 33면

세기말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건축적 혼돈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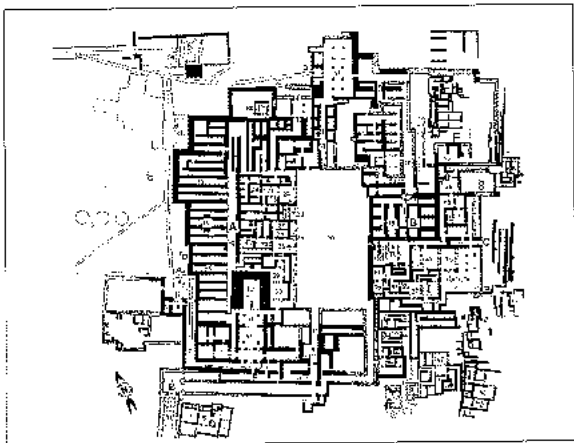
고르뵈제는 자동차,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 새로운 건축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건축적 형태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중력을 벗어나, 우주 내에서 거주할 때의 무중력 상황이 새로운 건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현재 모색되는 새로운 건축은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반성이거나 형태적인 수정이다. 해체론은 그 틀을 수정하려 하지만 철학의 역사적인 관성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페미니즘이 다른 형태로 또는 완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건축적 다양화가 연결되어 있다.

베르나르 푸미와 같이 근본적인 과제에 집중하는 건축가와 아이젠만처럼 'Decomposition', 'Deconstruction', 'Folding' 등 현학적인 주제를 선택적으로 바꿔가며 형태의 현란함을 연출하고 있다. 푸미와 아이젠만 사이의 간격만큼 다양한 건축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다만 이미 벌어진 건축적 다양화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힘들게 따라갈 수는 있지만,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다.

미래, 그 영원한 미로



크노소스 궁전의 미로

(사진출처 : http://DILOSimages-crete.com/knossos_plan.jpg)

미로는 항상 건축적 주제로 이야기된다. 우리는 같은 구조의 틀 때문에 미노스 왕의 '미로이야기'를 사례로 든다. 자신이 만든 건축물인 궁전에 스스로 건축가가 갇힌다는 그 구조의 한계성이 생긴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크레테의 미로¹⁹⁾는 크노소스 궁전에서 아테네 장인인 건축가 다에달러스(Daedalus)의 운명을 인간에게 빚대어 설명하여 건축가인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그리고 있다.

인간이 만든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건축은 완벽하지 않다. 도리어 미로처럼 인간을 구속한다. 그 구속된 상태는 인간을 미로 속에서 헤매게 한다. 아돌프 로스 이래로 신념을 가졌던 모던 건축물이 하나의 구속이 되고, 이것에 갇힌 인간들은 파놉티콘에 갇힌 죄수들처럼 불안하게 감시자를 바라본다. 포스트모던 건축물들은 또 다른 구속이 아니겠는지? 어느 시대이건 각 시대에서 바라보는 특수하고 보편적인 유토피아가 있게 마련이다. 하나의 유토피아로서 미래는 언제나 "영원한 미로"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현실로서의 미래, 모순자체인 미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19세기의 유산으로 새로운 건축의 급속한 전파를 경험하였다. 20세기의 유산으로 전쟁 후 새로운 질서, 미학, 감성 및 새로운 세계의 희망에 대한 확신과 철근 콘크리트 조와 장식 없는 건축, 그리고 철골에 대한 가능성을 경험하였다. 우리가 이어 받은 건축적 유산으로는 미확인된 모더니스트들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건축의 상대방으로서 기계와 컴퓨터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기말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건축적 혼돈이 존재한다. 고르뵈제는 자동차,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 새로운 건축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건축적 형태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중력을 벗어나, 우주 내에서 거주할 때의 무중력 상황이 새로운 건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19) <http://dilos.com/region/crete/labyrinth.html>

20세기 한국건축의 유산과 교훈

The Korean Architecture in 20th Century

김봉렬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by Kim Bong-Ryol

시작이 중요한데...

숨가쁘게 달려오던 한국사회는 문득 21세기의 문턱 앞에 서 있다. 지난 한 세기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건축계에 가히 혁명적인 세기였다. 19세기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근대건축' 혹은 '근대성'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된 이래, 20세기 초반에 무수한 '근대건축운동'이 갖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실천했다가 일단 바우하우스 등의 기계론적 건축과 이론이 주류로 자리잡았다. 3천여년에 걸친 인류 건축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형식의 건축이 태동하여 전 세계의 도시들은 상자박 모양의 콘크리트 철골 건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 근대건축의 확실성과 비인간성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제기되어 또 다른 모색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금세기 전반에 정착된 모더니즘건축의 연장과 변형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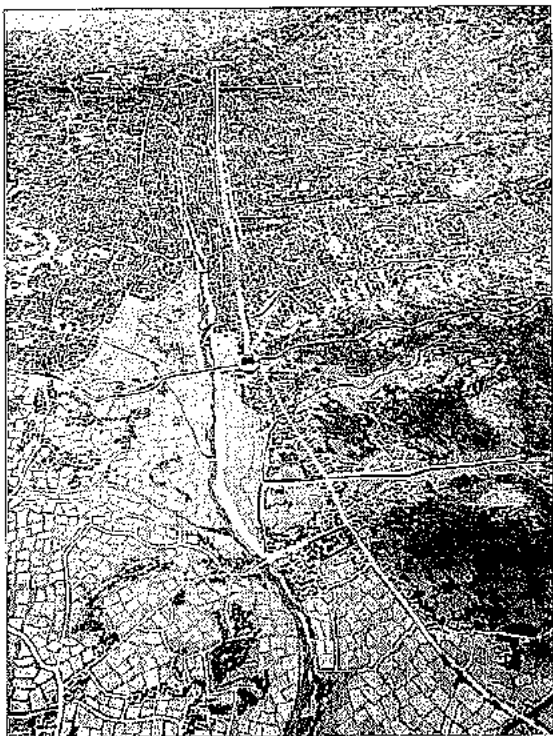
한국건축의 변화는 더욱 극심했다. 서구에서 한창 근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이 나라의 국운은 쇠잔해졌고 외침에 대한 자체 생존력마저 잃어버려, 새로운 건축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비록 개항기에 선진 외국의 이론 바 양식건축이 유입되었고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통한 근대적 건축이 이식되었지만 그들의 질적 수준은 보잘 것이 없거나 전근대적인 복고에 불과했다. 또한 일제기에 이식된 이른 바 근대건축들은 해방 이후의 건축문화 형성에 계승되거나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년간 지속되어온 목조건축의 전통은 일단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서구적 건축들이 유입됨으로써 한국이 겪었던 문화적 건축적 충격은 서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한국 20세기의 전반기는 전통적인 건축 환경과 문화의 파괴와 자체 궤멸의 기간이었다. 조선조 사회에서 근대란 세계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화와 동일한 의미로 엄습해왔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함께 들어온 외래 건축문화는 건축 자체의 목적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외침의 부산물이었기 때문에 왜곡되고 저급한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한 저급건축이 우리 사회가 처음으로 부딪히게 된 근대적 외래적 건축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은 이후의 건축문화가 파행과 왜

곡의 질곡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외래건축의 유입이 단순히 새로운 문화적 충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 목적의 문화유입이란 당연히 기존 문화의 의도적 파괴로 이어졌다. 단순히 기와집에서 콘크리트건물로 변화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주환경 전체가 부서지고 새로운 그러나 기형적인 환경으로 대체되었다. 작년말 어떤 TV프로그램을 위해서 건축비평가 그룹이 모여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 그 가운데 20세기에 사라진 역사적 건축물을 선정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박길룡의 화신백화점을 첫손에 꼽았다. 물론 한국인 최초의 직업건축가의 대표적 작품이 사라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원통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화신백화점은 기껏해야 한 동의 건물에 불과하고, 순수한 건축적 가치라야 19세기 절충주의 건축의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 화신백화점이 세워지고 철거되는 동안 전국의 도시구조는 대대적인 변형과 파괴에 시달려야 했다. 서울 뿐 아니라 모든 전통적 읍성도시들은 새로이 신작로가 뚫려 기존의 도시체계가 붕괴됐으며, 동헌, 객사, 관아 등 기존의 중심시설들은 모두 철거되고 금조된 시군청사, 경찰서, 보통학교들로 개조되어 전통적인 도시환경은 궤멸되기에 이르렀다. 서울의 경우 서대문 근처에 있던 경회궁의 철거는 상징적인 파괴 사건이었다. 수백동에 이르는 건물들을 철거하고 다수는 남산골의 일본인 요정으로 옮겨 술집으로 사용하는 치욕은 물론 경회궁이 없어짐으로써 서울의 서쪽 끝은 시각적 기능적 터미널을 잃어버려 불균형한 개발이 시작되었다. 서울에서 사라져간 최대의 건축은 경회궁이었고, 그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도시환경이었다. 그렇다고 새롭게 조성되기 시작한 도시구조가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다.

전통적인 도시 위에 새로운 도시를 확장하려면 전통구역은 보존하고 신도심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세계의 오래된 도시들의 모습이다. 그러나 서울은 조선의 옛 도시들은 그러한 상식적인 확장의 과정을 밟지 못했다. 일제는 4대문 안의 전통구역을 신도시 건설의 거점으로 삼았다. 여기저기 새로운 그리드형의 도로들을 개설했고, 기존의 중심시설들을 허물고 식민 통치를 위한 유사 근대건축물들을 세워 나갔다. 현재 서울이 처하고 있는 심각한 도심 집중현상은

근대건축이란 자의식을 가진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인적 문화행위다.
따라서 건축가적 자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대건축이란 존재하기 불가능했다.
본격적인 근대건축의 시작은 아무래도 해방과 전쟁, 그리고 전쟁 복구의 기간이 지난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조선말기 서울의 옛 모습을 재현한 도형. (20세기 한국에서 사라져 버린 최대의 건축으로 사진중앙이 동대문이고 좌우로 성곽이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가 청계천이다.)

한세기 전에 이미 그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 아무리 주변의 신도심을 개발하고 20여개의 한강다리를 놓아 강남·북간 도로망을 개설해도 결국 구도심 한점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는 한 교통체증과 혼잡은 피할 수 없다. 일제가 한국의 건축문화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힌 부분은 개별적인 기와집을 없앤 정도가 아니라 건축의 모태가 되는 도시환경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변형시킨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화적 파괴행위가 유일한 개발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져 해방 이후 도시행정가나 자본가들, 건축가들이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기존 환경을 꺾어버리는 야만적 행위를 서슴지 않게 세뇌시킨 원죄를 안고 있다. 20세기의 근대는 이처럼 비극적 상황에서 아쩔 수 없이 시작되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한데 우리의 시작은 철저하게 타율적이고 파괴적이고 야만적이었다.

근대적 건축가의 자의식

일각에서는 우리 근대건축의 시작을 일제기나 더 올라가 개항기의 (서)양식 건축물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 당시에 전통건축과는 판이하게 구별되는 외래의 건축들이 유입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근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일말의 정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근대의 정의는 현재를 기준으로 내려져야 한다. 개항기나 일제기의 건축들이 현재 한국건축 형성에 던져준 공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 그 건축물들의 가치는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한 근대건축의 맹아들을 보여주었는가? 산업사회에 걸맞는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니면, 19세기를 풍미하던 신고전주의나 복고적 절충주의의 진수를 보여주는가? 모두 아니다. 오로지 '최초의'라는 수식어로만, 건축사적 가치로만 의미를 갖는다. 또 이들 양식건축 혹은 왜식건축은 해방후 한국건축의 주류를 형성하지도 못했다. 여기에는 해방공간과 전쟁의 공백기 때문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여건도 작용했지만 그들 외래건축 자체가 시대를 선도할 만한 자격과 질적 완성도를 갖지 못했던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건축가교육에 있었다. 외국인 건축가들에 의해 세워진 개항기의 양식건축은 물론이고, 일제기의 유사 근대건축들 역시 대부분 일본인 건축가의 작품들이다. 조선인에 대한 건축교육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건축가로서가 아니라 건축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관했다. 일제기에 교육을 받은 한국인 건축가 1세대가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해방 이후의 건축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원인은 정치적으로 의도된 부실한 건축교육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가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이른바 '근대적 건축가'의 출현은 기대할 수 없었다. 역명의 집단적인 장인들에 의해 형성된 근대이전의 건축과는 달리 근대건축이란 자의식을 가진 건축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인적 문화행위다. 따라서 건축가적 자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대건축이란 존재하기 불가능했다. 본격적인 근대건축의 시작은 아무래도 해방과 전쟁, 그리고 전쟁 복구의 기간이 지난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한국건축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 우리 기술에 의해, 우리 자본의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60년대를 근대건축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김종업, 김수근, 이희태 등 이른 바 스타 건축가가 등장하여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건축계가 이들 소수의 건축가들만으로 대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자신들을 건축가로서, 문화 예술인으로서, 또한 지식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줄 알았다.



신세계 백화점 본관(일제시대의 유사 근대건축)

의 건축교육과 소수 해외유학의 결실로 다수의 건축가들이 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더니즘 건축의 발상지인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근대건축은 출발부터 이른 바 타율적 근대화의 콤플렉스를 원죄와 같이 안고 있었다. 근대건축의 형태와 공간, 재료와 공법 모두가 전통적인 건축문화와는 너무나 달랐고, '근대화가 곧 선진화'라는 가치체계 안에서 맹목적인 외래건축의 모방과 수입이 최고의 건축적 대안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정립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건축의 존재근거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자의식 없는 정체성도 없다.

60년대를 근대건축의 시작으로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김종업, 김수근, 이희태 등 이른 바 스타 건축가가 등장하여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의 건축계가 이들 소수의 건축가들만으로 대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이들은 자신들을 건축가로서, 문화 예술인으로서, 또한 지식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줄 알았다. 또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건축세계를 구축했던 전문가적 노력을 경주했다. 근대적 건축가의 자의식이란 개성과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절대적으로 빈곤한 물질적 토대 위에서 국가적 근대화의 이데올로기는 오로지 물량적 경제적 가치에만 매달려 있었고, 대다수의 건축들은 건설부문의 통계치로만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실무 건축계는 물론 대학교육의 현장에서도 오

로지 국제주의 건축, 기능주의적 근대건축만이 정답으로 통용되어 문화적 불모현상이 심각해졌다. 자의식을 가진 건축가들이 이러한 시대 상황에 저항하고 출구로 삼은 곳이 바로 '한국적'인 건축의 구현이었다. 자신들이 습득한 근대건축적 내용을 전통의 구현이라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포장하고, 자신들의 개성적인 표현의 욕구를 한국적 조형언어로 포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적 건축의 구현'이라는 명제는 자칫 군사정권의 정통성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했다.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정권적 차원에서 조장 제기된 면도 부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근대건축의 이념과 방법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과 자각에서 출발한 한국성 찾기가 아니었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있었다. 따지고 보면 전통 계승이란 전략은 근대건축의 무비판적 수용에서 파생된 또 다른 얼굴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표현의 방법론이란 형태적이고 지엽적인 차원에서 추구될 수밖에 없었다. 근대건축을 정신적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기술과 형태로만 받아 들였듯이 한국적 조형 역시 형태와 재료로만 구현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시작이 중요했었다. 6,70년대 한국적 건축의 추구가 이처럼 피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그 건축적 성과 역시 피상적이었기 때문에, 소위 '한국성'이란 건축계의 커다란 굴레가 되어 버렸다.

건축적 취약성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빈번히 한국적 조형이 등장했는가 하면 자의식이 강한 건축가일수록 한국성을 재론하는 것 자체를 진부하게 여기고 회피하게 되었다. 외국에서 도입된 근대건축이나, 자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었던 한국적 조형이 모두 피상적인 상태에 그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그나마 뚫고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소수 건축가들의 자의식적인 활동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90년대말 한국건축의 가능성이 싹트고 있는 것이다.

열린 건축의 조건과 장애들

거시적 시간 위에서 돌이켜 보면 전통 사회에서 성숙된 한국건축과 문화 전반의 역량은 18세기 후반에 거대한 정점을 이루었다. 실학건축의 실용성과 개방적 지식인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덕궁, 수원화성에서부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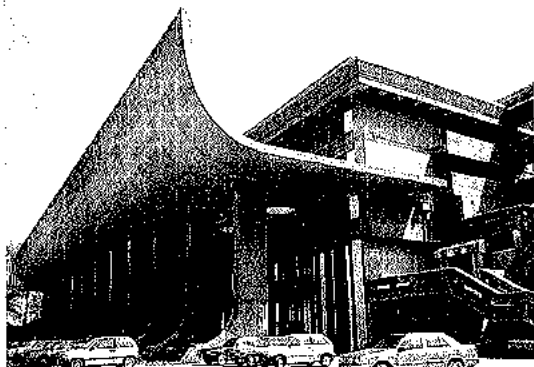
현대건축에서 형태와 공간적 창조의 방법이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다.

개인적 차별과 다양한 개성이 전근대의 양식론적 건축과의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방법론과 형태를 제시하려했던 과거의 노력이란 이런 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였다.



프랑스 대사관(김중엽 작)



자유센터(김수근 작)



절두산 독자기념관(이희태 작)

60년대 근대건축의 시작

국의 산사와 일반 살림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명작들을 구축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건축문화는 20세기 전반기에 완전한 공백과 붕괴를 맞보았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비로소 회복과 창조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그 지향

점은 우선 근대건축의 타율성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한국적 조형의 패쇄성을 벗어던지는 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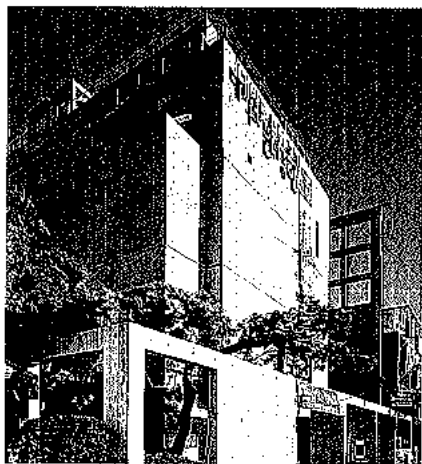
20세기 한국건축계에서 근대의 실현과 전통의 계승이라는 양대 과제는 모두 타율적이며 피상적인 상태에 시작됐다. 철저한 시대적 자각도 치열한 근원에 대한 비판적 탐구도 없이 무책임하고 무모하게 시작되었다. 또한 이 두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바록 시작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통탄만 할 일은 아니다. 20세기 한국건축을 짓눌러온 미해결 명제를 넘어서 새로운 세기의 건축을 창조해야할 의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 하나의 방법은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근대건축의 본질로의 회귀, 전통건축의 근본에 대한 재조명과 재탐구. 이 과정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지식인적 사실주의적 자세를 얻게 되고, 전통건축에 내재된 한국적 정신의 실체를 깨달을 것이다. 집단적 노력을 통해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정신과 이념이다. 현대건축에서 형태와 공간적 창조의 방법이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다. 개인적 차별과 다양한 개성이 전근대의 양식론적 건축과의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방법론과 형태를 제시하려했던 과거의 노력이란 이런 점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였다. 다행스럽게도 90년대 건축계에서는 시작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비판적 의식과 노력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90년대의 긍정적 노력들에서는 시대의 문제를 읽어내고 노출시키는 건강한 직관력이 돋보이고, 모든 제한과 도그마에서 탈피하려는 사실주의적 실용정신이 근간을 이룬다. 또한 작가적 역량이 증대하여 자유로운 개성과 상상력들이 발현하는 싹들이 여기저기 발견된다. 개인적으로 또는 느슨한 연합체로써 벌어지고 있는 이들 노력들을 보면 비로소 새로운 건축의 발전과 전개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21세기 한국건축의 장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물론 국가경제의 위기와 거품 경기의 와해로 인해 건축계 전반의 생존이 위태로운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3~4년간의 일시적인 위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전개될 사회에서는 오히려 구조적이고도 항상적인 건축경기 위축이 예견된다. 20세기적 한국적 사고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전망이

“

20세기 전반기의 최대 적이 식민지의 타율성이었고, 중반기의 장애요소가 물질적 빈곤과 혼란이었다면, 60년대 이후에 만연하기 시작한 물신주의와 상업주의는 이제 목과할 수 없는 건축의 주적이 되었다. 비로소 다시 시작점에 선 한국건축의 앞날은 상업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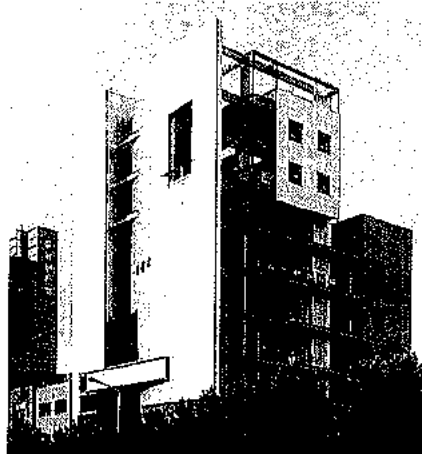
”



동성동 문화공간(송효상 作)



신도리코 아신공장 본관(민현식 作)



비른산 사옥(이종호+양남철 作)

근대와 전통의 억압에서 열려진 건축들

다. 만약 그렇다면 하더라도 경기 불황은 결코 건축의 적이 아니다. 건설 지상주의가 휩쓸었던 과거 20여년의 건축계를 되돌아보라. 불과 3~4년 사이에 인구 40만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지방 어느 중규모 설계사무소는 1년에 500여건의 건축허가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연면적 몇 만평 단위의 대규모 설계에 종속된 설계조직들에서는 천평 이하의 건물은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물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가치있는 건축물들이 몇 개나 창조되었는가? 수많은 전국의 문화회관들, 관공서들, 초고층 업무시설들, 대형 상업건축들 가운데 내세울 수 있는 건축물을 열 개나 꼽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수많은 건축가들 가운데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과 철학을 말할 수 있는 이는 몇이나 되는가? 오히려 열린 건축의 최대의 적은 물량 공세와 개발 신드롬에 오염된 상업주의다. 물질적 빈곤의 시대에서는 생각하는 건축이라도 가능할 수 있지만 물질만 풍요하고 정신이 빈곤한 상황에서는 거대한 오염체들만 양산할 뿐이다.

20세기 전반기의 최대 적이 식민지의 타율성이었고, 중반기의 장애요소가 물질적 빈곤과 혼란이었다면, 60년대 이후에 만연하기 시작한 물신주의와 상업주의는 이제 목과할 수 없는 건축의 주적이 되었다. 이제는 국가권력이 건축을 억압하기 보다는 상업주의적 유혹에 굴복한 건축가 스스로의 좌절과 변절이 가장 커다란 억압이 될 것이다. 비로소 다시 시작점에 선 한국건축의 앞날은 상업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전문건설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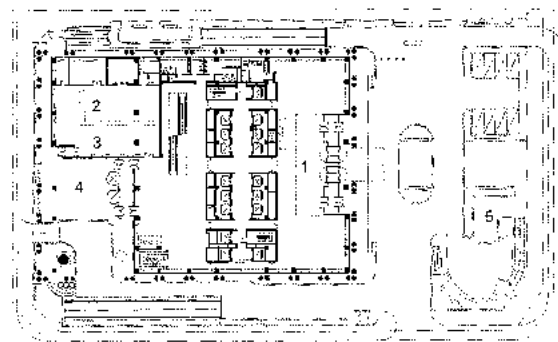
Korea Special Construction Center

(주)희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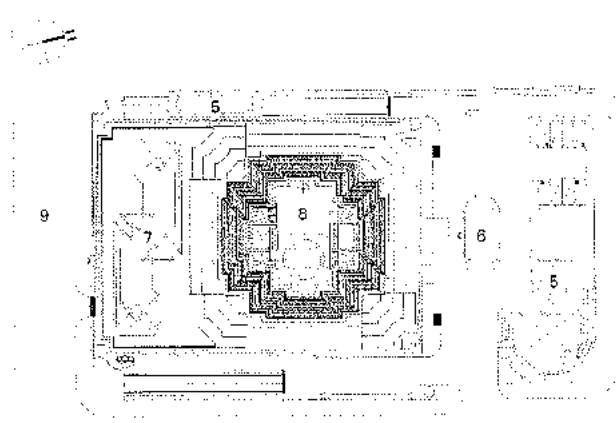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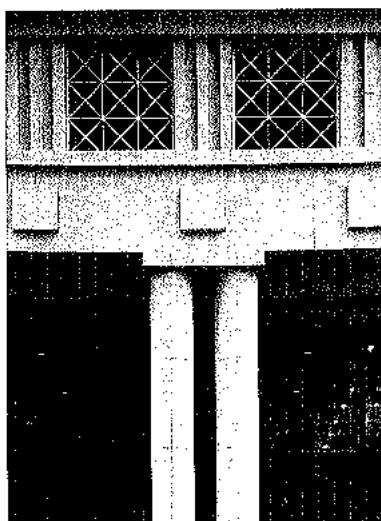
Designed by Heerim Architects & Engineers



1. 로비
2. 영업장
3. 객정
4. 부종입구
5. 공개공지
6. 주출입구
7. 지중부, 옥상정원
8. 고층부
9. 12m 도로
10. 15m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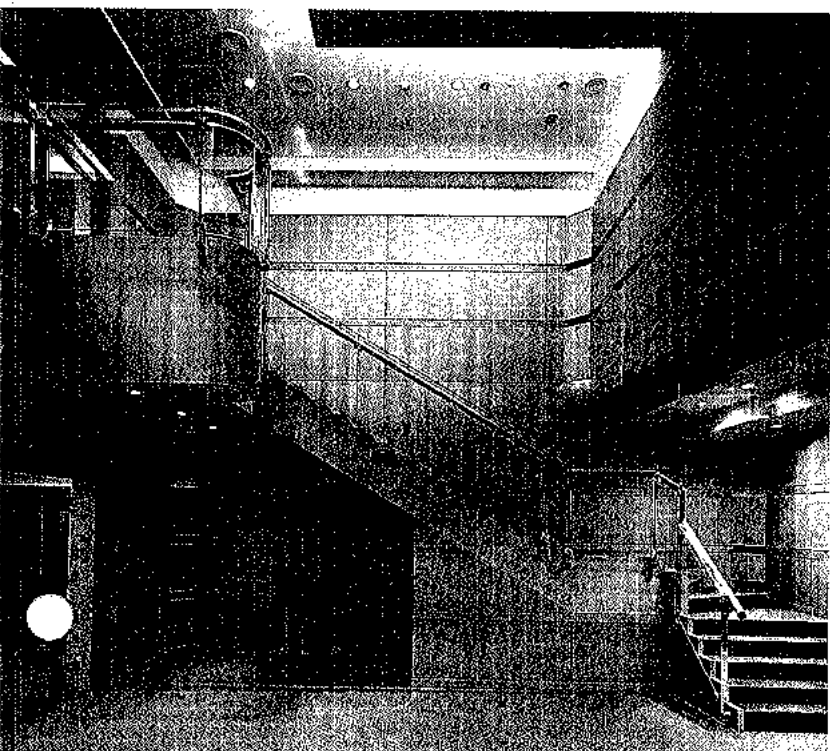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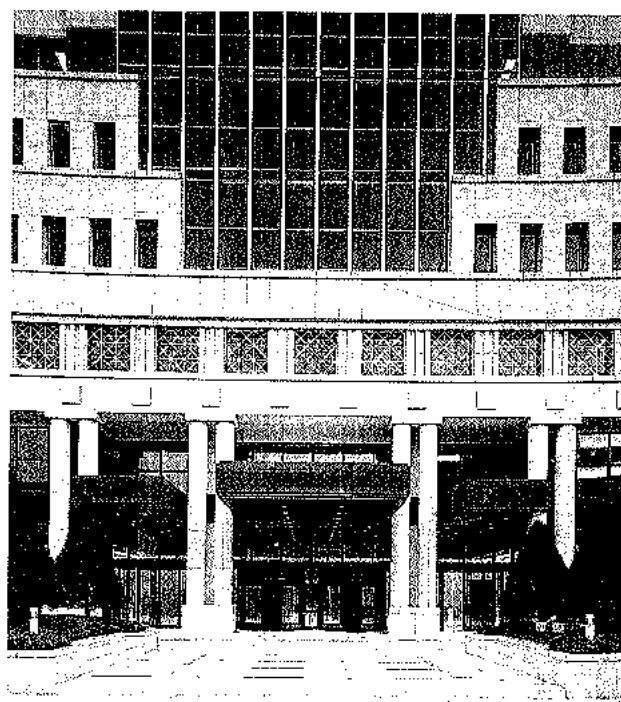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10

배치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71(2필지)
지역지구	일반 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7,210.00㎡
건축면적	2,882.40㎡
연면적	91,002.32㎡
건폐율	39.98%
용적률	798.39%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하6층, 지상30층, 옥탑2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화강석 물갈기+화강석 버너구이 마 감+24mm 퍼스텔 목충유리
사진	김응관

경향학원

Kyeong hyang Educational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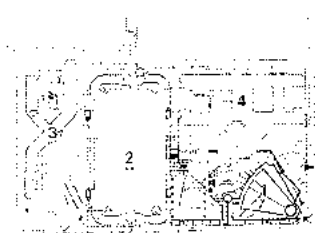
(주)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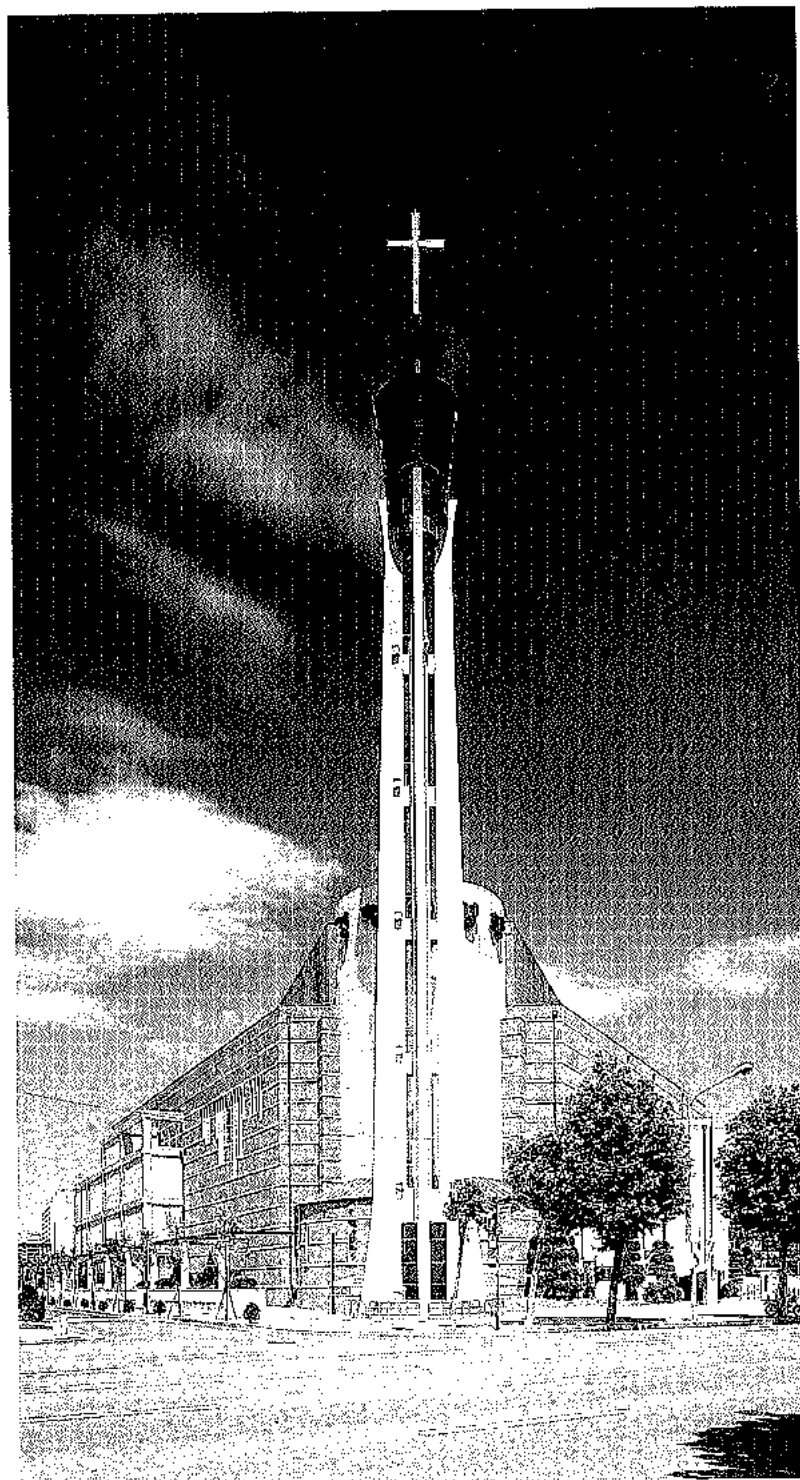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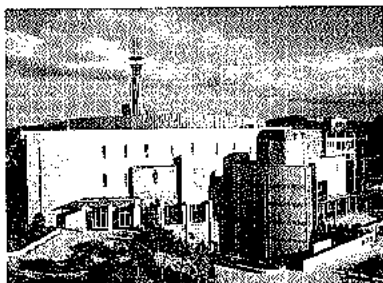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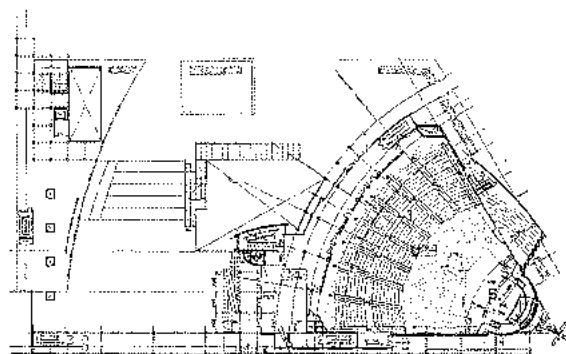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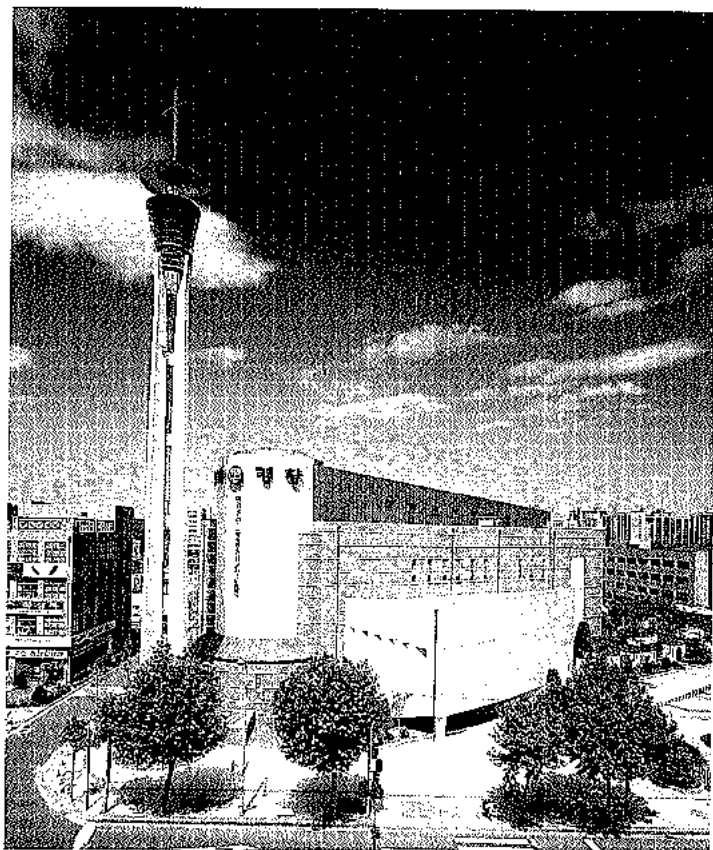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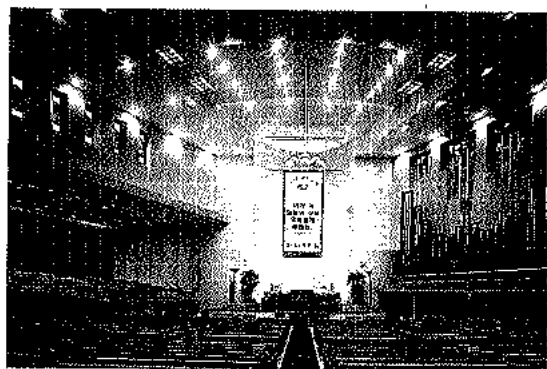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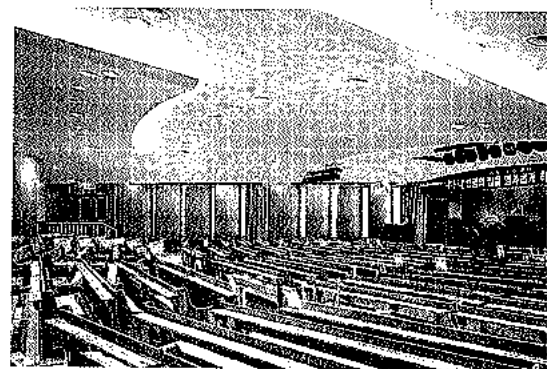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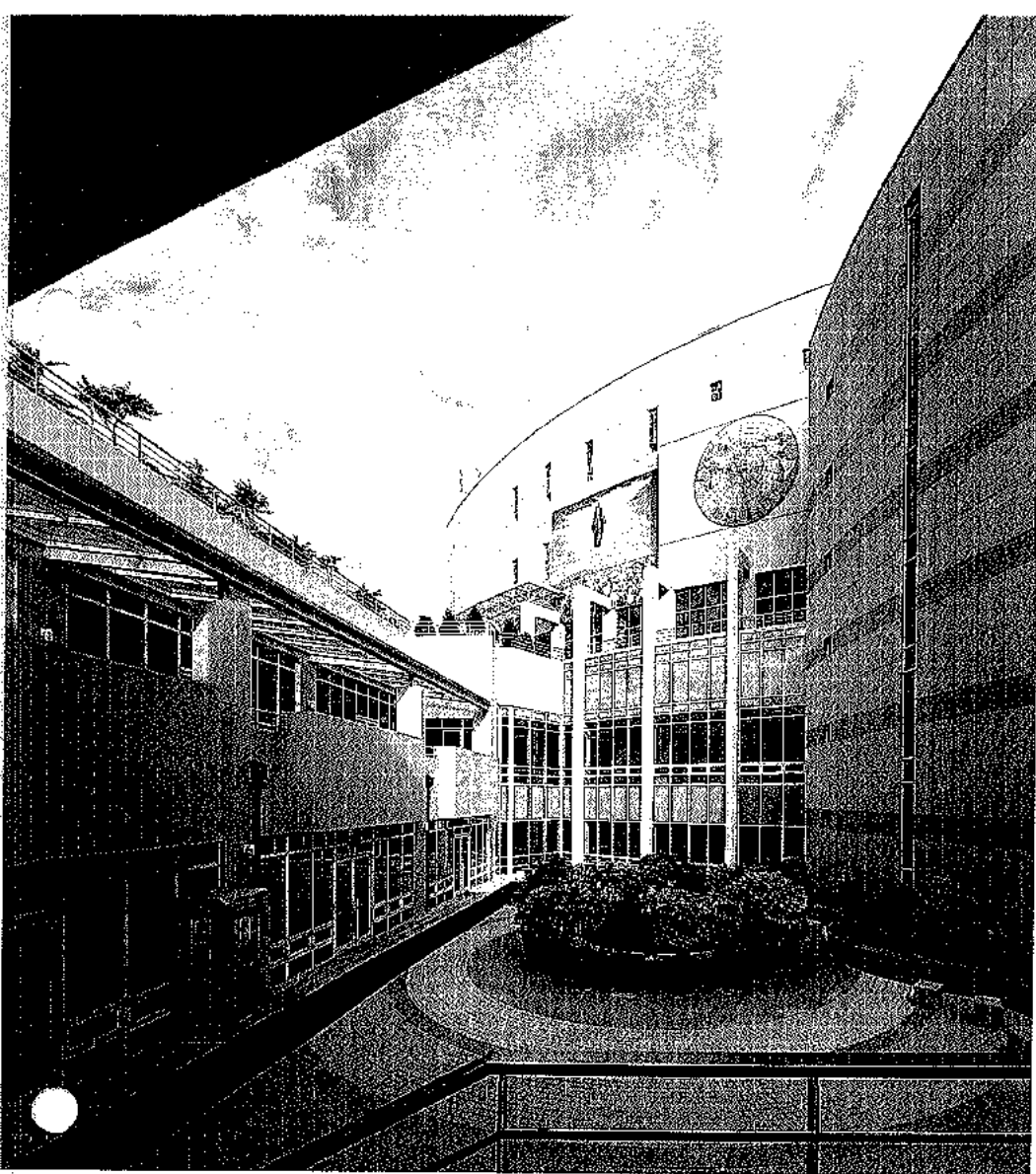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131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고도지구, 학교용지
용도	종교시설, 체육시설
대지면적	33,600㎡
건축면적	2,097㎡
연면적	33,512㎡
건폐율	19.92%
용적률	63.50%
층수	지하3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건축주	학교법인 경향교회 이사장 석원태
시공	삼부토건

1. 강당
2. 운동장
3. 경목여고
4. 경목여상
5. 부대
6. 체육관 상부
7. 식당
8. 교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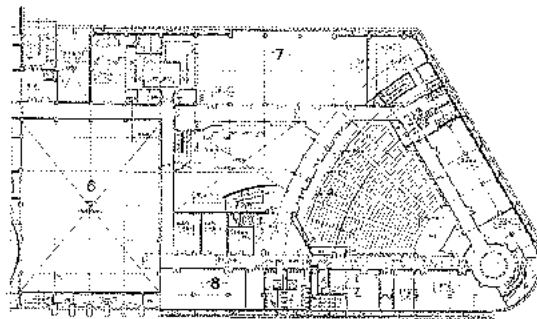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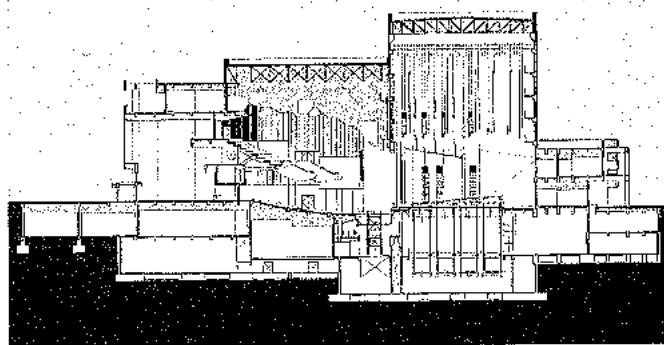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군포 시민회관 Citizens Hall of Kun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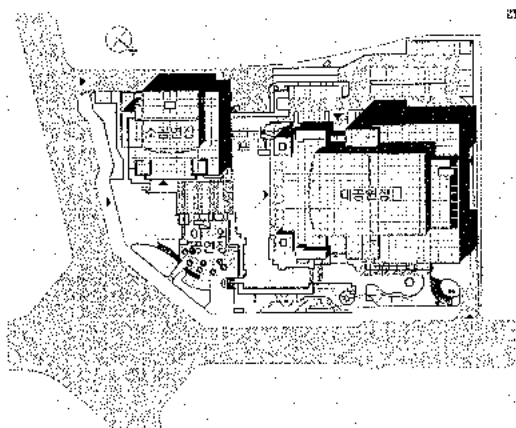
김 호 /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o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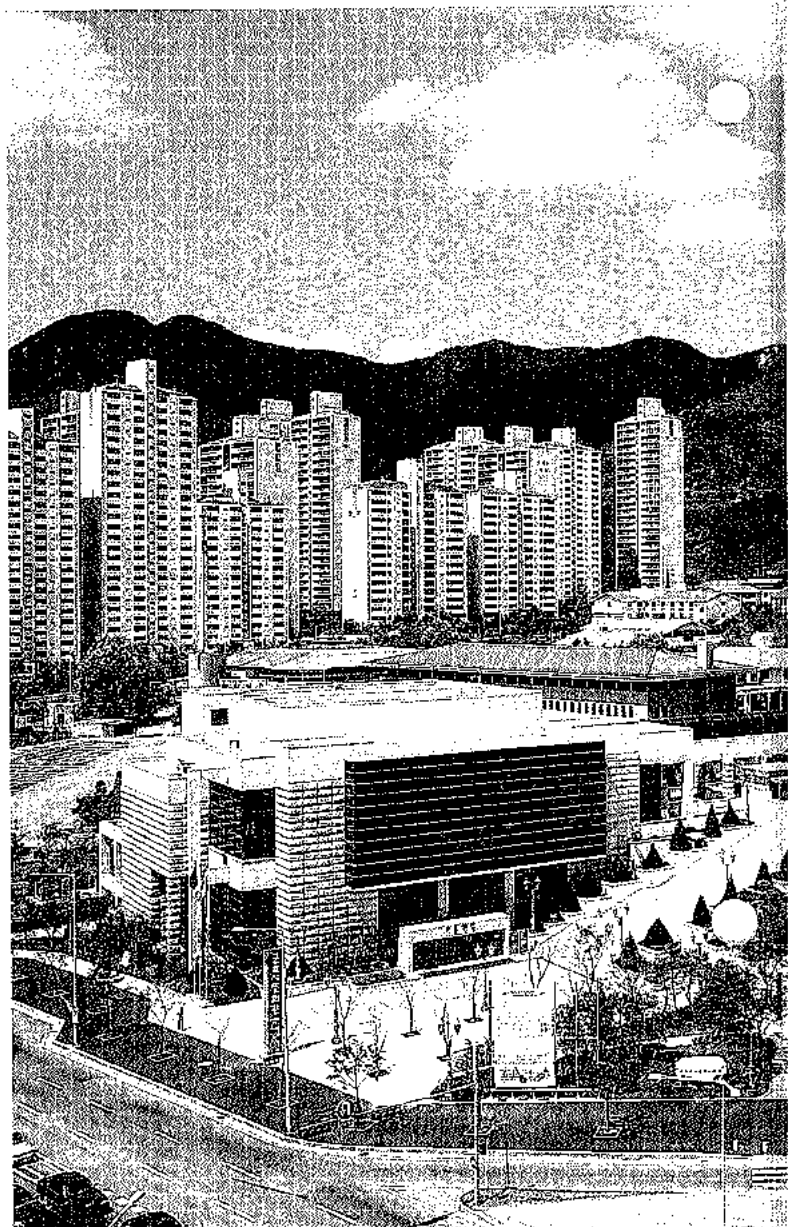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101번지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16,971.90㎡
건축면적	6,091.86㎡
연면적	24,926.42㎡
건폐율	35.89%
용적률	55.147%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외부마감	화강석 물갈기, 흑두기
내부마감	화강석 물갈기
주차대수	322대
시공	대림산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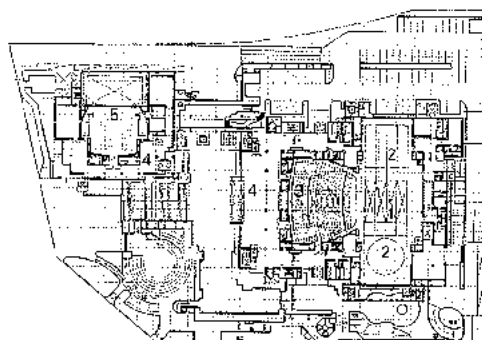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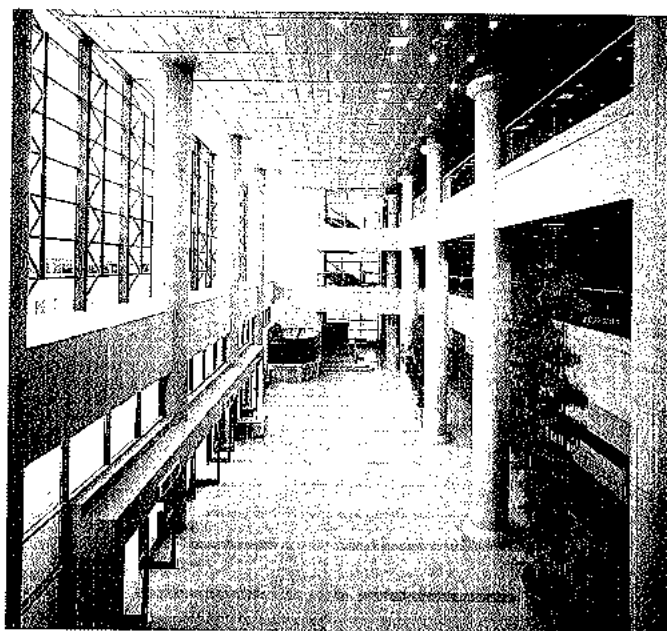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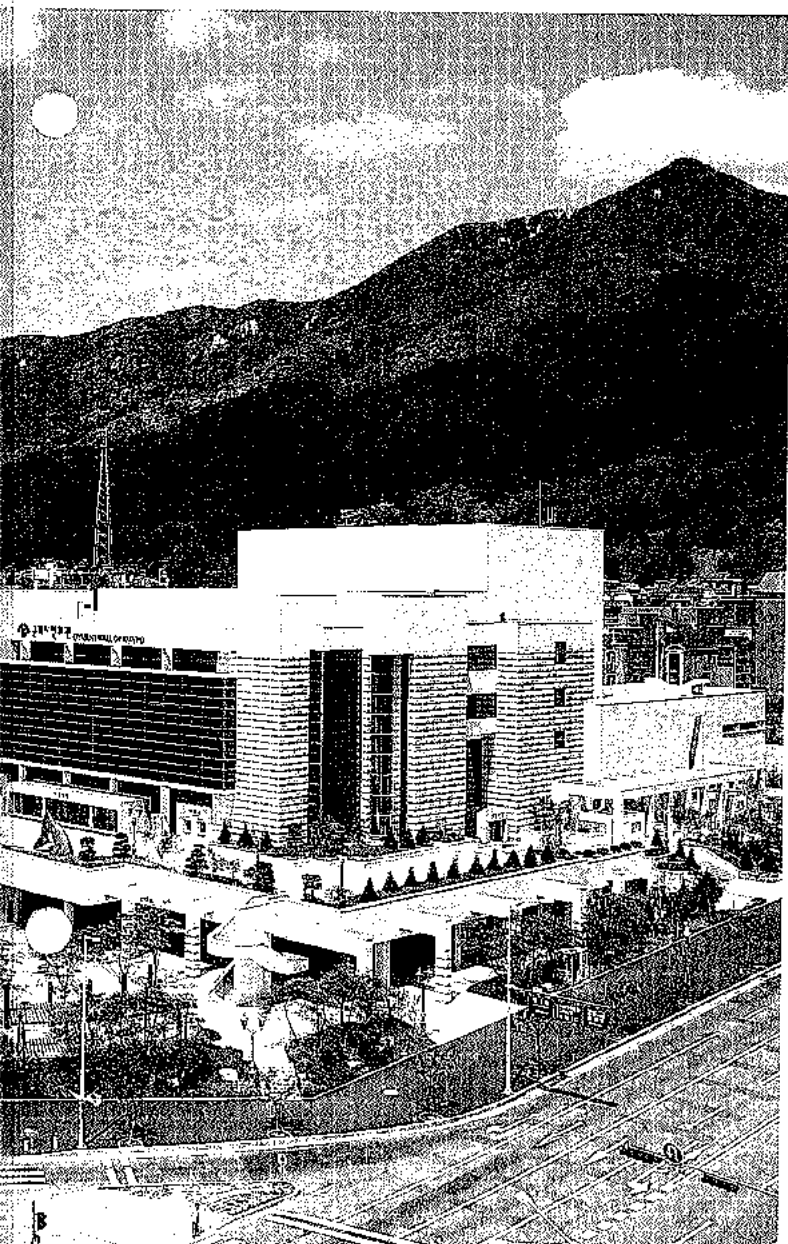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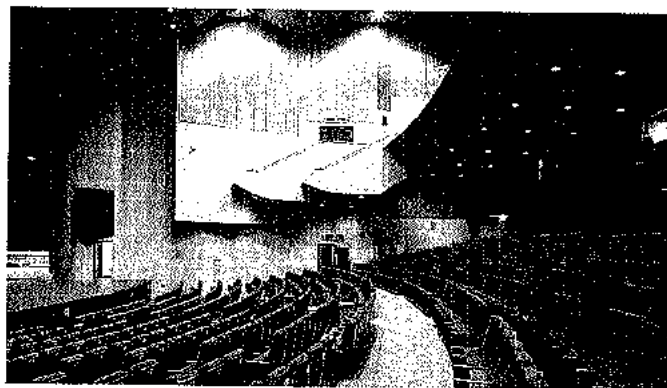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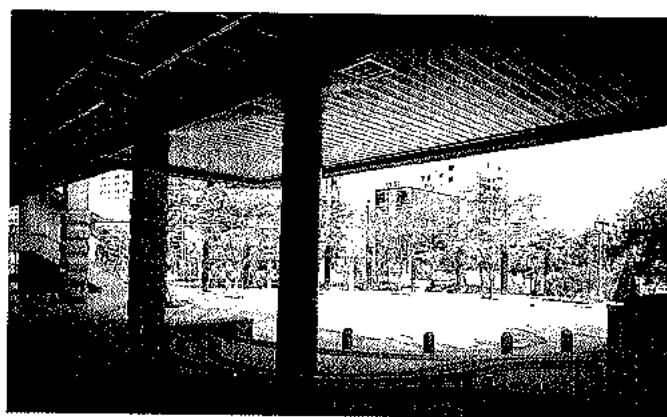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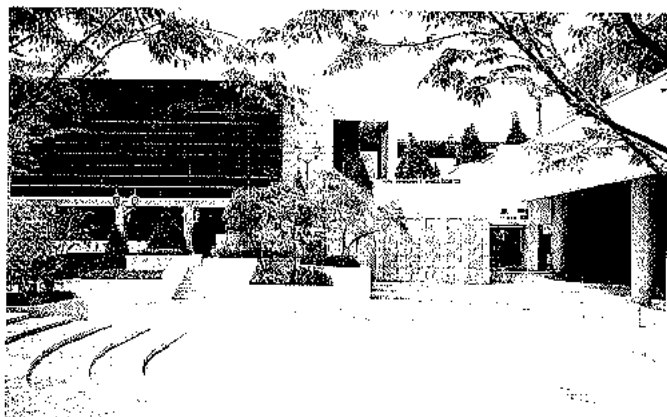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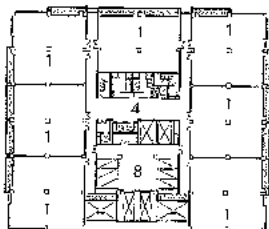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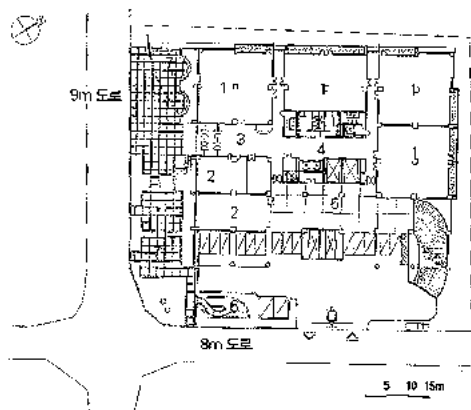


1. 주무대
2. 측무대
3. 객석
4. 출
5. 국제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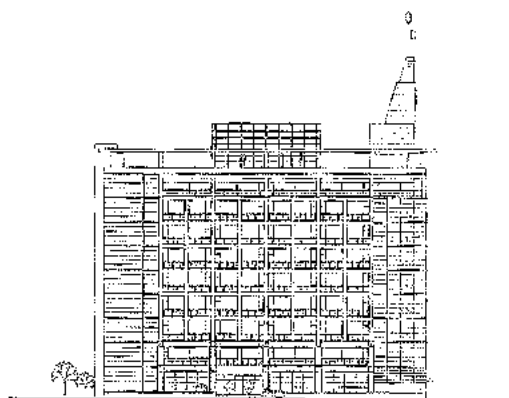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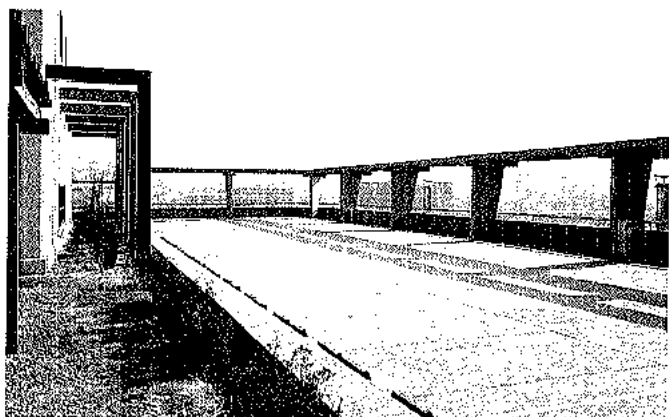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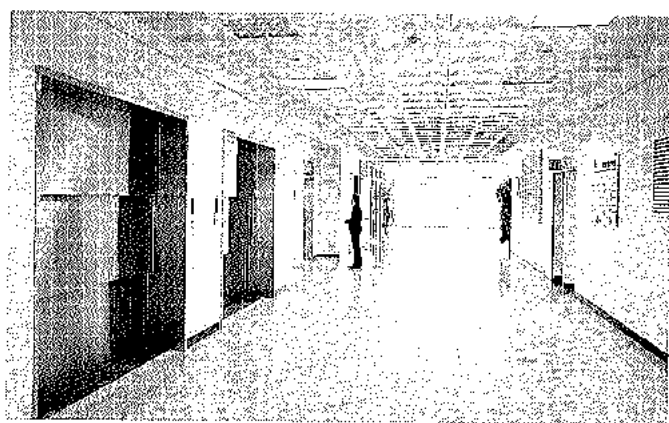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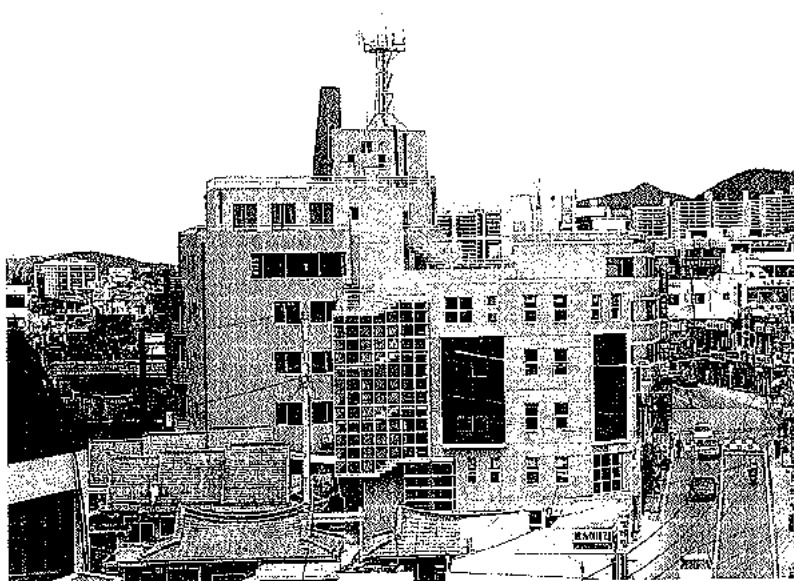
정면도

광주D-빌딩
Kwang Ju D-Building

한진수/ 건축사사무소 토방
Designed by Han Jin-Su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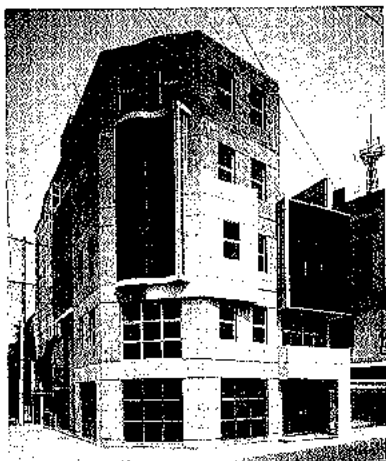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62㎡
건축면적	156㎡
연면적	86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시공자	(주)루주건설



대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무등산 줄기인 지산동으로 근거리에 광주법원이 자리잡고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무미건조하게 획일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건물에 누덕누덕 붙어있는 간판들은 넓은 법원 광장을 압박해 온다. 여기에서 약간 비껴 위치하고 있는 이 대지는 가로변에 자리잡고 있는 무성격의 건물들과의 영역적 차별성을 두고 가로와 건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축을 전이적인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과 같이 매개공간으로의 장소성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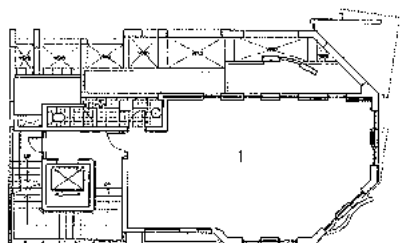
건물의 형태는 권위적인 법원 청사건물과 경직되어 있는 주변의 건물들과의 관계에서 환기시키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거리에 생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의 표정을 보여 주고자 하였으며 내부공간은 주로 건축주인 변호사 사무실을 위주로 구성하되 나머지는 사무실과 상업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건축주는 대지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최대의 응적률을 요구하였다.

대지의 한정된 조건속에서 효율을 높여주고 공간의 변화와 형태의 다양함을 추구함으로써 친근감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건물은 가능한 도로에 밀착 배치시키되 일조권에 따라 확보된 공간은 주차공간을 두었으며 부도로의 주진입을 계획함으로써 진입의 용이함을 꾀하고자 하였다. 내부공간 구성은 코어를 한곳으로 모으고 승강기 주변에 계단을 배치하여 동선의 원활함과 공간에 변화를 주고자하였으며 지하공간을 선선시켜 자연광을 유입시키고 그곳에 계단을 배치하여 진입을 유도하였다. 사무실이 있는 공간은 충분한 채광을 냄과 함께 무등산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옥상에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도시의 풍경과 무등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아울러 외벽재료를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다양함을 추구하여 외관에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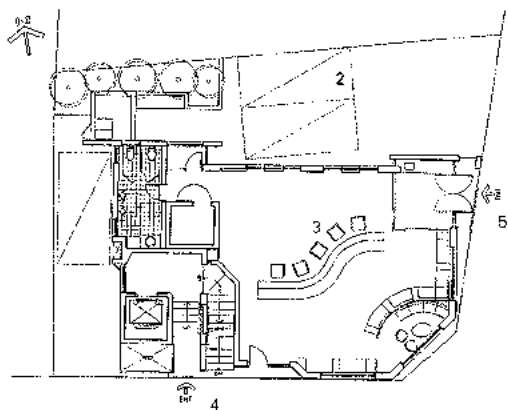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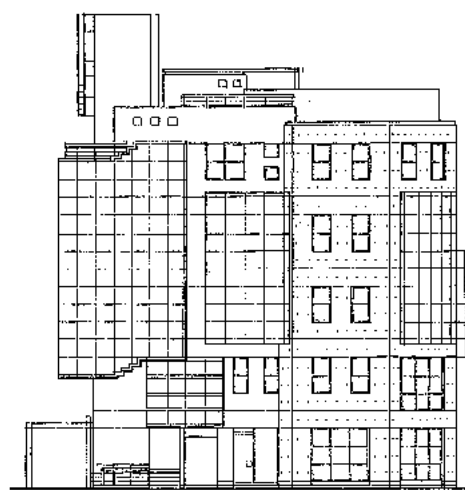


5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1. 사무실
- 2. 주차장
- 3. 공용입소
- 4. 8m도로
- 5. 10m도로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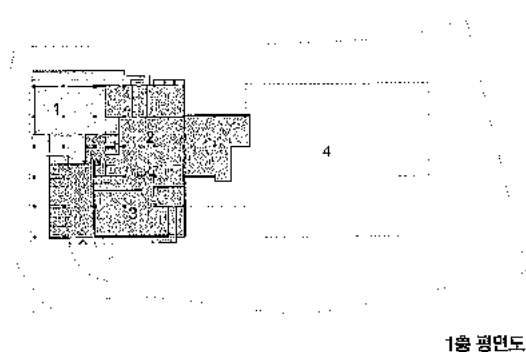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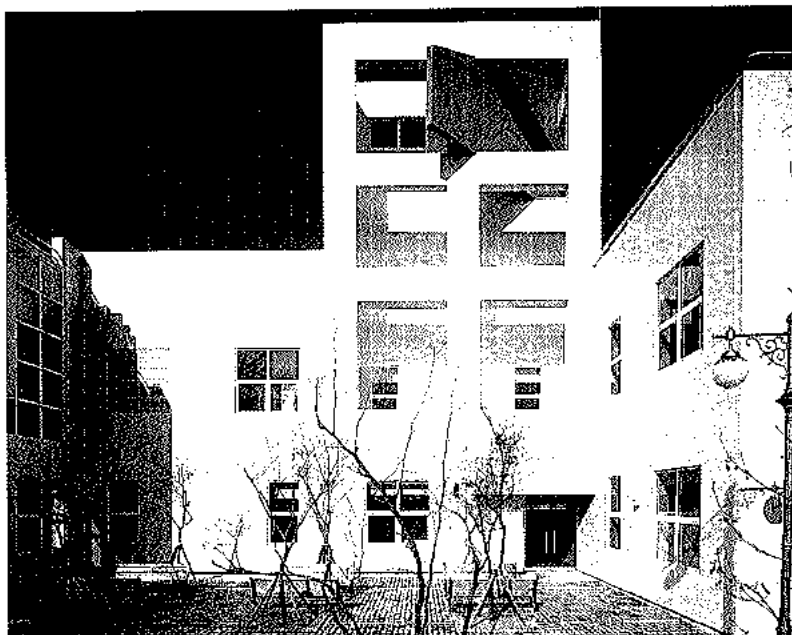
슬럼버제 한국기술센터

Schlumberger Korea Technolog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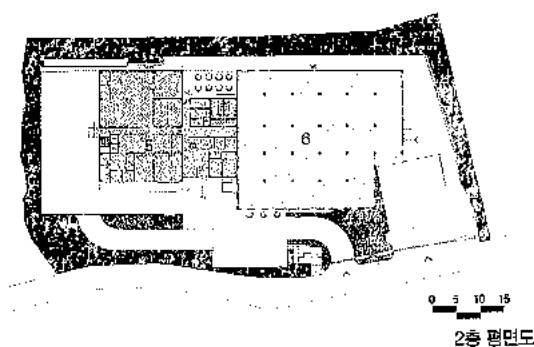
이영수/ (주)건축환경그룹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Soo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 신 28-3,4(2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8,249.00㎡
건축면적	3,444.30㎡
연면적	4,979.05㎡
건폐율	41.75%(법정60%)
용적률	60.36%(법정100%)
규모	지상3층
용도	공장(제조시설), 부대시설(사무실, 경비실)
건축주	슬럼버제 코리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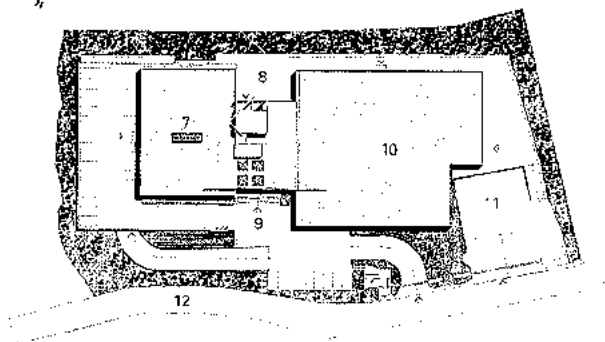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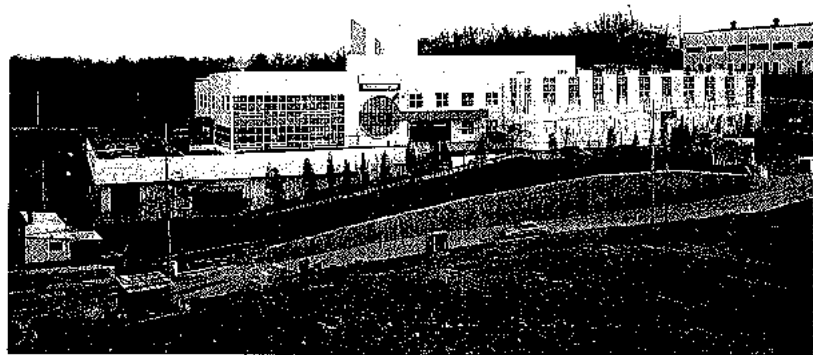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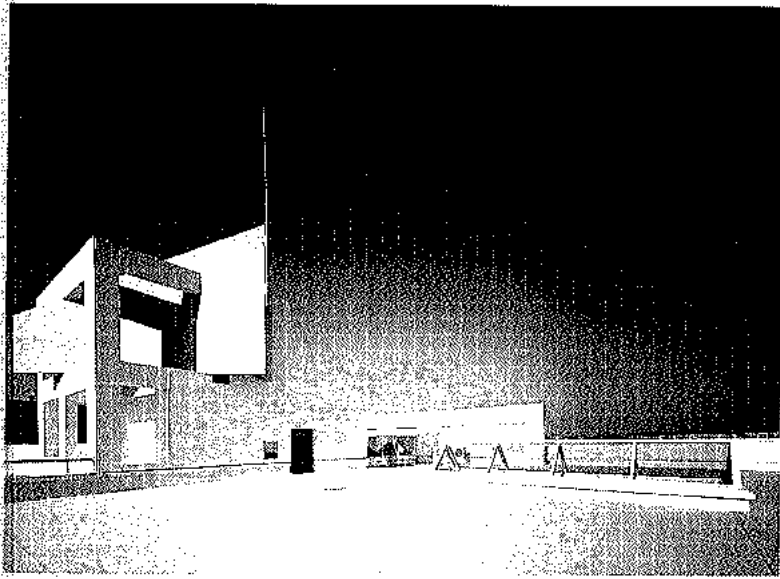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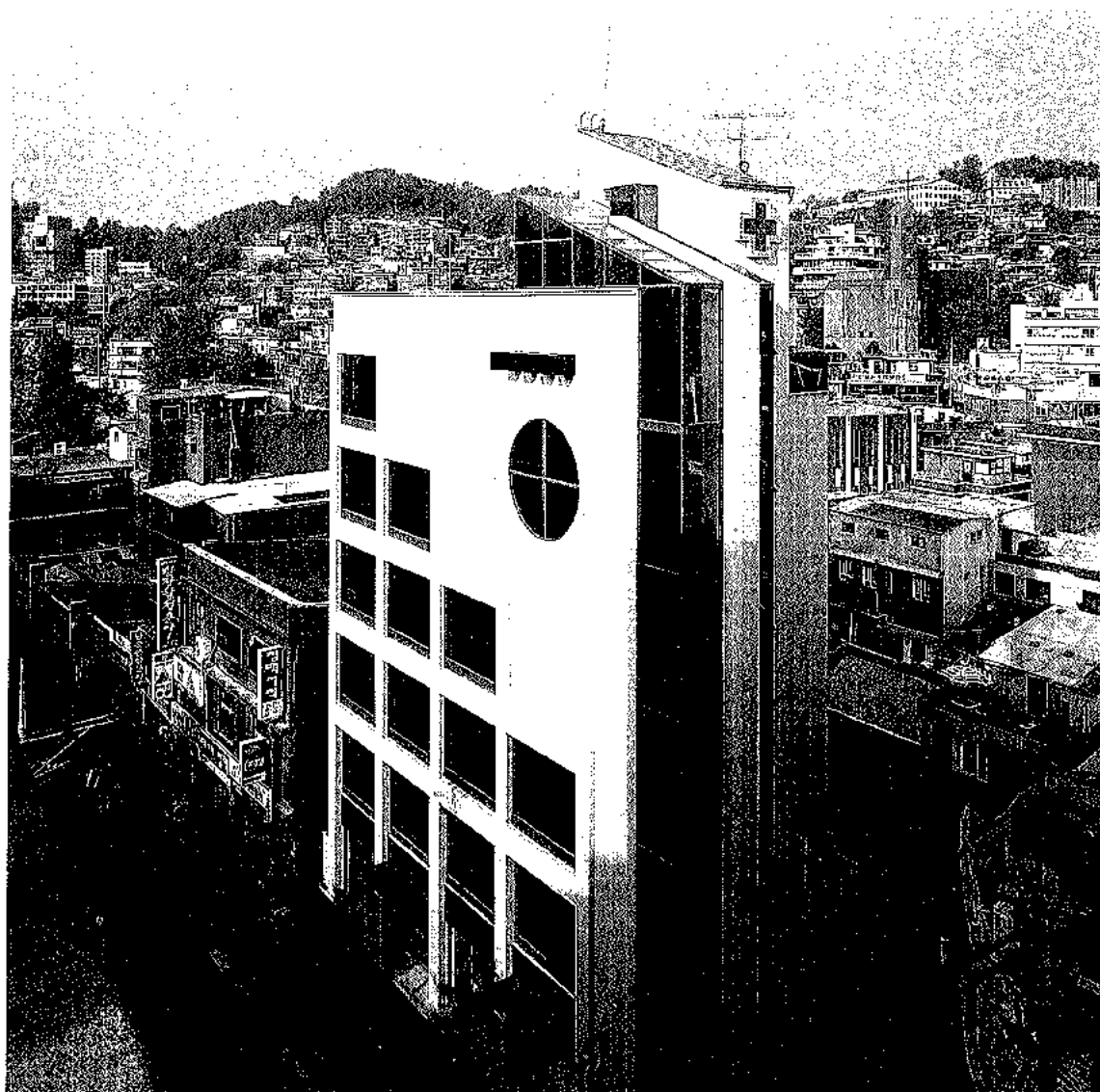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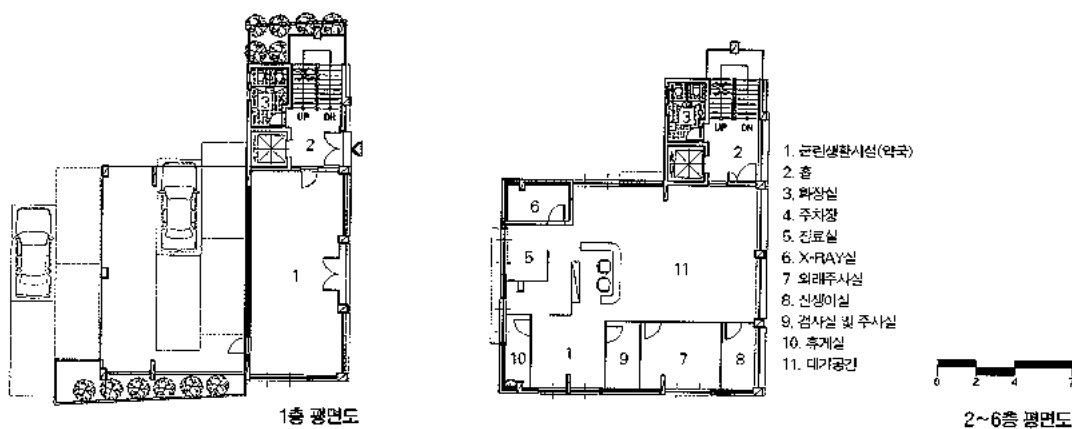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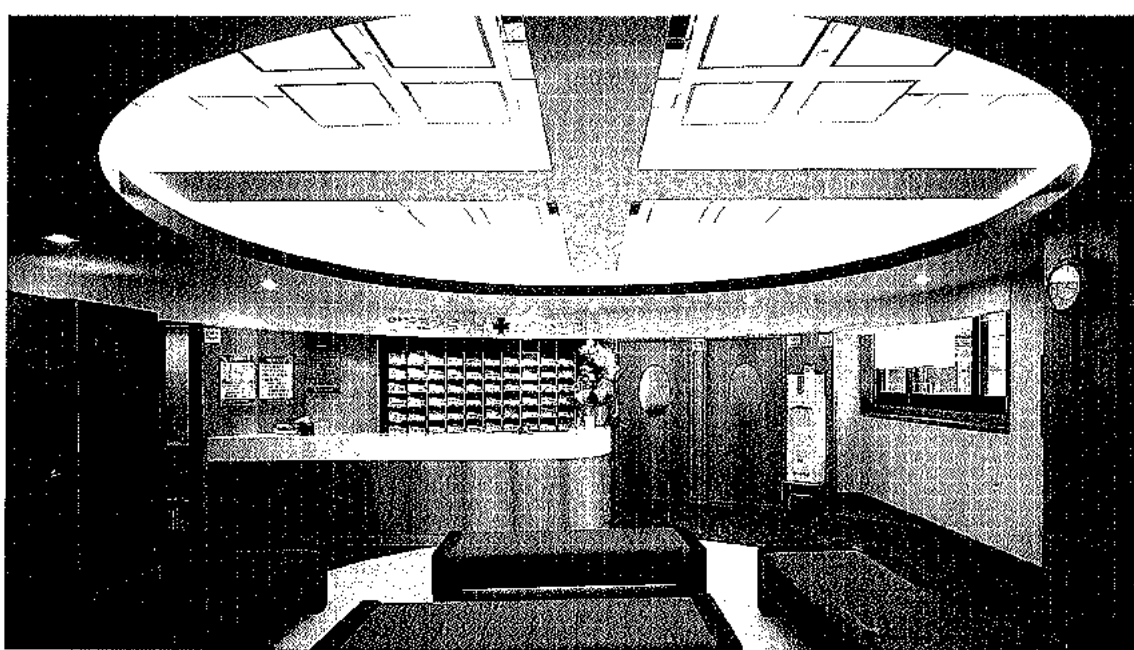


1. 카페테리아
2. 기계실
3. 전가실
4. 2층부분
5. 오피스
6. 제조시설
7. 연구시설
8. 기둥
9. 주출입구
10. 제조시설
11. Loading Deck
12. 8m 도로



배치도





집을 잘 지어보고 싶었던 욕심

The Will to Build a Good House

주대관 / 예토건축사사무소
by Joo De-Kahn

쉽지 않은 과제

1995년 여름, 대학시절의 은사의 소개로 일원본동 광평대군 묘역 부근에 주택을 하나 계획하게 되었다. 개업한 지 3년여 동안 몇 건의 살림집을 설계하였지만 공교롭게 하나도 지어 보지 못한 나로서는 정말 집 하나를 잘 지어볼 욕심에 무척 들뜨기도 했었다. 건축주는 교직에 계신 분이었고, 부인은 대학시절 디자인을 전공한 분이어서 비교적 건축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분이였다.

대지는 수서 큰길에서 80미터쯤 15미터 2차선 도로를 따라 들어 간 곳에 전면도로를 남서쪽에 두고 있는, 북서쪽으로 뻗은 삼각형의 땅이었다. 남서쪽 길 건너에는 아파트가 건설중이고 북서쪽에는 대지 북동쪽에 접해 있는 광평대군 묘역의 주출입구가 위치해 있었으며 남동쪽에는 3층 상가주택이 막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매우 특이한 땅이었다. 건축주는 비교적 간단한 주문만을 했다. 가족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지하에는 예배실을 두고, 1층은 부인의 어머니가, 2층과 3층은 부부와 두 자녀가 쓰도록 설계해달라고 했다. 또한 1층과 2층의 출입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내부에서 잘 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느 집에서나 그러하듯이 햇빛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었다.

계획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선 사실상 두 집 살림이면서도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2층에서 지하실의 이용이 쉬워야 된다는 점, 그리고 되도록이면 햇빛을 많이 받게 하면서도 남서쪽에 지어질 아파트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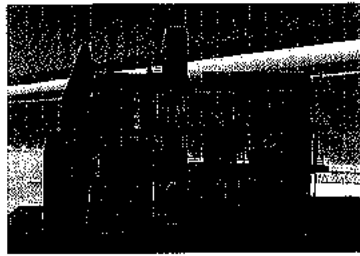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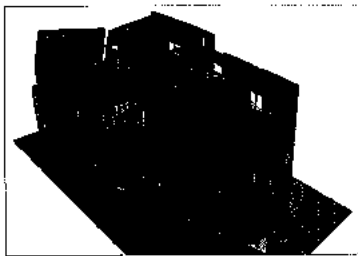
면도로에서의 차량소음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문제는 대지의 형상이나 주변여건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차장을 두어야 하는 북쪽의 비교적 깊이가 깊은 곳을 제외하고는 실의 2열 배치가 나오지 않는 좁은 폭이었기 때문에 평면계획은 마치 퍼즐게임과도 같았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계단실을 둘 경우에는 평면이 마치 허리가 잘록한 모래시계처럼 되어 기능조차 원활치 못했다. 뿐만아니라 뒷면에는 바로 광평대군 묘역의 공중화장실이 인접해 있었고 멀리 무덤들이 보이기 때문에 창문조차 자유롭지 못했다.

새로운 도시주택

따라서 계단에 의해서 평면뿐만 아니라 공간형태까지도 결정되는 어려움이 생겼다. 결과적으로는 전면도로에 평행하게 직선옥외계단을 2층까지 두어서 중앙부에서의 최소한의 실의 깊이를 확보하고, 2층에서 옥상까지의 계단은 전면부의 채광 및 전망을 위하여 도로에 직각으로 배치하였으며, 1층에서 지하층으로의 계단은 옥외계단 하부를 이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1층과 2층 사이에는 옥외계단에 연하여 폭80cm의 내부계단을 두어 2층으로부터 1층의 노인주거와 지하에배설을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배면은 개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거실의 환기가 프라이버시문제와 상충하지 않도록 중앙의 거실과 남동쪽의 침실존 사이에 작은 광정을 두고 배면의 무덤들은 피하면서도 좋은 경관이 눈에 쏙 들어오도록 작은 고정창 하나만 2층과 3층 사이에 두었다(이 창은 시공



(사진: 현대주택)



과정에서 건축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2 배 이상 커졌고, 아마도 그 때문에 늘 불라인드에 가려져 있을 것이다). 이 북동 쪽의 막힌 벽을 따라 거실의 뒤편은 3층까지 오픈되고 그 위에는 썰기 같은 천창이 만들어 졌다(이 천창 역시 하부의 커진 창 때문에 그야말로 빛을 잃게 된다).

대지의 형상과 계단의 배치에 의하여 평면은 전면과 배면을 각각 벽에 의해 한정하면서 북서쪽으로 끌고 가는 형상이 되었다. 물론 여기서 전면은 거실과 계단 사이에서 벽이 개방되지만 새로운 레이어로서의 곡면이 들어오면서 보강되고, 내부계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총화된다. 그 결과 전면 도로와 거실사이에는 길으로는 창 하나로 미주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외부계단-창-내부계단이라는 3겹의 레이어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배면에 대하여도 물리적으로는 1겹이지만 거실의 창-광장-광장외벽이라는 3겹의 레이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사실 이는 도시주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프라이버시와 커뮤니케이션의 상충이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 - 이 주택을 설계하면서 내가 풀어보고 싶었던 문제에 대한 하나의 특수해이기도 했다. 나는 개별 주거의 단계에서 도시주택의 문제는 바로 '주거가 가져야할 선택적 성격을 잘 간직하면서도 주변과 도시와 단절되지 않는 이중적 성격을 어떻게 동시에 획득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내가 도시의 집들을 보는 중요한 준거들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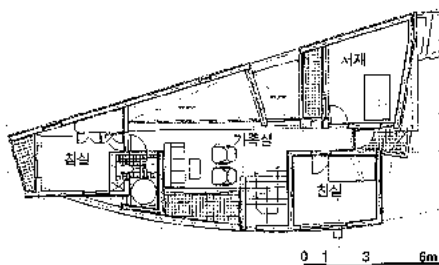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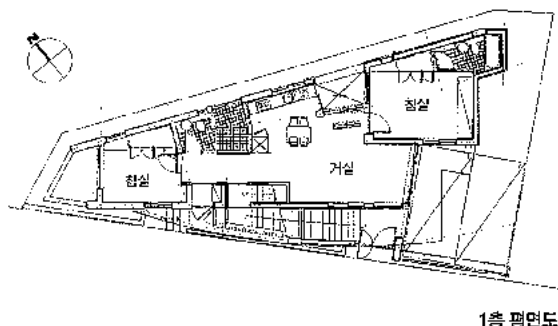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이 언뜻 듣기에는 당연히 틀릴지 모르지만, 성취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예컨대 일산 신도시의 주택들은 도시설계에 의해 대지경계선 부근의 건축이 제한되고 담장마저 금지되어 대부분 대지 한 가운데 섬처럼 남아 옆집이나 도시와 외롭게 맞서 있다. 그곳에 지어진 그래도 살만해 보이는 집들을 둘러보면, 어떻게 도시와의 공간적 심리적 거리를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의 일반 주택가에서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다. 대지의 규모가 작아 대지경계선에서 법적인 이격거리를 떼고 일조권을 확보해주고 나면 역시 창문하나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도 거실과 안방창문은 가끔적 크게 내는데 청소할 때를 제외하고는 열리지 않는다. 주거가 감옥이 되지 않기 위하여 바람과 햇빛을 포함하여 외부세계를 향하여 열릴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뒤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

서도 이 집을 마음으로부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 잘 지어보고 싶었던 집

나는 이 집을 참 잘 짓고 싶었다. 여기서 잘 짓는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수준의 마감으로 꼼꼼하게 짓는 소박한 의미이다. 나와 같은 이름 없는 건축자에게 웬만한 주택의 설계는 곧 비용의 손해를 의미하는 것임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며 정열을 쏟은 계획안이 아무렇게나 지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닌 누구에게라도 괴로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설계계약단계부터 시공자의 선정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설계계약이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 시공자 문제에 대하여 나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 진행되고 있던 다른 현장에서 시공관리가 꼼꼼해 보이는, 평소애 눈여겨 봐뒀던 현장소장을 추천하였고 그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여, 설계계약서에 시공자의 시공이 원만치 아니할 경우 감리자 주관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까지 넣어가면서까지, 이 집을 참 잘 짓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95년 10월에 시작한 공사가 96년 2월이 다 가도록 골조공사를 마치지 못하더니 드디어 시공자가 잠적한 것이다. 조사결과 기성에 비하여 2천만원 이상이 비고 미지급금을 합하면 약 5천여만원의 적자현상이었다. 시공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외상공사가 없도록 기성을 지급하도록 한 것, 그리고 방만한 현장관리로 적자가 늘어날 것을 두려워 했던 것으로 보였다. 우리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부소장을 현장관리인으로 파견하여 잔여공사비만으로 마무리공사를 하기로 건축주와 합의하였다. 비전문가에 의한 현장관리와 그로 인한 실행에산파성의 미숙,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미지급금에 의해 적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공사진행이 원만치 못하자 건축주는 우리를 시공자와 동일하게 보고 우리가 마치 시공자를 도피시킨 것으로 간주하거나, 잔여공사비의 산정에서도 지나가는 업자들의 말을 믿고 우리가 나지도 않은 적자를 거짓으로 꾸며 이익을 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명을 하는 단계까지 상황이 악화되었고, 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다하려는 선의의 행위가 물이해될 뿐만 아니라 오해되기까지 하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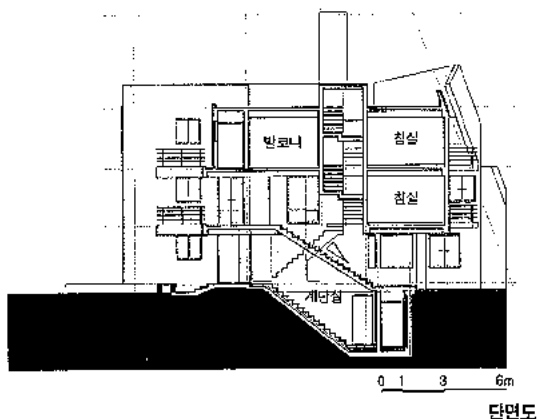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황, 그리고 현장에서의 공사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잦은 변경요구로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어, 급기야 96년 5월 준공임박시점에 서로 합의에 의하여 잔여공사비와 하자보증금 등을 뺀 금액으로, 이후 건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은 물론 무무뚝자국이 보이는 불박이장과 군데군데 나무리가 덜된 집을 갖게 되었고, 우리 또한 집을 잘 지어보려던 소박한 꿈이 깨진 것은 물론, 1억원이 넘는 손해와 가슴의 상처만을 얻고 지금까지도 그 타격을 메우지 못해 휘청거리고 있다.

잃은 것과 얻은 것

어떤 일이나 늘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많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나는 이 일의 상처를 달래면서 잃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었다. 집을 잘 지어보려고 조금해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선의는 늘 내 마음속에 담겨두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으며, 3년이 지난 지금에는 나의 고통만큼 건축주의 고통도 컸으리라는 이해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가장 큰 것은 오히려 다른 데에 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의 건축행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였다. 그 때부터 나는 자신에게 묻곤하였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건축을 하는가? 단지 건축이 좋아서인가? 배운 것이 건축이기 때문인가? 물론 돈벌이로서는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느낀 터였기 때문에 의문할 필요가 없었지만, 스스로를 소모하고 착취해가면서 밤새워 하는 나의 작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축주를 위하여? 아니면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등등 어찌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질문이 자꾸 나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급기야 나의 건축행위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일이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만나야 할 그 '한 사람'들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상처를 입고 쓰러지고 말 것이란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던 중 나는 뒤에 사미현으로 이름불려진



주택을 의뢰받고는 그 전까지의 엄격한 디테일과 매끈한 마감을 버리고 거칠더라도 많은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설계하기로 했다. 즉, 단 한사람을 위한 건축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위한 건축의 선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더욱 값진 깨달음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내가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그것은 이전까지의 나의 건축적 사고가 상당부분 수련과정에서 수행해 왔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헛된 자부심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는 일이기도 했다. 이제부터 나는 평범한 집을 짓기 위해 노력하리라. 그저그런 집을 지으리라. 그것이야말로 '건축행위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나의 건축적 신념과 더 잘 맞는 일인 것이다. 한사람의 훌륭한 건축주의 훌륭한 눈과 자만심을 충족시키는 일이 아닌 거칠지만 그들만의 일상이 있는 그런 집을 지으리라!

나는 이 주택을 어느 무크지에 아무런 설명없이 간단하게 소개한 것 이외에는 잡지에 게재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잊을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된 데에는 지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이제 다시 이 집을 이 지면에나마 소개하는 것은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히 말해서, 새살이 돋은 것은 내 몸의 일부에 불과할 지 모른다. 왜냐하면 건축주와 그 가족들은 오랜시간 그 집에 살 것이고 적어도 사는 동안 그 아픔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나로서는 선의로 행한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면 그 사이에 건축주는 여러사람들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얘기했을 것이고 소위 설계 좀 한다는 사람들을 썩잡아서 비난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동업자들에게는 물론 우리 나라 건축문화의 후퇴에 일조한 것이 된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는 물론 그 시대의 그 사회도 집 짓기에 참여한다. 하물며 한 사람의 설계쟁이로서, 설계만 잘 한다고 집이 잘 지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나를 믿고 찾아준 건축주에게 끝까지 좋은 집이 지어질 수 있게 하지 못한 책임은 어찌되었든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책임을 넘어 능력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지면을 빌어 건축주와 은사님께, 그리고 어려움을 감내해준 동료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자 한다.

대지위치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연면적	299.17㎡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공사종별	신축		옥탑층
주요용도	단독주택	설계기간	1995. 7~1995. 9
대지면적	168.70㎡	공사기간	1995. 9~1996. 6

호반의 도청소재지 - 춘천의 건축과 삶

The Architecture and The Life in Chuncheon

박경립 / 강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Park Kyung-Rip

산과 호수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고장 - 터에 대한 인식

터에 대한 인식은 자연환경으로서 춘천이라는 그릇의 이해와 그 안에서 펼쳐졌던 역사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한 지역의 전통문화와 건축도 이 같은 바탕 위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자연과 역사 그리고 그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춘천은 물과 산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도시이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대룡산, 북배산, 금병산, 오봉산 등의 높은 산과 그 안의 분지 위에 자리잡은 터 춘천은 댐 건설과 함께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호수가 도시로서의 춘천의 그릇을 한정하고 있다.

시내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는 병풍처럼 둘러진 산, 우두벌과 샘밭 등의 평야가 있고 분지 가운데로 북한강이 흐르는 곳. 곳곳에서 발견되는 선사시대의 유물과 유적은 이 일대가 살기 좋은 곳으로 일찍부터 선조들이 살아온 터임을 알 수 있다. 이중환이 지은 택리지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평양 외성, 여주와 더불어 춘천을 꼽고 있다. 그는 춘천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물가에는 돌이 있고 돌 아래는 강이 있으며, 강 너머에는 산이 있다. 비록 두메의 가운데에 있지만 트여있어 시원하고 상쾌하며, 또 강 하류로 배가 통하여 생선과 소금의 이익이 있다. 주민은 장사를 하여 부유하게 된 자가 많고 맥국 때부터 지금까지 인가가

줄지 않았다 ...". 또한 춘천은 중부지방 수운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활발히 하였다. 중부지역과 영동지역의 세곡을 모아 한양으로 운반하는 세곡집산지였으며 목재, 지방 특산물 등의 교역이 이루어진 상업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이 같은 기능도 한강유역의 댐 건설과 더불어 상실되어 전형적인 지역 거점도시로 남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춘천의 교동동굴, 북산면 내평리 주거지, 중도 유적지 등이 있다. 그리고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 다수의 지석묘와 주거지가 발견되어 이 지역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도 주거지와 분묘 등에서 철기시대 유적으로 보여지는 집자리와 무덤양식이 발견되었다. 이들 유물과 유적들은 서해안 계통의 주조 위에 동해안의 특징이 유입된 것으로 해석되며, 강줄기를 따라 문화의 유입과 전파가 활발하였다고 한다.

삼국시대의 춘천은 백제의 지배를 받다가 후에 고구려의 영향권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신라 후에는 9주중 우두주의 영역을 관할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후 광해주로 바뀌어 고려초까지 쓰이다가 고려 태조 23년에 춘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 춘천지역에 관한 기사는 거의 남아 있지 않지만 지명의 변경 및 외적 침입에 관한 사항은 문헌으로 전해진다. 기록을 통해 보면 1217년 거란의 침입과 1253년 몽고 4차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지역민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항전을 하였고, 전란 중에 건조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주' 자를 쓴 도호부 이하의 관명을 모두 산, 천, 양, 성으로 개정할 때 춘주는 춘천이라는 현재의 지명을 갖게 되었다.

그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관사, 향교를 포함한 대부분 건물들이 소실되었다. 다른 군현에서는 읍성을 쌓아 진을 이루고 방비하는데 반해 춘천은 읍성이 없이 진산인 봉의산에 산성을 쌓았을 뿐이다. 이는 천혜의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도시의 외곽인 삼악산과 용화산에 산성을 쌓고 방비를 한 때문이고 관아가 봉의산 높은 곳에 위치하였기 때문이



봉의산을 중심으로 본 춘천



의암호

기도 하다. 숙종 원년(1675)에 전란시 임금의 피난처로 이궁을 축성하라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고종 25년(1888)에 유수부로 개편되었으며, 1890년 춘천유수였던 민두기에 의하여 2년여에 걸쳐 이궁이 지어지기도 하였다.

미군정하에서 춘천읍은 1946년 춘천시로 승격되었고 춘천군은 춘성군으로 개칭되었다가 1989년 다시 춘천군으로 개칭되었고, 1994년 다시 춘천시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의 도시의 모습 읽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앞으로 달려가기 바빠서 그럴 여가가 없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갖고 싶은 춘천의 모습이 있듯이 나에게도 있다. “청풍이 불어오고 명월을 맞이하는 집과, 대문을 나서면 골목길에는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쉼작은 공원이 있는 동네. 아이 손 잡고 뒷동산 너머 산책길 따라 나서면 저 멀리 산자락에 아름다운 숲이 보이고 너울대는 겹쳐진 산들이 손짓하는 봄내골. 모처럼 땀흘리며 소양루에 올라 의암호에 퍼져 가는 노을로 마음을 씻고...” 20년전 춘천에 와 돌아본 그때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나에게 급격히 변해 가는 춘천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눈을 감아 버리게 하곤 하였다. 때로는 경악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곤 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또한 춘천의 모습임을 깨달았다.

그사이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졌다. 아름다운 춘천의 산을 가리고 무례하게 호수를 빼앗아가고 햇볕조차 못 받게 다닥다닥 붙어 지어진 건물들이 속출하였다. 새로운 주거단지를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지어진 토지개발공사 주도의 단지에는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이 혼재하며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닝과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혼란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춘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다. 이 또한 다음의 개발을 위한 교훈이지만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른 것임에 틀림없다. 일부 건축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훈련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그만 있어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은 아직도 아름답다. 아직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춘천의 모습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 노력한 건축가들도 많이 생겨나 희망을 더욱 갖게 한다.

(1) 무엇을 지킬 것인가?

구봉산에 올라 바라보는 춘천의 경관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산 아래로 펼쳐진 야트막한 구릉에 조성된 아름다운 숲 사이로 주택들이 드문드문 펼쳐져 있다. 그 뒤로 병풍을 두른 듯 아파트군이 시야를 가로막지만 그래도 넉넉한 자연이 그를 감싸준다. 진산인 봉의산이 한림대학 건물에 의해 많이 점유되어 위엄있는 자태를 일부 잃었지만 아직도 참아 줄만 하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춘천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중의 하나가 앞에 펼쳐진 숲 때문이고 저 멀리 보이는 의암호반의 물이지만 시민 대다수는 그것이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지켜진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뉘엿뉘엿 저가 산 곁에 걸린 석양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받쳐주는 기반시설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춘천 모두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서울에서 강원도 춘천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바라보면 토지개발공사 단지 개발과 더불어 1990년 이후 조성된 건축물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고 멀리 진산인 봉의산이 보인다. 춘천의 건축물은 진산인 봉의산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를 파악하면서도 막아서서도 안 된다. 1980년대만 해도 관청이 있는 거리는 자연스럽게 스카이라인이 정리되어 있었다. 관을 존중하는 의기도 있었지만 봉의산이 가려지는 경우가 없게 하려고 봉의산 종턱에 위치한 도청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건물들이 높이를 스스로 한정하여 거리의 컨텍스트에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날 높은 사무소 건물을 하나가 들어서더니 전체의 높이가 달라져 버렸다. 상업용지에 법



춘천의 진입부



중앙로 롯데리플라자



어리인 화암

이 허용하는 한도 속에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탓하리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잘못된 스카이라인을 만들었나를 잘 보여준다. 춘천역에서 내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춘천의 경관. 높이 가려진 미군부대의 담장을 너머 보이는 봉의산 자락에 이 빠진 듯 솟아난 건물들의 모습. 이 같은 스카이라인의 모습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원래 대지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층수 결정의 문제이다. 현재의 규정은 대부분 층수만을 제한하기 때문에 언덕 위에 지어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결정된 많은 건축물들이 춘천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다. 한정된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축하는 것은 당연할 일일지라도 주위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기능주의 시대의 건축이 한물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상업성만을 추구하다 잃어버리는 무형의 가치 때문이라고 볼 때 건축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심에 자리잡은 금융기관들. 언뜻 보면 이들은 춘천의 건축적 질을 많이 올려놓은 건축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형태, 새로운 재료의 사용, 뛰어난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격식을 갖춘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대부분 서울의 건축가들에 의해 지어졌다. 지방의 건축은 서울의 역량있는 건축가의 작품에 의해 자극 받고 분발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공공적 성격을 띠는 건축물들 대부분이 너무 배타적임을 알 수 있다. 거리에 면하는 일층은 건물과 도시가 만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의 해석 여하에 따라 건축의 모습뿐 아니라 도시의 모습과 기능이 바뀌게 된다. 보안과 안전이라는 이름 하에 인도와 거리를 두는 폐쇄적인 디자인, 영업시간이 끝나면 밤새도록 시민의 접근이 되지 않는 디자인, 반드시 시민을 위해 무언가 서비스를 시작하여야 하지 않을까? 가로를 식막하게 만드는 것은 개개의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작은 공간과 그를 이어주는 조경의 부재에서 온다.

점점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인도를 지켜내는 것도 우리들이 할 일 중 중요한 것이다.

의암호의 물은 춘천을 찾는 사람들 뿐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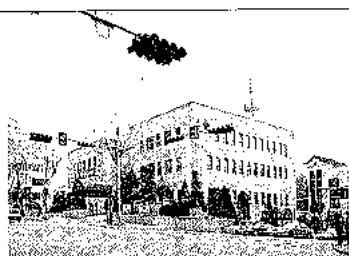
라 춘천시민의 일상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춘천의 건축이 영성하고 무례하게 굴 때에도 의암호의 가득한 물은 그를 다 잊게 해 버린다. 문제는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관광진흥이라는 이름으로 분별없이 개발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수변을 어떤 모습으로 개발할까 하는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다룰 문제이다. 춘천의 자연은 물론 시민의 것이지만 그들만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함께 길이길이 쓸 수 있도록 남겨주면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호수변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로 개발되기보다는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산책로로 이어지는 공공의 거리는 양자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본다.

호수변에는 나름대로 잘 지어졌다고 생각되는 받은 건축물과 다리가 있다. 그러나 서울 한강변에 죽 들어선 아파트같이 개발된 아파트도 있다. 장소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자리잡는 건축물은 누구의 책임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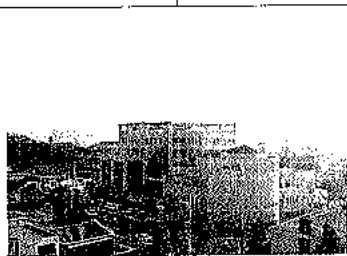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찌 그들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도시계획과 도시설계가 개개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모든 건축정책이 미리 정비되어야 하나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설계를 맡은 사람은 설계의뢰자의 과다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개개인은 최대의 활용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만 대부분 관심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쌓여 가면 오래가지 않아 아름다웠던 춘천의 모습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경관은 자연의 모습과 그 터에 들어서는 건물의 모습과 나무를 포함한 조경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춘천 땅에 계속해서 국적 없는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도 한번 되돌아볼만하다. 철골을 처음 사용하여 강원도 철골사용에 불을 붙인 호수변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건축을 보고 향의한 어느 시인의 마음을 춘천을 일구는 건축가가 새겨야 할 일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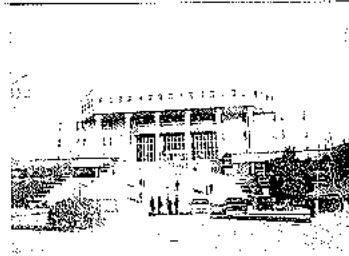
호수 넘어 겹겹이 너울대는 산들의 모습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배를 타고도 싶을 만큼 유혹하지 않는 선착장의 모습.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호수 안에 초대할 때 춘천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적십자 춘천지사



강원 평생교육 정보관



강원대학교 도서관

(2)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 - 장소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춘천의 중심에는 모처럼 마련된 차 없는 거리 - 명동이 있다. 그러나 별로 볼 것이 없다. 설 곳은 더욱 없다. 눈요기를 할 수 있는 상점들이 늘어섰지만 나머지는 비싼 돈을 들이고 들어가야 할 커피숍과 음식점뿐이다.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다운타운으로 나오지만 갈 곳이 없다. 교육은 꼭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내 한복판에는 심심한 사람을 안아줄 공공의 시설과 광장이 있어야 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를 키워주고 받아줄 시설물은 사용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간단한 전리가 통용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포켓가든처럼 작은 공원의 개발, 상가의 거리를 덮어주는 천장, 지방자치 속에 허용된 건축과 조례계정을 통해 춘천만의 특색을 살릴 때가 왔다고 본다.

김수근 선생의 어린이회관은 주변에 다른 건축물이 자꾸 들어서며 계속해서 대비가 된다. 작은 언덕에 다 소곳이 지리 잡으려는 노력이 보여 주변 건축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러나 장소의 문제를 갖고 논하게 되면 이 어린이회관은 별로 할 말이 없다. 접근성이 무시된 공간. 지방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교통의 문제이다. 공공의 대중교통의 부재는 모든 중소도시의 문제이다. 이용객이 적으니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이고, 적자가 계속되면 서비스는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비단 춘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보로 걸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은 그림의 떡인 것이다. 이용률과 충족도를 따져 장소를 정하면 적어도 받은 좋은 성과를 얻고 시작하는 것이거늘 대부분 싼 값에 편하게 구하기 쉬운 장소의 선택은 근본부터 문제있는 건축을 만들게 한다. 그래도 이곳은 아름답다. 외부인이 놀러오면 반드시 데리고 갈 정도로 경관이 좋은 곳이다. 벽돌로 지어지는 건축의 아름다움과 맛을 알려준 것도 기억 할만한 일이다.

도시의 문화재는 그 도시를 찾는 사람에게 그 도시의 역사성을 안식케 할 뿐 아니라 그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도 자긍심을 부여하는 중요한 건축물이다. 그러나 대부분 문화재는 커다란 덩치의 현대건축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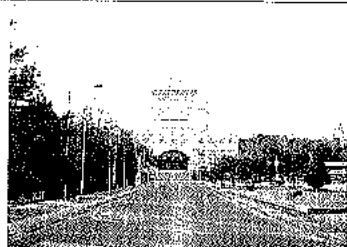
그를 시민의 곁에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는 넓다란 공간이 필요하나 엄청난 토지가격으로 매입이 수월치 않다. 도심은 이미 상업지역으로 대부분 지정되어 있어서 움직임을 잘 이용할 경우 상당한 이윤이 생기기 때문에 관에서조차 유혹에 빠지기 쉬운 대상이다.

문화재를 쉽게 접근하여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의 조성이 역사를 잊고 사는 우리를 보다 문화시민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전통 조형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데 어찌 전통을 계승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행히 칠층석탑 정비와 같이 춘천시가 앞장 서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을 꾸준히 벌이고 있어 달라질 모습에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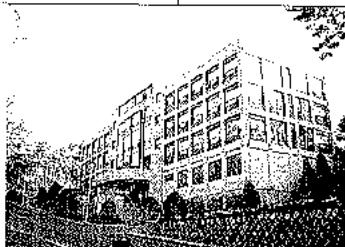
(3)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

항상 잘못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조금씩 나이지고 있는데 성급히 서둘러 판단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1990년대 들어 춘천의 건축사 수는 날로 증가하였는데 양적 팽창 못지 않게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춘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로 지역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괄목할만한 변화를 일거하고 있다. 어쩌면 이들의 어깨에 지역적 정체성을 가진 건축의 태동이 달려있는지도 모른다.

교육도시답게 춘천의 교육기관에 지어지는 건축들은 춘천 건축변화에 언제나 선두에서 있었다. 강원대학교는 춘천에서 가장 큰 교육기관답게 1970년대 이후 1980년대를 거치며 많은 건축들이 들어서며 기여를 하였다. 박물관, 도서관, 공동실험관, 제3학생회관, 정보통신연구소, 의대건물 등 언제나 새로운 건축을 이 땅에 선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림대학의 본관건물과 무속병원, 교육대학의 건물들, 강원고등학교 등도 춘천건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일조를 하였다. 1990년대 들어 강원도 교육청을 필두로 불기 시작한 교육기관의 변화는 소양중학교, 남춘천 초등학교, 남부 초등학교, 강원평생교육 정보관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교육시설을 확연히 바꾸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예산과 규정 속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건축가의 노력이 돋보인다. 물론 건



강원대학교 미래관



강원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강원대학교 태백관

물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교육환경이 아주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춘천건축을 이끌어가는 건축물 중에 교육기관의 역할이 갖는 비중은 과소평가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새로운 제도 못지 않게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대처하려는 강원도 교육청 산하의 공무원과 건축가들의 노력이 만들어가고 있는 중간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새로 지어진 춘천소방서는 시민의 눈길을 돌리게 한다. 기능의 해석과 내부공간의 처리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주 보수적인 관공서 건물로는 매우 과격적이라 할 수 있다. 건축가의 노력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 완공된 두산 리조트와 강변의 마리나도 눈여겨 볼만하다. 비교적 잘 정리된 매스와 비례감, 환경에 적응하려는 유려한 선과 재질의 선택이 자칫 잘못하면 망치기 쉬운 강변 풍경을 보전케 하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 찾기 -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한번 지우지 않길 바라며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건축을 하는 지역건축가. 건축가들에게 이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찌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야 하는 사람이 건축가이거늘. 유진 러스킨은 그의 저서 인간과 건축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은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소유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시공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기술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건축가를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건축은 항상 그래왔듯이 팀웍의 결과이다. 각각의 능력을 합하여 더욱 큰 에너지를 만드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야 한다. 개개의 건축물이 모여 만드는 도시가 점점 더 엉망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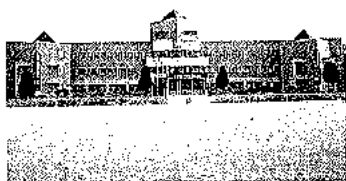
한때 우리는 나라를 잃은 적이 있다. 그 설움의 시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역사의 일부이거늘 우리는 아무런 느낌없이 그들을 지우고 있다. 거란의 침입, 몽고의 침입 이후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였고 임란 이후에도 또다시 삶의 터전을 가꾸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춘천은 더욱 많은 변화를 겪었다. 도시의 중심이 옮겨지고 새

로운 형식의 관청이 들어서고 도로도 새롭게 개설되었다.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일본식의 주택도 많이 들어섰다. 그리고 광복을 맞아 우리의 힘으로 다시 시작할 때 6.25동란을 겪으며 다시 폐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은 다시 시작하였다.

소양로 2가에 집단으로 개발된 도시형 한옥(기와집굴이라고 불리고 있음), 봉의산 자락에 들어선 일본식 가옥들이 남아있는 채로 새로운 터에 근대화된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후 1970년대에 들어서 아파트도 세워지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대부분 소규모로 암암리에 지어졌다. 주택공사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는 5층이 대부분이었으며 관공서나 상업건축도 5층을 넘는 것은 별로 없었다. 이때만 해도 자연과 주변환경에 대한 예의가 있었으며 건물 개개의 완성도는 높지 않았지만 산을 가리거나 다른 건물에 영향을 심각하게 만드는 건물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대량으로 밀어붙여 이 땅의 모습을 바꾼 것은 우리 모두가 살만하다고 우쭐하게 된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한 지역의 정체성이란 그 지역의 삶의 역사가 담겨 있어야 찾아진다. 그것이 우물췌던 역사이던 자랑스러운 것이건 간에 건축은 그 시대의 거울이며, 역사가 아무리 위장하려 하여도 한 시대의 진정한 모습은 건축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백년 이전의 건축만이 우리 것이라는 생각도 거둘 때가 되었다. 상처가 나면 치료도 하고 수술도 받을 때가 있지만 일제시대의 발자취도, 근대화 과정에서 어설픔게 모방하였던 얼치기 근대건축도 한꺼번에 밀어 버리지는 말았으면 한다. 춘천다운 도시 가꾸기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으로 뒤덮이는 거리가 아닌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하는 도시 만들거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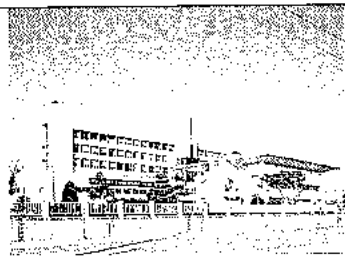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로 귀착된다. 춘천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는 춘천시민, 춘천시민의 희망과 삶을 이해하고 새로운 비전을 건축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사려깊은 건축가, 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공무원, 이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며 한데 어우러져 노력할 때만이 춘천에 삶다운 삶을 담아주는 진정한 건축문화가 조성되리라 본다.



소양중학교



남송초등학교



강원도 교육청

건축을 담는 그릇, 조경 그리고 춘천 Characteristics & Landscape of Chuncheon

박병우 / 강원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교수
by Park Bong-Woo

건축을 담는 그릇

건축은 대지를 바탕으로 담고 선다. 이 대지는 바로 건축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그릇에 물과 같은 물체를 담게 되면 물체는 그릇에 따라 형상 지워진다. 세모진 곳에서는 세모로, 네모난 곳에서는 네모로, 둥근 곳에서는 둥글게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틀에 맞추어 지게 된다.

건축은 물과 같지는 않지만 건축을 담아내는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건축을 담아내는 공간에 따라 건축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자신의 모습을 가감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홀로 서기를 하기 어렵다.

그릇 속은 건축물과 공간(Void)으로 구분된다. 건축물은 그릇 내부의 공간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따라라도 본래의 제 형상과는 다른 모습을 하게 되고, 기능에서조차도 의도한 바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또 그릇 속에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산 혹은 구릉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 요소와의 관계로 해서 역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경관 측면에서 보면 그릇 안의 경관은 우선 그릇 자체의 공간이 이루어내는 경관, 자연물이 만들어내는 경관, 그리고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있다. 이 작은 경관들을 한데 묶어서도 경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경관은 결국 풍경을 만드는 조경(Landscape Architecture)과 연결된다. 그

릇 속이라는 작은 세계 혹은 우주는 자연물 요소와 건축물로 채워져 하나의 단위 경관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단위 공간이 인위적으로 조정될 때 우리는 그 공간을 조정 처리된 공간이라고 한다. 요즘은 사람들은 좀 건방져서 자연을 거스르고, 자연에 군림하려는 생각이 있어 감히 경관을 만든다고 하나 우리 선조들은 그런 불경한 용어는 쓰지 않았다.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하고 아주 조금 손을 대어 보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친근감을 갖도록 했다. 옛집과 그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 자연을 관조할 수 있는 구성은 손댔음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손댔 곧 치경(治景)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건축의 규모가 인간의 척도를 벗어나고 있는 관계로 치경을 언급한다는 것이 다소 낭만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다. 규모를 벗어난 곳에서는 치경보다는 적극적인 조경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던 조경을 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치경이라는 사고방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만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선조들의 치경 정신은 현대적 건축물이 갖는 매스의 거대함, 딱딱함, 차가움, 예리함을 다스려 우리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서게 할 것이다. 굳이 약간 벗어났지만 조경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맛을 거처가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면서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자연과 건물과 더불어 경관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더욱이 사람은 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관에 영향을 가하고 경관을 변하게끔 강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 속에 사람이 있고 없고는 경관의 질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면 경관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요소는 사람인 듯 싶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의 영향 범위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제각각 하나의 축들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경관이라는 커다란 덩어리를 지탱해 내고 있다. 물론 여기에 초 힘이 가세하게 되면 경관은 왜곡된다. 이 초 힘은 권력, 인간 척도를 벗어난 규모의 거대함에서 뿐만 아니라 한 지역 혹은 공간에 내재하고 있는 속성(Genius Loci)을 무시할 때 나타난다. 지역의 속성은 그 장소의 물리적 특성과 자연환경 그리고 무수



구룡산에서 본 도심 외곽지역

춘천지역(대동여지도)



춘천부
(해동지도)

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쌓인 사람들의 삶의 커에서 비롯된 향토성, 즉 지역문화로 나타난다. 지역의 속성은 바로 경관의 바탕이 되고 때로는 경관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완전한 경관이라 함은 장소의 속성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때 가능하게 된다.

춘천이라는 그릇

그릇으로의 춘천은 몇 가지 특징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건축은 바로 이 특징 요소들과 잘 이웃하게 될 때 비로소 최상의 것으로 자신을 구현하게 된다.

우선 춘천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대접 모양의 분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동여지도(1861년)나 해동지도(1750년경)는 춘천의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물론 GIS를 활용하여 좀 더 명확하게 3차원 상의 주발 모습도 그려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춘천이라는 한 지역을 큰 눈으로 볼 때 가려지는 곳 없이 산세와 그 흐름, 그리고 물길을 일목요연하고, 큰 공간을 보는 객관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옛 지도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현재 춘천은 1995년 통합시가 되었기 때문에 통합시 이전의 춘천시 외곽에 지정된 그린벨트가 도시내부에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은 이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한계선을 형성하고 있다.

건축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춘천의 모습은 통합시 이전의 춘천에 한정하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예전의 춘성군(이하 외곽지역으로 표기)과 춘천시(이하 내부지역으로 표기)를 넘나들게 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통합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폭이 될 것이다.

춘천의 특징은 우선 지형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분지형을 하고 있는 점이다. 그것도 외곽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그 안쪽으로 낮은 산이 위치하고 있다. 외곽지역을 형성하는 산의 지세는 북쪽으로 응화산(878), 청평산(779), 동쪽에서 남쪽으로는 응곡산(800), 가리산(1051), 대릉산

(899), 연엽산(810), 구절산(750), 서쪽에서 북쪽으로는 북배산(867), 가덕산(858), 쏫대봉(1125), 응봉(1436)이 바깥 울타리를 이루고, 그 안으로 북으로 마적산(605), 동쪽에 구봉산(441), 남쪽에 금병산(652), 서쪽에 삼악산(654)이 좀 낮은 울타리를 이루면서 내부 지역에서 가깝게 보여지는 산이자 시내를 감싸는 형국을 하고 있다. 또 내부 공간 한 가운데에는 봉의산(302)이 춘천의 진산으로 우뚝하니 솟아 있어 시내 어디에서도 눈에 띄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 공간 곳곳에는 지도에서 보듯이 낮은 구릉들이 연속되어 있다. 춘천지형에 대한 경험은 춘천시내를 거치지 않고 외곽으로 빠져 속속로 가는 도로에서의 일명 "파도타기" 드라이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춘천의 산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 곳 있다. 바로 우두산(133)이다. 신라 선덕왕때부터 우두주라 불리던 이곳의 지명과 무관하지 않은 산이라 생각된다. 우두산은 춘천을 소양강을 기준으로 하여 강남·북으로 구분한다면 강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시적 발달을 보이고 있는 강남과는 달리 도시적 발달이 미비하고 농경지가 넓게 펼쳐진 평야에 위치하고 있다. 강남과는 달리 평야가 있어 옛 맥국 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봉의산과 우두산은 춘천을 상징하는 두 심벌이 된다.

춘천의 특징의 또 한가지는 역시 자연 요소로서의 하천이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진산인 봉의산을 끼고 돌면서 합류하여 북한강의 원류를 만들며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하천이 있음으로 해서 만들어진 춘천댐(1964년), 소양댐(1973년), 의암댐(1967년)은 춘천의 모습을 "호반의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댐을 축조하여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양댐이 축조되기전 강가에서 미역을 잡고, 널찍하게 발달된 모래사장에 관한 추억이 이야기되고 한다. 지천으로는 공지천과 후평천이 있는데 후평천은 북개되어 하천의 기능을 잃었으며, 공지천은 춘천을 겨울철 빙상장으로 이름을 날리게 했던 곳인데 근래에는 빙상장의 명에는 사라졌어도 외지인에게 소양강과 더불어 춘천을 상징하는 다른 하나의 명소로



위봉문(백제 공영발달의 거대한 스케일)



웨송되어 가는 봉의산



의암호 주변(강북지역의 상업시설들)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의암호 중의 중도에서 신석기 시대 집자리와 고인돌이, 봉의산 자락에서 신석기 혈거유적이 발견되고, 천전리 일대가 맥국 터라 일러 오고 있으며 근처에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이후 시대의 역사유적도 역시 다소간 있으나 이러한 역사성은 춘천이라는 장소에 역사가 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더 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춘천이라는 그곳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연 요소인 산과 하천, 그리고 댐에 의한 인공호수가 주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는 내부에 낮은 구릉지가 연속되고 있고, 소양강과 북한강으로 지역 전체가 삼분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남·북으로 크게 구분된다. 토지 이용 상태는 낮은 구릉지가 전개되는 강남부가 도시적 발달을 보이고 있고, 강북은 북한강과 소양강에 의하여 운반 퇴적된 충적평야로 농경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도시의 외연적 확대는 강남 쪽에서 더 크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춘천은 횡성, 홍천, 화천 등 강원도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취락이 해발 100~150미터에 발달하고 있어 서울(32미터), 부여(40미터), 경주(39미터), 평양(12미터), 개성(39미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지형적 특징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릇 속에 담긴 건축과 도시 공간

춘천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자연 지형적 요소가 특별히 강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 겹의 산세가 에워싼 형세에다가 삼악산, 구절산, 연엽산, 청평산, 용화산 등의 지명도가 높은 산들, 도시 내부의 작고 낮은 구릉과 북한강과 소양강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하천, 3개의 인공 호수는 장소와 생태적으로, 기능적으로 혹은 미적으로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만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도시 한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봉의산은 건축물의 도입을 한

층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징을 염두에 두고 지역과 건축 혹은 도시와의 상호 관련성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진산인 봉의산과 산자락의 건축물

봉의산은 물론 산정의 첩탐과 기타 시설로 해서 이미 경관적으로 랜드마크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훼손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하부로 내려오면서 도청, 한림대학교 등의 높지는 않지만 수평으로 거대한 매스를 형성하고 있는 건물들이 봉의산과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봉의산 동쪽, 동남쪽, 서쪽 기슭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는 산과 대비되는 수직선을 내지르고 있고, 다시 남쪽 기슭에도 고층 아파트가 계획 중에 있고, 재개발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 단지도 고층화를 추진한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진산은 건축물로 포위되어 겨우 머리나 내밀고 있는 형상이 되어 그 이미지나 경관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다. 또 실제로 대단위 주거지의 성립은 주민의 등산 등의 이용 영향으로 해서 물리적으로도 산의 존립을 위협하게 된다. 진산은 주민의 정신적 지주로 현시점에서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방이 도시 지역으로 고립된 형상이기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도시에 적응한 작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의 압박을 가한다면 생태계로써의 기능과 건강을 잃을 염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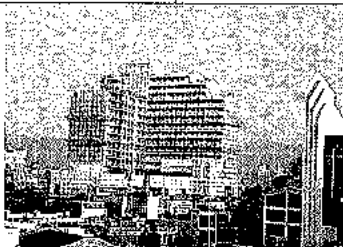
이 장소에서의 건축은 이렇듯 진산 봉의산의 경관적 면모를 회복함과 동시에 작은 생태계로써 기능하게 하고, 랜드마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규모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우두산과 주변의 토지 이용

우두산은 봉의산과는 차원이 다른 춘천의 상징이다. 우두산은 해발 133미터로 시각적 랜드마크의 효과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강북 지역만 놓고 본다면 미미하지만 그



도심의 고층아파트군



도심에 산속풍인 주상복합



도심 속의 고층아파트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 또 현충탑을 비롯한 기념물해서 국가적 기념일에는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양3교가 완공되면 우두산은 그 위치 효과로 인한 랜드마크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인접하는 신동숲을 예전처럼 우두산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동숲은 우두벌의 바람과 시선이 마을을 곧바로 관통할 수 없도록 일차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숲이다.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농경지가 대지로 전환되면서 그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숲은 현대적 도시에서도 또 다른 기상학적, 환경적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장차의 도시적 개발에 대비하여 숲을 비축하고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3) 문화방송, 어린이회관 건물군과 공지천, 의암호변

이곳은 대체로 어린이회관에서부터 안보화관 - 문화방송 - 공지공원 - 공지천 - 조각공원에 이르는 춘천의 대표적인 경관구역이다. 김수근이 설계한 어린이회관과 주변의 자연은 잘 어우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쉽게도 새로 들어서는 건물들에서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아직은 해당 장소에서 경험하는 경관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중도에서 바라보는 경관 가치가 큰 곳이다.

4) 춘천교도소와 인접 마을

춘천교도소는 중앙 고속도로 춘천 시점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가시권내에 들어와 있다. 교도소가 도시권역에서 반드시 멀리 떨어져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역시 규모 면에서 인접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다른 건축물과 상당한 대비가 되는 관계로 적절한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규모가 다른 건축물과 공간에 있어서 인간척도화를 추구하는 수단은 대체로 수목식재수법에 의한 조경처리로 이루어진다. 수목은 수관에 의한 시선 차단과 머리 위를 덮는 천개공간의 형성을 통하여 규모의 인간 척도화와 공간의 통합을

가져오게 한다. 조경은 이러한 지역에서 더욱 절실하다. 더구나 교정시설과의 관계라는 면에서 조경처리를 통한 환경개선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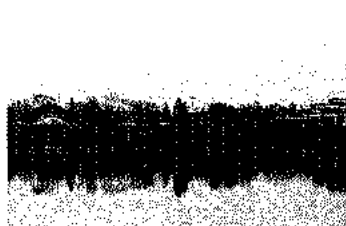
5) 아파트 건축물의 도시 공간(Void) 점령

춘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허허벌판에서 있는 고층건물이 주는 당혹감은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이다. 도로와의 관계 때문에 한쪽 변의 모습이 다른 경우는 더욱 가관이다. 대지와와 관계, 건물로 인하여 타의적으로 형성되는 공간형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 못하는 아웃이라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담함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농촌 - 농경지가 펼쳐진 곳에서 마주치는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건축물은 특히 더 중요하다. 그 안에 사람이 생활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생활거점인 이 아파트로 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작용 - 반작용의 자연의 법칙은 어김없이 적용된다. 일상적으로 아름다움을 마주치게 되면 심성도 순화될 것이지만 추하고, 일그러졌다면 반대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 내부 지역의 개발제한선을 따라 마치 성벽을 두른 듯 아파트 건물이 임립해 있는 모습은 도시내부에서 외곽에 위치한 녹지대로의 시각적 접근조차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도시내부에는 녹지대를 마련하지 않고 사막화를 초래하면서 멀리 외곽에 있는 산을 녹지로 생각하고 대리 만족하라는 춘천시의 알뜰한 환경 무임승차 정책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도둑질도 손발이 알아야 하는 것인데 제 손발조차도 제멋대로 따로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지형으로 물결치듯이 되어 있는 구릉지형의 해발고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 공간내에 무작위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일률적인 상자형 고층 아파트 건물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무질서도 간과할 수 없다.

6) 강변과 상업시설 건물 그리고 아파트 건물 소양2교를 끼고 있는 지역은 춘천에서도 드문



춘천의 강북지역(소양강변)



들판에 우뚝 선 아파트



봉의산 기슭의 고층아파트

경관을 보이는 곳이다.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넓은 강폭은 마치 호수를 연상시키고 물 건너편으로 보이는 상중도의 섬 풍경, 주민을 위한 통통거리는 도선, 해질녘의 노을을 비쳐 내는 수면, 아치를 펼친 소양2교, 봉의산의 북쪽 사면과 소양정이 어우러진 곳으로 물의 도시, 호반의 도시 춘천의 정체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다. 사업하는 이들은 이런 장소를 그냥 두지는 않는다. 건축가의 힘도 보태져 아름다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기존 건물들이 있던 곳이기도 하여 아침에 발빠른 변신을 할 수 없지만 하나 둘 건물이 바뀌면서 지역성을 구축해 나갈 가능성을 보이는 곳이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바뀌고 가꾸어지던 이곳이 6차선 도로로 확장되고 부터는 도로의 폭과 속도감으로 인하여 이전의 인간적인 맛을 잃어버렸다.

강변에의 낭만적인 접근도 어렵다. 사람이 생활하는 곳에 인간적인 접근이 어렵다면 쓸모 없는 곳으로 될 것이다.

도로도 그렇다. 다른 지역보다 3배나 안개 일수가 많은 춘천에서 그것도 두 강의 합류점이라서 안개 낀 날에는 지독한 안개로 택시 운전자들조차 꺼리는 곳에 6차선 도로를 만들어서 어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후평 공단 쪽으로는 봉의산으로 인하여 완전한 6차선 도로가 불가능한 곳이 아닌가. 지역만들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 온 행정의 경직성이 아쉽게 느껴진다.

또 소양강변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는 강북개발의 상징이자 신평탄이 되고 있는데 강변을 끼고 아파트 건물로 방벽을 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자. 이미 서울에서 다 경험했던 일이 아닌가.

강이라고 하는 자연자원, 경관자원은 도시의 생명선이다. 이 생명선을 끼고 이루어지는 개발은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줄인 이 강을 하수구로 만들어버려 자원의 낭비는 물론이려니와 환경적으로 암담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다.

7) 남춘천역을 중심으로 한 신시가지

퇴계동, 석사동, 칠전동은 춘천의 신시가지이

다. 계획된 도로, 택지개발에 의한 주거지 조성, 공지천변 정비 및 천변 도로개설 등으로 기존의 중심부와는 다른 도시경관, 삶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계획된 지역도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한 예를 보자. 공지천으로 연결되는 정족천은 옛 이름이 무릉계(武陵溪)로 무릉도원의 아름다움을 지녔던 곳이다. 석사동 신 개발지와 연결되는 이곳은 온통 고층 아파트 단지이고, 무릉계를 안고 있는 안마산(303)자락은 도로로 마구 해집혀졌다. 아직도 이 무릉계를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에는 무릉교라는 이름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도 무릉도원을 느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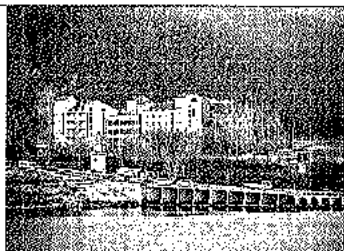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이 개발 원리로 사용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지역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8) 명동과 닭갈비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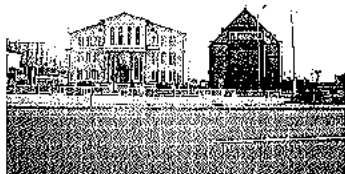
춘천 구시가의 중심이고 오늘도 여전히 춘천의 사무, 사업 중심지역이다. 춘천에 살면서, 혹은 방문하면서 대하는 것 중 하나가 똑바로 된 교차로가 없다는 것이다.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어느것 하나 제대로 교차되는 것이 없다. 물론 가계가 있기 이전에 점차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될 때면 아직도 내가 제대로 차선에서 있는지 하는 생각이 문뜩문뜩 든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춘천의 이미지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혼란함은 차량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어깨를 부딪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을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때로는 그리운 공간이기도 하다.

닭갈비, 막국수로 연상되는 춘천 - 지독하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음을 느끼게 하는 이 음식은 오늘에는 춘천의 얼굴이 되고 있다 - 에서 명동 뒷골목의 닭갈비 공간은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춘천의 모습, 삶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비록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한 건물들이 제멋대로 서 있지만 규모 면에서 인간적임을 벗어나지 않고, 사람들의 형태로부터 비롯되었을 골목길의 흐름과 어우러져 나름대로의 장소성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소양댐 산자락의 숙박시설군



의암호 주변(강남지역의 상업시설들)



명동 이경

9) 향교와 교동마을

봉의산 남쪽 아랫자락에 위치한 향교를 중심으로 한 교동은 춘천 구시가지의 전형적인 주거지이다. 단독주택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교동, 낮은 구릉이 물결치는 이곳에 그 물결을 따라 집들이 오밀조밀 들어서 있다. 구릉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공간 규모가 주는 느낌보다는 제법 많은 용량을 담고 있는 곳이다. 향교가 위치한 장소에 걸맞게 몇 개의 학교가 들어서 있다. 잔잔하게 침잠되어 있는 이곳에서 학교 건물은 오히려 파격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향교가 있는 외에는 깊은 역사성을 찾기 어렵지만 빠르게 변모하는 이 시대의 도시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장소로 남아 오랜 삶이 배어 있는 예전의 춘천을 느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다.

그릇 만들기: 결론을 대신하며

춘천은 늘 우리의 밥상에서 만나는 주발이다. 이 주발 속에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담겨 있다. 무엇 그리 특별한 것 없지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며 우리의 생을 연명해 가고 있다.

그릇 속에 담긴 도시, 건축도 별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별 다를 것도 없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일 뿐이다. 다만 똑같은 된장을 담은 주발일지라도 집집이 장맛이 다르듯이 주발 속에 담긴 내용은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춘천의 정체성은 주발이 이미 담겨져 있는 독특한 양념 - 지역의 자연성 - 을 조합하여 주발 그릇을 넘치질 않도록 잘 담아내야 할 것이다.

춘천을 담은 그릇에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산과 강이라는 커다란 인자들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들 인자는 아직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또 춘천은 아직도 시작 단계에 있다.

이러한 춘천을, 춘천이라는 그릇을 제대로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할 것

으로 생각한다.

첫째, 춘천은 강과 호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강변과 호숫가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개발하여 활용은 물론 강과 호수의 자연적 과정(Natural Process)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호반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호수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물을 직접 접해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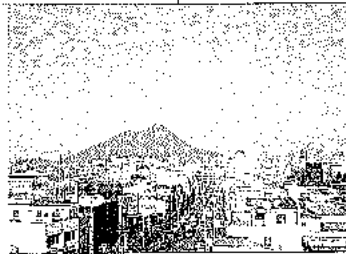
둘째, 산과 강, 공원, 녹지 등의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어떻게 그물처럼 연결시키고 활용할 것인가. 또 여기에 담길 건축은 기본적으로 아담 이웃과 그물처럼 짜여질 수 있도록 긴밀한 상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제 각 어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건축가는 항상 처음부터 시작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보는 주변 시각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백지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것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틈새에 그림을 넣어 전체를 짜 맞추려는 건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자연 환경, 일상 생활 환경에서의 활동성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 지워지고, 보다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강이라는 보다 큰 수계에서 춘천이 차지하는 부분이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견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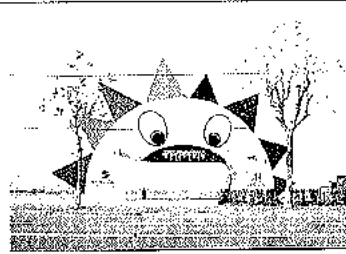
넷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장소성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춘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 호반의 도시, 공지천, 중도, 강촌, 청평사, 오봉산, 소양호, 소양강, 소양강 체너, 빙어, 막국수, 닭갈비 - 에 누구나가 쉽고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억에 남는 도시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양 2교(전국 우수교각 선정)



봉의산을 중심으로 본 도시



'98춘천국제만화축제 상징물

춘천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단상 An Anthropological Glimpse on Chuncheon

한경구 / 강원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by Han Kyung-Koo

문화인류학자는 본래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 하지 못하는 깊이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는다. 그러나 나는 춘천에 직장을 잡은 지 7년이 되었건만 아
직 한번도 춘천을 체계적으로 조사해보지 않았으며, 춘천은 내
게 근무처인 강원대학의 소재지일 따름이었다. 연구실에서 나
와 밥을 먹거나 머리 식히러 영화구경을 가는 것 등이 춘천 생
활의 전부인 나로서, 또 주말을 거의 서울에서 지내는 나로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아니라 단지 인상에 입각하여 글
을 쓴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
의 강권에 못 이겨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보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춘천은 아름다운 산과 강과 호수로 둘러싸여
있다. 춘천에는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이 없고 강원도 행정의
중심지이며 또한 교육도시이다. 그러므로 춘천은 전국에서 가
장 아름답고 깨끗하며 문화적인 도시로 가꿀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큰 곳이다. 그런데 지금의 춘천의 모습은 너무나 밀고
촌스럽고 어수선해서 춘천을 보고 있노라면 공연히 화가 난다.
춘천시내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데, 눈에 보이는 시내의 건축물들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 특히
외곽도로로 나아가 구봉산 휴게소 근방에서 춘천 시내를 굽어
보면 너무나 화가 난다.

춘천에는 별다른 산업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예

쁘게, 정말 예쁘게 도시를 계획할 수 있으면만 왜 그렇지 못한
걸까? 그저 시내를 쏘다니는 것만으로도,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는 것만으로도 춘천이 푸근하게 느껴지거나 아기자기하다는
느낌을 줄 수는 없을까? 그저 시내를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수는 없을까?

외부인에게 불친절한 도시

'호반의 도시'라는 명칭은 무언가 매우 아름
답고 낭만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나 열차편이나 버스편으로 춘
천에 도착하면서 그러한 기대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남춘천역
에 내려서 개찰구를 빠져나오면 비좁고 복잡한 거리가 기다리
고 있다. 춘천역 앞은 비교적 널찍한 터가 있기는 하지만 낡고
멋없는 역건물은 아름다움과 낭만의 도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이다. 좁고 지저분하고 불
편하다. 전국 어느 도청 소재지의 역이나 버스터미널이 이렇
수가 있는가? 그 어느 관광지가 이렇 수가 있는가? 춘천에도
약간 화려한 곳도 있고 깨끗한 곳도 있는데 어떻게 춘천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는가?

또 관광안내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
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내교통과 시외로의 연결에
대한 안내 같은 것이 거의 없다. 놀러온 사람들이야 그렇다치
고 병역의무를 위해 102보충대에 가려고 춘천역에 내린 젊은
이들은 참으로 황당하다. 택시를 타면 흔히 바가지비를 쓰게 된
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춘천이라는 좋은 이미지에 끌려서
이 곳을 찾아오는데, 정작 춘천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잘 받고 잘 기억될 생각이 없는 도시 같다.

춘천은 도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불편하
며, 또 그렇다고 하여 푸근한 느낌을 주는 마을이나 공동체라
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복잡하다. 춘천은 상공업이 크게 발
전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시와 군을 통합하여 인구가 24만이
되었지만 도시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또한 도시로서의
합리성과 편의도 상당히 미흡하다. 그 작은 예로 춘천에서는
대부분의 목욕탕이 화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춘천 사람들
이야 화요일을 피할 수 있지만 화요일에 춘천을 찾는 사람들은
역지로 도청 앞의 사우나 같은 곳에 가야 따뜻하게 목욕을 할
수 있다. 춘천은 이렇게 불친절한 곳이다.



구봉산에서 바라본 춘천



봉의산 배면의 모습



봉의산과 외암호

촌스럽고 어수선했던 거리

최근에는 명동과 중앙로 광장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많이 늘었다. 도청 소재지이다보니 관공서 등 각 기관과 은행의 지사나 지점이 많다. 새로이 건물들을 지으면서 나름대로는 멋을 냈는데, 건물들은 제각기 품을 잡고 있을 뿐 옆 건물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다. 건물들이 “각개약진”을 하고 있다고나 할까?

건물들이 서로 조화가 되지 않음은 물론 전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다. 중앙로 광장은 은행 등 새롭고 멋있는 건물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매우 배타적이다.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 주변에 새로 들어선 제법 고층인 건물들은 어느 한 쪽에서 보면 그럴 듯하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마치 속옷이 드러난 듯 이상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사방에서 보는 건물들을 저렇게 무시하 지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점은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강원대는 국립대학이면서도 건물들간에는 물론 춘천시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다. 밤이면 시커멓게 변하는 학교 주변과 건물들도 멋없이 크기만 하다. 강원대학 내의 건물들에서조차 강원도를 대표하거나 춘천을 상징하려는 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에 걸쳐 여가저기 무질서하게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학교 안의 녹지 공간은 사라져가고 있다.

“춘천다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리

춘천의 시내를 돌아다녀도 이곳이 춘천이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다. 아무렇게나 제각기 자기가 잘났다고 품을 잡고 있는 건물들, 전혀 춘천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기능과 디자인의 건물들이다. 간판을 읽지 않으면 이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춘천하면 떠올릴 수 있는 거리도 없고 상징물도 시내에는 없다. 정겨운 거리가 있는가? 추억의 거리가 있는가? 소양댐이나 청평사 같이 외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 시내의 건축공간으로서 기억에 떠올릴 것이 없다. 그러니 “아, 춘천이다”를 시내에서는 느낄 수 없다. 그렇다면 춘천은 어디에 있는가? 춘천은 없고 춘천에 대한 환상만 있는가? 춘천은 이름답지 않고 춘천답지 않더라도, 춘천 가는 길만 아름답고 추억에 남으면 되는가? 공지천이나 소양고 앞에 서거나 춘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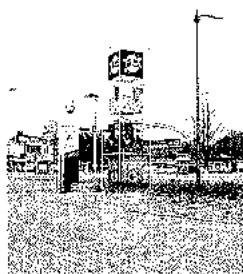
외곽에 나가서야 이곳이 춘천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가? 아직도 이디오피아가 춘천을 상징하는가? 춘천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춘천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춘천 사람들은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는가? 춘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춘천의 거리를 아무리 걸어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거리는 없다. 왜 춘천의 특징은 춘천 사람들의 삶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 뿐인가? 춘천하면 생각나는 것이 닭갈비, 경춘선 기차, 소양댐, 춘천 가는 길, 막국수, 공지천, 청평사, 이디오피아 등이라는 주장은 깊이 새겨 불만하다.

댐이 3개나 생기면서 춘천은 호반의 도시가 되었다. 그 결과 원래 분지였던 춘천은 겨울에는 춥고 습하고 여름에는 덥고 습한 곳이 되었다. 가을에는 안개가 심하고 때로는 숨쉬기가 불편하기도 하다. 이러한 기후조건에 대한 건축적 배려도 아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걸고 싶은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춘천 시내에는 걸고 싶은 곳이 없다. 그저 걷는 것이 즐거운 곳이 없다. 거리가 정겹게 느껴지지 않는다. 춘천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호반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이미지에 걸맞은 곳이 시내에 없다. 강원대학과 한림대학이 있고, 교육대학과 전문대학까지 있는 도시, 교육과 문화의 도시라고도 하는 곳에, 정불일 거리가 없다. 학생이 2만명 가깝고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합치면 도대체 대학과 관련된 인구가 전체의 얼마나 되는가? 주간 인구 중 석·박사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도시라고 농담을 하는 곳이지만, 문화를 파는 곳 — 책방이라도 좋고, 화방이나 문방구를 파는 곳, 악기나 음반을 파는 곳이라도 좋은데 — 이 거리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는 않다. 학교 주변은 온통 술집과 당구장, 미장원이 가득 차 있고, 사와 예술과 학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과 문화의 도시에서 문화를 왜 이렇게 찾기 힘든 것일까? 심지어는 명동조차도 눈요기를 하면서 걷고 싶은 곳이라고 하기 힘들다.

정말 화가 난다. 게다가 보도의 포석은 왜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깔려있고 또 깨져있는지. 거리는 왜 그렇게 지저분한지. 보도는 너무나 좁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고, 그래서 한눈 팔면서 한가롭게 그리고 여유있게 걸을 곳이 없다. 자



관광 안내판



중앙로 광장변의 은행들



도시의 고층빌딩

기 건물은 멋있게 지어놓았으나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가는 공간은 엉망이다. 건물이 있는 공간과 건물이 없는 공간이 함께 어우러져 어떠한 의미나 느낌을 주는 곳이 너무나 드물다.

춘천의 모든 거리는 자동차가 구석구석까지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아무 데나 주차하고 있다. 시내가 그리 크지 않으니 웬만한 곳 같으면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가고 싶건만... 걸거나 자전거를 탄다는 것이 그리 즐겁지 않고 위험하기만 한 도시다. 석사동이나 후평동 그리고 퇴계동 등 새로이 개발한 지역들도 이런 도로가 너무나 좁아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새로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도로를 좁게 만들 수 있는지?

사람을 부르지 않는 거리, 사람이 모이지 않는 광장

시내가 아늑하다는 기분이 없고 그저 어수선하며 불친절하다. 시민들이 과연 앉아 있고 싶은 곳이 있는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모이고 쉬고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곳이 없다. 춘천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가? 또는 시내에는 가지 않고 모두 시내 밖으로, 즉 산으로 강으로 나가는가?

춘천에는 광장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나 이 광장들은 이름만 광장이지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은 아니다. 광장은 그저 자동차 길이 만나는 곳일 뿐이다. 자동차가 많고 복잡한 곳일 따름이지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닌 것 같다.

기껏해야 시청 문 앞에 있는 넓은 터가 가끔 광장처럼 사용되기는 하지만 피커디리극장이 있는 건물만이 약간의 배려를 했을 뿐, 주변의 건물들은 그러한 공간적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정치가가 공동체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이나 교류를 촉진해주는 건축적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들이 자연히 모이는 곳이란 아직도 시장뿐이라는 느낌이 든다.

왜 이럴까: 머무르는 곳

왜 춘천의 시내에서 춘천다운을 찾아볼 수 없을까? 왜 춘천의 건물들이 각개약진을 할까? 왜 중심이 되는 데 마도 없는 것 같고 건물들이 그리도 서로 배려가 없는 것일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살 곳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춘천은 도청 소재지가 되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건물이 많지만,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에게 있어 춘천은 잠시 머무르는 곳일 따름이다. 이들은 춘천의 주민(Resident)이라기보다는 잠시 머무르는 사람(Sojourner)에 불과하다.

그러나 춘천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된다. 춘천은 이들이 잠시동안 파견나와 있는 곳이다. 그저 있는 동안에 가끔적 돈을 적게 들이면서 편하게 지내면 그 뿐이라는 생각이다. 조금 불편하거나 못마땅하더라도 참을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로서는 춘천의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들어거나 불편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들 외부인들만 비난할 수도 없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살아갈 춘천 사람들조차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예를 들자면 춘천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커다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춘천의 아름다움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또한 그 비용의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으니 이러한 의식이 변화할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엘리트들도 역시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 한 건 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머무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결정을 내릴까? 그 사람들도 춘천이 30년 뒤에 또는 5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을까? 슈퍼에서 물건을 사듯이 건물을 지을까? 당장 쓰기 편하고 싸다고, 또는 당장 눈에 띄다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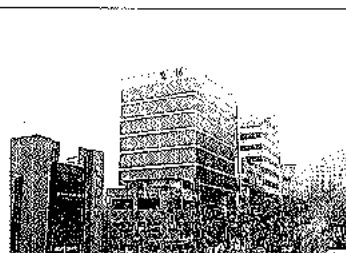
향토건축이 발전하고 춘천이 건축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만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 전문가가 지식과 기술을 살려 이러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엘리트가 장기적인 문화적 안목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춘천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비람과 목소리가 춘천의 건축물과 공간의 조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중앙로 도청길



시청앞 광장



도청앞의 상업건물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1)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장식(la décoration)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근대건축 및 현대건축은 프랑스에서 형성된 이론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 전통을 추적하면 적어도 프랑스의 계몽주의시대 또는 18세기까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르네상스시대까지도 추적할 수 있겠다.

작고 프랑스와 블롱델(Jacques-François Blondel: 1705-1774)은 18세기의 건축가들 중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전문적 건축행위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 온 이론과 교육, 즉 고전적 건축원리를 열렬히 방어하였고 극도로 엄격한 교육관에 입각한 시각으로 '망사르(Mansart)'가(家)의 건축인들과 '르 메르시에(Le Mercier)' 및 '루이 르 보(Louis Le Vau)'를 찬미하였다. Blondel은 로코코의 장식남용과 소위 Picturesque(회화적) 건축의 폐해를 혐오하여 대칭성과 규칙성으로 성격지워지는 고전적 건축으로의 회귀를 옹호하였다. 그는 'Ecole Des Arts(미술학교)'를 설립하였고, 거기서 6권으로 이루어진 '민간건축을 위한 강의 Cours D'architecture Civile'¹⁾를 출판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적극 전파하려고 하였다.

1) J.-F. Blondel의 Cours D'architecture는 Paris의 출판사 Desaint에 의하여 1773년부터 1777년에 걸쳐 전 6권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1979년 Françoise Fichet가 고전주의 시대의 건축이론(La Théorie Architecturale à L'âge Classique)이란 건축 이론 모음서에 발췌하여 출판하였다. 내용은 16세기의 Jean Martin으로부터 19세기 초 Claude-Nicolas Ledoux에 이르기까지 고어로 씌어진 이론 Text들의 주요 부분을 현대 불어로 개정하여 싣고 있다. Fichet, Fran Coise: La Théorie Architecturale à L'âge classique, Pierre Mardaga, Bruxelles, 1979; pp. 409-461 참조

그의 전반적인 건축적 태도는 아주 엄중하여 5주범(柱範)의 이론만으로써 Ledoux가 재건한 '호텔 뤼제스(Hôtel d'Uzès: 뤼제스 저택)'에 대하여 가한 혹독한 비평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이처럼 초강경의 보수적 태도를 견지한 반면, 당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건물의 필요에 따라 건축을 재고찰할 필요를 감지하여 건물의 유형별(Genres d'édifice)²⁾ '배열(Distribution)'에 관한 생각을 「Cours」의 제2권에서 체계적 이론으로 정리함으로 그 시대에 있어서는 대단한 명철함을 수반하고 있는 건축인이었음도 보여 준다. 유형학으로 이어지는 그의 사상은 그가 품고 있던 각 실(室)의 조합과 땅의 이용에 관한 깊은 관심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전적 유산을 현대화하고 보존하려는 Blondel의 작업은 로코코 양식의 말기로부터 신고전주의의 탄생시대 사이에 위치한 계몽주의의 세대에 있어서 건축논쟁의 변천에 관한 귀중한 증언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 협의의 차원에서 그의 이론 자체만을 재고한다면 그가 원용하는 전통의 특수성과 한계성을 가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Blondel은 정확성에 관한 노심초사 때문에 주 제목 Cours에 「Vers une Architecture Classique(하나의 고전적 건축을 향하여)」이란 부제를 달아 고전 건축을 지향하는 그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 의미있게 보일 뿐만 아니라 약 1세기 반 후에 Le Corbusier가 저술한 모던 건축의 지침서라 할 수 있는 「Vers une Architecture(하나의 건축을 향하여)」³⁾를 예시하는 듯하여 흥미롭다.

Cours D'architecture

Cours는 Blondel이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경주한 노고의 결과물이다. 32세 되던 1797년 최초의 저술인 「De la Distribution des Maisons de Plaisance et de la Décoration des Édifices en Général(쾌락의 집의 배치 및 일반 건축의 장식에 관하여)」을 출간하였다. 여러 권으로 된 「Architecture Française(불란서 건축)」는 1752년부터 1756년 사이에 출판되었고 훌륭한 저술들은 대개 후대에 저술되고 빛을 보게 되는데 대표적 역작인 「Cours」는 1771년부터 1774년에 걸쳐 출판되었다. 저작물의 완성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그의 건축개념은 초기의 미성숙과 혼란으로부터 완고한 고전주의적 성향의 원성에까지 모색의 단계를 거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초기의 저작은 아직도 로코

코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어서 「Distribution des Maisons...」에서는 그가 후에 방종스럽다고 나무라게 될 로코코의 복잡한 우아함으로부터 건축의 권위를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식의 건물에 있어서 Bay는 Console위에 얹혀진 홍상을 배치함으로써 장식되고 있는 반면 그의 Trianon의 평면은 형태적으로 다각형인 건축요소들을 끼워넣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그가 Architecture française에서 마치 가장 자리가 톱니모양으로 잘라진 잔디의 형상을 내부공간에 형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에 이르는 불필요한 복잡화이다.

「Cours」는 그의 초기 저작들에 비하여 훨씬 더 간결함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장식을 정화하는 항목은 현명한 배치(Distributions Sages)의 항목과 동반되어 나타남으로 둘 모두 합리적 건축의 조건으로서 기술되고 있다. 이 책은 당시 흥미하던 백과사전식 지식의 나열로써 이루어지는데 체계적 분류목록의 수록으로 그러한 성격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Objet와 각 항목의 특성을 증가시킨 결과 계단의 구분에 있어서 24종류, 건축적 개성(Characterè) 특성은 40여 가지로 구분되었듯 그의 분류작업은 한없이 많은 열거 그리고 각 항목의 분석적 증식과 잘게 나누어짐으로 각 항목의 특성을 구분하기 힘들만큼 목록이 증가되었다. 이렇듯 속속들이 규명해 내고자 하는 그의 염원 때문에 「Cours」는 건축물에 있어서 각 부분의 명칭과 건축이론 및 과거로부터 계승한 건축언어와의 관계에 기초한 분석술을 참조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Blondel에 있어서 Félibien이나 Daviler와 같은 선배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계몽주의 시대의 이론가들이 그러했듯이 건축의 기본요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커다란 틀 - Blondel은 건축을 장식(la Décoration), 배분(la Distribution), 축조(la Construction)의 3개 중첩적 영역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틀을 설정하였다 - 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이토록 복잡하게 얽힌 국면을 균형잡게 하고 있다.⁴⁾ 그가 주장하는 3개의 영역 중 장식과 배치는 건축의 기본을 구성하지만 축조는 별로 주의를 끌지 못한다.

2) 그리스 십자형, 라틴 십자형, 구십형 교회, 대사원, 사당, 수도원 등

3) Le Corbusier의 저술 Vers une Architecture는 영역론 Towards a New Architecture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로 번역, 통용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번역한다면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이다. Le Corbusier가 제목을 붙인 원래의 의미 등에 관하여는 후주에 설명토록 하겠다.

4) Blondel의 아들이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Abrégé D'architecture Concernant la Distribution, la Décoration et la Construction des Bâtiments Civils(민간건축물의 배치, 장식 그리고 축조에 관한 건축 개론)은 이러한 개념을 세목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Etlin, Richard A.: Symbolic Space: French Enlightenment and its Legac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1994, pp. 126-130, 215n8 참조

5) Convenance는 건축 Project와 목적, 용도(Usage) Destination, 이용 Destination)사이의 일치로 지시함.

장식 (La Décoration)

언급하였듯이 Blondel에게 있어서 건축의 주요 항목을 구성하는 장식, 그리고 단순한 전통적 주법의 사용과 형태 만들기(Mise en Forme)에 한정되지 않은 것으로서의 장식은 '합목적성(Convenance)'⁸⁾의 조건을 매개로 건축과 사회의 요청 사이에서 조성되는 모든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가 장식을 단순한 치장의 범위를 떠나 합리적 사고에까지 연결함은 그를 '합목적성'의 건축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조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에 의하면 어느 건물의 용도 및 그 거주인이 지닌 사회적 지위는 장식으로써 Façade에 적절히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Décoraton이란 건물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단순한 치장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지니고 있는 용도와 목적을 나타내려는 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Cours」는 아같은 개념하에 다양하고 상이한 종류의 건물들이 지닌 각기 고유한 기능 및 사회적 지위 등을 표현하는 방식의 종류를 훑어보고 있어서 호화로운 장식된 왕족의 궁전에서부터 검소한 장식의 개인 주택들, 극장에서부터 병원, 공중 욕장으로부터 묘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프로그램을 리스트로 작성하였다. 다양한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함은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순응하려는 개방성을 증언하고 있지만 건축가는 오로지 5가지의 주범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수많은 상황을 유발하고 있는 당대의 다양성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Décoration의 조건을 충족시킬 규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지위, 품위 또는 소유자의 재력에 따라서... 건물에 다양한 형태를 부여할' 필요성은 건축적 효과에 관한 나열목록을 줄여서 규정하는 Caractère의 이론에 이르게 되었다. 「Cours」의 제1권 끝부분에서는 건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몇가지 특성(Caractère)들이 나열되었다. 이에 따르면 숭고한 것들(Sublimes), 감탄할 만한 것들(Admirables), 독창적 또는 쾌적한 것들(Agréables), 다양하고(Variés), 자유롭고(Libres), 정확하고(Exactes), 대칭적이고(Symétrique), 여성적이고(Féminines), 불가사의하고(Mystérieuses), 무섭거나 야만스런(Terribles ou Barbares) 건축들을 구분지을 수 있다.⁹⁾

구체적으로 건축의 Caractère는 주법을 다루고 채용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된 반면 Renaissance 이후

고착되어 온 'Genre'¹⁰⁾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 즉 Toscan주법은 투박한 견고성을, Doria주법은 견고하고 남성적, Lonia주법은 여성적, Corinth주법은 풍부하고 우아하며 경쾌한 반면 합성주법(Composite Order)은 거의 청년기적 우아함이란 주제와 연관되게 되었다. Blondel은 Palladio, Scamozzi, Vignola의 비례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축의 주법에 관한 지식은 그것들의 기원, 종류, 그리고 고유한 특색들에 관하여 고찰하는 연구로써 이루어진다'¹¹⁾고 단언하고 있다. 「Cours」에서 Palladio와 Scamozzi의 비례론은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Blondel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하는 반면 Vignola가 사용하는 척도들은 쉽사리 서로 연역하기 쉬워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그는 단순성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적 미학에 접근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쉽게 양질의 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 역시 충족시키고 있어서 이론가들이 오랜동안 추구해 온 전통적 비례의 관점에 일종의 실용주의가 첨가되게 되었다.¹²⁾

요컨대 이상적 비례보다도 더 Blondel이 집착했던 것은 고전시대에 점진적으로 다듬어지고 추구하였던 치수 체계, 그리고 전체 및 부분간의 조화(Correspondance)의 시스템에 근거한 형태적 일관성이다. 그는 「Cours」에서 Décoration을 논함으로 단순한 쇠시리(Moulure)로부터 원주(圓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Façade를 장식하는 박공까지의 부분들을 통합하는 전반적인 유대체계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각 건축규범마다 각기 다른 쇠시리, 난간의 형태, 창문 또는 벽감들의 배합이 있어야 한다. Blondel은 Caractère이론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건축에 부여하였는데 이에 사용된 건축요소가 바로 주법(Order)이다. 여기서 Caractère는 바로 표현의 과도함과 반근 사이의 화해로부터 생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¹³⁾ 이 화해란 건축가가 그의 작품의 과도함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화해라고 할 수 있어서 「Cours」에서는 Borromini의 과도함, Rococo의

8) 'Donner des Formes Diverses à des Batiments... Selon le Rang, la Dignité ou l'opulence des Propriétaires' in Blondel, J.-F.: Discours sur la Nécessité de l'étude de l'Architecture, Paris, 1754, p. 45.

9) Fichet, F.: 장에서 참조.

10) 원초적 의미의 Genre, 즉 Aristoteles에 있어서 Genre(Genios)는 종(種)으로 구별해 낼 수 있는 기본타위(Eidos)를 일컫는다. 건축분야에 있어서 Genre는 각가지의 건물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 단위를 일컫지만 18세기로부터는 새로운 건설 방법, 재료 등을 사용하여 건축적으로 작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증주의적, 또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그 개념이 바뀌게 된다.

11) 'La Connaissance des Ordres D'architecture Consiste dans l'étude Méditée de Leur Origine, de Leur Espèce & de Leurs Propriétés Particulières' in Blondel, J.F.: 'Cours D'architecture', Paris, 1771-1777. Tome II, p. XXV.

12) Kaufmann, Emil: Architecture in the Age of Reason: Baroque and Post-Baroque in England, Italy, France, Dover Publications, New York, 1956, p. 132 참조.

13) Kaufmann은 Blondel이 불완전 고전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대량항을 조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화해'의 방법론을 사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전에서 pp. 132-133 참조.

무절제한 미 또는 젊은 건축가들의 방자스런 환상적 작품에 대한 빈번한 공격은 그가 건축의 질서에 관하여 서술하는 양 만큼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가 지나친 모든 종류의 건축에는 그 방종스러움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척도로서의 진실한 건축이 대립항을 구성한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건축가들이 정열(情熱)을 가지고 어떤 설계를 시작해야 하지만 자기의 자유분방한 취향과 깊은 심사숙고가 혼합되어 정리될 것을 권한다. 건축가가 이러한 끈기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Blondel은 Dessin의 훈련을 권할 뿐만 아니라 조각가에게서 배울 것을 주장한다.¹²⁾ 따라서 조각은 건축가가 되려는 젊은 예술가들의 이상적 모델이 되었다. Blondel은 회화가 상상력을 넓힐 수 있고 표현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닌 환상적 성격을 경계하였다. 반면에 회화에 비하면 조각은 훨씬 도덕적이고 제작 초기부터의 어려움이 나타나며 다른 어떤 시각예술보다도 건축가의 작업물에 훨씬 가깝다. 여기서 미학적 의지는 도덕적 의미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londel은 다른 합리주의 건축가들과 마찬가지로 단일성(Unité)과 단순성(Simplicité)을 최고의 미학적 가치로 생각하였다. 그는 당시 이태리의 신건축운동에서 볼 수 있던 육중한 볼륨, 그리고 지나치게 대비된 Façade의 성격들을 비난하고 있으며 자신의 눈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François Mansart의 Château de Maisons과 같은 정확성과 공간의 유동성이 한데 섞인 Grand Siècle¹³⁾의 건축원리를 모범으로 하였고 대칭을 건축에 있어서 주요한 미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입면에 있어서 단순한 좌우를 동일하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돌출부(Avant-Corps), 박공, 지붕 및 위계적인 구성을 강화시키는 건물의 중앙에 배치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사용하여 피라미드의 형태로 만드는 작업임을 의미한다.

「Cours」는 합리화를 향한 의도하에 박공이 Entablature의 수평성을 파괴하는 등의 모든 겹침과 관입을 반대한다. 따라서 Borromini 등으로부터 전수되어 내려 온 굴곡이 심한 윤곽선뿐만 아니라 쓸데 없는 장식, 그리고 여러 주범을 층에 따라 포개어 배치하는 것이 모두 배척되었다. 이처럼 체계와 검소함을 향한 강한 추구는 일렁이거나 돌출된 면을 평평한 고전적 장식으로서의 환원으로, 그리고 계획에 있어서 구성(Composition)방법으로는 가소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소위

자주적 건축(Architecture Autonome)¹⁴⁾으로 되어질 것을 권유하고 있다.

Blondel의 「Cours」는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볼 때 의견이 하나로 집중되기보다는 여러 개의 관점이 나열됨으로써 분산되고 있어 일사분란한 일관성은 결여되어 보인다.¹⁵⁾ 이처럼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Blondel의 시각적 다양성 및 그것의 이행적 변화는 그가 비록 고전주의의 교훈 및 원칙에 일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코코로의 비자주적 건축으로부터 고전주의적 건축의 특징 중 하나인 '자주적' 건축으로 이끌고 있는 사슬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Blondel의 절제와 합리주의적 사상은 역사적, 양식적 견지에서 볼 때 이미 확고히 완성된 것으로라기보다는 냉철한 건축형태의 기하학적 그리고 건축 프로그램의 합리화를 통하여 반로코코온 등으로부터 고전적 건축으로의 이행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12) 'Nous avons désiré que les jeunes artistes qui se vouent à l'architecture apprennent le dessin, plutôt chez nos habiles statuaires que chez nos peintres célèbres: l'expérience nous a fait connaître qu'ils deviendraient plus véritablement savants dans la beauté des formes, moins outrés dans leurs contours, plus circonspects dans leurs compositions: 우리는 건축에 몰입한 젊은 건축가들이, 우리 학교의 유명한 화가보다는 오히려 유능한 조각가에게서 Dessin을 배울 것을 일망했다. 우리가 경멸함으로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형태미에 있어서 더더욱 숙련될 것, 윤곽선에 있어서 덜 과장하게 될 것, 구성에 있어서 더더욱 신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Blondel, J. F.: 전제서 2권 pp. X-XI.

13) Grand Siècle은 「대세기(太世紀)」라는 뜻으로 루이 14세의 시대를 가리킴.

14) 자주적 건축(Architecture Autonome (獨): Autonomous Architecture (獨))은 18세기 의 프랑스 고전주의 건축에 있어서 건물 형식이 비교적 일차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여 주변 의 건물과 관계없이 혼자만으로 가소성이 강하게 강조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립되는 개념의 건축 공간 구성으로서 역사가 Emil Kaufmann은 바로크 사슬(Enchaînement Baroque)을 제시하고 있다. 자주적 건축과 바로크 사슬은 차후에 후술하였다.

15) le Manuscrit que je vous ai confié n'est que le résultat de vingt années de recherches: mais qui faites dans des temps différents... manque peut-être de cette liaison nécessaire. (내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원고는 20년에 걸친 연구의 결과에 불과 하지만 서로 다른 시기에 씌어진 것이라... 아마도 요구되는 연결성은 결여되어 있을 겁니다...), 「Cours」 1권 VI.

공공건물에서의 장애인시설에 관한 설계

Design of the Equipment for the Handicapped in the Public Buildings

전병직 / (주)코아건축

by Jeon Byung-Jik

1. 서론

미국을 여행하고 온 사람이면 누구나 그곳에서 느낀 점 중 하나가 공공시설물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못하게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공건물을 방문할 때 외부에서 약간의 턱조차도 걸리지 않고 내부로 접근할 수 있으며, 건물 앞의 계단이 2~3단만 되어도 계단의 난간을 설치하고, 지하층이나 지상2층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장애자의 접근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장애자를 위한 표준(Code)이 잘 정리되고, 또한 철저하게 이 표준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에도 표준을 적용하여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이 마련된 것이 1994년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그해 12월 30일 보건복지부령 1호로 제정됨으로써 뒤늦게나마 설치기준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아직도 공공건물에서조차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건축관계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치를 소홀히 하거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항으로 생각하여 그것의 설치에 무관심한 경우도 있고, 설계조사(設計審査) 시 이러한 사항들이 잘 지적되지 않는 것 또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은 이유이다.

2. 장애자의 정의 및 분류

일반적으로 장애자를 정신장애자와 지체부자유자 그리고 청각, 언어, 시각 등 감각기관에 장애가 있는 지각장애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건축에서는 건축물 사용상 가장 많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휠체어 장애자와 시각장애자 그리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일시적 장애자(교통사고자, 임산부), 노유자를 포함(전체 30%)한다.

건축에서 문제가 되는 이러한 핸디캡은 기능장애나 능력장애의 결과로써 생긴 것으로 사회전반의 이해, 원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혹은 물리적으로 받는 불편, 부자유, 차별 등 일체의 불이익을 의미하며, 정상적인 생활영위가 곤란하게 되는 상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9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¹⁾에 의하면, 105만명(전체인구수의 2.35%)에 이르고 있다. 이는 90년 조사 때와는 0.13% 증가한 것이다. 장애의 발생은 정신지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인 원인²⁾에 의한 것이다. 노령장애인의 증가 및 교통사고(연간 약 6천명의 장애유발)에 의한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64%), 특히 시각(73%)과 지체장애(72%)의 경우 활동에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장애의 개념에는 영구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일정치료가기간이 지나면, 혹은 치료를 요하지 않더라도 임산부, 어린이 등과 같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장애요인이 제거되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노인들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등도 있을 수 있다.

1) 보건복지부, '95년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5년 주기 인구조사자료에 의함)

2) 보건복지부, 앞자료

9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98만 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인구수의 6.3%에 해당하는 것이다. 노인 인구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천년에는 전체 인구수의 7.1%, 2010년에는 10.0%, 2020년에는 13.0%인 6백 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⁴⁾ 그리고 14세 이하 유소년의 비율은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95년에는 전체인구수의 23.4%, 2010년에는 19.9%, 2020년에는 17.2%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⁵⁾

전체적으로 공공건물 및 일반건물을 이용하는 인구 중 신체장애자, 시각장애자, 노인, 유소년, 임산부 등 정상적인 활동에 장애를 받는 인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0% 가량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장애 인구와 장애요인을 지니고 있는 일시적인 장애인구들에 대하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시설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은 이제는 소수의 장애인을 위한 과다한 투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그들의 당연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3. 건물에서의 장애물

장애물이라 하면 장애자가 건축관련 시설물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요소를 의미하며 장애가 되는 장애물의 크게 건물외부와 건물내부로 분류할 수 있다.

(1) 건물외부공간에서의 장애물

— 주차장이나 승용차 승하차 지점에서의 충분한 여유공간 미비

— 경사로는 가로(街路)에서 보도(歩道)까지 통행 면의 높이 차이

— 보도 위에 있는 그릴, 맨홀뚜껑 등

— 보도로 튀어나온 표지판

— 우체통, 노상 적체물 등 보행공간 내로 돌출한 장애물

— 유동식 경계체인

— 고정되지 않은 보행로 마감재

(2) 건물내부공간에서의 장애물

— 장애자를 위한 출입구의 위치가 주출입구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 순화공간에서 장애자의 개별적인 이동할 때 필요한 두 흐름 사이에 불충분한 여유공간

— 통행로상의 위험한 돌출물

— 계단에서 시각 장애자가 위험을 피할 수 있

도록 고려한 감지시설 미비

— 장애자가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조작판과 안내요소 위치의 미비 및 부재

— 화장실 출입문 폭이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는 규모의 폭과 화장실내에서 휠체어가 실외로 후진하지 않고 180도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의 미비

4. 건물에서의 장애시설 계획

건물에서 장애시설 계획시 이를 공간별로 나누면, 외부공간은 보도경사로, 매개공간은 주차장 접근로, 내부공간은 주차장 접근로, 내부공간은 현관주위, 주출입구, 복도 및 통로, 계단 승강기, 문 및 출입구 화장실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고, 장애시설을 배치와 평면상에서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배치계획에서의 장애시설계획

① 주차(Parking)

장애자를 위한 주차시설은 항상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적당한 개수(전체 주차대수의 2%)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시설 위치는 건물의 주출입구에 접근할 수 있는 순환통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자 주차시설에서 건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통로가 계속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 주차장 경계구역을 휠체어 통과를 위해 절단(Curb Cut)을 하고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주차장의 크기는 휠체어사용자가 자동차에 옮겨 타기에 충분하도록 주차대수 1대당 유효폭 1.5m 이상의 안전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면에 장애자 주차시설임을 나타내는 심벌(Symbol) 사인을 부착해야 한다.

② 경사로(R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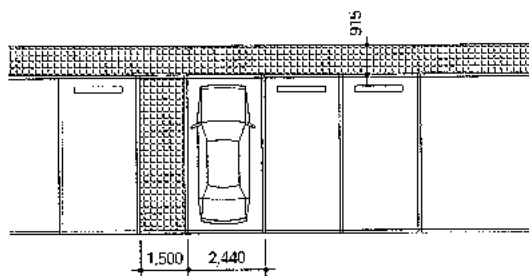
경사로의 최대경사각은 1:12 이하로 하며 45도보다 큰 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부분에서는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바닥재질은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해야 한다. 경사로 최소 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경사로 Landing을 위한 중간참 부분을 1:12의 구배일 때에 램프길이 최대 9m마다, 1:16일 때에 12m마다, 1:20일 때에 15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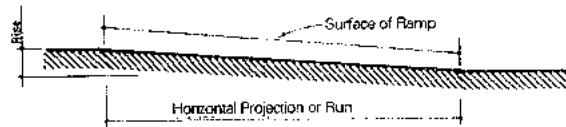
난간을 적어도 한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난간의 시작과 끝에는 수평으로 30cm 이상을 연장하고 중간에서 끊기지 않도록 한다.

4) 통계청, '97 전국인구조사 자료 (표준조사에 의한 자료임)

5) 통계청, 앞자료



〈그림 1〉 장애인 주차시설 통로폭



경사로	최고높이(mm)	최대 수평바닥면(m)
1:12	760	9
1:16	760	12
1:20	760	15

〈그림 2〉 경사로의 경사구배

③ 보도턱 절단(Curb Cuts)

주차장에서 보도, 혹은 횡단보도에서 보도로 연결되는 부분은 보도턱(Curb)을 절단하여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이때 경사구배는 1:12이고 옆면 경사구배는 1:10이고 폭은 0.9m 이어야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평면계획에서의 장애시설계획

① 복도(Corridor)

복도의 유효폭(Clearance)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한 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이 0.9m 이상(유효폭 1.2m 이상)이고, 휠체어를 탄 사람 두 명이 서로 엇갈려서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폭 1.5m(유효폭 1.8m 이상)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복도 순환공간 내 일반통행자와 장애자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 알코브(Alcove)를 고려하여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②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Entrance & Door)

장애자에게 출입문의 개폐가 곤란할 때가 많아 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치할 경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86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의 전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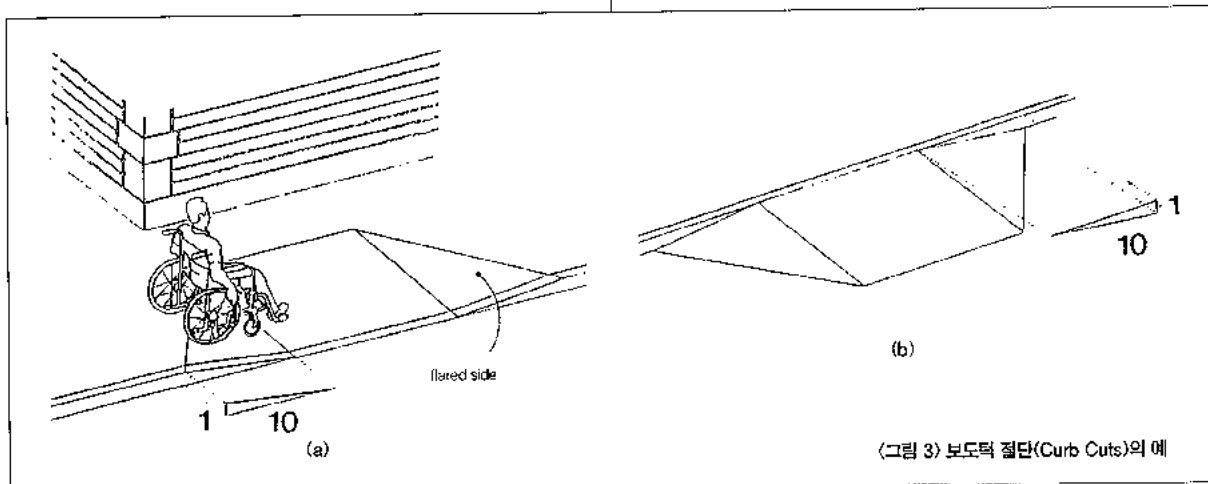
효거리는 양여닫이문의 경우 열렸을 때와 문과 문사이의 거리가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자에게는 미닫이문이 여닫이문보다 개폐동작이 간편하다.

출입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비상출입구는 모두 신체장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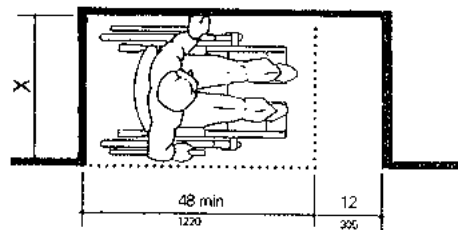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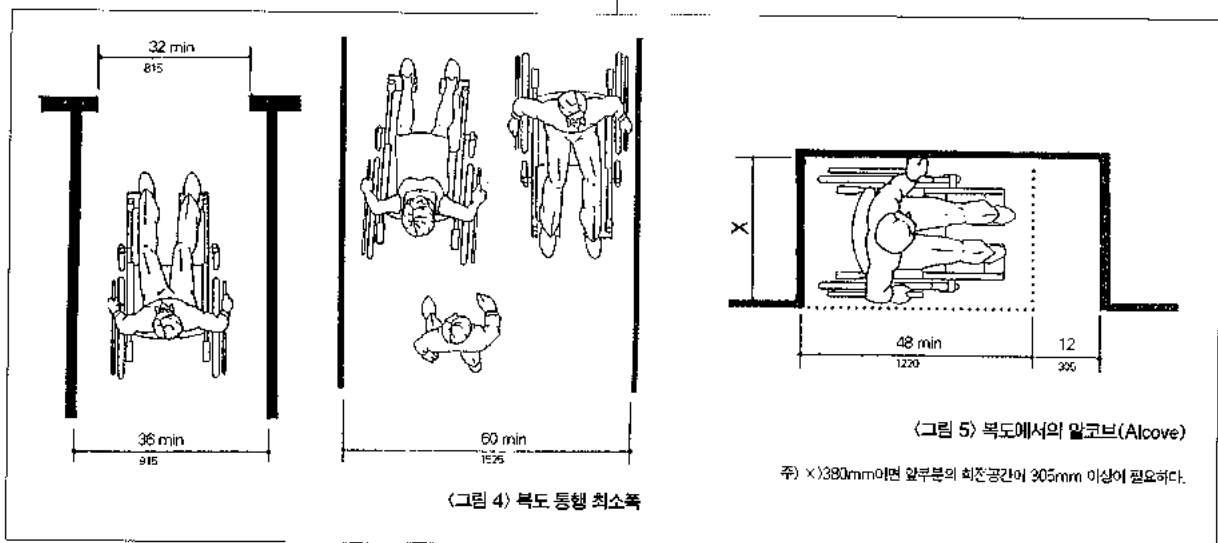
③ 엘리베이터

장애자에게는 수직방향으로 이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건물이 저층일 경우에 사용빈도가 낮고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층일지라도 최소한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휠체어 리프트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통로의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경우 통로를 지나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로 순환공간 내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강을 위한 1.5×1.5(m) 이상의 유효바닥면적인 알코브를 고려하여야 한다. 승강기는 너



〈그림 3〉 보도턱 절단(Curb Cuts)의 예



주) X)380mm이면 앞부분의 회전공간이 305mm 이상이 필요하다.

비 1.5m 이상, 깊이 1.5m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는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깊이는 가능한 한 깊게 하여야 하고, 장애인 이용자가 출입문의 개폐를 조작할 수 있도록 수동식 개폐조작 버튼을 손이 쉽게 닿도록 바닥에서 0.8m에서 1.2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호출버튼 전면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등의 감지용 바닥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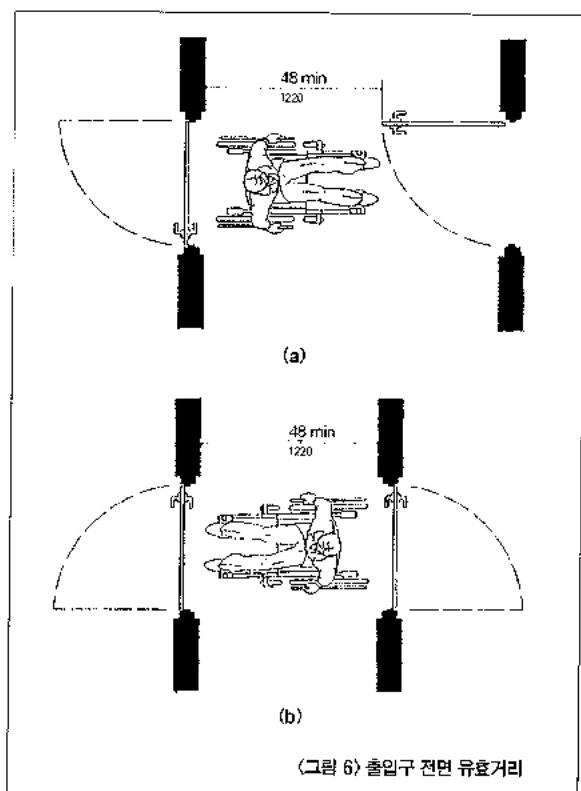
장애자용 승강기나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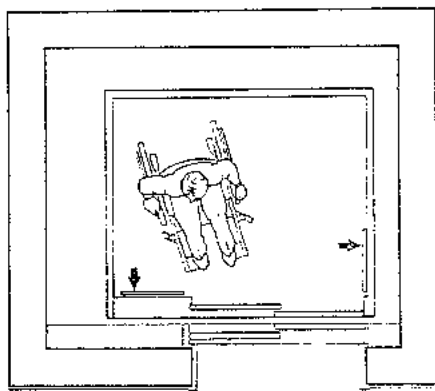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단만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단을 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하고 동일 계단에는 철탈의 높이와 디딤판의 길이는 균일하여야 한다. 디딤판의 끝부분에는 발끝이나 콜러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논슬립은 금속성이면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로 경질고무로 마감하여야 한다. 계단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의 바닥에는 계단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형블록의 바닥재를 설치하거나 마감재료를 변화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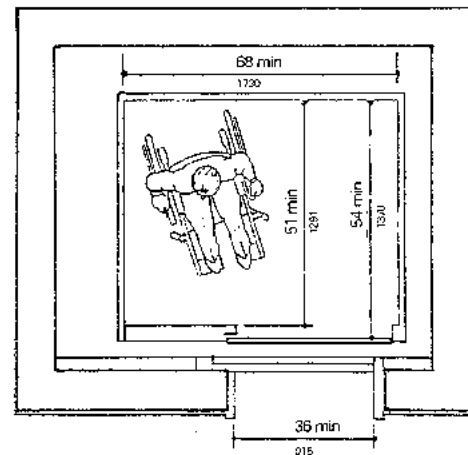
⑤ 화장실

우리 나라에서 공공시설의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장애인만 사용하기 때문에 공간이 비효율적이고, 하나만 설치하여 남·여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화장실을 일반화장실과 함께 설치하되 가장 안쪽에 적당한 크기(1.2m×1.5m)로 장애인전용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에서 옮겨 탈 수 있도록 좌우 뒤편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변기는 타원형 수세식변기가 바람직하다. 이때 수평난간의 높이는 85~90cm 정도로 설치하고, 여담이문을 사용할 경우 개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Open식 도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면 변기에 정면으로 접근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소수의 장애자를 위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변기를 설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기 앞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a) ELEV 조작 스위치 위치



(b) ELEV 내부 최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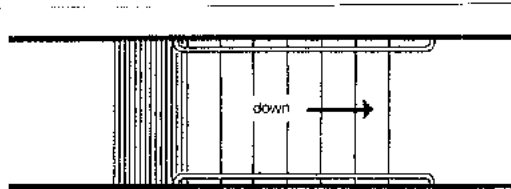
〈그림 7〉 장애자용 ELEV

5. 분석 및 실태조사

일부 공공건물에서는 예산상의 이유와 이용시설의 비효율을 이유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잘 설치하지 않고 있다.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에서조차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태이다.

조사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행로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고, 경사로에 대한 경사도도 완만하지 못했다. 문턱과 출입문턱은 낮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여 장애인이 비상시에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계



〈그림 8〉 계단 장애자용 점형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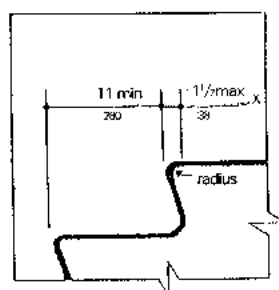
단상부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인이 계단을 이용할 때에 위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업무를 2층 이상에서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해서 승강기나 이에 준하는 수직교통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6.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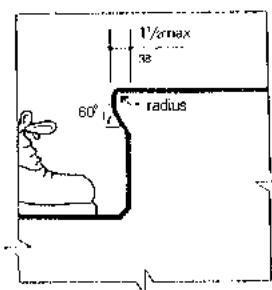
장애자들은 크게 다음 두가지 장벽에 의해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첫째, 물리적인 장벽(주거, 공공시설, 도로 등)에서 신체상의 장애 때문에 행동영역에 크게 제약을 받는다. 둘째, 사회적인 장벽으로 장애자들을 비정상적인 소수의 특정인으로 취급하여 사회에서 무시해 버리는 일반적인 의식상의 문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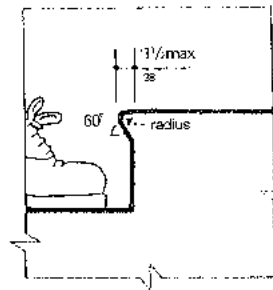
사실상 지금까지의 건축은 정상인만을 위한 설계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장벽이 제거될 때가 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장애가 있는 건축환경은 장애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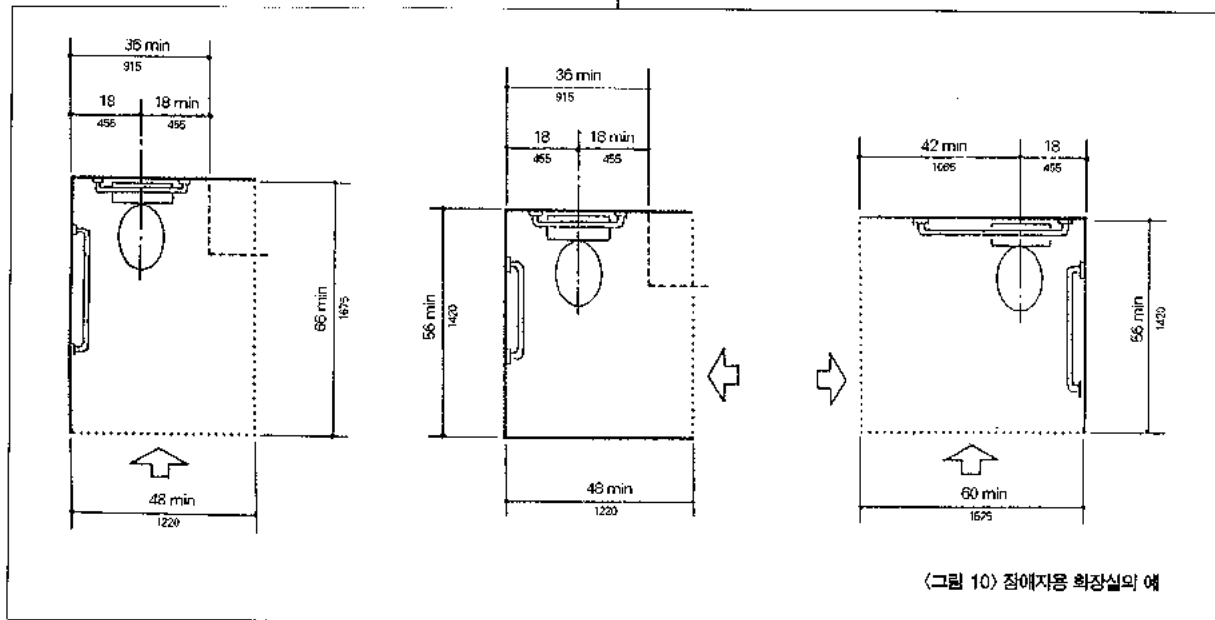


(b)



(c)

〈그림 9〉 계단 랙판·더딤판의 예



〈표1〉 공공건물의 장애자를 위한 시설 설치조사 (서울시내 일부 구청사를 표본조사한 것임)

	구 분	A구청	B구청	C구청	D구청	비고
주차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	○	○	○	
	장애인 전용주차표지판	○	×	○	×	
	주차공간내 장애인전용표시	○	○	○	○	
통행로	통행로에 경사로 설치	×	×	×	○	
	최대 경사로 길이	-	-	-	9m 미만	
	통행로 폭	120cm 이상	120cm 이상	120cm 이상	120cm 이상	
	통행로에 설치된 턱높이	1.25cm 미만	1.25cm 미만	1.25cm 미만	1.25cm 미만	
경사로	통행로 노면재료	포장용 블록	포장용 블록	포장용 블록	포장용 블록	
	경사로의 경사도	1:10	1:8	1:10	1:10	
출입문	경사로 바닥마감	시멘트 모르타르	화강석 버너	화강석 버너	화강석 버너	
	출입구의 높이(Clearance)	86cm 이상	86cm 이상	86cm 이상	86cm 이상	
	출입문 문턱높이	2.5cm	2.5cm	2.5cm	2.5cm	
계 단	문 개방시 문 사이의 거리	120cm 이상	120cm 이상	120cm 이상	120cm 이상	
	계단상부 잠형블록 마감	×	×	×	×	
승강기	장애인전용 승강기 설치	○	○	×	○	
	승강기 크기(cm)	140×160 이상	140×160 이상		140×160 이상	
화장실	장애인전용 화장실 설치	○	○	○	○	
	화장실 바닥턱 높이	1.25cm	0 cm	0 cm	1.25cm	

자나 노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유모차를 밀고 가는 부인 등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다.

경제 성장의 수준에 맞게 사회복지 수준의 척도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시설이 얼마나 잘 마련되었느냐에 따라 나타난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규준에 따라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물에서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건축물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사회활동을 더욱 더 촉진하는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시작이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공공시설물들을 아무리 잘 설치하였다하더라도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다시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들은 사회구성원 일원으로써 그들의 사회활동을 돕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이 건축분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ACA-8) 참관기(Ⅱ)

Report on the Eigh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오근석 / 본협회 국제위원

by O Kun-Sok

제8차 아시아건축사대회(Eigh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및 학생잼버리대회(A RCASIA Students Jamboree)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차기 아카시아 포럼 개최지 선정권이 포함돼 있어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당초 지난 97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제9차 포럼에서 타회원국들이 차기 제10회 포럼을 한국이 유치할 것을 권유했었으나 당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돼 이를 유보한 채 금번 대회까지 오게 되었다. 하지만 신임 이의구 회장은 '99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건축인들의 국제학술행사인 아카시아 포럼을 서울에 유치함으로써, 건축문화의 해를 더욱 빛내고 아울러 건축인의 위상을 높이고자 차기 아카시아 포럼 유치를 강력히 피력하였다. 따라서 우리대표단은 이런 소임을 가지고 장도에 올랐다.

협회 대표단 및 참관단 그리고 학생대표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우리 일행은 아카시아대회 행사에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을 준비해 김포공항을 출발했다. 그 동안 바쁘게 진행하던 사무실 업무를 뒤로하고, 기내에서 아카시아 리포트며 각종 회의자료 등을 검토하다보니 비행기는 어느덧 첫 기착지인 싱가포르 Changi 공항에 도착했다. 스리랑카 콜롬보행 항공편이 밤10시에 출발할 예정이어서 출발시간까지는 아직 7~8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으므로 우리 일행은 공항측의 안내를 받아 'Free City Tour'를 신청했다. 이 투어는 아마도 항공사측에서 Transfer 승객을 위해 마련한 것인 듯 했는데 약 4시간 동안 싱가포르 시내의 현대건축물을 돌아보고 페리(Ferry)편으로 관광을 시켜주는 것이었다. 여행객이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장시간 공항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차창너머로 고층빌딩군을 이룬 현대도시를 둘러볼 수 있게한 좋은 배려라고 생각됐다.

콜롬보행 항공편 시간이 다가오자 우리 대표단은 홍콩 대표, 싱가포르 대표 및 필리핀 대표단과 조우해 서로 그동안의 안부와 소식을 물으며 항공기에 탑승했다. 약 세시간반쯤 지나자 콜롬보 상공에 도달하고 있다는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다. 하늘에서 본 콜롬보 시내의 야경은 간혹 가로등 불빛만 반짝이는 적막한 도시로 보였다.

공항에 내리니 비가 부슬부슬 내려 졸음을 쏘아 주었다. 공항 로비에는 아카시아 대회 집행위원들이 우리 대표단을 반기기 위해 있었다. 콜롬보공항에서 학생대표단을 잼보리 대회장으로 먼저 출발시키고 난후 자료 등을 챙겨 호텔로 향했다. 호텔에 도착하니 어느덧 새벽 3시가 넘고 있었다.

11월 11일

Council Meeting에 참석했다. 전체 15개 회원국중 올해는 몽고대표단과 마카오대표단이 불참했다. 대회장에는 각국 대표들과 옵저버 그리고 준비위원 등 약 1백여명이 운집해 있었다. 식순에 따라 Surath 아카시아 회장의 인사말 후 UIA임원 및 AIA회장의 축사 그리고 스리랑카 건설성 장관의 대회경축사가 있었으며 곧이어 각국 대표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한편 매 스킴에서는 본 대회의 의의와 행사 내용을 자세히 취재해 갔다. 오후 Council Meeting에서는 Country Report 발표가 시작됐다. 우리대표는 대한건축사협회기구 조직표 소개, 이의구 신임회장 선출과 한·몽고 건축사 교류, 건축문화 상호인증 협약 준비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각 국별 보고가 끝난후에 기타사항으로 설계비 현실화 문제며 건축가들의 위상제고 등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어졌다. 이날 교육위원회(ACAE) 회의에는 김지덕위원과 유건위원이 참석했다. 저녁 만찬에서 우리 대표단은 '99년 제10차 아카시아 Forum의 서울 유치를 위해 각 국 대표단과 만나 전후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많은 회원국들이 한국 대표단에 호의를 보내주었으나 아직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11월 12일

대회 둘째날에는 전 아카시아대회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와 함께 각 국가별 현안문제를 토의하였다. 이중 건축면허 상호인증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건축설계시장을 급속히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며 각 나라마다 지역적 특성과 문화적 바탕이 다른만큼 건축문화 발전과 계승을 위해서는 제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그 시대별로 이루어지는 문화를 바탕으로 건축문화가 발전 계승되어야지 선진국의 건축문화 전수 또는 식민화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후 회의에서는 제10차 아카시아 포럼 개최지 선정 건물 다루었다. 개최 유치국으로는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이젠국 국제위원장도 미리 준비해간 자료들을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하고 한국이 포럼을 유치하려는 당위성과 준비상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많은 노력 덕에 차기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됐다. 이어서 제9차 아카시아대회(ACA) 개최지 선정건물 다루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대회 유치를 위해 접전을 벌였으나 표결 결과 차기 개최지로 말레이시아가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차기회장 선출이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대표인 Mr. P Kasi가 만장일치로 차기회장에 선임됐다. 또한 금년에는 그동안 몇 차례 읊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던 베트남 건축시험회가 아카시아 정회원회에 등록돼 아낌없는 축하박수를 받았다.

이날 저녁 만찬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차기 포럼을 유치한 한국 대표들에게 많은 덕담을 보내주었으며 우리는 이에 훌륭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각국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다.

11월 13일, 14일

Session별 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질의 응답은 갖는 Forum시간은 13일은 발표자 소개와 산업사회에서의 건축가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고, 14일은 건축사를 위한 경영학 및 건축사 교육혁신을 요지로운 주제발표가 있었다.(주제발표 내용은 지난해 이정근 국제위원장 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11월 15일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전 회원들을 위한 'Official Tour'를 준비했다. 2대의 버스에 동승한 대표단은 스리랑카 건축사협회를 방문하였다. 협회는 막 개보수 작업이 진행중이었다. 원래 자체건물이 없었으나 이번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유치하면서 정부로부터 대여 받았다고 전했다. 협회건

물은 안내실, 자료실, 서고 등이 1층에 위치하고 2층에는 회장실, 회의실, 사무실이, 3, 4층에는 3~4개의 Class Room이, 5층에는 강당이 있었다.

이내 버스는 인도양의 해안선을 따라 전원주택지와 소도시를 몇 곳을 지나 섬 남부에 위치한 대저택에 다달았다. 스리랑카의 저명한 건축가와 Jeffery Bauwer 소유의 저택이었다. 그는 원래 법률가(Lawyer)였으나 그 부지에 조그마한 참고건물을 설계하고 신축한 것이 어는 원로 건축가의 눈에 띄어 그 길로 건축수업을 받은 후 대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고 한다. 작은 언덕 부지에 공간의 연계성을 활용해 잘 표현하였으며 본체와 작업실간의 외부통로 연계성, 앞뜰과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까지 갖춘 한마디로 언덕위의 저택이었다. 이날 두번째 방문지는 건축가 Bauwer의 맨션(Mansion) 작품을 견학하였다. 인도양이 펼쳐지는 부지에 2~3층으로 구성된 이 맨션은 주거개념과 공동의 장 그리고 비좁은 듯한 연결통로가 복합적으로 잘 구성돼 있고, 건물 외벽색채는 열대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듯 흰색 페인트로 단장해 야자나무에 둘러싸인 저택이 한층 고풍스러워 보였다. 콜롬보로 돌아오는 길에 'TAJ Exotica 호텔' 등 Bauwer의 최근 호텔 작품을 견학하였다. 평활한 대지위에 대지언과 물을 건물의 곳곳에 도입하여 매어드급호텔을 구상했고 입면 파사드(Facade)는 격자 패턴을 도입하여 음영의 효과를 심분활용한 작품으로 방문자들 모두가 찬사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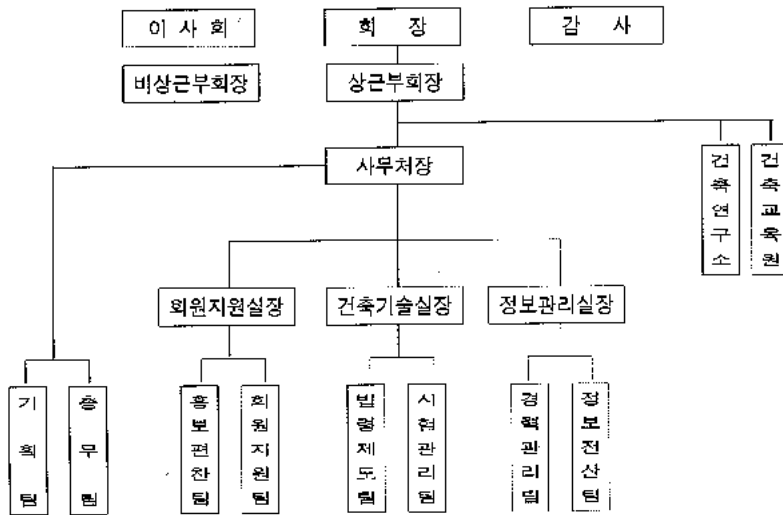
건축가 Bauwer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건축가들도 그를 못지않게 작품성이나 능력면에서 세계적임에도 아직 국제적 명성이 높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봤다. 건축인들이 보다 단결된 면모를 보여주고 내적으로는 작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외적으로는 국제적 명성을 얻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낸다면 세계속의 한국 건축가가 탄생될 날도 멀지 않았음을 기대해 본다.

우리는 이번 제8차 아시아 건축사대회를 통해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우선 제10회 아카시아 Forum을 서울로 유치했으며, 아카시아 건축상 산업시설부문에서 양기주망 건축사 사무소 최승원 회원의 작품인 '원실업 천안공장'이 당당히 금상을 수상했고, 학생잼버리대회에 학생대표로 참가한 강효진양이 'Architect for the Asian Century'를 주제로한 아카시아 학생건축상에서 1등상을 수상했다. 이 모두가 한국건축인의 자람이요, 본인들이 각각의 작품에 혼신의 힘과 정열을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이자 우리 협회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으로 이룩된 쾌거라 본다. 또한 이는 우리 건축사들의 위상을 한단계 드높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8

Korean Architect 9901 095

〈직제〉



※ [] : 직원이 없는 직제임

위해 본부장은 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은 현 4실8팀1연구소1교육원에서 3실8팀으로 축소하는 한편 건축연구소 및 건축교육원은 직제만 존속시켜 연구소업무는 건축기술실로, 교육원업무는 정보관리실로 이관

- 제2호의안: 인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인사규정중 개정규정(안) 주요내용〉

- 신설: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으로 한다.(규정 제26조제5항)

- 제3호의안: 보수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인사규정중 개정규정(안) 주요내용〉

개정: ... 지급한다. 다만, 인사규정 제26조5항의 규정에 의한 희망퇴직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감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규정 제13조)

- 제4호의안: 희망퇴직제 시행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98년 12월 28~31일 기간중에 본협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신청을 받아 심사후 통지키로 하고 퇴직자에 대한 위로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98년 월평균보수액의 3.8~4.5개월분을 지급키로 함)

- 제5호의안: 직원 정년퇴임에 따른 공로패 수여 승인의 건
- 협회재직중 건축계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자 경기도건축사회 김동국 사무국장과 권중호 총무부장 2인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키로 함

협회 구조조정 본격화

사무처 직원 35% 감축, 직제도 축소 개편

협회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됐다. 협회는 지난해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신청을 받아 전체직원의 35%에 이르는 인원을 감축한데 이어 사무처 조직도 현 4실8팀1연구소1교육원에서 3실8팀으로 축소 개편했다. 사무처 조직개편은 직제의 단순·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현 본부장의 명칭을 처장으로 변경하고 팀 중심의 조직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건축연구소와 건축교육원은 직제만 존속시켜 연구소업무는 건축기술실로, 교육원업무는 정보관리실로 이관했다.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건축신고범위 확대에 대해 '적용범위 축소' 의견 제출

협회는 건축신고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해 정부가 마련한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신고범위의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택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신고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을 신고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를 위해 건축신고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건축 신고범위를 확대할 경우 대부분 주택, 근린생활 등 소규모건축물에서 불법·부실 건축물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칫

건축신고범위(제11조) 확대에 대한 협회의견

현행	입법예고(안)	협회의견(안)
• 도시계획구역 인의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 주택: 100㎡미만 - 주택, 창고: 200㎡미만 - 작물재배사: 200㎡미만 •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지역 - 주택: 100㎡미만 - 창고: 200㎡미만 - 축사, 작물재배사: 400㎡미만 • 점지역 - 기타 건축물: 50㎡이하 - 주택: 100㎡이하	•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 주택, 창고: 200㎡이하 - 축사, 작물재배사: 400㎡미만 • 점지역 - 2층이하로서 150㎡이하인 건축물	• 읍·면지역(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 주택: 2층이하로서 100㎡이하 - 창고: 200㎡이하 - 축사, 작물재배사: 400㎡이하 • 점지역 - 2층이하로서 100㎡이하인 건축물

계획성이 결여된 건축행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최소한 국민주택규모(85㎡)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주택 등 200㎡의 규모는 법에서 위임한 소규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안전·구조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주택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무식·신년하례

본부, 서울건축사회, 서울신협
새해 업무 시작

본부와 서울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은 지난 1월 4일 오전 10시 합동 사무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이의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 임직원이 단결해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역대회장과 협회 임원, 서울건축사회 임원들은 사무식이 끝난후 신년교례회를 갖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사무식 광경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총 973명 최종합격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올해 자격시험에서는 응시자 3,874명(특별전형 6명포함)중 특별전형시험 합격자 2명을 포함한 총 973명이 최종 합격해 25% 합격률을 나타냈다.

최고득점자는 300점 만점에 282.5점을 얻은 조상원(전북대 졸, 34세)씨가 차지했으며 59세의 황영화씨가 최고령 합격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합격자 명단은 본지 120쪽 참조)

건축계소식 archi-net

건축사업 등 전문인적응역 과세특례 폐지

과표양성화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에 포함

정부가 건축사, 변호사 등 18개 전문인적응역을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이어 이들 전문인적응역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구랍 22일 이같은 내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재경위가 논란 끝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각종 소득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기로 한데 이어 과표양성화를 위해 이들 전문인적응역에게는 과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사업, 공인회계사업, 측량사업, 기술사업, 설계제도사업, 기술사업 경영지도사업, 평가인업 등 전문인적응역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과세특례는 일반과세자들이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비해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2%만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단체 설립 자유화' 법률개정 무산 가능성

국회 재경위, 공청회 등
여론수렴 뒤 '재심' 결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해온 전문자
격사단체 강제가입 철폐 및 임의설립과 관
련한 법률개정이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구랍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아들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재심외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8월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113개 사업자단체와 협회의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에 대해 우리협회 등 관련 전문자격사단체들은 공익성이 강한 단체들의 대국민서비스를 도외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송민구 회원,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예총, 건축·문학·미술·음악 등
분야별 대상 수상자 선정

건축가협회 제5대 회장을 역임한 원로 회원 송민구씨가 제12회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예술문화상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명복)가 매년 건축, 문학, 무용, 미술, 사진 등 10개 각 예술분야의 인사들중 문화예술 발전에 공이 큰 예술인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 왔는데 건축분야에서는 송민구 회원이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각 예술분야별 대상수상자는 영화 정광석(촬영감독), 음악 이성재(작곡가), 미술 김홍수(서양화가), 국악 황용주(중요무형문화재 19호 선소리산타령 예능보유자), 문학 구혜영(소설가), 사진 박계서(사진작가), 연극 윤호진(국단 에이콕 대표), 연예 이상우(전 한국연예협회 이사장), 무용 정명숙(중요무형문화재 97호 살풀이춤 예능보유자 후보)씨 등이며 가수 설운도씨 등 15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아시아에서의 혁신적 건축' IAA국제심포지엄

김영섭 등 아시아 각국 건축가 참가해
아시아건축의 정체성 재조명

아시아 각국의 유명 건축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건축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조명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려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인도 방갈로에서는 김영섭(한국, 건축사무소 건축문화 대표), Gerard Da Chunha(인도), 마모루 가와구치(일본), C. Y. Lee(대만),

Yung Ho Chang(중국) 등 아시아 7개국의 유명건축가 18인이 참가한 제2회 IAA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아시아에서의 혁신적 건축(Innovative Architecture in ASIA)'을 주제로 한 이 행사는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아시아 건축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었는데 특히 각국 건축가들은 아시아 건축이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현대적 기술을 조화시켜 나감으로써 또 다른 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R. Sundaram 등 인도의 건축가들은 서구문화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다민족 다원적 문화의 뿌리가 도시의 새로운 빌딩들에 도출되고 있는 인도의 현실을 예로 들면서 건축에 있어서의 혁신은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도전, 형이상학적인 공간을 출발점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표로 참가해 'Memory & Disire in Symbolic Architecture'란 주제의 강연을 펼친 건축가 김영섭씨는 자신의 건축이 "방법론상으로는 다원적 미학을 도입하려는 시도이자 이는 강요된 서구 모더니즘과의 화해내지는 동서양 미학의 공생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소개하고 "국제화된 건축이 그 비국적 속성으로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도시를 황폐화시키기 전에 아시아의 건축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과거와 유산들을 현재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생 선발

40세미만 건축전공자 1인 선발
해외건축여행 경비 지급

김태수 건축장학재단에서는 올해의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제」의 장학생을 공개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미화 1만달러의 경비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해외건축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대상은 외국 유학 경험이 없는 전문대이상 학력의 건축전공자로 올해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40세미만의 건축가 또는 건축분야 종사자가 대상이며 자격심사를 거쳐 1명을 선발한다. 신청자는 자신의 건축작품이 수록된 포트폴리오를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TSK건축사사무소 (02-588-2703~5)

(주)영화종합기술단건축, ISO9001 인증 획득

토목 건축 전기 소방의
설계, 감리 및 부가서비스 인증 취득

(주)영화종합기술단건축사사무소가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토목·건축·전기·소방의 설계, 감리 및 부가서비스 부문에서 ISO9001인증을 획득했다. (주)영화기술단건축은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품질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향상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건축사회 회원작품집 발간

회원작품 117점의 사진과 도면 수록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가 회원들의 작품활동을 담은 건축작품집을 발간했다. '충북의 건축'이란 제명으로 발간된 이 작품집에는 주택을 비롯해 교육연구 근린생활 종교 공공업무시설 등 회원작품 117점의 컬러사진과 도면들이 수록돼 있어 지역건축의 모든 것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충북건축사회는 창립 이래 처음 발간한 이번 작품집을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에 무료로 배부해 건축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목조건축 설계교실 개강

미국 임산물협회의 전문교육프로그램에 건축전문가 참여열기 높아

최근 목구조주택에 대한 인기와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임산물협회(대표 안경호)의 목조건축 교육프로그램에 많은 건축전문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수운회관 6층 교육실에서는 건축사 등 건축전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4기 목조건축 설계교실 개강식이 열렸다.

이번 설계교실에는 건축사와 건축과 교수 등 14명의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해 목조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는데 이는 건축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자 이를 체계적 재교육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으려는 건축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의는 목조건축기술연구소 김진희 소장파 미추건축 송재승 소장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강의를 맡아 10주동안 목재의 특성, 목구조 기본원리, 설계계획, 자재, 발주 등 목구조건축의 기초에서부터 활용에 이르는 각종 주요 핵심기술에 관해 교육을 진행한다. 목구조 설계교실 제5기 수강생 모집은 오는 99년 2월에 있을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조건축기술연구소(02-734-2181)를 통해 알 수 있다.



개강식 광경

'과거와 현재의 공존' - 프랑스 건축사진전

프랑스의 고전 현대건축
컬러·흑백 작품 한자리에

고딕 성당건축에서부터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대표적 건축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주제로 오는 1월 23일까지 주한 프랑스 문화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딕 성당건축의 구조에서부터 고전주의건축, 바로크·로코코건축 그리고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인덕대학 건축과 배대승 교수가 촬영한 대표적인 프랑스 건축사진작품들

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과거와 현대의 공존에서 느낄 수 있는 건축적 매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많은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이 채택했던 건축재료의 사용과 구조방식을 살필 수 있어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과거의 건축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프랑스문화원(02-734-9768)

제5회 간향건축문학상 작품공모

이달 25일 접수마감

월간건축인 POAR에서는 제5회 간향건축문학상 작품을 공모중이다. 형식은 산문(사진 등 보충자료 첨부가능)으로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작품마감일은 99년 1월 25일이며 심사결과를 월간 건축인 POAR 99년 3월호를 통해 발표된다. 당선작 1편에는 상패와 상장 그리고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지난 97년 3월에 처음 제정된 이후 매년 봄·가을마다 개최돼 이미 4인의 수상작가를 선정한 바 있는 간향건축상은 건축 에세이스트들의 글을 통해 건축세상 구석구석의 풍성한 얘기들을 전해 왔다. 응모자는 아래 주소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 청호빌딩 201호(우: 150-043)

월간 건축인 POAR

'간향건축문학상' 담당자 앞

- 문의: 02-637-3890, 637-2842

건축신간안내

여자로 태어났으면 건축을 꿈꾸자
아파트야, 아파트야!

◇ 여자로 태어났으면 건축을 꿈꾸자

여성들의 건축분야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건축가와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 흥미진진한 토크쇼를 펼쳐 화제가 됐었는데 이 토크쇼 내용이 편집된 책으로 출간됐다. 이 책에는 남성들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는 건축분야에 뛰어들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여성건축가들의 진솔한 건축 삶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인터넷잡지 '아코포럼'이 99년 건축문화의 해 지정을 자축하며 주최했던 사이버 토크쇼의 전문이 실려 있으며 여성건축가들이 토크쇼의 형식을 빌어 열린 마음으로 여성과 건축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게스트로 강미선(이화여대 교수), 김복수(여성건축가협회 회장), 오경은(피아 건축 대표), 윤재옥(호서대 건축과 교수) 씨 등 여성건축가협회의 18인 여성건축가들이 출연해 남녀 네티즌 31인과 격의 없는 토론을 펼친다.

(주)서울포럼(02-514-9838) 펴냄 / 272쪽 / 신국판 / 8천원

◇ 아파트야, 아파트야!

이 책 역시 앞서 소개된 '여자로 태어났으면'과 마찬가지로 토크쇼 형식을 빌려 사이버

공간에서 주택전문가와 네티즌들 사이에 오간 아파트에 관한 토론내용들을 편집해 출간한 것이다. 책에 소개된 토크



쇼에는 주택관련 연구전문기관인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의 연구원 27인이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출연자인 건축학부 이규성 교수가 '아파트 이야기' 시리즈를 펼쳐 게스트와 네티즌들의 생동감있는 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작가는 집 주변에 나무와 꽃을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에서부터 주택정책에 관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와 공동주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주)서울포럼(02-514-9838) 펴냄 / 272쪽 / 신국판 / 8천원

게시판 bulletin board

사원모집

건축설계 경력자

당사는 건축설계·감리 전문회사로 금번 사옥신축 및 이전을 가해 아래와 같이 경력 사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서: 건축설계직 경력자 0명
 - 건축학과 졸업자
 - 실시설계 또는 계획 경력 3~5년
 - 기숙교인 환영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FAX 및 우편 접수 가)
 - 2차: 면접(1차 서류실사후 개별통보)
 - 제출서류
 - 1차: 이력서, 자기소개서
 - 2차: 포트폴리오
 - 서류마감: 1999년 1월 30일
 - 제출처: 본사 총무부 (Tel: 422-5846, Fax: 422-5847)
- 다원건축사사무소

고품질 노출콘크리트로의 새로운 도전

국내에서는故 김종업씨가 "서강대 학보판(1958)"에 노출콘크리트를 처음 도입한 이래 노출콘크리트는 건축가들의 중요한 표현수단의 하나로써 꾸준히 사용돼 왔다. 그러나 기존 노출콘크리트 건물은 투박한 노출면과 거친 디테일, 내구성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자나 건축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노출콘크리트의 보급을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에서 유지보수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요소기술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최근 두산건설(주)에서는 기존 노출콘크리트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표현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해 콘크리트 자체로서 보다 세련된 마감이 될 수 있도록 대리석 질감(Marbling Effect)을 지닌 노출콘크리트(이하 광택노출콘크리트라 함)를 개발해 한국전지통신연구소(대전 소재)에 적용한 사례가 있어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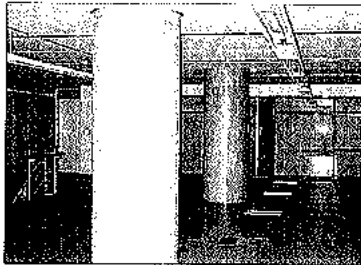
두산건설이 개발한 광택노출콘크리트 공법에 대해 소개한다. <필자주>

1. 기존 노출콘크리트의 문제점

기존 노출콘크리트의 문제점은 계획 및 설계시 패널·콘·줄눈의 분할 계획 수립의 미흡, 콘크리트 배합시 내구성에 대한 고려 미흡, 거푸집공사의 정밀성 저하로 인한 표면품질 불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중요한 원인 하나로 정밀시공을 위한 충분한 공기와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양질의 노출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건축주, 건축사 및 시공사가 협력하여 노출콘크리트의 품질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노출콘크리트 공사비 및 공기를 책정하도록 해야 한다.

- 광택 노출콘크리트 공법



광택노출콘크리트 기동

또한 노출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기에 대한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여, 작업자들이 정밀한 노출콘크리트 시공을 할 수 여건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광택노출콘크리트의 개발

노출콘크리트에 요구되는 성능은 첫째, 기능적 측면에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미적 측면에서 외관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는 내구성 확보 및 대리석 질감의 광택이 발현되는 노출콘크리트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거푸집패널과 콘크리트와의 경계면에 생성되는 피막에 광택을 전사시킬 수 있는 광택발현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실험실 실험 및 모형실험을 통하여 광택노출콘크리트를 구현할 수 있는 콘크리트 배합 및

거푸집 제작방법을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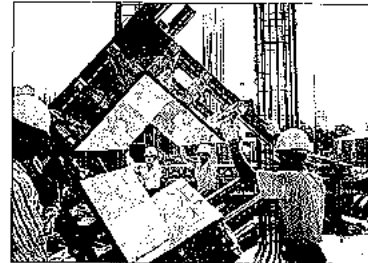
■ 광택발현을 위한 최적 콘크리트배합
충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슬럼프값 $18 \pm 2\text{cm}$, 공기량 $5 \pm 1\%$ 로 하며, 표면조각의 치밀화를 도모하여 광택발현 및 내구성 증진 효과 발휘하기 위하여 결합재량을 $380 \sim 600\text{kg/m}^3$ 로 하고,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10 \sim 50\%$ 대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광택 전사(轉寫)를 위한 거푸집 시스템
폴리에틸렌수지, 폴리프로필렌수지, 폴리에스터수지, 멜라민수지 등의 광택이 있는 필름 또는 멜라민판과 같은 Form facing material을 거푸집 패널에 부착하고 적정 양생조건을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현장적용

개발된 기술을 한국전자동신연구소(대전 소재)에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배합은 당사가 개발한 최적 광택노출콘크리트 배합을 적용하였고, 거푸집은 대형 System form에 Form facing material을 부착하여 사용하였으며, 콘크리트 다짐은 재료분리 방지 및 표면기포발생 저감 효과가 좋은 고주파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기동 거푸집 조립

광택노출콘크리트 공법과 각종 마감재(화강석, 대리석, 인조석 등)의 총공사비용을 비교한 결과, 광택노출콘크리트는 각종 마감재에 비해 약 14~61%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전망

광택노출콘크리트는 각종 마감재와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공법이며 고속전철역사, 연구소, 관공서, 극장, 박물관, 주택 등 적용영역이 넓어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더욱이 광택노출콘크리트는 자체적으로 세련된 마감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기둥, 벽체 등의 부분적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건물 내외부의 다양한 표정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사용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국내에 노출콘크리트를 보급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택노출콘크리트는 일반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기술을 높였고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최근 각종 부실공사로 인한 콘크리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웅 / 두산건설(주) 기술연구소)

문의: 두산건설(주) 기술연구소
(02-510-3114, 4114)



일반노출콘크리트



광택노출콘크리트

광택노출콘크리트와 일반노출콘크리트의 표면상태 비교(SEM, 3000배)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구로청소년 수련관

은평청소년수련원

가야촌 개발사업

유성울림폭종합스포츠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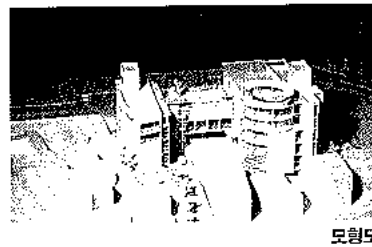
오산시청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지역을 대표할 문화센터(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3개소) 건립을 위해 실시한 현상설계경기의 심사결과가 지난 98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그리고 12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됐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의 당선작에는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안, 우수작에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안, 가작에는 (주)건축사사무소 시방(유방근)안이 선정됐으며, 구로청소년수련관의 당선작에는 (주)시몽건축사사무소(변희림)안, 우수작에는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안, 가작에는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한규봉)안이 선정됐다. 또한 은평청소년수련원의 당선작에는 (주)건축사사무소 단목(노태학, 김성우)+박성준안, 우수작에는 (주)건축사사무소 시방(유방근)안, 가작에는 건축사사무소 케이피씨(김지호)안이 선정됐다.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및 청소년수련관

Dongdaemoon Multipurpose Culture and Welfare Center

▶ 당선작 /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899.00㎡
도로현황	4m도로에 접함
건축면적	1,309.84㎡
연면적	노인종합복지관 - 2,368.51㎡, 청소년수련관 - 4,941.07㎡
건폐율	45.18%
용적률	171.1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층수	지하2층, 지상5층
최고높이	22.1m
외부마감	알루미늄 패널, 목재루버, 컬러복층유리
설비개요	흡수식 냉방기 및 가스보일러 설치, Zone별 공기기설치 및 F.C.U방식, 13인승 승강기 2대 설치(장애인 전용)
주차개요	37대
조경개요	473㎡

배치계획

노인과 청소년의 세대간 화합의 장을 여는 지역(區)의 문화 중심지로서 계획

1. 부지 중심에 중앙광장을 배치함으로써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

- 도시적 측면: 대지 북측 아파트 단지(新)와 남측 기존 주택지(舊)간의 배타

적 관계를 상호 연결하여 지역 화합의 마당으로 활용하는 상징적 마당 설정

- 건축적 측면: 중심광장을 중심으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분리 배치함으로써 각 시설의 독립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新, 舊 세대간 화합의 장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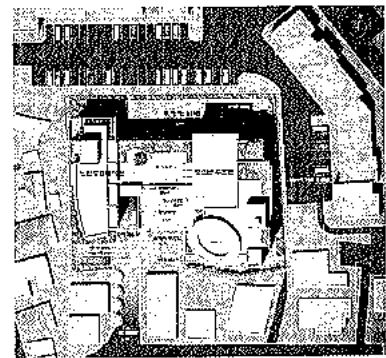
- 기능적 측면: 협소한 대지로 인한 옥외 공간 부족을 중앙에 대공간의 광장을 배치함으로써 다목적의 활동으로 쓸 수 있게 배려(각종 집회, 행사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2. 부지 북측에 독립적 외부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차량 및 보행 동선의 완벽한 분리를 통한 합리적 동선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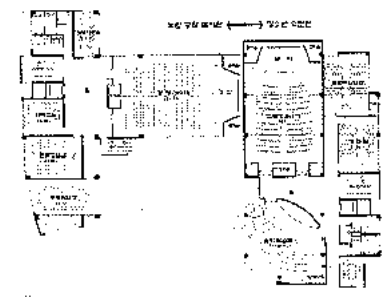
3.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로서의 상징적 이미지 구축

- 21C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 외관 디자인
- 진입부에 곡면형 매스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압박감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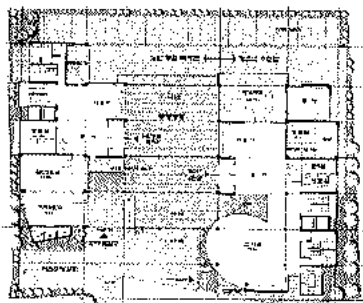
4. 중앙 광장, 옥상정원, 옥상 야외무대로 연결되는 수직적 휴게공간 확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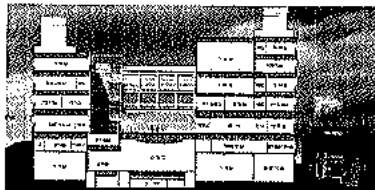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입단면도

▶ 우수작 / (주)화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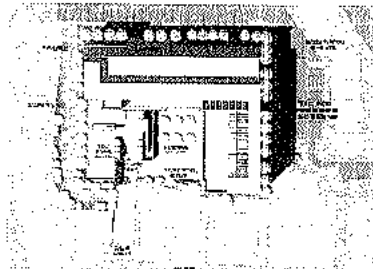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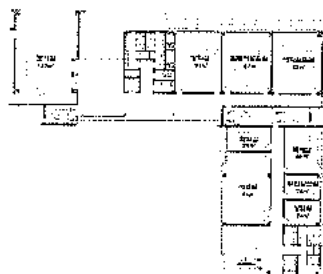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899.0㎡
도로현황	남측 6m도로
건축면적	1,237.3㎡
연면적	7,476.3㎡
건폐율	42.7%
용적률	168.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2층, 지상4층
최고높이	18.9m
외부마감	알루미늄패널, THK24 복층 유리
설비개요	기계설비: 열원, 공조, 위생, 소화, 자동제어설비

전기설비: 전력(수변전, 예비 전력 등), 통신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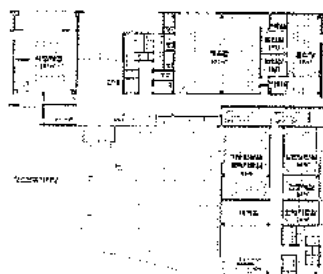
주차개요 34대
조경개요 552.6㎡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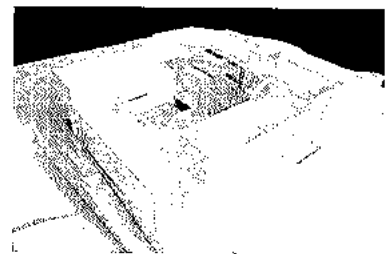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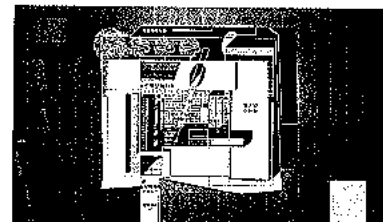
▶ 가작 / (주)건축사사무소 시방
(유방근)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2,899.00㎡
도로현황	남측면 5m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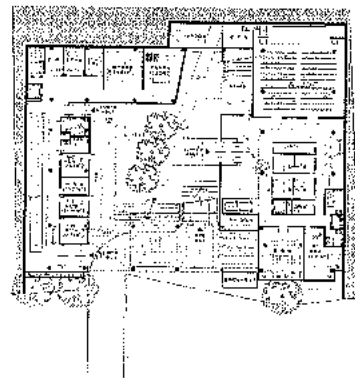


모형도

건축면적	1,644.66㎡
연면적	7,321.17㎡
건폐율	56.73%
용적률	252.5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2층, 지상4층
최고높이	17.65m
외부마감	알루미늄패널, THK18 복층 유리, 갈바나이즈드판
설비개요	기계설비: 열원설비, 조명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 제어 설비 전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정보통신설비, 방재설비, 소화설비, 무인경비설비
주차개요	33대
조경개요	51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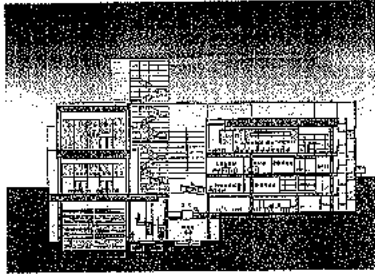
배치도



1층 평면도



정면도



횡단면도

구로청소년수련관

Kuro Youth Training Center

▶ 당선작 / (주)시동건축사사무소
(변희협)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구로2동 704-1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공항고도지구
주요용도	청소년수련관
대지면적	지적상면적 - 1,762㎡ 계획대지면적 - 1,563㎡
건축면적	930㎡
조경면적	280㎡
연면적	5,065㎡
건폐율	59.5%
용적률	174%

규모 지하2층, 지상4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부미감 노출콘크리트, 입출 알루미늄
페널, 24mm복층유리
설계담당 김태균, 차홍철, 김숙향, 장병
권, 이정우, 이남권

청소년(New Generation) - 무분별한 산업화의 종말에 서서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어떻게 정의하고 기성의 그것과는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 예측 가능 할 것인가?"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가올 세대(Generation to Come)를 바라보며 이러한 질문에 반향되는 고민의 흔적들을 모아 조심스럽게 내려 놓는다.

그곳에는 청소년의 행위를 제한하고 어떠한 물리적 요인도 청소년의 상상력을 왜곡시키는 작위적 형태도 없기를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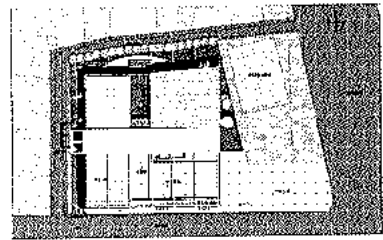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청소년의 창의적 행위를 제한하는 물리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전체공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형태적으로 인위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청소년의 순수한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프로그램의 복합성과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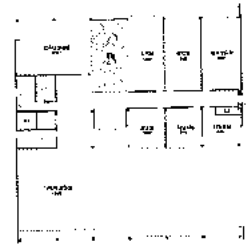
체육관·수영장·소극장·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각기 다른 크기와 기능을 통합하는 시스템의 핵으로써 매개공간(마당)을 중심으로 동선과 공간을 연결, 구성하고 세부적으로 중정·선륜을 두어 각 실의 분위기를 활성화한다.

도시와 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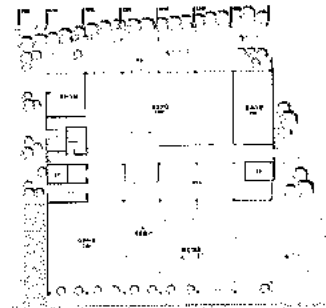
도시의 공간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부지의 고저차를 활용해 내·외부공간의 흐름을 연결 혹은 여과하는 마당은 내부활동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도시공간의 흐름은 단절하지 않고 건물내부로 연속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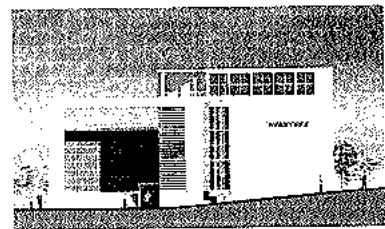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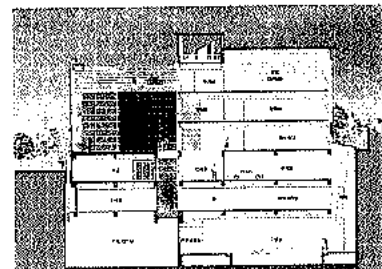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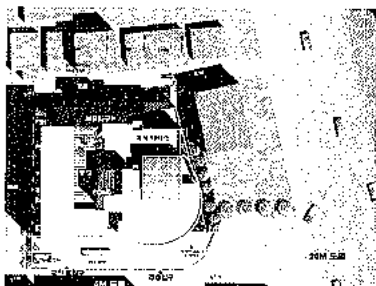
종단면도

▶ 우수작/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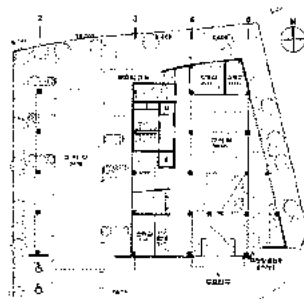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공항 고도지구
대지면적	지적공부상면적 - 1,762㎡ 조정후 면적 - 1,590㎡
건축면적	924.90㎡
도로현황	20m, 6m도로 연결
연면적	4,968.45㎡
건폐율	58.17%
용적률	206.4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일부 철골조
층수	지하2층, 지상6층
최고높이	24.5m
외부마감	알루미늄패널, 목재루버, 컬러 복층유리
설비개요	흡수식 냉동기 및 가스보일러 설치, Zone별 공기조절기 설치 및 F.C.U. 방식, 15인승 승강기 1대설치(장애인 전용)
주차개요	28대
조경개요	27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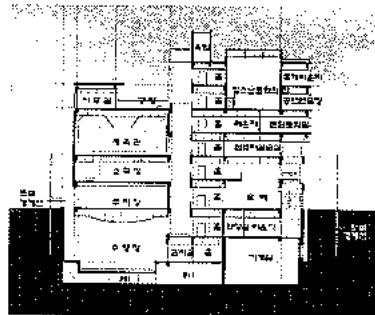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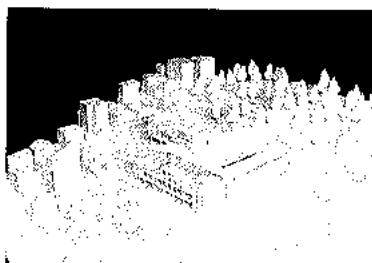


횡단면도

은평청소년수련원

Eunpyeong Youth Training Center

▶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단독
(노태혁, 김성우) + 박성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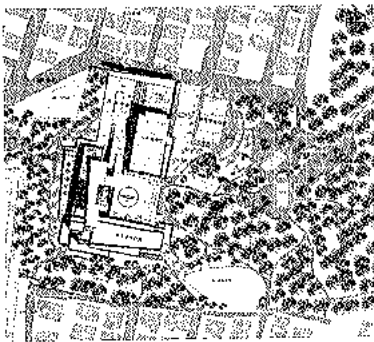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산 6-4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 구, 공원시설
대지면적	13,500㎡
도로현황	8m도로
건축면적	1,975.15㎡
연면적	4,9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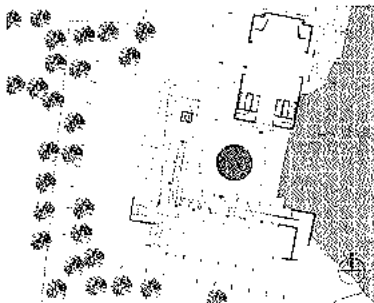
건폐율	14.63%(법정 20%)
용적률	23.81%(법정 4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컬러볼록, 외단열시스템, THK18복층유리
설비개요	F.C.U+환기설비, 일부 공조 설비
주차개요	대형버스 1대 포함 31대(장 에인용 2대)
조경개요	7,060.3㎡
옥외시설	야외접합장, 실외체육시설, 자 연체접합, 수련의 숲

설계개념

- Site에서의 첫 느낌: Site를 처음 접했을 때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수목 가득한 경사지, 게다가 서향의 대지, Level 차이는 있지만 전면의 시립정신병원, 이곳에 과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까? 지형적으로는 암자나 정자가 어울리는 대지, Site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강한 도시의 Context.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어려운 땅이었다. 잠시 주저앉아 주변을 살펴보다 자연상태의 이곳 백련근린공원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척이나 다정스러운 곳임을 알게 되었고 점차 이 Site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도시형 청소년수련원의 기능: 도심에서 떨어져 위치한 수련원이 특정목적물 가진 단체 위주의 수영장이나 교육 및 행사장임에 비해 도심속의 청소년수련원은 단체 보다는 지역 청소년 위주의 지역문화회관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백련근린공원 내의 청소년수련원은 비록 주체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념의 설정: 우리의 전통적인 산사가 그러하듯 자연과 지형에 순응하면서도 도시의 Context에 조화되고, 기존 공원의 일부로 외부공간과 유기적인 미치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처럼 친근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지역 청소년 및 인근 주민들이 배려된 규모는 작지만 대학에서의 학생회관처럼 만남이 있고 휴식이 있는 생명력있는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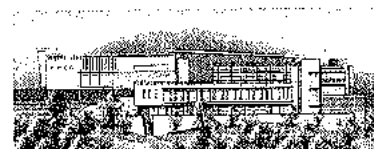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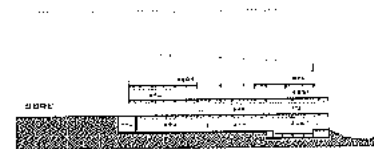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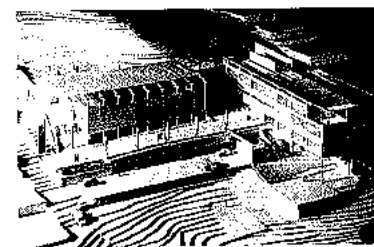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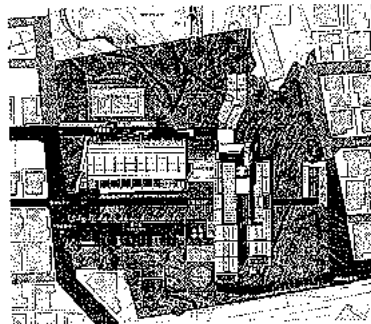
단면도

▶ 우수작/ 건축사사무소 시방 (유방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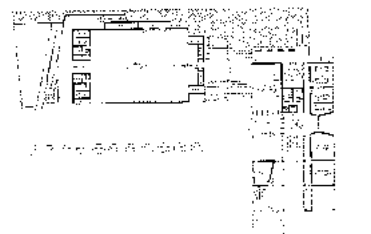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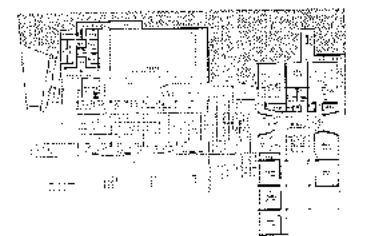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계획시설	공원
건물용도	청소년수련시설, 옥외활동시설
대지면적	13,500.00㎡
건축면적	2,228.34㎡
연면적	4,973.27㎡
도로현황	북측 8m도로
건폐율	16.51%
용적률	36.8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미감	알루미늄복합패널, THK18 복층유리
설비개요	기계설비 - 열원설비, 환기설 비, 소화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통신설 비, 소화설비, 무인경비설비
주차개요	33대
조경면적	4,20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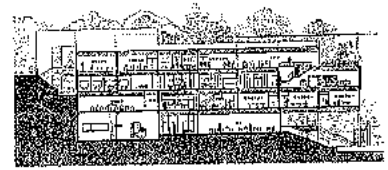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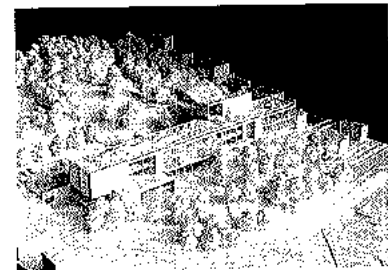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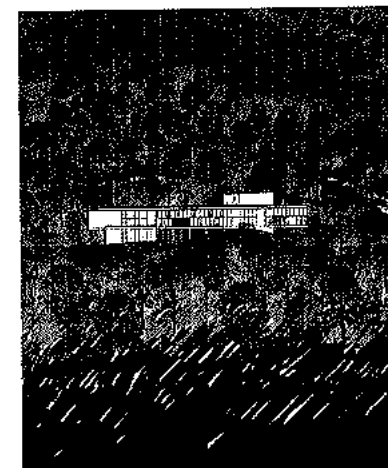


종단면도

▶ 가작/ 건축사사무소 케이피씨 (김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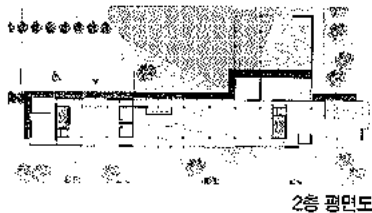


모형도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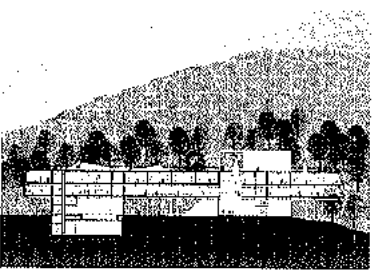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계획시설	공원
대지면적	13,500㎡
도로현황	북측 9m도로, 남측 6m도로
건축면적	2,081.63㎡
연면적	5,021.28㎡
건폐율	15.42%
용적률	34.19%
구조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14.6m
외부미감	화강석, THK24 복층유리, 목 재루바
설비개요	FCU+AHU
주차개요	옥외 - 32(장애인 주차2대포 함)대, 대형버스 2대



2층 평면도



좌측면도



종단면도

가야촌 개발사업

Kayachon Development Project

합천군이 지역의 역사성을 되살리기 위해 실시한 가야촌 개발사업 현상설계경기의 심사결과가 지난 98년 11월 20일 발표됐다. 총 세 작품이 응모한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주)건원국제건축(한현호, 지승선)+한성개발공시안이 당선작에 선정됐으며 우수작은 (주)가원건축사사무소(임부춘)안, 가작은 (주)옛터건축사사무소(이원길)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주)건원국제건축(한현호, 지승선)+한성개발공사



모형도

대지위치	경남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옥전교분교 일원
대지면적	전체부지 - 130,000㎡ 시설부지 - 25,785㎡ 문화재보호구역 - 104,216㎡
건축면적	1,371.11㎡
연면적	2,066.61㎡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화강석 바너구이, 무도장내후성강판 전벽돌, THK18mm 복층유리
설계담당	허정행, 김기호, 조진희, 정재희, 이정석

가야 문화의 상징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간과 자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 교육, 체험의 장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설계의 주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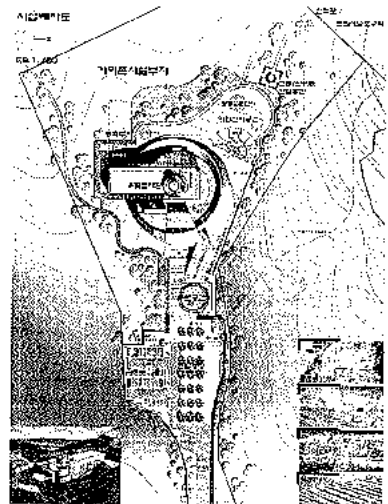
대지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대지 해석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고분을 전체 조형 개념에 있어 지배적인 모티브로 설정하고, 축·지형에 대한 해석에 시간성을 부여하여 배치에 있어 순차적인 공간전개방식을 택하였다.

유물전시관은 사간의 흐름과 장소의 영역성을 상징하는 원형의 지형을 중심으로 두개의 매스가 엮여있는 개념을 정하고 가야 유물의 상징적 모티브를 추출하여 중심에 해당하는 곡면 매스로 전이시켰으며, 전통건축의 공간기법인 "켜"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야문화를 상징하는 재료 - 철, 유리, 그리고 돌의 물성 그 자체와 조화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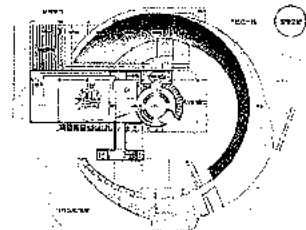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크게 유물전시부와 수장·연구부문으로 나누어 두 개의 매스에 수용하고 그 사이에 옥외휴게공간을 구성하여 관람동선과 서비스동선을 적절히

분리하였으며, 옥내전시와 야외전시장, 옥전교분교로 다양한 전시구성을 꾀하였다. 내부 전시동선은 중앙홀 원형 경사로를 따라 모형고분전시를 감상하면서 2층(제1전시실)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되며 야외전시공간의 시지각적 연속성을 부여한 경사로를 통해 1층(제2전시실)으로 이어져 야외전시장관람으로 연결되도록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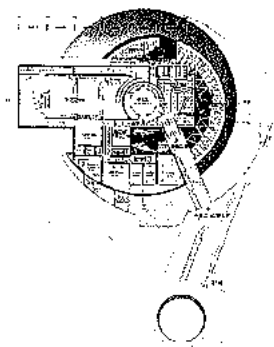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가야왕국의 존재를 되살리는 한 원점이 되면서 앞으로의 시간의 축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하였다.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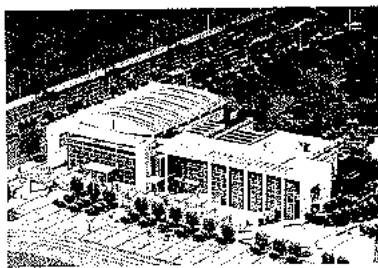
유성올림픽종합스포츠센터

Yuseong Olympic Sports Center

대전시 유성구가 시민을 위한 스포츠센터의 공간마련을 위해 실시한 유성올림픽스포츠센터 현상설계경쟁에서 (주)건축사사무소 길·정주건축(이길주, 서정기)+우반건축(박영준)안이 당선작에 선정됐다. 총 14개 작품이 응모한 이번 현상설계의 우수작에는 (주)백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명진, 정동근)안이, 가작에는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안이 각각 선정됐다.

▶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길·정주건축(이길주, 서정기)+우반건축(박영준)



조감도

대지위치	대전시 유성구 동명동 4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체육공원
대지면적	41,000m
건축면적	3,324.53m
연면적	8,498.49m
건폐율	8.1%
용적률	10.8%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60대(장애인주차 2대 포함)
외부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물갈기 + AL복합패널 + 북층유리
계획담당	구본관, 박종하, 정필훈, 이용호
설계담당	남태욱, 김중화, 박현희, 장우철, 이원석

배치계획

- 대지분석에 따른 시각적요소와 자연환경, 동선체계, 조망성, 매개공간의 확보, 유동성 등의 기본요소에 순응하여 배치
- 외부 운동시설 기능과 본건물의 영역성 확보 및 상호 관계성 고려
- 건물주변에 자연녹음(조경)을 조성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조경된 주변으로 자연적인 산책로 마련
- 한발대로의 후보행자 출입부분에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평면계획

- 지하1층(중층)을 두어 수영장 및 스쿼시, 라켓볼에 필요한 부대공간과 기타 체력단련실, 스넥코너 등을 마련함
- 외부에서 유입되는 동선의 내부공간(지하층)으로의 유입을 위해 공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지하1층(중층)을 통해 지하수영장까지 연계시킨다.
- 체육시설(수영장, 체육관)과 건강스포츠교실(스포츠센터, 건강교육실 등)의 동선을 분리하여 공간이용의 극대화를 꾀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교실이나 스포츠교실을 통해 홍보효과 및 주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꾀할 수 있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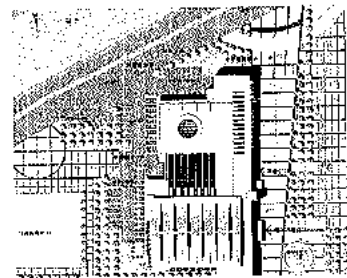
- 주변환경, 부지의 특성 및 체육시설의 특성을 가지는 건물의 내·외부공간구성을 고려한 내부공간의 외부적표출을 Void와 Solid를 통해 디자인으로 표출함
- 거대한 Mass의 중압감을 없애기 위한 외부입면의 유리마감으로 Mass의 명

쾌함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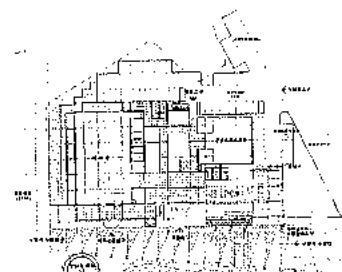
- 도로에서 볼 때 체육시설의 인지성 및 전정면성을 고려한 입면 파사드 결정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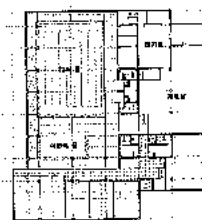
- 수영장과 체육관, 다목적실, 스쿼시, 라켓볼 등 용도별 사용에 따라 층고 및 천정고가 각 기능의 요구에 맞추어 공간규모를 산정한다.
- 에너지 관리적 측면에서 채광과 일조의 적절한 이용으로 열에너지의 손실을 적게하고 시간대별 사용빈도에 따른 조닝 계획으로 경제성을 살린다.
- 수영장의 층고를 감안하여 지하1층에 중층을 두어 내부공간의 효율화를 이룬다.
- 단면의 구조적인 경제성을 해결하기 위해 장스팬의 공간을 수직적으로 일체화함으로써(수영장+체육관) 구조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거둔다.



배치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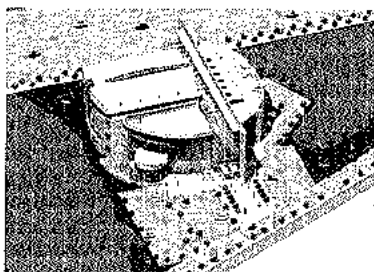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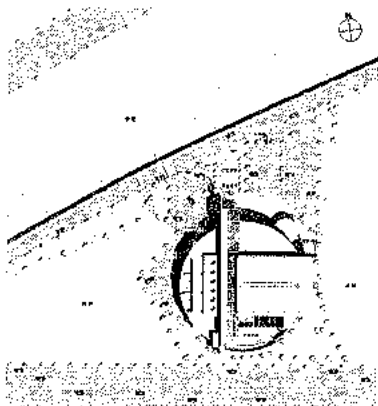
종단면도

▶ 우수작 / (주)백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명진, 정동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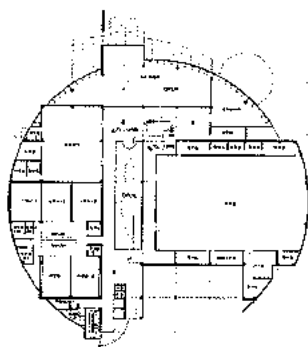
조감도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
대지면적	41,000㎡
건축면적	2,852.02㎡
연면적	9,073.25㎡
건폐율	6.96%
용적률	14.79%
조경면적	6,150㎡이상
도로현황	북측 전면 10m도로, 남측 한발대로50m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파이프 트러스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최고높이	27.95m
외부마감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동판, S.P.G.
기계설비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 - 정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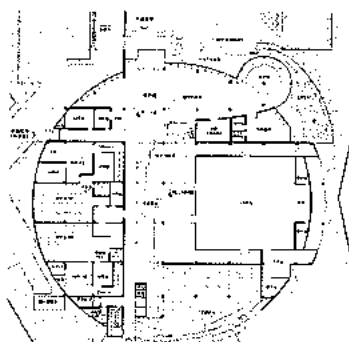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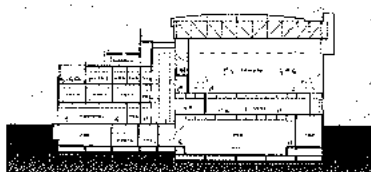
전기설비 량방식, 전기외방식(수영장)
주차개요 정식 수전설비방식
79대(장애인주차, 3대 포함)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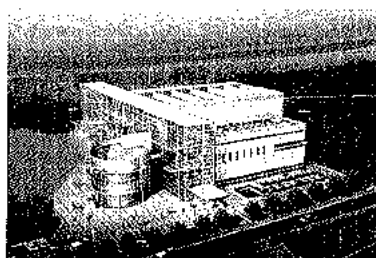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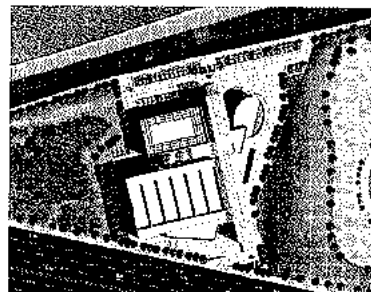
▶ 가작 /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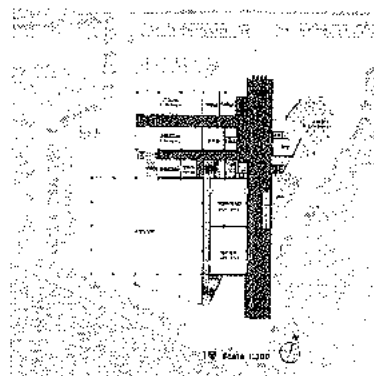
조감도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체육공원
대지면적	41,000㎡
건축면적	3,020㎡
연면적	8,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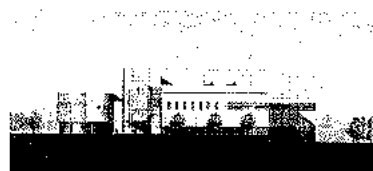
건폐율 7.37%
용적률 13.84%
용도 운동시설(스포츠센터)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설계 조남승, 노명수, 박경운, 임연정, 이영주, 정진환, 신수진
프리젠테이션 이행숙, 김희호, 임성재, 정재희, 변미경, 이은희



배치도



1층 평면도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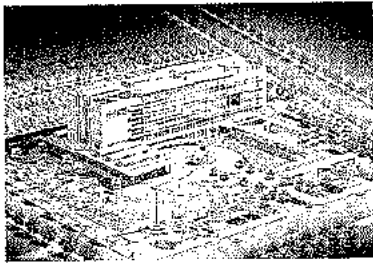


종단면도

오산시청사

Osan City Hall

오산시는 대민 봉사의 공간이 될 오산 시청사의 현상설계경기를 턴키로 실시, 총 9개 응모작 가운데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최두호)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지난 98년 11월 18일에 발표했다.



조감도



투시도

▶ 당선작 /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최두호)

대지위치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921-5 (운암택지개발지구내 고층의 청사부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의 청사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39,670㎡
건축면적	4,019.77㎡
연면적	19,155.09㎡
건폐율	10.13%
용적률	30.51%
주차계획	450대(지상300대, 지하150대), 장애자4대 포함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철

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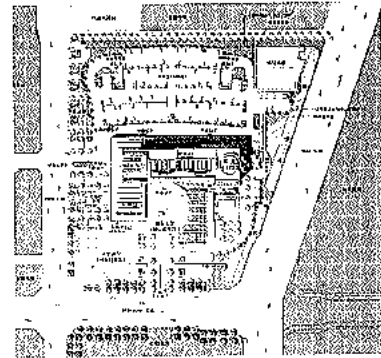
외장재료 THK20화강석, THK24 컬러
복층유리, THK3 알루미늄쉬트

이 계획대지는 경부선 철도,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요충지인 오산시 운암택지지구 내 평탄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Land Mark로써 대민 봉사의 질 향상과 시민편의 및 정보제공 활용의 장인 21C를 지향하는 시청사를 세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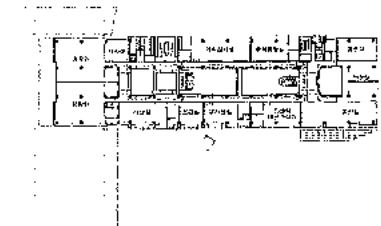
배치계획개념으로는 기존 환경질서와 조화, 기존 도시구조와의 대응, 공원같은 시정+수변공원녹지와의 연계, 교통계획개념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행진입 수용, 시설간 보행동선의 유기적 연계, 진입구의 분산 배치, 내부 Loop의 설치 등을 들 수 있고 주요외부공간 계획개념으로는 전면 상징광장, 민원광장, 선릉+휴게마당, 가로공원, 체육시설+녹지 등을 들 수 있다. 조형체계에서 저층부는 시청의 개방성을 고층부는 시청이 가지는 중립성을 주었으며 상이한 Mass의 조합과 분절, 그리고 파냄에 의해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하는 상이한 기능공간을 운집배열하였다.

평면계획에서는 개방적인 공간 분위기, 실·기능간의 유기적인 연계, 행태를 고려한 휴게·여가공간의 적절한 배치,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역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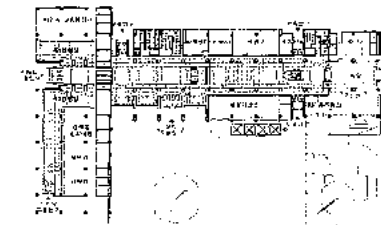
입면계획에서는 Mass의 병치·분절·첨가 등으로 각 시설의 정체성을 수평선의 강조로 보다 민주적이고 친근한 청사의 이미지를, 그리고 수직요소의 첨가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Gate의 이미지를 담은 좌측면은 Terminal Vista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거대한 Mass의 덩어리인 우측면은 광대한 스케일을 담고 있다. 단면계획에서는 아트리움을 중심으로 공간의 Zoning을 명쾌하게 처리하였으며, 동선의 분리 및 자연친화적인공간을 연출하였고 각 실은 향후의 발전적인 공간에 대응하기 위한 가변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테라스와 Top Light는 외부를 향한 열린 내부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외관도

domus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建築文化

a+u

新建築

domus

1998년 10월호

쿠알라룸푸르와 홍콩의 건축이 특징으로 다루어졌다. High-Rise, High-Tech, High-Density라는 요구 아래, 각 도시

의 건축적 상황을 먼거리에서 조망해본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각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국제 공항과 도시 컨텍스트에 충실하며 경제논리가 잘 반영되어 디자인된 초고층 빌딩과 고층 아파트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공원 설계경기에 참가한 작품들과 아이젠만의 당선안을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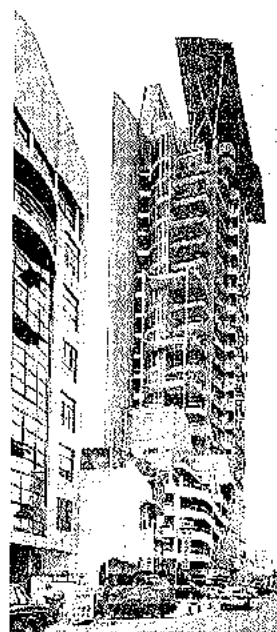
■ 쿠알라룸푸르와 홍콩의 건축

역사적으로 후퇴되어 있던 신진 국가의 도시들은 그 도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드러낼 필요를 가지며 그것은 초고층 오피스 타워 등의 건설로 나타나게 된다. 쿠알라룸푸르는 이러한 최상급의 프로젝트들로 가득찬 도시이다. 홍콩은 다양하고 대비되는 문화들이 고밀도로 집약되어 있는 도시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이 건축에 반영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홍콩의 건축가들은 3차원적인 공공도시공간의 창조를 모색하고 있다.

▶ Yeang의 말레이시아 페낭 Umno Tower는 쾌적한 내부공간의 자연적 환기를 위해 바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고층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1시간 당 한번씩 Air Change를 해 주어야 하는데 자연적 환기를 위하여 Wind-Wing Wall을 두어 그 사이로 공기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고안하였다.



지역의 풍량 데이터에 의거하여 Wind-Wing Wall과 바닥판안의 Air Lock 등의 장치가 설치되었다.



Yeang의 말레이시아 페낭 Umno Tower

▶ Anthony Ng의 홍콩 공동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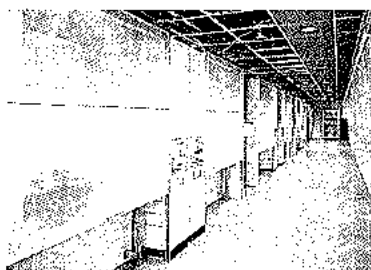
단지의 포디움 레벨과 그라운드 레벨에 병원, 탁아소, 유치원, 상점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수용하며 조경디자인된 보행로는 주거의 현관 로비와 다른 결절점들을 연결할 뿐 아니라 사회적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다.

고층화되고 밀집된 배치는 수직적 타운을 형성하며 이 타운의 다양한 레벨에 오픈 스페이스가 위치하게 된다.

▶ EDGE의 홍콩 광고회사

7.5m폭에 22m길이의 좁은 크기의 방에 17명의 직원을 수용하기 위해 내부 공간이 각 구성원의 직위 등에 의해 위치를 주어 조직되었다.

각 직원은 독립된 방의 기능을 하는 캐비닛형태의 책상을 가지며 여행시에는 문을 닫아두고 작업시에는 문을 열어



EDGE의 홍콩 광고회사

올려 복도를 하나의 실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Boris Podrecca의 비엔나 Korotan 호텔은 학생과 여행자들을 위한 저렴한 숙박시설이다.

▶Lim Teng Ngiam의 쿠알라룸푸르 Factory and Office Block ▶키소쿠로 카와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Architron의 말레이시아 주택 ▶Henry Teh의 쿠알라룸푸르 주택 ▶Norman Foster의 홍콩 국제공항 ▶Rocco Yim의 홍콩 고속 빌딩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 공원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 공원 설계 공모에서 사이트의 위치를 수정한다는 조건으로 아이젠만의 안이 선정되었다.

리차드 세라와의 공동작품으로 높이와 각도가 약간씩 다른 400개의 콘크리트 직육면체 기둥을 세워 미로를 형성하는 안인데, 방문자들은 기둥에서 나오는 각각의 소리를 듣게 되며 그것은 홀로코스트의 수집된 기억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밖에도, Zvi Hecker, Dani Karavan, Jochen Gerz, Daniel Ribeskind, Rudolf Herze, Gesine Weinmiller, Hans Hollein의 안이 소개되었다.

■기타

▶유대교회당이 있던 자리에 이를 기념하는 Zvi Hecker의 Lindenstrasse Memorial ▶정치적인 조각과 설치작업을 하는 Dani Karavan의 작품 등을 다루고 있으며 ▶호주 멜버른에 있는 Robin Boyd의 건물을 지도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부록으로 ▶지어진 건물과 함께 소개한 건물 내외장재 카달로그를 실고 있다.

Architecture

1998년 11월호

이번호는 베를린 시의 과도한 도시설계상의 규제에 대한 비판의 글을 실고 있으며, 20세기의 건축을 개관해 볼 수 있는 전시소식이 다루어졌다. 건축 이론을 실제건물에 투영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다니엘 리베스킨드의 작품중 최근 개관한 독일 Felix Nussbaum Museum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회 리뷰

"At the End of the Century"라는 제목으로, 금세기의 건축적 성과를 개관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동경을 시작으로 멕시코시티, 헬른, 상파울로, LA에서 순회전을 가지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천년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맞는다.

이 전시의 디렉터인 LA 현대미술관의 Richard Koshalek은 찬디가르의 모델에서부터 다니엘 번함의 시카고 계획도에 이르기까지 1200개의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주세페 데라니의 지어지지 않은 작품 Danteum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도 선보였다.

Koshalek은 단일한 관점의 반영을 피하기 위해서 21개의 토픽에 맞춰 전시를 구성하였다. 다소 느슨한 시간적 순서에 의한 구성이 범문화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관람자는 연대순이나 지역적 다양성, 그리고 가구에서 도시에 이르는 스케일상의 범주들을 구별해내야 했다. 수집된 전시물들이 매우 방대해서 컨텍스트를 제시하기보다는 시각적 이미지들을 첨부하였으며 건물의 대표적 층의 플랜이나, 사진, 카사틀랑카와 같은 영화 장면 67개 등이 전시를 구성하였다.

■베를린 도시설계상의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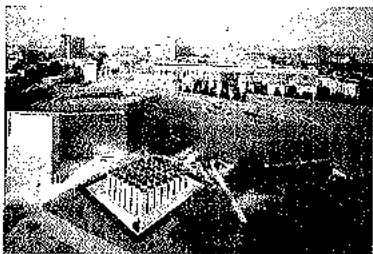
새로운 전통적 디자인의 규약이 베를린의 상업지구를 재결합하기 위해 기용된 스타건축가들을 제약하고 있다. 과도하게 제약된 디자인환경에서는 건축가들의 상상력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기존 건물, 블록을 참고하여 새로운 것을 부가하여 나가는 것을 도시만들기의 유럽식 접근이란 사고속에서 건물의 높이 후퇴정도, 석재와 유리 사용 비율의 정도 등이 이미 확정되어졌다. 이러한 규약에 대처하여 한스 쿨호프, 마티어스 웅거스 등이 'Berlin Mafia'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건축적 표현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Potsdamer지역은 건축적 다양함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매우 엄격하게 제약되어 있으며 이러한 도시적, 건축적 실험에 대한 민감증은 도시경관의 둔한 동일함을 만들어내고 있다. 무기력한 도시적 컨테스트에 위트를 주는 알도로시의 켈러플한 건물은 도시의 기억에 근거하여 도시의 분석에 접근한 건물로서 암시적으로 현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Daniel Ribeskind 작품 특집

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지그재그인데, 그것은 종이위의 선으로부터 출발하여 면이 끝없이 접혀서 베를린 City Edge(1987)로 나타나며 과거도시의 의미심장한 자점들을 연결한다. 벨기에 Ghent 현대 미술관에 놓인 붉은 색 설치물인 Line of Fire와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서도 그 모티브가 나타나는데 유대박물관의 플랜에서는 점인 David Star가 내부의 복도를 형성한다. 그의 건물들의 중심에는 동일하게 접근이 불가능한 보이드인 Counter-Atrium이 있으며 그는 이것을 "기억의 홀-Hall of

Remembrance"이라 불렀다. 그것의 형태들이 랜스케이프안에서, 관찰자의 신체에 대하여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는 사실은 그의 작품에서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최근 작품으로 ▶독일 Felix Nussbaum Museum ▶일본 오주의 Outside Line ▶네덜란드 Almere의 사랑과 불의 정원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독일 Felix Nussbaum Museum

■인테리어 디자인

Toshiko Mori Architects는 Issey Miyake Boutique를 뉴욕의 역사적 지구에 있는 150년된 건물에 그와 대비되는 작품으로 마니아처로 창조해 내었다. 어떤 각도에서는 유리면은 반투명한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필름코팅된 유리면은 미세한 블라인드로 작용하여 안에 있는 것을 감춰서 손님을 안으로 유도하며 안에서 밖으로의 시선은 투명하도록 하였다. 오래된 빌딩안에 삽입된 녹색 박스로 디자인되었으며 건물의 구조와는 상관없이 내부 볼륨의 단순성을 강조하였다.

■기타

▶운하변의 창고건물을 개조한 스티븐 홀의 암스테르담 사무소 건물 ▶Kolatan/MacDonald 스튜디오의 코네티컷 "R" House을 소개하였으며, ▶세계적 디자인 회사의 경영자인 Arthur Gensler와의 인터뷰 ▶조명 특집으로 야마구치 무억센터건물의 조명계획과 1998조명 박람회 소식 등을 다루었다. ▶Smart Architecture의 노스이스턴 대학 종교센터의 인테리어 디자인과 ▶James Carpenter가 디자인한 글래스 타워의 기술적 정보 등이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1998년 11월호

11월호에는 최근 완공된 Norman Foster의 홍콩 국제공항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며, 건축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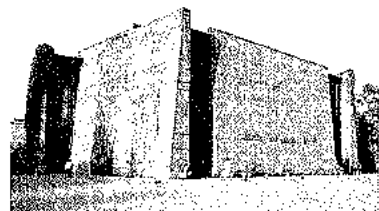
가장 진지하고 무게있는 상인 Aga Khan상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 또한 건물 용도별로 최신 경향을 살펴보는 연속계획에서는 리조트 호텔이 소개되어 있으며, 건축의 조명에 대한 특별 섹션이 마련되어 있다.



■Norman Foster의 홍콩 국제공항 영국과 홍콩 정부의 거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추진된 이 신공항 계획에서 Foster and Partners는 500,000㎡이 넘는 건축면적을 몇 개의 볼륨으로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지붕 아래에 통합시켰다. 36m의 그리드를 바탕으로 조직된 볼트 형태의 지붕을 아래로 자연광이 풍부하게 도입되며, 내부에서는 단일한 공간 체계 내에서 외부로의 개방성을 통해 현위치를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공간의 통일성 속에서 다양한 건축적 체험을 제공하는 이 계획안은 2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설계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도전이었다. 이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도면, 지붕 구조 디테일과 아울러 이 공항을 홍콩의 기타 지역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Anthony Ng Architects의 주상복합 구역인 Tung Chung 뉴타운. ▶Terry Farrell & Partners의 Kowloon역, ▶Arup Associates, Rocco Design Partners의 홍콩역 등의 부대시설이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1998년도 Aga Khan상

이슬람 세계의 건축에 대해 3년마다 시상되는 Aga Khan상은 최신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건축의 깊은 본질을 추구하는 작품들에 수여되는 권위있는 상이다. 과거 양식의 모방에서 나타나는 획일화의 경향과 전통의 단절을 극복하는 삶의 실제 모습에 바탕을 둔 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비단 이슬람 세계 건축계의 목표만은 아닐 것이다. 미국 Harvard와 MIT 대학에서의 이슬람건축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과 병행되는 이 상의 올해 수상작으로는 ▶Per Christian Brynildsen과 Jan Olav Jensen의 인도 Lepers 병원, ▶Charles Correa의 인도 Bhopal 주의회 건물, ▶토목기술자 Himanshu Parikh의 인도 Indore시 슬럼 재개발 계획, ▶Hebron 주거재개발 위원회의 토목국에서 추진한 이스라엘 Hebron 주거재개발 계획, ▶Nayyar Ali Dada의 파키스탄 Lahore Alhamra 예술 행정국 건물, ▶Jimmy C.S. Lim와 말레이시아 Selangor Salinger 주거, ▶OHO Joint Venture, Atelier Frei Otto, Buro Happold, Omran의 공동 작품인 사우디아라비아의 Riyadh Tuwaiq 궁전 등 7작품이 선정되었다.



Nayyar Ali Dada의 파키스탄 Lahore Alhamra 예술 행정국 건물

■리조트호텔 건축

리조트호텔은 호텔로서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 이외에도 휴양지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재료와 구조의 선택이 중요하며, 그 이상적인 예로 칠레의 San Pedro, 포르투갈의 Braga 등 4곳의 예가 소개되어 있다.

■기타

▶건축가들에게 다양한 공간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교외 대주택



포르투갈의 Braga

건설됨, ▶94년 지진으로 부분파괴된 UCLA의 Royce Hall 재건에 대한 프로젝트 임지와 구조 보강 방안, ▶Nebraska State Capitol 건물 복원계획의 기술적 정보, ▶미국에서 활동중인 흑인 여성 건축가의 에세이, ▶오페라 하우스, 레스토랑, 공장 등 용도별에 따른 효과적인 조명 계획의 사례와 최신 조명 시설 등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view

1998년 11월호

이번 호는 건축에 있어서 색채의 사용에 초점을 맞춰 작품들을 소개하였으며 매 3년마다 수여되는 상인 Aga

Khan Awards의 올해 수상작들을 심도있게 다뤘다. 실험적 건축을 시도하고 있는 Shigeru Ban의 벽없는 주택이 소개되었다.

■ 디자인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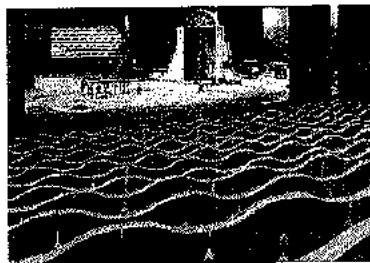
Jean Louis Godivier의 온두라스 섬 휴양 리조트 계획안은 카리비안 원주민

의 전통문양에 의한 대담하고 화려한 색상들을 사용하였으며, 숲속에 점적으로 분포 배치되었다. 높게 솟아있는 지붕은 자연냉방을 도모하며, 넓은 처마는 베란다를 보호하도록 디자인되었으며, 크기와 건물이 접하는 각각의 지형에 따라 네가지 기본 타입을 가지고 있다.

■ 근작소개

▶사이트의 도시적 지리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스웨덴의 강한 외부 색채 사용을 재해석한 라파엘 모네오의 스톡홀름 미술관이 소개되었다. 외부의 색깔은 초기에는 주변건물의 전통적인 스웨덴 황토색과 대비되는 연한 회색으로 정했으나, 노르딕의 기후에는 너무 단조롭다는 이유로 테라코타색으로 대체되었다.

▶Emmanuel Blamont의 프랑스 Valenciennes 극장의 곡선미와 화려한 색상은 Valenciennes지역의 문화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정색의 광석에서 분출하는 붉은 물체를 모티브로 삼았다. 그것은 광산에 기반하는 지역경제에서 새로운 활기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Emmanuel Blamont의 프랑스 Valenciennes 극장

그밖에 ▶Rick Joy Architect의 아리조나 Tuscon 스튜디오 ▶Architecture Studioo의 파리 Sheltered Housing ▶Steven Ehrlich Architects의 산타 모니카 도서관 ▶Peter Markli의 스위스 Erlenbach 주택

▶Burkhalter & Sumi의 오스트리아 Lustenau 유치원 등의 색채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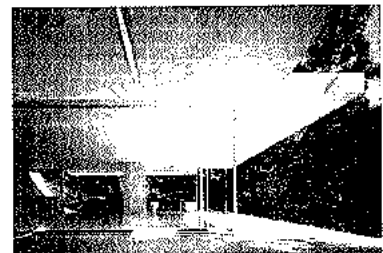
■ 1998 Aga Khan Awards

이 상은 매 3년 마다 수여되며 건축가 뿐

아니라 그 건물의 건축주, 장인들에게까지 상금이 수여되는 상으로 가장 명확한 사회적 관점으로 작품을 선정하며, 이번 심사위원회는 특히 이슬람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일반적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복제가능한 모델을 제시하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인도 Indore 와 팔레스타인 Hebron의 증가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문제로부터 커뮤니티 공간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작품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건축가의 상상력을 동원한 인도 Chopda의 나병환자병원, 그리고 생태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전통건축의 기술을 도입한 말레이시아 Jimmy Lim주택 등에 상이 수여되었다. 그 이외에 Lahore 아트센터,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 보건센터 그리고 찰스코레아의 Bopal 국회의사당 등이 현대적으로 이슬람의 기념물을 창조해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 인테리어 디자인- Shigeru Ban의 벽없는 주택

여러 가지 건축적 실험을 시도해온 것으로 유명한 Shigeru Ban의 벽없는 주택은 그의 유동적인 수평적 공간에 대한 선호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그것은 랜드스케이프에 데크를 살짝 띄우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바닥이 위로 접어들아가면서 경사진 대지에 묻히면서 평지붕을 캔틸레버 지지하는 것에 의해 매우 가는 기둥을 사용할 수 있었다. 슬라이딩 패널은 뒤쪽 벽에 감추어져 있다가 테라스 안쪽의 모서리홈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밖에 Cautilli Morganti의 트레비 박물관의 리노베이션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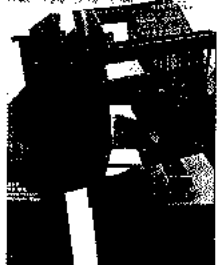


建築文化

1998년 12월호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스즈키 료지의 작품세계를 다루었다. 1944년생의 그는 73년부터 '物質試行' 시리즈를

建築文化 12



선보였다. 이번 특집에서는 그의 물질시행 시리즈의 최신작인 No. 38-40까지의 작품들과 No. 13-33까지의 대표작 4작품, 그리고 85년부터 95년까지의 5개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있다.

■특집

▶스즈키 료지와 '물질' (스즈키 료지와의 대담 중에서)

스즈키 료지가 '물질'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게된 것은 그가 건축을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였다. 그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당시 유행하던 '공간'이라는 말은 건축을 지극히 추상화시키는 것으로 그에게 비쳐졌다. 그는 건축이 왜 추상화되어야만 하는가에 의구심을 품고, 건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물질'을 선택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애드그 앨런 포의 물질정신론은-포는 켈트족의 신화가 갖는 범신론적 태도, 즉 모든 물질에는 각각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또한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또한 당시 '물질'이라는 단어는 휴머니즘의 반대되는 말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은 물질이 인간을 억압하는 기계적 물질, 즉 당시의 물질주의는 경제주의적인 물질주의로 인식되어 그 평판이 좋지 않았었다. 이러한 오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료지는 당시의 이러한 물질에 대한 평판이 그의 반향심을 부추겼다고 말한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관심은 포에 이어 보들레르, 발터 벤야민, 宮川 의 사상에 몰입하게 하였고, 宮川 의 저작, 『애포를以後』는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는 이후 자신의 건축작품들에 '물질시행00'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는 자신의 물질에 대한 관심을 표출할 뿐 아니라 건축과 미술 등의 장르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계획안과 실행안의 구분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적당한 것으로서 선택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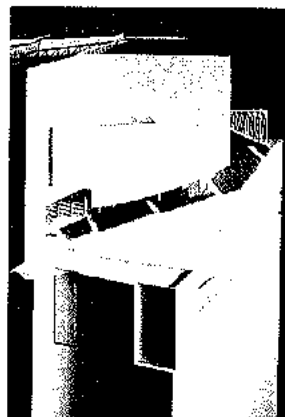


물질시행 38

가장 최근작들로는 熊本현립 아시키타 청소년의 집(물질시행 38), BIBLIOTECA (물질시행 39, 설치작품이다), f's case (물질시행 40)등이 소개 되었으며, 스기나미 주택(물질시행 13), 아자부 Edge(물질시행 20), 혼코마고메 주택(물질시행 25), 세이조 코훈사(물질시행 33) 등이 소개되었으며, 프로젝트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국제현상설계, 파리 일본문화회관 설계경기, 오즈마치현 청사 및 현민교류시설, 요코하마 국제 객선 터미널 등이 소개되었다.

▶에세이 및 강연

료지의 에세이 및 강연 내용의 소개로는 물질시행원론 1998「건축과 정물화」, 물질시행 34 갤러리 간 강연회「空地・空洞・空隙」1992, 思考실험으로서의「프로젝트」, 佐木島프로젝트와 영화 등이 게재되었다.



파리 문화회관 설계경기

■연재

야쓰카 하지메의 「알바 알토 - 행복한 건축가」제 4화와 고토우 다케시의 「현대건축의 컬트그래피」제 7화가 연재되었다.

a+u

1998년 11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주택12제이다. 빈센트 제임스, 데이빗 체퍼필드, 헤르조그 & 무론, 타다오 안도



등 10명의 작가의 주택작품 12점(데이빗 체퍼필드의 작품이 3점이다)이 소개되었다. 이들 작품 소개 외에 건축가들의 대답으로 '해외의 주택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6인의 일본 건축가가 말한다'가 소개되었다.

■특집 - 주택 12題

▶빈센트 제임스/쥘오지 하그리브스/제임스 카펜터 - 데이튼 저택

미네아 폴리스의 파크웨이와 링크 오브 더 아일랜드를 남서쪽으로 바라보는 대지이다. 호수를 품는 듯하게 세워진 집들은 대부분이 그 풍경을 놓치고 있으나, 이웃하



데이튼 저택

고 있는 주택들끼리는 상당히 근접해 있다. 역사적인 스타일을 지닌 분위기의 이 주택지속에서 데이튼 저택은 모던함으로 디자인되었다.

모던 아트에 대한 조예가 깊은 건축주는 그가 소유하는 미술품과 부지의 풍경 모두를 감상할 수 있는 집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모던 아트를 전시하는 긴소한 내부 공간에서부터 회화적인 변화가 있는 경관으로의, 즉 땅과 그림에의 연출을 전개하는 일련의 관계성이 탄생하였고,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작가는 이 집의 특징을 '잠망경으로서의 창', '가변식 루버 스크린'과 같은 말로 요약하고 있다.

▶데이비드 체퍼필드 - 독일의 주택



독일 저택

독일의 주택은 외측의 정원을 면하여 설계된 남향의 정원을 감싸는 듯한 형태로 세워졌다. 설계과정에서 방들의 구성을 고려할 때 내·외부의 공간적인 관계성을 명확히 하는 방편으로 재료의 선택이 정해졌으며, 재료의 재질감이 이 집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었다. 또한 현대 건축이 갖는 재질감의 중성화에 대한 비판으로 재료의 선택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예는 철제 창틀의 유리면과 수제품의 벽돌이 이루는 대조에서 잘 나타난다. 남측을 향한 중정을 감싸는 계획은 내부공간을 공간의 연속체로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3차원적인 구성을 갖는 내부공간은 서로 다른 높이의 천장고를 갖고 다양한 관계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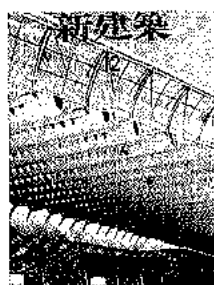
▶헤르조그 & 유론 - 루덴 저택

이 주택의 외관은 곡선적인 주택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실제로 곡선은 하나도 없다). 경사지붕, 커다란 굴뚝, 파사드면을 모두 개구부로 만들어 버릴 듯이 크게 뚫린 창과 같은 것들이 어린이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新建築

1998년 12월호

이번호의 작품 소개로는 키타가와라 아츠시 건축연구소의 빅 파레트 후쿠시마(후쿠시마현 산업교류관), 단 노리히코의 스프링즈 히요시, 나이토 히로시의 레스토랑 마까레나, 일본설계의 全町村會館 등 17개의 근작이 소개되었으며, 연재로는 전후모더니즘의 궤적 - 이소자키 아라타편 2 등이 게재되었다.



■작품

▶키타가와라 아츠시 건축연구소의 빅 파레트 후쿠시마(후쿠시마현 산업교류관)



빅 파레트 후쿠시마

이 건물은 키타가와라가 빅 파레트 후쿠시마의 현상설계에서 일등으로 당선되어 완성된 작품이다. 당선 당시 기술적인 시스템이 필요함을 느껴고는 있었으나 그 명확한 비전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키타

가와라는 오브 아랍 & 파트너즈(OAPJS)로부터 구조설계와 설비에 대해서 협력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은 후, 건축가와 기술자가 협력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로 기능하는 '빌딩 디자인'을 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일본과 런던의 사무소에서 동시에 진행된 작업에 의해 명확한 디자인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거대한 건물에서는 기술적인 해결이 건축과 건물의 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각 공간의 자유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주로 인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계의 결과로 다목적 홀, 거대한 엔터런스 캐노피와 동측의 캐노피, 보행자 데크와 같이 이 건물의 특징이 되면서 건축가의 상상력이 표현된 곳들이 실현 가능하였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다.

▶단 노리히코의 스프링즈 히요시

온천시설을 포함하는 건강 증진 시설과 레스토랑, 인포메이션 등 문화교류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스프링즈 히요시의 부지는 거대한 댐의 아래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설의 계획에서 먼저 계곡의 양단에 시설을 위치시키고 이들을 다리로 연결시키는 경관계획과 또 계곡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댐과의 조화가 가장 큰 테마가 되었다. 실질적인 다리로서 계곡 양쪽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한편, 거대한 막대기와 같은 건물의 두 매스를 계곡 양쪽에 위치시켜 시각적인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 두 매스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이 깊은 댐과 같은 형태와 그 옆에 붙은 타원형의 매스는 거대한 일직선을 이루는 댐, 그리고 원형의 부속시설과 형태와 규모면에서 좋은 대구를 이루고 있다.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건축과 토목의 경계'라고 요약하고 있다.



스프링즈 히요시

※ 번역: 강상훈, 전신영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11월)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6,797	2,722		631		509		216		217		236		122		795		153		168		164		179		100		220		300		65	
금 별	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회 원 수	6,772	25	2,717	5	630	1	509	215	1	217	0	234	2	122	0	790	5	153	0	167	1	161	3	176	3	98	2	218	2	300	0	65	0
회 원 변 동	입 회	4	0	1		2										1																	
	재 입 회	4	0	2																								1		1			
	전 입	12	0	3		1						2				2								2		1				1			
전 출	10	0			-1	-1	-2	-1							-2							-2								-1			
시 폐 업	31	0	14			-3	-2	-1		-1					-5						-1			-2						-2			
사 망	1	0																			-1												
등록취소	3	0																															
금월말 회원수	6,750	25	2,709	5	630	1	507	211	1	215	0	235	2	122	0	786	5	153	0	165	1	159	1	176	3	99	2	219	2	299	0	65	0
계	6,775	2,714		631		507		212		215		237		122		791		153		166		162		179		101		221		299		65	

98년도 회원변동사항(11월 누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구 분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업 회	484	0	151	27	23	11	33	27	9	84	16	17	18	14	9	22	15	8																
재 입 회	20	0	10			2		1	4							1	1																	
전 입	136	0	23	11		6	4		8	1	49	3	3	5	4	10	4	5																
소 계	640	0	184	0	38	0	23	0	17	0	39	0	35	0	11	0	137	0	19	0	20	0	23	0	18	0	19	0	27	0	21	0	9	0
계	640		184		38		23		17		39		35		11		137		19		20		23		18		19		27		21		9	
전 출	144	1	42	8		6	1	13	13		7		1	21	6		4	10			4	10				3		1		9				
폐 업	348	8	157	4	30		23		6		12	1	11	1	10		34	1	3		5	1	3		10		4		8		32			
사 망	16	0	4		1		1				1				2		2				1				1			1		1				
등록취소	4	0	4																															
소 계	512	9	207	4	39	0	30	1	19	0	26	1	18	1	11	0	57	1	11	0	10	1	13	0	11	0	7	0	10	0	42	0	1	0
계	521		211		39		31		19		27		19		11		58		11		11		13		11		7		10		42		1	
누 계	119		-27		-1		-8		-2		12		16		0		79		8		9		10		7		12		17		-21		8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11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1월분(97.11) 1천5만3천3백95㎡ 보다 78.0%(7백8십4만3천5백36㎡)감소한 2백2십만9천8백59㎡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1월분(97.1~11) 1억1천4십5만3천5백36㎡ 보다 58.4%(6천4백5십3만5백31㎡) 감소한 4천5백9십2만3천5㎡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0월분(98.10) 2백6십4만7천60㎡보다 16.5%(4십3만7천2백1㎡) 감소한 2백2십만9천8백59㎡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97년도	1998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대 전 66,202	94,160	27,958	42.2%
감소지역	서 울 4,972,141	1,071,582	(3,900,559)	-78.4%
	부 산 947,149	31,394	(915,755)	-96.7%
	대 구 448,187	92,835	(355,352)	-79.3%
	인 천 474,008	62,379	(411,629)	-86.8%
	광 주 568,066	47,757	(520,309)	-91.6%
	울 산 63,703	14,024	(49,679)	-78.0%
	경 기 899,350	340,598	(558,752)	-62.1%
	강 원 80,740	(41,104)	(121,844)	-150.9%
	충 북 331,881	118,376	(213,505)	-64.3%
	충 남 121,891	69,373	(52,518)	-43.1%
	전 북 175,133	95,769	(79,364)	-45.3%
	전 남 71,291	60,308	(10,983)	-15.4%
	경 북 221,284	65,138	(156,146)	-70.6%
	경 남 560,979	67,054	(493,925)	-88.0%
	제 주 51,390	20,216	(31,174)	-60.7%
합 계	10,053,395	2,209,859	(7,843,536)	-78.0%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단 독 주 택	76,439 (-3.7%)	73,607
다 세 대 주 택	22,734 (2.0%)	23,184
연 립 주 택	21,846 (-8.0%)	26,108
아 파 트	758,329 (-43.8%)	1,349,656
근린생활시설	282,884 (-7.6%)	261,423
종 교 시 설	29,033 (61.6%)	46,913
의 료 시 설	5,727 (435.0%)	30,637
교육연구시설	154,808 (40.4%)	217,406
업 무 시 설	76,039 (41.1%)	107,307
숙 박 시 설	26,410 (185.2%)	75,318
공 장	187,775 (6.6%)	200,135
기 타	413,709 (-4.4%)	395,492

연면적 합계/ 10월: 2,647,060㎡ (-16.5%)
11월: 2,209,859㎡

(연면적/단위: ㎡)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1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1,246	1,317	364,766	326	345	73,607	(920)	(972)	(291,159)	-79.8	
다 세 대 주 택	290	307	226,435	33	39	23,184	(257)	(268)	(203,251)	-89.8	
연 립 주 택	86	111	159,689	10	10	20,108	(76)	(101)	(139,581)	-87.4	
아 파 트	115	384	5,264,819	27	56	758,329	(88)	(328)	(4,506,490)	-85.6	
근린생활시설	1,995	2,087	981,600	884	1,632	261,423	(1,111)	(455)	(720,177)	-73.4	
종 교 시 설	86	96	94,139	49	53	46,913	(37)	(43)	(47,226)	-50.2	
의 료 시 설	14	15	87,319	6	6	30,637	(8)	(9)	(36,682)	-54.5	
교육연구시설	152	163	372,270	142	153	217,406	(10)	(10)	(154,864)	-41.6	
업 무 시 설	103	116	890,519	40	40	107,307	(63)	(76)	(783,212)	-88.0	
숙 박 시 설	118	123	143,143	25	26	75,318	(93)	(97)	(67,825)	-47.4	
공 장	486	635	497,053	249	288	200,135	(237)	(347)	(296,918)	-59.7	
기 타	911	1,085	991,643	460	538	395,492	(451)	(547)	(596,151)	-60.1	
합 계	5,602	6,439	10,053,395	2,251	3,186	2,209,859	(3,351)	(3,253)	7,843,536	-78.0	()=마이너스